

文鮮明先生말씀選集

307

文鮮明先生말씀編纂委員會

머 리 말

世界平和統一家庭聯合 會長 黃 善 祚

문선명 선생, 16세에 하늘로부터 인류 구원의 소명(召命)을 받으신 후 일생을 오직 일념으로 천도(天道)를 중심삼고 살아 오신 분! 선생은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버런 문에게 재산이 있다면 나를 위한 고생보다 공적으로 고생한 것, 그것밖에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더 고생하려고 했습니다. 섭리사적인 입장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고생하려고 하였습니다. …… 선생님은 지금까지 나라로부터, 세계로부터 술한 반대와 핍박을 받아 왔습니다. 미국에서 반대를 받았고, 기독교와 유대교, 공산당까지 반대를 하였습니다. 역사 이래 세계가 이렇게 달라 붙어서 한 사람을 없애 버리겠다고 공격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면에서도 세계적인 챔피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욕을 먹으면서도 옥살박살나지 않고 또 망해 버리지 않았습니다. 추호의 미동도 없이 더욱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 레버런 문은 인류를 해방하고, 영계를 해방하고, 지옥을 해방하고, 또 하나님을 해방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선집 제105집 101~103페이지 참조)

선생의 삶은 한마디로 규정하면 ‘고난 그 자체’입니다. 이 고난의 성격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선생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소망했던 그 재림주이며 구세주이고 인류의 참부모로 오셨습니다. 이미 세계 185개국에서 선생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참자녀의 길을 가기 위해 참가정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자기정체성(自己正體性)은 말씀과 삶을 통해 검증이 되어집니다. 그분에게는 세상에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신과 인간, 역사와 세계의 제 문제가 그분의 말씀 속에서 해명이 됩니다. 성서에 예언된 새 말씀의 약속은 그분 속에서 성취되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성’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선생의 말씀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해석’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 자체가 곧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 곧 성육(成肉)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곧 진리이며 ‘말씀’이라는 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독자께서는 선생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위대성을 이해하리라 확신합니다. 선생의 말씀의 경지는 너무 높고 깊어서 다 헤아릴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 선생은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啓示)해 주셨습니다. 즉, 침묵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인간이 악의 혈통을 갖고 있기에 자녀이되 자녀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통,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처절하게 소외되신 슬픈 하나님께서 선생은 ‘말씀하시게’ 하셨습니다. 교권과 교리, 그리고 현란하게 치장된 건물 속에 갇혀서 침묵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게’ 하였고, 인류의 부모이되 부모로서 찾아오지 못하신 하나님을 ‘부모되게’ 하셨기에 선생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체(啓示體)’이십니다.

둘째로, 선생은 인간을 무지와 혼돈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고력이 있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존재 자체도 다 해명하지 못한 비극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인간

은 독자적 존재가 아니고, 타자(他者)와 떼어 수 없는 상호의존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성을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선생은 궁극적 해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천도(天道)를 지키시는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본보기 노정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 넘치는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선생은 만물세계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 받은 모든 사물 하나하나는 고유한 가치를 가진 개성진리체(個性眞理體)입니다. 창조본연(創造本然)의 인간의 주관을 받음으로 그 가치가 완전히 발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만물은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말씀을 통해 만물세계에 대한 창조본연의 가치를 밝혀 주셨고, 인간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케 하여 만물 해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참부모로 오신 문 선생님 내외분은 오늘도 세계 만방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며,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을 쓰라’ ‘위하여 살라’는 가르침을 실체적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상속시키시기 위해 수고하십니다.

또한 선생께서는 생명의 말씀과 숭고한 삶 그리고 실적을 통해 마침내 새천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찾아 봉헌하시고, 이 땅에 축복가정왕으로 안착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세계인 천일국, 제4이스라엘국 곧 평화의 왕국을 향해 평화유엔을 창설하시고 세계를 하나의 심장권으로 묶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독자제위께서도 천일국의 주인이 되어 평화왕국 건설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

차 례

머리말	3
복귀 완료	9
사랑 세계의 왕자 왕녀	72
통일신학대학원 출신자의 사명	112
해방·통일권 세계의 도래	135
그는 누구인가	215
자르던 선언의 의의	264

복귀 완료

(아버지가 들려주신 사랑이야기-12 《삶과 사랑, 그리고 영혼의 세계》 제2장 ‘인간의 격위와 영생의 길’ 훈독 후에 말씀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못 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마음이 어떻게 몸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될 수 있는 그 기원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담 해와가 무지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 인류의 후손들은 아담 해와의 무지 이상의 자리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맺은 사랑 관계의 기준이 백 퍼센트 되어야

그 무지 이상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을 유린한 것이 뭐냐 하면 사탄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유린당한 그 차이만큼 우리 인간에게 요구할 수 있는 몫이, 그런 분량이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그 기준을 타락으로 무지에서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무지에서 남겨진 하나님의

1998년 11월 6일(金) 오전 6시 10분,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브라질 자르던).
* 이 말씀은 ‘제3차 세계평화와 이상가정을 위한 40일 특별수련회’ 때 하신 말씀임.

창조목적 분야를 완전히 어떻게 보충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 행로에 필연적인 요구가 된 것입니다.

절대적인 이 기준을 맞추지 않고는 하나님과 나와 사랑관계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없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생명의 기원이기 때문에, 참사랑의 생명의 기원을 연결시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날 무지에서 떨어진 인간의 생명을 중요시하고 인간의 생명권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무지 이상의 사랑권, 무지 이상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이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상 자기가 어떤 자리,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기준이 백이라 하면 오늘 살고 있는 내 인생 행로가 최고의 한때, 최고의 기쁘고 소망적인 기준에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 기준에 몇 퍼센트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양심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백 퍼센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미급하고 미완성된 이 자체가 나를 세워서 나는 백 퍼센트요, 천지의 나를 중심삼은 모든, 내가 요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사랑의 기반이 만 우주가 백 퍼센트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아 승리의 발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인간들이 살면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찾아가는 기점, 하나의 정착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참사랑 고개를 못 넘어가

오늘날 통일교인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계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지상이 어떻다는 것을 압니다. 근원적인 모든 것, 타락의 기원으로부터 역사적으로 현실세계에 이루어진 자체와 관계된 현상적 내 생활권이 어떻게 비교되어 나가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은 과거의 우리 조상들이 사는 세계를 그냥 무사히 통할 수 없습니다. 천년

전의 조상들, 혹은 만년 전의 조상들, 그것을 넘어서라도 백년 전의 조상들을 마음대로 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현실에 있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생활권 내를 보더라도, 남편과 아내의 입장에서 살고 있지만 남편이 아내의 기준을, 역사적인 소원의 기준을 통할 수 없습니다. 능가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되었으면 부부가 부모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적 기준에 섰다 하더라도 부모가 바라는 그 소망의 기준을 무사히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다 걸린다구요.

그러면 걸린 이 모든 것이 무슨 동기로 걸렸느냐? 돈이니 지식이니 권력 때문에 걸린 것이 아니요, 참사랑 때문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참사랑. 참사랑 때문에 이렇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참사랑을 찾기 전에는 걸리지 않고 해방될 수 있는 세계가 없다는 것은 이론적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모든 세계에 있어서 눈이 바라는 이상적 기준을 중심삼고 보게 될 때,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완전한 이상적 기준의 시야를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오관 전체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오관이 바라는 느낌의 기준 이상의 기준, 하나님과 이상적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될 수 있는 기준을 잃어버린 인간에 있어서는 하나될 때까지 영원히 부족하고 영원히 미완성한다는 것을 본성은 알기 때문에 인생 행로에서 고민하는 거라구요.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가정이 무엇이고 남편이 무엇이고 아내가 무엇이나 하는 문제 등 전부 넘어야 할 고개로 되어 있지, 나를 넘겨 줄 수 있는 환희의 터전이 못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체가 그렇고, 부부 자체가 그렇고, 자녀 자체가 그렇고, 그 가정 자체가 그렇고, 나라 자체가 그렇고, 세계 어디 가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또 종교권, 신앙세계를 들여다보아도 다 그 고개를 통과한 자리, 넘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다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 아니에요, 아침이. 햇빛이 비치는 아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끼고 당장에 폭우가 쏟아질 수 있는, 태풍이 불어올 수 있는 그러한 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태양의 위치를 알 수 없어요. 안 그래요? 태양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본연의 밝은 이상의 희망적인 우리 사랑의 본체인 태양을 발견 못 했기 때문에 그 사는 생활은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림자 가운데서 사는, 빛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구름을 집어치우고 태양을 정면으로 아침 햇살과 더불어 오정(午正)을 중심삼고 저녁까지, 그 다음에는 밤이 어떻다는 걸 알고, 또 밤을 돌아서 순환적인 입장에서 오게 되는 내일의 아침이 어떻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아무리 인간이 고심 하더라도 그 극복해 넘어가야 할 세계를 숙제로 남기고 사는 인간이니,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고택(苦海)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생활은 고택이다.' 하는 말도 총괄적인 면에서 보는 결론이에요.

그래,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본에서 이것이 왜 고장이 났느냐, 근본에서 무엇을 못 찾았기에 잘못되었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참사랑, 참사랑을 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던 참사랑의 백 퍼센트 기준을 향해 가는 인간이 도중에 있어서, 70퍼센트를 극복하고 30퍼센트를 남긴, 그러한 사랑 완결의 표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행로에서 이것을 보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랑을 중심삼은 해방의 길, 하나님의 사랑의 주체로서의 생활권까지 꼬집어들일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개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인간의 힘으로는 못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걸 알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 줬습니다. 구세주를 보내 주었다 이거예요.

참사랑으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오시는 구세주

구세주가 뭐냐 하면, 세상을 구하는 주인입니다. 세상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무엇으로 세상을 구해요? 힘 가지고, 정치의 힘 가지고, 지식 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로지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은 뭐냐 하면,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입하고,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은 것입니다. 투입하고 더 주고 싶고 영원히 더 주고 싶을 수 있는 깊고 높고 넓은 사랑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성을 잃고 혼란 된 입장이 아니에요. 상하전후좌우가 확실해요.

상하관계 부자지관계, 이게 확실하다구요. 그것이 원칙적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좌우관계인데, 좌우관계의 원칙적 모델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자녀관계의 원칙적 모델이 있어야 된다고요. 구형을 이루려면 그렇잖아요? 상하관계, 그 다음에 좌우관계, 전후관계가 있다구요.

그런데 좌우전후상하라는 말을 들으면 이상한 것이 있잖아요? 상하라는 말은 그냥 그대로 맞아요. 그렇지만 좌우는 왜 거꾸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상하관계는 부자지관계요, 좌우관계는 남자 여자, 동서관계입니다. 동서관계, 이것을 좌우라고 했다구요. 왜 우좌라고 하지 좌우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인간은 양심을 통해 직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계가 나타날 때 나쁘면 나쁜 표시를 해야 하고, 좋으면 좋은 표시를 해야 됩니다. 냄새를 내야 되는 거예요, 냄새. 찍으면 찍은 냄새가 나고 그릇되면 그릇된 냄새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고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우좌가 돼야 할 텐데 좌우가 된 거라구요. 이게 부부관계예요.

거꾸로 되었다 이거예요. 부부관계를 갖고 지금 사는 생활은 완전히 사랑을 중심삼고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사랑을 중심삼은 그 결과가 저 영계에 가서 머물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라구요. 이걸 180도 전환해서 우좌로 만들어야 돼요, 우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전후관계인 자녀도 맞아요, 자녀도. 자녀도 맞습니다. 자녀도 맞는데 요거 거꾸로 된 것이 우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거꾸로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거꾸로 되었느냐? 천리 대도의 원칙인 참사랑의 도리를 뒤집어 버렸다 이거예요. 이걸 바로 뒤집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사탄이 하나님 대신 들어왔으니까 180도 사탄을 타도해 버리고 180도 돌아가서 참된 남자, 참된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지은 아들과 딸을 잃어버린 하나님

이 세상 만사에 복잡한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게 없습니다. 두 사람 문제예요, 두 사람. 무슨 문제냐? 사랑을 중심삼고 영클어진 두 사람 문제입니다. 그 두 사람, 남자 여자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모델 기준의 행로와 방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위로 가도 혼란이요, 앞으로 가도 걸리고, 좌로 가도 걸리고, 내려가도 걸리고, 상하 전후 전부다, 180도 방향 전체를 향해 가더라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문제가 뭐예요? 돈 문제가 아니예요. 무슨 지식 문제가 아니요, 권력 문제가 아니예요. 사랑하는 아내 대해서 지식으로, 설득으로 살아요? 권력으로 해요? 그 다음에 돈 가지고 사랑을 주고 팔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참사랑, 사랑 문제라는 거예요.

눈을 보게 되면 이 눈이 왜 둘이냐? 코도 둘이고, 입술도 둘이고,

귀도 들이고, 손도 들인데, 왜 들이예요? 그것은 혼자 존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왜 태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예요. 남자가 태어나기를 왜 남자로 태어났느냐? 남자, 나 때문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라구요. 남자가 갖고 있는 생식기의 주인은 남자가 아닙니다. 이걸 몰랐어요. 여자의 생식기의 주인은 여자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기관이 사랑의 기관입니다. 이 사랑의 기관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출발점을 갖춘 것이 우주 파괴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뒤집어야 됩니다.

인간 나는 누구를 위해 태어났느냐 하면, 남자 자기가 왜 태어났느냐 하면 여자 때문에 태어난 거라구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자들, 남자들 누구 때문에 태어났다고요?

너는 누구 때문에 태어났어? 요 조그만 남자는 누구 때문에 태어났어? 너 누구 때문에 태어났어? 여자 때문에 태어났어, 남자 때문에 태어났어? 미친 간나 아니고는 자기 때문에 태어났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간나는 미쳐도 유만부동이라구요. 미쳐도 어디 가도 미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자기 존재를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 때문에 태어났다고 하는 여자가 무엇에 필요해요? 오목이 무엇 때문에 태어났어요? 볼록 때문에 태어났다고요. 볼록이 무엇 때문에 태어났어요? 이놈의 남자 녀석들, 달고 있는 그것이 자기 것같이 생각해서 마음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것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고요. 절대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 주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밖에 없어요.

그걸 아무나 가질 수 있으면 에덴동산에 하나님은 오목 볼록을 백 사람도 만들고 천 사람도 만들지, 왜 단 둘이 만들어요? 영원히 단 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해와는 천만 대의 독자 독녀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영원한 독자 독녀예요.

동네에서 7대 독자로 태어난 그 독자가 죽었다 하면 마을과 그 군, 나라까지도 전부 동정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할 때, 하나밖에 없는 억만 대의 독자 독녀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구요. 슬퍼하겠어요, 안 슬퍼하겠어요? 7대 독자가 죽으면 마을 전체가 슬퍼할 정도라면, 영원한 하나님, 대 창조주 되는 하나님의 독자 독녀가 죽었을 때, 한꺼번에 죽었다 할 때는 온 우주가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가 슬퍼한다고 슬퍼하겠어요? 하나님 본체가 그보다 더 슬퍼할 수 있는 영원한 슬픔의 구덩이에 빠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아담 해와, 인간 자체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들딸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누가 해방해 줄 것이냐

그러면 해방을 누가 해주느냐? 그러한 불쌍한 부모의 자리, 독자를 잃은 부모의 서러움을 느끼는 그 환경을 누가 해방하느냐? 그 죽었던 아들딸이 살아야 됩니다. 그 아들딸이 살아나 가지고 죽기 전보다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해서 효도하고, 그가 커 가지고 나라를 대해서 충신이 되고, 세계를 대해서 성인이 되고, 성자가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가진 모든 귀한 것을 상속받기를 바라는 것이 본연의 부모의 심정이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아들딸을 다시 찾아 가지고 지금까지 죽기 전에 준비했던 것보다 몇 십 배, 몇 백 배 더 귀한 것을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이 영원한 독자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활한 독자에 대해서 죽기 전보다 몇 천만 배 더 창조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죽었던 아들의 이상의 가치를 지녀 가지고 하나님의 밑창의 마음으로부터 쌓인 환경적 여건을 전부 다 제거 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자리의 해방을 받기 원하니, 내가 그 마음을 심정적 기준에서 해방하고 위로할 수 있는 효자요 충신이요 성인이요 성자가 된다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아들딸을 대해서 아담 해와를 위해 창조했던 우주의 몇 백 배 큰 것도 만들어 줄 수 있는 마음이 계시다 하는 논리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럴 수 있는 해원 성사의 인간 대표, 한 남자 여자가 태어났다 할 때는, 그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한을 풀어 주고 창조이상적 모든 것도 자유 활동할 수 있는 해방권을 만들어 줬다 할 때는 그 아들딸을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고생했느냐, 나보다 더 고생했겠다 하는 거라구요.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고생했겠다면서 '네 소원이 뭐냐?'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소원이 없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은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태양계의 일천억 배라구요, 일천억 배. 태양계의 천 배라고 해도 야단하는데, 일천억 배나 되는 이런 무한광대한 대우주를 순식간에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관리도 못 하고 주관도 못 하게 지었겠어요? 참사랑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참사랑의 주인인 하나님이 모든 전체를 상대를 위해 지었으면 그 상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왔다갔다해야 되겠어요, 못 해야 되겠어요? 그건 이론적으로 볼 때 왔다갔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왔다갔다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십리 길을 가는데도 걸어가면 얼마나 많이 걸려요? 사랑하는 상대가 있으면 십리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요? 훌쩍 날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대가 있게 되면, 모든 극과 극의 자리에 있더라도 순식간에 보고 싶고 느끼고 싶고 말하고 싶은 그 감정이 순간권 내에

모든 것을 동화해 가지고 하나될 수 있기를,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도 그런 것을 원한다 할진대 본연의 하나님은 어떠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아들이 살아나 가지고 모든 근본을 해소시키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만 우주를 해방해 줄 수 있게 되었다 하면 그 아들을 대해서 하나님이 ‘너 뭘 원하니?’ 하고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너는 나보다 더 수고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해방하려니 더 수고를 했겠어요, 덜 수고를 했겠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수고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섰으면 왜 이걸 해결 못 했느냐 이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끄러뜨린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것으로 지었는데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으니 전부 다 다시 그 자체가 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리. 수리해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요.

블루 프린트(blue print; 청사진)에 의해서 기계를 만들었는데, 만든 그 자체가 고장나게 될 때는 공장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거쳐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도 ‘야 이놈의 기계야! 왜 고장났어? 당장에 고장나지 않은 자리에 돌아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공장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재창조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거예요.

재창조를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었다면 벌써 순식간에 복귀했다구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왜 복귀를 못 했느냐?

타락으로 부정해야 할 환경

누가 이걸 고장나게 했느냐 하면,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이라고요. 그래, ‘아! 답이 생겼다.’ 해서 아담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아담이 뭐라

구요? 「아! 담이 생겼다!」 아! 담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해와가 뭐예요? ‘일을 해서 다 해방해 가지고 와!’ 해서 해와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한국말은 계시적이다 이겁니다. 아! 담! 해봐, 남자 녀석들! 「아! 담!」 이놈의 자식들, 이놈의 남자들! 한 대 때려서 용서해 준다면 한 대 더 때려도 된다는 거예요. 백 대, 천 대, 몇 천 대를 때려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때려?’ 하고 손을 잡으면 해방은 없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고해의 자리에서 억천만 세에 걸쳐 탄식의 생사지권을 걸고 가려가기에 지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고 고생을 시키면 죽을 자리를 몇 번 더 찾아 들어가고 더 깊은 주류를 찾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그 고비를 바라 가지고 완전히 부정해야 됩니다. 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식까지 전부 다 허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가짜예요. 있어서는 안 되고 필요한 상대로 느꼈던 내 자신이 얼마나 분하나? 완전히 부정해야 됩니다.

참된 종교는 어떤 종교냐? 절대 부정권 내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출가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고 우주관이고, 지금까지의 인간이 조작한 모든 신관을 가지고도 안 된다 이거예요. 국가 형태도 안 된다 이거예요. 가정도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를 부정하고,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전부 부정할 수 있는 최고의 세계가 찾아온다는 거라구요. 내가 부정 안 해도 그런 시대가 와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민주세계 공산세계를 중심삼은 자기 위주의 주의를 중심삼고 세계를 통일해 가지고 주도적인 중심이 되겠다고 했던 것이 다 깨져 나갔어요. 공산당도 깨져 나갔고, 민주세계의 중심 국가인 미국도 지금 에이즈 왕국이 되었다구요. 망하지 말래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망하느냐 하면, 가정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 요즘에는 뭐가 나왔느냐? 호모들이 나와 가지고 남자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미국 같은 것은 1세기에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해 가지고 어떻게 역사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있으니, 인류 멸망의 대도를 펴기 위한 악마의 궤도를 달리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는 거라구요. 끝장났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미국 사람에게 세계관이 있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대한 무엇이 있어요? 없대구요. 자기 집에 대한 관도 없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 필요 없다, 할머니 필요 없다, 이거 전부 다 흑과 같은 불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들이 좋아서 나를 낳아 놓았지 내가 원해서 낳았느냐 이거예요. 좋아해서 낳아 놓았으면 먹여 살려야 되고, 아들딸이 나빠지면 그걸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뒤집어씌우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말이에요, 미국을 따라가겠다고 하면 날이 갈수록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미국 젊은 청년들은 우리나라에 오지 말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바람둥이들, 색마들이 와 가지고 거리에 사창가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라구요. 거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의 사창가를 만들어 놓았대구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파괴됐대구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필요 없다고 하고, 부모도 필요 없다고 하고, 남자가 여자 필요 없다고 하고 여자가 남자 필요 없다고 하고, 아들딸이 부모 필요 없다고 하고 부모가 아들딸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제일주의 때문에 8단계의 담이 쌓여 있게 되었다

미국을 가 보게 된다면, 1년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아 들팔을 낳아서 버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매일같이 프리 섹스 하니 말이에요, 나쁜 놈 좋은 놈 할 것 없이, 자기들 아는 거와 같이 마피아 같은 사람들도 프리 섹스를 하는데 반대했다가는 죽는다구요.

이러니까 열 사람, 백 사람 관계를 맺다 보니, 좋을 수 있는 사람이 면 전부 다 관계를 맺어 하루에 열 사람까지 상대하고, 그렇게 백 번, 천 번 사랑한 후에 낳은 자식이니 누구 아들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태어난 그 아들이 원수와 마피아의 핏줄을 타고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만 해도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 낳자마자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인간 파탄, 창조이상 전멸의 환경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인간상이 악마지 뭐예요? '악마' 해봐요. 「악마!」 악마 아니예요, 악마예요? 「악마입니다.」 악마들 틀거리를 써 가지고 천국의 왕과 같이 이래 가지고 개인주의 왕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개인주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삼은 개인 왕권 이상 권을 전부 파탄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이 세계화될 수 있는 기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를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완전히 깨뜨려 놓았어요. 지금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똘! 침을 뱉어 버려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분하고 원통한 사실 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정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역사가 나를 부정할 수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알겠어요? 에덴동산에서 타락한 그 모든 혈통적인 것을 완전히 절대 부정하고 돌아설 수 있었으면, 아담 가정에서 복귀역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입장에서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였어요. 안 그래요?
자기 중심삼은 권한을 중요시했다는 거라구요.

부모를 무시하고, 동생을 무시하고, 가정을 무시하고, 환경 여건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 자기 제일주의를 중심삼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 되지 않는 모든 전부는 원수시하고 파탄시키고 제거해야 된다는 입장에 섰기 때문에, 동생이 심정 기준에서 어머니를 대할 수 있는 길 앞에 방해가 되고 말이예요, 생활무대에서 언제나 거리낌이 되니 ‘요놈의 자식! 사랑 생활에서 원수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겠으니 제거해 버려야겠다.’ 해 가지고 죽인 거라구요.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제일주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원을 가진 역사를 뒤집어 박으려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생을 자기 이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웃 사랑을 네 몸과 같이 하라.’ 했습니다. 이웃이 뭐예요? 제일 이웃은 같은 쌍둥이가 아니냐 이거예요. 쌍둥이 아들딸 아니예요? 그것이 형제입니다. 형제를 사랑 못 해서 천지를 망쳤다 이거예요. 이게 필연적 조건입니다.

그것이 가정적으로만 맺혀진 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연장돼 가지고 종족적 담, 민족적 담, 국가적 담, 세계적 담, 하늘땅의 담, 지옥과 천국의 담으로 짝 막혀 있다 이거예요.

8단계의 담을 무너뜨리려면

이걸 무엇으로 무너뜨리느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참사랑과 거짓 사랑에 있어서 참사랑권의 가정에서 세계를 먼저 가야 되니 이것을 헐기 위해서는 뿔박을 받아야 됩니다. 담을 남긴 것을 헐기 위

한 이상의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의 생사지권을 걸고 그 담이 세워졌으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중심삼고 살기 위해서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기 생명의 가치 이상의, 70도면 70도만큼의 모든 전부를 내가 청산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있어서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가 지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넘어설 수 있으려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개인만이 희생하지 않아요. 개인 고개를 넘고 가정이 남아 있으면 가정 고개를 넘고, 종족·민족·국가·세계까지 가면 갈수록 큰 담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몽땅 타고 넘어갈 수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아담·해와를 중심삼고 개인에서 담이 되어 가지고 가정에서 담이 되고, 국가·세계 이렇게 담이 되어 가지고 하늘과 땅이 영영 만날 수 없고 대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서 구름에 싸이고 안개에 싸여 있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아는 하나님은, 사탄은 망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역사 속에서 편성해 나왔지만, 하나님은 흥하게 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역사의 담을 중심삼고 어느 누가 이 백주에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종교를 중간에 연결하지만 종교 자체도 출발 기원이 미분명해요. 목적이 미분명합니다. 말세 이후에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몰라요. 출발이 불확실하니 과정도 불확실하고 결과도 불확실합니다. 알겠어요?

그걸 확실히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탄도 아담 이상의 자리를 몰라요. 아담 이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타락한 권내 이상, 그 이후에 대한 30퍼센트 기준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된다면 사탄을 굴복시키는 것은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 통일교회가 가르쳐 주는 것은 사탄세계의 타락할 때의 70퍼센트 사랑 기준이 아니라구요. 백 퍼센트 기준, 타락 이후 복귀해 가지고 하나님까지 해방할 수 있는 내용의 심정세계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사탄은 이 세계를 따라올 수도 없고 그 뒤아진 터전을 유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이론적이라구요.

오늘날 20세기 문명의 과학은 공식 발달 위에 서 있다 이거예요, 공식. 아시겠어요? 컴퓨터 같은 것이 공식 기준을 중심삼은 십진법의 배가, 몇천 배까지 가늠할 수 있는 측정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주의 모든 답을 할 수 있는 거라구요. 공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공식은 단위를 통해야 되는데, 인간 생활에 있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공식 기반이 뭐예요? 그게 부부예요, 부부. 부부라구요. 남자라는 동물과 여자라는 동물 둘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보물이 있는 금고를 여는 키를 투쟁해서 찾았다

남자 여자가 누구예요? (웃음) 어디 갔어? 남편네 어디 갔어? 「8일에 옵니다.」 왜 8일에 와? 같이 오게 되어 있지. 타락한 걸 복귀하는데 있어서 여편네가 앞서고 남편네는 뒤떨어지게 되어 있어? 같이 복귀해야지. 같이 와서 다시 교육받아야 돼. 네 사람, 사위기대가 와야 된다구.

아담 가정이 사위기대를 완성 못 했어요. 사위기대 알지요? 뭐 그거 전부 다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세밀히 인간 구조로부터 그 내용을 중심삼고 전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앉아 가지고 만든 원리가 아니라구요. 싸워서, 투쟁해 가지고 사탄세계에서 빼앗아 온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한테 일대일 공격해 가지고 하나님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부정했으니 하나님 앞에 아담 이상의 자리에서 시험
쳐 가지고 합격해야 됩니다. 절대 문총재가 가는 데 하나님이 가르쳐
줄 수 없대구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숨겨놓은 보물, 금고를 찾아오고 그 키를 찾
아와야 됩니다. 키가 뭐냐? 참사랑이에요. 알겠어요?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키가 무엇이나? 그 키가 둘이 아니에요. 몇이예요? 「하나입니
다.」 영원히 하나라야 됩니다. 무슨 키라구요? 사랑의 키인데, 하나님
이 알고 있는 사랑의 키는 대상적 기준을 중심삼고 몇천 개, 몇만 개
라도 만들 수 있다! 노멘, 아멘? 「아멘.」 알긴 아누만, 이 쌍것들!

선생님 앞에 욕먹는 게 복인 줄 알라구요. 빛을 얼마나 졌어요? 손
발의 빛, 눈 빛, 모든 세포의 빛, 전체 인격의 빛, 이상적 빛, 전부 빛
졌다는 거예요. 구름이 있는데 이걸 못 넘어가요. 구름을 헤쳐 주고 쳐
버려야지. 그러니까 욕을 하게 되고 때리고 싶고 말이에요, 밟고 싶고
그런 거라구요. 잘못된 건 탕감해야지요. 탕감이 아니고는 못 넘어가는
거예요. 떨어졌으면 떨어진 것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날아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놓든가 줄을 달아 놓든가 해서 올라가는
것이 탕감이에요.

떨어진 것은 틀림없대구요. 얼마나 떨어졌느냐? 지옥 밑창에 떨어졌
는데, 지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 가지고 어떻게 올라가요? 천국
에서 떨어졌는데 천국이 어떤지 모르고 어떻게 올라가요? 믿고 올라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미쳤지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수고하지 않고 몽땅
무슨 복 받는 이론은 없는 거라구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는 시간이
없어요.

한국의 장손 법은 하늘의 법

오늘로써 여러분하고 작별이에요. 왜? 여기서 내가 살겠어요? 오늘

까지 하면 수련 과정에 있어서 예언서의 내용에 나타난 《그는 누구인가》를 알 거예요. 거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천년 이상의 한국 역사 가운데 구세주, 하나님의 독생자, 독자, 장자가 온다는 것을 예언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땅의 역사 과정에서 단일민족으로서 역사와 더불어 고생하고, 긴 역사와 더불어... 7천년 역사를 말해요. 그런 오랜 역사의 전통 내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엮어져 왔다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이 세계를 버리더라도 한민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참 독특해요. 족보가 있고 말이에요, 장손이 있다구요, 장손. 그렇잖아요? 그거 하늘 법이에요, 하늘 법. 하늘 법이라고요.

장손 법이 하늘 법입니다. 할아버지라도 장손 앞에서는 굴복하고, 전부 다 성묘를 가게 되면 장손을 세우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도, 물론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하지만 말이에요, 아버지가 없게 되면, 장손이 있으면 아버지 대신 장손을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종조부가 있고 삼촌이 있더라도 안 세우는 거예요. 이런 장손 법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법을 중심삼아 가지고 삼년상을 지내는데, 옛날에는 부모의 뼈 살이 녹아 없어질 때까지는 말이에요, 부모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뼈에서 나왔고 살에서 나왔으니 그렇다 이거예요. 이 살이 육신이에요. 거기에서 인간이 되었으니 살이 다 녹아날 때까지는 같이 있어야 된다고 본 거라고요. 그런 아들딸의 도리를 지켰습니다. 삼년상을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지냈다는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가 죽어서 묻힌 그런 무덤이 있다고 한다면 제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아담의 결혼식 날을 기념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담 결혼식 날을 알아요? 아담 출생일을 알아요? 아담 죽은 날을 알아요? 없어요. 생사회복

(生死禍福)의 기원을 중심삼고 문화가 창조되는데, 출발적 부모의 태어난 날과 기쁜 축복의 날, 부부의 사랑을 중심삼은 역사를 남기고 죽은 결혼의 기념일이 없다는 거라구요.

그러니 아담 해와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불신했다는 이런 역사의 출발을 이런 의미에서 추리해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는 끝이 없구요.

여러분은 태어난 날이 있어요? 난 날 있어요? 「예,」 그 태어난 날이 하나님 기억하는 날이에요, 기억하기 싫어하는 날이에요? 이건 사탄이 기억하는 날이에요. 결혼도 사탄이 해준 결혼이에요.

여러분이 축복받을 때 하나님도 기억하고 사탄도 기억했겠나요, 안했겠나요? ‘저놈의 간나 자식, 참부모 앞에 축복받누만!’ 하고 기억했겠어요, 안했겠어요? ‘조건만 걸리면 왈카닥 네 발이 끊어지고 모가지가 떨어져도 몰라.’ 그랬다는 거예요.

선조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 콧물 입물(침)의 3수를 흘려야

그래, 뜻에 맞게끔 살았어요? 너는 그렇게 살았어, 못 살았어? 못 살았어? 못 산 녀석이 여기 왜 왔어? 회개를 해야 된다고, 회개.

말씀을 듣게 되면 뺨골이 우는 자리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과 콧물과 입물이 3수(水)가 되어 가지고 흘러서 오목 볼록 끝에서부터 흐르고 발끝까지 흘러 나가지 않고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사고를 저질러 죄를 지었으니 눈으로부터 코, 입에서 눈물 콧물 입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는 심정의 물을 흘려 가지고 그 죄를 전부 다 씻어 버려야 됩니다. 배꼽을 지나 가지고 오목 볼록을 다 지나고 발끝까지 흘러 가지고 거기에서 그 물이 고인 것을 하나님이 볼 때, 제사 물로써 탕감할 수 있는, 동서사방으로 물방울을 뿌리고 안

개를 만들어서 뿌려놓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정당한 작업 위에 내가 세워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보게 되면, 제멋대로예요. 똥개 새끼들같이 말이에요. 시궁창 물은 깨끗해요. 돼지 소가 떠내려가는 그런 더러운 물이라고요. 인간의 4분지 3은 물 아니예요? 물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물이 깨끗한 물이냐? 타락의 조상으로부터 더러운 것이 다 건더기로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랑을 중심삼고 여과장치를 통과한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거르고 거르고 있는 거라고요.

수천년 동안 선조들의 죄, 감투를 써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여과기를 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통할 수 없고,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적으로 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상의 뭐라고 할까, 결실체가 자기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런 자각에서부터 하늘의 새 미래의 천국에 갈 수 있지, 그런 자각한 이후에야 천국 갈 수 있지 그 전에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려는 선생님의 고심이 얼마나 컸고 말이에요, 참부모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여러분은 몰라요. 이제는 다 끝났어요.

물과 육지가 더럽혀진 것을 복귀하는 기도를 했다

어저께 전부 다 들어가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물을 직접 주관해야 돼요. 물과 육지, 판타날과 자르딘을 중심삼고 그와 같은 기도를 물 중심삼고...

벨지도가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이 육지와 산골짜기에 흘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로브라 같은 데도 전부 다 물이에요. 그게 다 다른 물입니다. 이런 모든 물과 육지의 더럽혀진 것, 높은 데 물과 낮은 데 물을

더럽힌 것을 전부 엮어 가지고 참부모의 품에 품어 통일적인 기준에서 축복받은 가정 3차 수련의 20일을 넘긴 그 기간을 맞춰 가지고 뒤집어 박는 거예요. 뒤집어 박는 거예요. 그런 놀음을 하고 다니느라 바쁘다구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여기는 물과 육지지요? 물과 육지예요. 물이 많아요, 몸뚱이가 많아요? 물이 4분지 3이에요. 선생님이 40년 복귀역사에서 20여 년, 30여 년 이상을 물과 더불어 배를 만들어 가지고 타는 놀음을 했습니다. 물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더럽힌 인류 역사의 피살을 어떻게 말리느냐? 조건적이지만 물 자체가 선생님을 알아보고 더러운 물이 아닌 깨끗한 물이라고 만세 할 수 있는 그런 미란다 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럽지요? 미란다 강하고 플라타 강이 합수(合水)가 되어 있어요, 합수.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바다에서 눈물을 흘리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판타날에 와서 교육받고 고기 160마리 잡을래요? 국가 메시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가정은 전부 160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거 연결하는 거예요. 16수예요. 유엔군도 16수, 사 사 십 육($4 \times 4 = 16$)의 4수예요. 왜 네 종류를 중심삼고 160마리를 잡으라고 하느냐? 원래는 180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180보다 160을 다 원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탄 수 가운데 사 사 십육, 16수나 사탄 수 6수를 중심하고 소생·장성·완성의 3수를 곱한 18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해도 1800쌍을 했지 1600쌍 축복은 안 해줬어요. 그 다음에 2000쌍인데 21수를 했고, 그 다음에 2700쌍이에요. 서양에서 2000쌍이 아니고 2700쌍을 했던 거예요. 그걸 중심삼고 넘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귀일수 10수입니다. 귀일수로 들어오니 축복 세계화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축복 세계화 시대. 소생의 3만쌍, 장성의 36만쌍, 완성의 360만쌍 고개를 넘는 거예요. 고개를 넘어 가지고 여기서 평지를 만들어야 할 텐데, 이게 평지가 안 됩니다.

축복 세계화로 타락 세계를 평지로 만들어 해방해야

평지를 안 만들면 사탄세계, 타락한 세계를 해방할 수 없어요. 이것이 평지에 돌아와 가지고 좌우가 갈라진 것을, 전부가 원수가 되고 성인이 되어 있는 것을 6월 13일에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지상 위의 3억 6천만쌍을 중심삼고 지상 착지가 가능하다는 선포를 한 것입니다. 제1차가 중요해요. 그때에 소생급, 장성급을 넘어 가지고 완성시대에 들어 가니만큼, 완성권 세계시대의 가정 판도를 결정하고 넘어서니만큼 사탄세계의 국가 기준 판도와 타락의 핏줄이 관계를 못 맺습니다. 완전히 단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세계의 흉악범, 살인마들하고 성인들을 같이 축복해 준 거예요. 그게 본래 쌍둥이라는 겁니다. 가인 아벨 쌍둥이로 있는데, 그것을 복중에서부터 사랑하고, 나면서부터 사랑하고, 죽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동산의 창조본연의 심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기준의 조건을 갖추지 않고는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성인들 앞에도 뽀박받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성인인 기독교, 유교, 불교의 대표로부터 제일 심한 뽀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인물이 잘났다 하더라도 동생 되는 이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탕감하기 위해서 이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사탄세계의 악마들이 전부 다 얼마나 기독교를 죽여 나왔어요? 종교권을 무시해 가지고 뽀박해 나왔고, 세계적으로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죄인이예요.

그렇지만 같은 자리에서 부모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둘이 원수라구요. 그렇지요? 또 부모 앞에 이 자식들이 원수입니다. 원수권이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선생님의 생애를 중심삼고... 선생님이 얼마나

불같은 성격이에요?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요. 잠을 못 잤어요, 어릴 때도. 그런 성격이지만, 하나님은 선생님보다 더 불같은 성격일 것이다 이거예요. 극단적인 성격, 일시에 에덴동산을 완전히 살라 버리고 뒤집어 박을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참았느냐 이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선생님이 참아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다시 찾아야 할 하나님은 그 억울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억울한 것의 몇 천만 배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니,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억울한 고개를 억천만 개도 무난히 넘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이론적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아 나왔고,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레버런 문도 지금까지 참아 나왔지 그렇지 않으면 복수의, 복수의 복수를 벌써 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자 남자를 전부 각을 떠 가지고 피를 보고 살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참부모가 그럴 수 없습니다. 참부모는 사랑으로 소화해야 됩니다. 전부 다 원수를 품고 죽은 아들딸을 살려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시킨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활했지 권위로 말미암아 부활하지 않았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몸 마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품고 부활시켜야 할 책임이 있으니, 그 모든 원수들을 밟고 올라서 가지고 그들이 자연굴복하고 해방의 대왕이라고 전부 다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서 이들을 섞어 가지고 부활시키더라도 사탄세계가 참소 못 하는 거예요. 지옥이 참소 못 하고 천국이 참소 못 하고 하나님이 참소 못 하는 거예요.

그런 평화의 공동 기준을 전부 다 축복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승리의 패권을 세계를 향하여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정적 참사랑 해방시대로 찾아온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예.」 선생님이 말을 빨리 하지만 선생님 말은 틀림없어요. 전문가니까. 수학자가 수학을 푸는 거와

같이 딱딱 맞는다고요. 글을 써 보라고요. 전부 다 맞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똑똑히 정신차려서 들어야겠어요. 알겠어요, 여자들? 바람잡이 여자들!

참부모와 떨어지지 않는 끈을 매서 따라와라

너희들, 부부야? 「예,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사리가 밝아 가지고 남자한테 충고할 때가 많겠구만. 잘 들어? 물어 보잖아, 쌍거야? 잘 듣나 말이야. 「그렇습니다.」 많이 충고하지? 「예.」 잘 들으라구.

선생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사랑의 조건, 표준을 전부 다 선언한 거예요. 자르던 제1차 선언이 뭐라고? 한번 해봐요. 「절대 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입니다.」 그것을 내가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절대신앙을 가지고, 절대사랑과 절대복종을 가지고 창조했던 것을 다시 그 표어를 세워 가지고 선언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이상적 실체를 다시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것이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승리권에 여러분을 참석시킬 수 있는 자르던 선언이 나온 거예요. 사탄세계의 참소 조건을 넘어서 가지고 여러분이 부모와 딱 붙어 가지고 가게 되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 대신 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국에 가는 비행기를 탄다 하게 되면 그 비행기에, 등골에 붙어 있는 파리새끼가 되게 된다면 말이에요, 뉴욕서 한국에 가요, 못가요? 중간에 자기 멋대로 들락날락하다가 거기서 문이 열려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유행동을 하다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딱 달라붙어라 이거예요. 딱 달라붙어서 빼와 같고 살과 같이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가는 데 갈 수 있는 끈이 생긴다는 겁니다, 끈이. 나일론 끈이 생긴다 이거예요.

남시질을 할 때 쓰는 나일론 가는 줄이 말이에요... 요즈음에는 나일론 줄이 나오기 때문에 고기들은 그게 원수라구요. 그놈의 줄이 왜 나왔노? 그 조그만 가는 줄에 2백 파운드 되는 고기가 물기만 하면 부들부들 떨리면서도 고놈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그놈을 끌어내고도 남거든. 알겠어요? 「예.」 그런 나일론 줄보다 사랑의 줄이 더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강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줄에 닿으면 그 줄이 천리만리 선생님이 어디 가더라도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줄은 사탄이 못 끊습니다. 못 끊는 한 영원한 영계에 가서도 그 줄만 따라가게 된다면 수억만 년 걸리는 것을 일년 내에 자기가 정성만 들이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줄이 절대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 않다! 「하다!」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끊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이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선생님을 만나 가지고 아무 년도에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야 될 것이고, 선생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인연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선생님을 사랑해요? 「예.」 어디, 진짜 사랑해요? 「예.」 진짜 사랑한다고 하지만 점수로 보면 10점 짜리도 있고 빵점 짜리도 많아요.

빵점을 맞았더라도 학교의 모든 행동적인 면에서 좋고, 학과에서는 낙제하더라도 도의적인 면에서 모든 것이 낮게 될 때는 교직원들이 숙의를 해서 ‘이 사람을 일등으로 졸업장을 줘야 되겠소. 우리 학교에 미친 영향, 도의적인 풍토 환경을 만든 제일의 책임자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좋은 학점 받은 학생보다 못하더라도 이런 환경적 여건을 만들어서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잘나지 못했더라도 고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부모를 위해서 고생하는 효자가 되고,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는 충신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전부 다 밥 잘

먹고, 잘 놀고, 돈 잘 쓰고, 잘 살라고 했어요, 고생하라고 그랬어요?
「고생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생이 뭐예요, 고생이? 고생은 위하는 결과를 찾자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그걸 찾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상의 위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게 되면 하나님까지도 거기 와서 무릎을 꿇고 찬양합니다. 그것이 해방적 원칙이요, 해방 조건을 가질 수 있는 탕감조건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러분을 될 수 있는 대로 지옥 밑창에 거꾸로 처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모든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천국까지 올라가게 할 뿐 아니라, 그 사다리를 만들면서 구덩이를 메우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얼마나 고생해야 되겠어요? 떨어진 그 길을 나오기도 수고로운데, 내 피와 살을 뿌려 가지고 구덩이가 파져 있는 것을 헐어 가지고, 아래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메워서 전부 다 평지로 만들라고 하니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죽어도 못 하겠다고 하면, ‘이 쌍간나 자식! 해야 돼!’ 하고 몽둥이로 후려 패 가지고 올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한 발짝 아래를 파 가지고 메우고, 한 발짝 또 아래를 파 가지고 메워 가지고 전부 다 평지를 만들었다 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너는 나보다 낫다.’ 하는 거라구요. 그 사람이 여자라도 말이에요.

여자가 뭐예요? 거꾸로 하면 ‘자여’라구요. 남자가 있으면 ‘자여, 받으십시오. 잡시다, 잡시다.’ 하는 말이 된다고요. ‘잡시다.’ 하고 자는 행동을 여자가 먼저 해서 타락했다구요.

절대신앙은 나를 찾기 위한 것

이 사람은 머리가 왜 이렇게 세었나? 나이는 그렇게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 몇 살이야? 「칠십입니다.」 여자는? 엇그제 만난 젊은 사람 같은데 벌써 그렇게 나이 많았나? 나도 늙는 줄 모르고 이 놀음을 하고 있으니 미쳤지요. (웃음) 자, 알겠어요? 「예.」

선생님의 등이든 꿈무늬든 말이에요, 발가락이든 나일론 줄이 아니라 사랑 줄을 매 가지고 천리 만리 가도 선생님도 못 끊고 하나님도 못 끊는다 할 수 있게 잡아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끊어요, 못 끊어요? 못 끊으니까 틀림없이 나는 선생님 가는 데 시간은 늦더라도 일년 열두 달, 십년 늦더라도... 백년까지 안 가요. 내가 백년까지 못 살다 죽었으니까 죄를 짓더라도 백년 미만의 죄니까 저나라에 가 가지고 백년 미만이라도 선생님과 하나되겠다고 하게 되면 전부 다 해방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돼라 이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장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가 되는 거예요. 절대신앙은 나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절대사랑은 나를 찾기 위한 것이요, 절대복종은 나를 재창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상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문만 여소.’ 해서 문만 열면 하나님이 미치게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치게 사랑할 수 있는 자신 있어요?

일본 사람이야? 왜 여기 와 앉아 있어? 「일본 사람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이 약혼시켜 줄 때 ‘아이고, 원치 않는 타입이다.’ 해서 불평했지? 물어 보잖아, 쌍거야? 어땠어? 이에, 스미마생? 그 말은 집에서 살지 않고 죽겠다는 말이에요, 이에 스미마생. 안 그러긴 왜 안 그래? 눈이나 모든 것을 보니까 그럴 수 있게 되어 있다구. 요 여자는 말이야. 조금만 무엇이랄도 보게 되면 자기 주장하고 말이야, 나설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안 맞게 되어 있다구. 왜 웃어, 이 쌍것들? 그런가 안 그런가 물어 보는데.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웃음)

선생님이 사탄세계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거쳐 나왔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학교에 위임한 학교는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제일 어려운 문제로 시험해라, 교장선생님을 대신 해서 선생님이 테스트하는 거라구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문선

생을 하늘에서 전부 축복해 주면 그 다음에는 감옥에 처넣는 거예요.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 것입니다. 선생님을 보호해 줄 줄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사탄이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무관심한데 사탄이 따라가서 뭘 하겠어요? 관심 있는 것은 하늘나라를 망치기 위한 것인데, 관심 안 갖는 레버런 문을 따라가서 뭘 하느냐? 분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세계까지 전부 다...

그래서 전세계가 반대한 것은 사탄세계의 소유권을 전수하기 위한 간접적 전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손해배상을 물어야지요? 죄 없이 피해를 줬으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런 작전을 하니 그런 걸 알아 가지고 혼자 세상이 모르는 방대한 이 우주 전체에 대해 이론체계에 의해서 하나의 사상체계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나라가 못 하고, 세계가 못 하고, 수많은 기독교 자체가 못 하는 것을 레버런 문 혼자 한 거예요. 그거 인정해요? 일본 사람 인정해요?

일본 사람이 진짜 일본 사람이예요? 일본이 뭐예요? 아마테라스오미카미가 여자 신이예요, 남자 신이예요? 여자는 말이에요, 열두 아들을 품고 360바퀴 동네 전부 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야오요로즈노카미예요. 잡교, 잡교의 여성 신이라는 거예요. 남자 신은 절대 유일신이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구요. 안 그래요?

일본이 어머니 나라의 책임을 못 하면 다른 나라로 대체해

그러니 기독교 문화권을 중심삼고 해와 국가가... 해와 국가인 영국이 섬나라지요? 영국이 어머니 나라의 책임을 해야 했다구요. 가인 아벨 전부 다... 지금 그때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이 책임 못 하게 될 때는 다시 영국과 캐나다를 중심삼고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캐나다가 항공기술은 미국을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딸을 세우는 거예요.

세 딸이 책임을 못 하게 된다면, 성인들하고 원수가 같이 축복받은 거와 마찬가지로 버렸던 사람을 다시 찾아서 다시 책임 못 하게 되면 땀을 때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귀시대가 왔기 때문에, 기독교라든가 모든 지금까지의 제1세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독수리 밥이 되어 가지고 다 없어져서 2세만 들어갔는데, 지금 때는 같은 시대에 오기 때문에 1세도 복귀될 수 있는 거예요. 1세 선조들도 복귀되고, 다 복귀되는 거예요.

전수받은 책임을 못 하게 되면 전부 영국한테 되돌리는 것입니다. 일본은 2차대전 전범자의 입장에서 서 가지고 전부 다 탕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4개국으로 분립되어 가지고 일본 나라는 없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훗카이도는 소련, 규슈와 오키나와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으로 나뉘는 거예요. 일본에 남는 것도 있을 거라구요. 달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타락한 해외권에 있을 것이 탕감기준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선생님한테 용서받아 가지고 돌아가는 거라구요. 그것을 결정해야 한다구요.

남북통일을 해야 한다구요. 한반도의 남북통일은 김정일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할 수 없다구요. 김대통령도 아무리 해도 안 된다구요. 선생님이라면 안 된다구요. 선생님은 세계적 천주적인 정치권 경제권 문화권을 완비하고 있다구요. 그러한 내용을 갖추는 데에 적합한 자격이 문선생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文)’이라는 글자는 제단을 상징한다구요. 그걸 완성한 것을 ‘문’

이라고 한다구요. ‘문’은 진리를 상징한다구요. 진리에 의해 세계가 모두 탕감복귀되어 그러한 제물을 바치는 곳에 돌아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맞이하는 시대를 맞기 위해서 역사상에 종교는 제단을 쌓았던 거라구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물질을 제물로 드렸다고요. 들로 쪼갠 거예요. 사탄의 뭉, 하나님의 뭉으로. 예수님을 중심삼고 이것이 하나되었을 경우에는 세계가 하나되는 거라구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영계와 지상세계가 분해된 거라구요. 그 기독교가 가인 아벨, 구교 신교가 1945년에... 뭐 그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점심도 먹을 수 없어요. 좋은 말을 하고 기분 나쁜 결과를 보기 싫으니까 그만두겠다고요.

총생축헌납제의 의의

일본 사람 어때요? 선생님은 아주 강한 풀이 있지요? 그걸 뭐라고 해요? 풀, 불이는 풀. 철판이라도 불이게 되면 이게 터지는 일은 있더라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풀이 있다구요. 그런 풀을 뭐라고 하나요? 「납땀입니다.」 납땀보다 더 강해서 철판이 터지는 일이 있어도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라구요. 그런 풀로 불인 것처럼, 발이 전부 잘라지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딱 붙어 가지고 지옥세계로부터 천상천국, 하나님의 보좌까지 쭉 통과하는 거라구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라구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가정적 축복권의 면목을 세우지 못한 죄를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라구요. 4대 제물을 통해서 ‘총생축헌납제’라고 하는 걸 해서 그 준비의 제물을 모으는 것이라구요. 그것이 지금의 16수를 중심한 1만 6천 달러라구요. 16수는 세계 재산 전체를 분리시키는 조건이라구요.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집,

재산도 전부 그 조건으로 인해서, 16수를 중심삼고 160수를 맞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등록하는 거라구요. 그런 조건으로서, 틀림 없는 조건으로서 제출하는 것이 1만 6천 달러라구요.

16달러를 소생으로 하면 160달러는 장성, 1천6백 달러는 완성으로 소생단계의 3단계라구요. 장성의 기준은 1만 6천 달러라구요. 소생 1만 6천 달러, 장성 16만 달러, 완성 160만 달러까지 장성 3단계라구요. 그 다음엔 1억 6천만 달러, 16억, 160억 전부 다... 전체의 재산이 들어가는 조건으로서 하는 거라구요.

지금까지 해와가 남편을 속인 거와 같은 그런 버릇의 일을 하게 되면 완전히 일족, 일국가가 날아가 버리는 거라구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고의 교육, 가정으로서 붙이기 위한 그런 교육이 이 교육이라구요. 북쪽 반쪽과 남반부 반쪽을 중심으로 극과 극을 분할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돌아가는 데는 반대로 돌아가는 거라구요. 돌아가고 싶어요? 자, 간단히 말해 주겠대구요.

구교와 신교가 하나돼 어머니를 준비해서 아버지를 모셔야

(판서하심) 제목은 ‘복귀 완료’입니다. 이런 제목이 될 거라구요. (원을 그리심) 둥글게 되었나? 이걸 턱처럼, 둥근 얼굴처럼 되었구만. 보이지 않는 관념으로 생각하는 거라구요. 하나님과 아담 해와와 가인 아벨이 있다구. 그래서 뭘 하느냐? 축복. 이걸 사탄에 의해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복귀하는 거라구요. 그것이 1945년이라구요.

여기에 있어서 아벨권은 신교입니다. 가인권은 구교라구요. 그것이 하나되어서 어머니를 맞이해야 된대구요. 그러려면 기독교를 중심삼고 구교 신교가 재림주를 중심한 왕권 섭리를 준비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를 중심삼고 볼 때 유대교는 아벨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가인입니다. 그것이 하나된 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했느냐 하면 왕권 섭리를 준비해야 했던 거라구요.

그러려면 영원한 왕이 지상에 오기 때문에 지상에 있어서는 여왕을 중심삼고 여왕의 일족을 형성하여 민족 형성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는 절대 어머니를 중심삼고, 여왕을 중심삼고 하나되어 남편, 왕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만약 남편 되는 왕이 왔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절대 권한을 가진 왕의 힘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절대 왕 앞에, 절대 여왕의 일족, 일민족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스라엘 국가 기준을 중심삼고 로마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유대교와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을 환영함과 더불어 예수님이 가정을 중심삼고 황족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해야 된다고요.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이 와서 선발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교회가 선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정·종족·민족으로부터 여자들을 모아서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알았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국가도 교회도 완전히 하나되어 여자, 여왕을 중심으로 절대복종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기까지 4천년 동안 그렇게 신뢰해 왔지만 그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아담의 여동생을 사탄이 훔쳐가 가지고 여자 세계의 타락권을 이루어 사탄세계를 형성한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탄세계의 왕궁은, 왕은 전능의 힘으로 국민의 여자를 누구라도 자기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거라구요.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종으로 하고 싶으면 종으로 하고, 자유 권한을 가지고 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왕궁에는 왕비를 비롯해서 많은 궁녀

가 있다구요. 그렇게 되면 왕비는 언니고 궁녀들은 여동생이라구요. 타락했기 때문에 가인 아벨을 전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자도 언니와 여동생을 전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구요.

그것이 야곱 가정에서 반대로 전복된 거예요. 여동생 라헬의 남편이 될 야곱을 언니 레아가 완전히 빼앗아 열 명의 아들딸을 낳아, 세 여자를 통해서 우세한 가정권을 빼앗아 번식했기 때문에, 가인 편이 강한 기준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나 고난의 탕감 역사를 통해서 포로 국가가 되기도 하고, 나라가 몇 번이나 망하고 하면서 나온 거예요. 사탄세계의 궁중은, 일본의 궁중도 그렇지만 많은 여자들이 모시고 있는 거라구요. 그 모시는 여자들은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거라구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한 사탄적 세계를 남기게 되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왕비를 맞이하는 그때가 되면 왕비의 여동생들이 많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옛날 한국의 백제에는 3천 명 이상의 궁녀들이 있었다구요. 중국은 3만 명의 궁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허락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오게 되면 예수님 일족을 중심삼고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종족을 중심삼고 국가를 형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의 여동생을 사탄이 빼앗아 가 가지고 이렇게 번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인도 여동생을 중심삼고 탕감복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결혼해서 120명의 각료를 축복해 줘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천국의 중심자로서 거기에 서게 되는 각료라든가 각 부서의 사람 120명 이상을 타락하지 않고 왕의, 예수님의 지휘 하에서 서로 서로가 가인 아벨의 입장을 지켜 온 여자들을 중심삼고 전부 같이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혈통을 분립한, 타락의 내용을 잘라 버린 해와의 기준을 탕감복귀하는 거라구요.

여자가 문제라구요, 여자가. 왕비는 그 궁중의 여자들을 여동생처럼, 미래의 후계자로서 사랑하며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왕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동생이면서 원수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하며 나온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때문에 뒤집어지기도 하고 뱅뱅 돌면서 온 거라구요. 여자가 문제라구요.

예수님을 중심삼고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의 가인 아벨이 하나되었을 경우에는 이 아벨, 구교 신교에서 제일 미인, 세계적인 미인의 여자들을, 세계적인 주권을 건설했을 때 그 각료들까지도 타락의 혈통과 인연이 없는, 궁중에 있으면서 배운, 궁중의 출발 기준의 체험이 있는 그런 여자들을 부인들로서 결혼시켜 주었을 거라구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그건 천사장이 여자를 유린한 입장이 아니라구요. 주인이, 왕이 공인해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혈통 이상의 기준에 연결되는 거라구요. 한 사람은, 여자는 타락하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축복으로 사탄 혈통을 단절한 거와 같은 입장의 조건을 세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적인 왕궁, 사탄적인 세계의 왕궁을 남겨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일시 탕감을 하기 위해서 말이예요.

예수님도 그렇다구요. 120명 이상의 여자들을 중심삼고 거기에 왕비를 세우고, 그 120명이 하나되어 예수님을 모셨다면 지금까지 결혼을 해 가지고 복잡하게 사탄적인 혈통에 물든 그런 것은,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은 그런 것을 전부 잘라 버리고 재축복을 하는 거라구요. 120명의 새로운 궁전의 예수님의 여동생 입장에 있는 여자들을 중심삼고 혈통적으로 묶음으로 말미암아 사탄 분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라구요.

그때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통일교회에서 지금 사탄 혈통 단절이라

는 걸 선언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알았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했으면 사탄 혈통 단절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다고요.

이때, 120명 이상의 여자들이 예수님과 일체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축복과 더불어 120명의 그 나라 중요 부서의 책임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이하의 부서는 자동적으로 결혼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국가 전체가 총괄해서 결혼 해방권에 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쉬운 거라고요.

120명이 축복받으면 국가 기준의 완전 일체권 복귀가 이뤄져

이런 혁명적인 일을 위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그 밑에는 ‘이렇게 해라.’ 하면 ‘예스.’ 하고, ‘저렇게 해라.’ 하면 ‘예스.’ 하고, ‘위로 가라.’ 하면 ‘예스.’ 하고, ‘아래로 가라.’ 하면 ‘예스’ 하고, 전후 좌우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예스.’ 하는 거라고요.

아무리 싸움을 했더라도,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 자기 남편과 갈라설 운세를 볼 경우에도 뭐 절대복종을 해서 일체권을 이루어 국가 기준에 있어서의 축복 완료권을 초월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 하게 되면 전체가 완료라고요.

예수님을 중심삼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절대 사랑의 심정권을 이루고, 개인 심신 일체권, 부부 일체권을 중심삼고 각료로부터 전 국민이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교도 예수님의 궁전의 친족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절대권을 중심삼고 좌우가 하나로 뭉치는 거라고요.

여왕을 중심삼고 그 120명이 전부가 연결되게 되면... 남자들을 전부 연결하는 데는, 완전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하나되어 마이너스가 되면 남자 플러스가 자연히 연결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궁전의 궁녀

들을 결혼시켜 준다 하는 천명(天命)이 있게 될 때는, 자기의 지금까지 연결된 가정을 잘라 버려 가지고 축복한 그 가정 쪽으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니가 여동생의 꼬리에 붙는 거라구요.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 일체권의 복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탄 혈통권 분별이 국가 기준 이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성별, 단절이 필요 없게 된다고요. 알겠어요?

통일교회는 그렇다고요.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결혼시켜 주었기 때문에 혈통전환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부활식이라든가 중생식이라든가 영생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복잡한 내용이 개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여기서 이것이 하나가 되었을 경우에는... 아벨세계와 가인세계, 이것이 부모를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구교 신교가 그때에는 8억이나 되었다고요. 그때 결혼식을 했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세계는 축복권에 드는 거라구요. 재림주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제2 이스라엘인 기독교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재림주가 구름 타고 온다고 하니까 괴물처럼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둑같이 영계만 의지해 온 거라구요. 이것이 기독교의 실패라고요. 알겠어요?

사탄적인 것을 분별해야

세계적 기독교 전체에서 미인 몇 만 명이라도, 몇 천 명이라도 좋으니 오시는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 여왕을 중심삼고 단결, 단결, 단결했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세계 지도자, 각료들을 다 그 여동생 입장의 궁녀들과 축복결혼을 시켜 주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계가 한꺼번에 복귀되는 거라구요. 지금까지 결혼해서 사는 가정은 뒤에 선다고요.

사탄적인 것을 분별해야 된다고요. 다시 바꿔치기하는 거예요. 그 때에는 새롭게 축복받은 그 가정에 있어서 아담을 중심삼고 가인 아벨 이니까 아벨 아내에게 자기 가인 아내를 절대복종하게끔 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본처를 세워 온 그 나라의 계통으로는 돌아갈 길이 없다고요.

돌아갈 길이 없으니까 여동생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정을 편성함으로써 여기에 절대 하나돼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일체화함으로써, 떨어지지 않도록 일체화함으로써 여동생이 본처의 입장, 본처가 여동생의 입장으로 거꾸로 되어 한 줄로 해서 재림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평행적이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개인의 전환 주류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전환하는 시대에는 세계적으로 그러한 환경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정 해방 문제, 프리 섹스 문제, 그리고 호모 문제 등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천사장은 상대 이상이 없다고요.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고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는 그런 것은 동물세계에도 없습니다. 상대권을 전부 무시하는 거라고요. 천사장은 상대가 없다고요. 모두 다 여성을 헌납하는 그 기준을 중심삼아 가지고 재축복을 위해 이들을 다 사용해야 된다고요.

자기 할머니, 어머니, 아내, 장녀, 차녀까지 다 재림주님 편에 붙여 세계가 일체권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재림주가 결혼하는 것과 더불어... 왜 재림주가 다시 결혼해야 되느냐? 그거 문제라고요. 본처로는 갈 수 없다고요. 돌아서 가야 된다고요. 언니가 여동생을 모셔야 된다고요. 반대라고요. 궁녀에게 여왕이 절대복종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에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이 없다고요.

이것이 낮이라고 생각하면, 언니가 낮이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밤이었지만, 밤의 세계를 통해서 돌아가지 않으면 낮의 세계로 돌아갈 길

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을 중심으로 언니가 절대복종하는 가정적 기준을 중심으로 일체권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라구요. 그런 말세권이 되어 가니까 가정이 전부 파탄되는 거예요, 가정.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여왕도 결혼시켜 줘야 되지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결혼시켜야 돼요. 할머니가 싫다고 하면 결혼할 수 없구요. 여자가 주체라구요. 하늘이 추천하는 방향의 생활도, 사상도 과거에 가지고 있었다 해도 할머니가 싫다고 하면 헤어져야 하는 거라구요.

그런 것을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통일교인들의 그때 기성부인들이 반대하니까 다 끊어 버리고 결혼을 하게 했으니까 가정 파괴의 왕자(王者)라고 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파문이 일고, 그것이 박해의 조건이 된 거라구요. 알겠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도 당당하게 체면을 세워야 된다고요. 부끄러운 것이 없구요. 천명(天命)을 이루는 혁명적인 표제를 썼지만, 그 표제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당당해야 된다고요,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개인적 박해, 가정적 박해, 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 전체가 일체화해서 레버런 문 타도운동을 했다고요. 일본도 그렇다고요. 그것이 나카소네 정권이라구요. 그렇지요? 문선생이 자기 자녀들을 다 도둑질해 가고, 자녀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머니까지 도둑질해 가니까 아버지를 중심삼고 남자들끼리, 아버지 형님 할아버지가 하나되어 '레버런 문 타도하자!'라고 해 가지고 세계적 주권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세계적인 박해를 하는 거라구요.

종교권을 해방할 수 있는 사람은 참부모뿐

그것을 개인 기반, 가정 기반, 종족 기반... 일본은 지금 국가 기준을 넘었다고요. 국가 기준, 세계 국가기준을 넘었다고요.

종교권을 해방할 수 있는 사람은 레버런 문 외에는 없다구요. 어떤 종교라도 동위원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결속해서 종교의회를 만드는 거라구요. 국회도 만들고 있다구요, 20년 전부터.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니라구요. 종교의회를 통해서 미래에 있어서 종교권 사람이 국가나 환경을 넘어서 하나의 나라 건설을 위한 국회를 만드는 거라구요.

지금 사탄세계에는 정치적 대사관은 있지만 종교적 대사관, 여성적 대사관, 아담 가정의 장남 가인과 차남 아벨적 대사관은 없다구요. 유엔 자체가 정치가들의 그런 몸적인 사탄적 국가 대표의 대사는 보내는데, 종교적 대사, 여성적 대사, 장남적 대사, 차남적 대사가 없다구요. 이것을 더하지 않으면 유엔 자체가 국가 형성의 모델이 못 된다구요.

지금은 외교에 있어서 중개역을 하고 있는데, 중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까 모두 유엔 철폐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구요. 미국 자체가 유엔을 철폐하려고 하지만 선생님이 <워싱턴 타임스>를 중심으로 세계의 유명인들, 정치인과 경제인들을 모아서 소화하고 납득시켜서 유엔이 붕괴하는 것을 방비하고 있다구요.

그래서 중심자는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다고 해도 중심이 서는 기반을 재창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구요. 지금 아무리 일본이 반대하고 그러더라도 가정문제를 중심으로 보면 일본은 큰일이라구요. 일본은 아시아의 문호의 입장에 있어서 미국 신문명을 수입해 오는데, 그것과 같이 도덕 파괴라든가 가정 붕괴라든가 청소년 윤락 문제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백 퍼센트 받아들이고 있다구요. 경험하면서 기준을 세우면서 따라가고 무너뜨리고 하면서 세계 첨단인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오기 때문에 일본이 가장 나빠지는 거라구요.

그래서 청소년 윤락문제... 10세 이후의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다 성적 파탄을 일으키지 않고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사회·친족국가세계에 의지하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을 신봉해 왔지만, 미국은 천사장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 해와 나라는 영망진창으로 당하는 거라구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미국을 중심삼고 선생님은 24년 동안에 새로운 기독교 문화권을, 구교와 신교를 묶어서 이제... 통일교회가 아벨 입장에 서고 기독교는 가인 입장, 형님 입장에 서서 박해했지만, 이제는 반대가 되는 거라구요. 180도 전환하는 거예요. 타락의 페이지를 없애고 새로운 페이지를 만드는 데는 이것을 반대쪽에 써야 된다고요. 탕감복귀라구요.

이제는 참부모가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 반대가 없다

일본 정부도 그렇다구요. 절대사랑을 중심삼고 가정 문제, 순결운동을 중심삼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절대사랑 전통을 중심삼은 원리연구회의 순결운동을 공안부도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이것을 반대하면 세계적으로 큰일이 난다고요. 전세계가 요망하고 보호하는 입장에서 가정 축복 붐이 일고 있는데, 일본은 영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옥밑창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있다고요.

그 직전에 미국에서 워싱턴을 중심으로 종교자유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종교 지도자, 종교 교주, 최고의 실적 있는 모든 사람이 종교해방을 위해서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당하게 각 정부, 유엔에까지 제시하면서 세계의 종교권 결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너무나 커서 모두 손을 들고 '문선생님의 통일교회가 선두에 서도 좋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아무리 기독교, 구교라도 아프리카에 가면 신교와 똑같은 박해를 받는다구요. 신교도 구교도 유교도 불교도 회교도 다 똑같다구요. 오히려

통일교회가 그런 환경에 가게 되면 앞에 선다구요. 전 종교권을 대표해서 나라와 접할 수 있는 배후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나라에 있어서 뭐 평등 기준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 있는 거라구요. 문선생이라고 하면, 13개 종파의 장들이 머리를 숙이고 존경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박수)

지난번 워싱턴 대회, 뉴욕 대회에 있어서도 전세계 종교권의 지도요원, 자기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 모두가 참석하기 위해서 경쟁을 한 거라구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참석하게 해주세요.’ 하고 말이에요. 그들을 선발하여 배치하고 당당하게 축복 붐을 세계에 확대하는 결과를 가지고, 지금 문선생이 말하는 절대 이상가정, 절대 순결, 혼전 순결과 정조는 모두가 가장 원하는 최고의 목적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한 마리도 없더라구요. (박수) 한 사람도 없으니까 한 마리라고 해도 좋다고요.

이러한 것을 여기서 했을 경우 8억 인구를 중심삼은 신교 구교의 형제권이 하나되어 가지고 여왕과 하나되어 재림주를 맞이하였다면, 세계 해방 결혼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재축복 해방권. 이것은 사탄 혈통을 완전히 단절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것과는 관계없는 권이라구요. 나라도 간섭할 수 없다가구요.

각국에 파견된 일본 여성을 중심한 대사관 점령 작전

이제 통일교회를 일본 나라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요. 지금 선생님이 일본 사람을 세계 각국에 120명씩 파견한다면 선생님 명령에 의해 세계 185개국에 파견된 일본 여성들은 절대 선생님 편이 되는 거라구요. 섭리관으로부터 모두, 부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오케이라구요. 밤에도 오케이, 낮에도 오케이다 이거예요. 사계를 초월해서 10년, 20년 생애를 걸어서 오케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 대사관 점령!’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대사관을 중심삼고 한국은 물론 자동적으로 묶어 가는 거예요.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대사관을 전부 묶는 거라구요. 중국 대사관도, 소련 대사관도, 아시아 전 국가의 대사관을 묶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중심삼고 선진국가군, 미국이라든가 유럽 나라는 자동적으로, 대사관의 대사들이 공문을 내서 이 나라 각료와 대통령은 며칠날에 회의가 있는데 모여 주기를 부탁한다고 통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선진국 머리가 12개국 40개국 이상 모인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이런 이상적인 사상을 중심삼고 가정 문제, 청소년 문제 등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모든 가정과 사상, 혹은 종교 등이 뿔뿔이 갈라져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로 통일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도한다 하게 될 때, 그리하여 청소년 문제, 가정붕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실증하면 천하는 다 수습된다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통일교회는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무서운 진리라구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 있어서 2박3일 수련을 중심삼고 유명한, 3천 명, 5천 명을 지도하는 목사들도 그 기간 내에 완전히 손을 들고 자기도 축복을 받겠다고 해서 문선생한테 모여 왔다고요. 백 퍼센트라구요. (박수) 그렇게 무서운 진리를 가지고 있다구요.

그들은 지금까지 생애 40년 가까이 반대한 최고의 패거리들이라고요. 머리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무서운 진리가 있다고 생각 안 했다 이거예요.

왜 몰랐느냐? 반대하고 있었기 때입니다. 악마라고 생각했으니까 들으려는 생각도 안 했다 이거예요. 40년 동안 부딪히고, 부딪히고 씨름을 하고 해서 링 위에 올라가서 이겨 가지고 챔피언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미국 개신교와 하나된 기반 위에 구교의 남미 연합을 위한 준비

그래서 통일교회가 기성교회하고 하나되었으니까 미국을 장자로 임명하는 거라구요. 미국 교회도 통일교회하고 하나되었을 경우에는 구교 신교... 로마 가톨릭을 중심한 남미를 중심삼고 볼 때, 북미 승리권을 이룬 신교가 그 승리권을 가지고 남미에 왔을 경우에는, 그 신교가 선생님과 일체가 되면 아무리 구교가 힘이 있어서 반대를 해도 안 된다구요.

거기에 더하여 <워싱턴 타임스>를 선두로 남미에 신문사를 다 만들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해온 죄의 것을 다 재료로 가지고 있으면서 안경을 쓰고 눈총을 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진 너희들인데 힘으로 해서 이기겠거든 해봐라 이거예요. 그래, 남미에 신문사를 만든 것이 좋았나요, 나빴나요?

미국 재벌 10개 이상이 결속해서 남미에 미국 신문을 만들겠다고 10년 이상 노력했는데도 못 했지만, 선생님은 9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그런 신문사를 만들고 이 남미를 밀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위대한 거예요. (박수) 영육 아울러 문화권에 있어서, 종교권에 있어서 문선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여기 주변에 이런 건물을 만든다고... 브라질은 남미에서 1억7천만 명의 국민을 가지고 있는 대국이라구요. 미국조차도 브라질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평등한 주권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에 들어와서, 여기 자르딘이라는 가장 오지, 죄를 지은 자가 도망가는 곳, 도둑이 숨는 곳과 같은 그런 곳에 문선생이 와서 아무리 큰 것을 말해 보았자 나라나 세계에 영향 미칠 게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작전이 큰 것이라고 말해도, '브라질 사람도 역사에 그런 영

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얼굴을 하고 이름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해도 브라질 국민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빈손으로 와 가지고, 맨발로 팬티도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하하!’ 하고 웃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허가도 없이 다 만들어 버렸다구요.

전권을 가지고 내가 혼자서 했다구요. 나라를 위해서, 브라질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브라질 교육 문제, 종교권 문제, 가정 문제 등 그런 봉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건설하는 것은 나라나 주나 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박수를 치면서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한 거라구요. (박수)

그래서 주지사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 사람들을 중심삼고 문선생이 그런 일을 해도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써 가지고 사인하라고 한 거라구요. 그걸 원하지 않으면 사인 안 해도 되지만, 원하면 사인해 달라고 한 거라구요. 사인을 안 해도 주지사든 누구든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 녹음도 했지 않느냐, 만약에 문제라면 법정에 가서 싸워 이기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그래, ‘사인 안 해도 내일부터 행동 개시해도 좋지요?’ 하니까 ‘예스, 올 라이트(Yes all right;예, 좋습니다)’ 한 거라구요. (회파람을 부심. 박수)

그래서 시작해서 1년 2개월에 완료하려고 했지만, 일본이 책임분담을 못 해서 6개월 연장해서 1년 8개월만에 이것을 낙성식을 해서 세계에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드높은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센터’라고 한 거예요. 그 교육본부라는 이름으로 누구를 교육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정 내용을 교육하는 거예요. 가정적 치리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정 내용의 중심이 해외 국가라구요. 일본 축복가정의 정신 철저화를 하는 거예요.

국경 철폐와 교차결혼의 의의

한국은 안 해도 된다고요. 한국 가정은 선생님이 서면 서고 죽으면 죽게 되어 있다구요. 일본은 그것과는 별개의 나라라고요. 정치적 색깔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싫어했던 것이 한국 사람이라고요.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좋으니까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결혼 자유권이 됐을 경우에는, 해방권이 됐을 경우에는 일본 간부들이 한국 여성에게 말려들게 되면 감옥살이 당하는 일본이 되니까,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대만 사람이라든가 흑인하고 결혼하는 일은 있더라도 한국 사람하고는 죽어도 하지 말도록 국가 정책적으로 방과제를 하고 금지해 온 것이 지금 일본의 정치체라고요. 일본 국민은 모른다구요. 알겠어요?

그 벽을 무너뜨리고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백 퍼센트 교차결혼!’ 하니깐, (박수) 일본도 깜짝 놀라고, 한국도 깜짝 놀라 가지고 앓음과 동시에 허리가 빠져서 쓰러져 자빠져 버린 거라고요. 너무나도 놀라 가지고 말이에요, 한국 대사관도 일본과 공동으로 그 결혼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비행장에 가서 전부 티켓을 옆으로 찬 거라고요. ‘결혼식을 위해 몇 십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 오늘 여행가지 않고 다음에 가도 좋지 않겠소? 일주일 이내에 가면 되니까 티켓을 양보해 주지 않겠소?’ 해 가지고 바꿔 받은 거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80여 개국이 국제결혼을 하는데 일본이 반대했다고 하면 그것은 야만국가, 가정 붕괴의 나라로 알려질 것이니까, 일본 정부는 체면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대사관이 도장을 안 찍을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도장 찍는 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녀까지 일직을 시키면서 장님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게 거짓말

이 아니라구요. 한국 대사는 기뻐하면서 장님 도장을 찍은 거라구요. 장님 중의 장님 도장을 팡팡팡팡 찍고, 일본은 눈을 감고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이렇게 하고 서서 장님 도장을 찍어 가지고 축복 완료!

그게 문제라구요.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국경이 문제라구요. 나라가 있으면 한 나라의 이익을 중심삼아 가지고 탐하는 생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전부 다 갈라져 가는 거예요. 국경 철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원수권을 심정일체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섭리관의 가정 편성에 있어서 불가피한 해결 문제가 국경 문제, 민족 문제, 인종 문제, 환경과 습관 문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붕괴시키고 국제결혼을 승리적으로 세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선생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다 이겁니다. (박수)

그럴 때는 박수 대신 전 축복가정은 서로 안아 주고 키스하라구요. 키스한 사람은 박수하라구요. 안 한 사람은 뭐예요? 엄마하고 아들딸이 키스해도 괜찮으니까 하라구요. (웃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남자 여자를 교환하고 키스하라고 하면 키스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 봐요. 없네. 다 하게 되어 있다구요. 이것을 시켰을 경우에는 ‘문선생은 인도적 국가 기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했다. 가장 나쁜 사람이다.’ 하고 신문에 실어도 좋다구. (웃음) 신문기자가 그런 것을 사진 찍고 해서 ‘문선생이 말씀하셨다. 내용은 이렇다 이렇다.’ 하게 될 때, 그것은 들으면 세계는 깜짝 놀라서 다 뒤로 돌아갈 거라구요.

1992~98년은 1945~52년처럼 축복 세계화를 이뤄야 했다

선생님은 이렇게 활기에 넘쳐서 이야기하면 땀이 많이 난다구요. (웃음) 아줌마들은 손수건을 모아서 쌓아 놓으라구. (웃음) 손수건 가지고 있어, 아줌마들? 「예.」 그것은 사용 안 한 손수건이야, 자기가 땀

을 닦은 거야?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내 땀을 닦은 손수건을 사용해야 한다, 여자가 넘버원이다, 일본 나라가 선생님보다 앞장선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구.

그럼, 여기서 (칠판을 가리키시며) 그렇게 하면 세계평화권, 통일권은 완료되었겠어요, 못 되었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1952년에 완전히 지상천국을 완료할 것이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라구요. 《아버지의 기도》 효심편의 내용을 보면 40년 전의 기도인데 같은 내용이라구요. 그렇지요?

지금까지를 생각해 보라구요. 3만쌍으로부터 지금 1억2만쌍까지 몇 년 걸렸어요? 7년간이에요요. 1992년부터 1998년까지 7년 동안이라구요. 1945년부터 1952년까지와 같대구요. 1992년에는 여성해방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하여 축복을 세계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7년 동안에 완료하지 않으면 탕감복귀가 안 된다구요. 예수님 일대에 완료해야 했던 것을 선생님 일대에 하는 거예요. 4천년 동안에 수천만 명을 희생시키면서 여기에 맞추어서 제단을 선생님 앞에 이끌어 온 것을 깨끗하게 성별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걸 일대에 성별한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라구요.

그것을 안 선생님이 생애노정을 앞에 놓고 얼마나 고심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 한다구요. 그것은 내외 아울러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구요. 안 보이는 영계에 있어서의 완벽한 승리권과 더불어 완벽한 이론체제를 갖추고, 지식 있는 생각하는 사람이 비판해도 결점이 없는 완전하고 머리를 안 숙일 수 없는, 그리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실체를 찾을 수 있는 승리권을 만들지 않으면 지상천국 천상천국은 영원히 나타나지 않는다구요. 알겠어요?

그런 고생을 한 선생님을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른다구요. 오만 가지의, 여자로서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돼먹지 않은 여자들 앞에 영원히 순결한 어머니의 세계의 전통을 전수해 주는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

할 일이라고요. 알겠어요?

일본은 섬나라로서 비천한 여자와 같다구요. 사촌끼리 결혼을 하고, 총리라든가 대신의 첩으로 자기 딸을 주고도, 유명한 가계의 동경대학을 졸업한 딸을 결혼시키고도 사랑하는 그런 사탄적인 나라라고요. 그런 나라를 하늘의 최고 기준의 성별된 여왕의 가치로 공인받을 수 있는 입장을 하늘로부터 전수해 준 그 가치를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항상 사창가에서 자기 중심으로 남자들을 유혹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와 같은 심정권으로 지금까지 뜻길 속에서도 행동하는 사람이 많대구!

독일의 공장을 5억 7천만 엔을 써서 이국 땅에 미래의 천국을 위한 기계공장을 세계적인 규모로 만들려고 준비했는데, 일본이 사명을 못 해서 날아가 버렸다구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본을 해외 국가로서 하늘이 공인할 수 없다 하는 긴박한 경지에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 결정은 선생님이 해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끊어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라고요.

예언서에도 나와 있다구요. 일본이 사명을 못 하면 세 명의 섬나라 딸로서 보조하는 일은 있어도 어머니의 사명을 대신하는 그런 자격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탕감복귀에 의해,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권을 얻은 그것을 다시 품고, 일본과 독일이 변상하지 않고 지나갔던 모든 것을 다시 변상함으로써 후회하고 회개하는 조건에 걸려서 끌려가는 길밖에 없는 결과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런 교육을 해서 최후의 결단을 해야 된다고요. 심각하다구요. 알겠어요?

1992년의 여성해방 선포로 축복 세계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것을 못 했으니까, 기독교의 구교 신교가 반대했으니까 세계적인

입장에서 아담 해와가 두 번 타락했다고 하는 입장이 되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의 상대기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혼자가 안 될 수 없다구요. 그래서 한국 통일권과 그리고 문씨 통일권—다 두 개라구요.—동서 문화 통일권과 지상 천상 통일권, 하나님의 심정 일체권 다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거라구요. 그 기반 위에 공산주의라는 문제... 한국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6.25사변으로부터 냉전이 시작되었다구요.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어 한국 올림픽대회로, 166개국의 유엔 가입으로 말미암아 갈라진 모스크바와 로스앤젤레스의 올림픽대회 두 개가 하나됨으로써 냉전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한국동란의 휴전 상태와 더불어 체육 올림픽대회가 결속되어 160국가가 참가하는 세계적 대올림픽대회로 발전한 거라구요. 거기에 공헌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때 통일교회 문선생은 세계의 선교사, 120국가 이상 160국가에 파견된 세계적 2세 선교사와 그 나라 2세들, 육체가 건전한 챔피언들을 짜 가지고 올림픽 대회에서 지원을 했다구요. 대사관보다도, 그 나라보다도 강하게 전세계 선교사가 공동작전을 하여 세계 올림픽대회에 하나님의 뜻의 기반을 만드는 조건적인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라구요. 소련이 1등이고 동독이 2등이고 3등은 미국이고 4등이 한국이었어요. 이걸 꿈같은 일이라구요. 사탄권 가진 아벨, 하늘 편 가진 아벨이 선생님을 중심삼고 뒤집어진 거라구요. 거기서부터 세계적 준비를 한 거예요. 1988년을 중심으로 1989년에 팔정식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는 천부주의를 발표했다구요. 그것을 중심삼아 가지고 1992년에 여성해방 선포를 한 거예요.

그때까지 어머니는 선생님 옆에 설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있지 않은 거예요. 가장 뒤에 서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뒤에 어머니가 서 있는 거라구요. 앞에서는 사탄을 중심삼고 투쟁하고 있었으니까. 어머니는 사탄의 비밀이라든가 싸우는 방법을 모른다구요. 절대복종함으로써 세계적 축복권까지 쪽 이어 오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1992년 3만쌍 축복을 중심삼고 세계적 축복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36만쌍, 360만쌍으로 축복 세계화 운동을 해서 360만쌍 때에 3천6백만쌍 기대를 무리하여 착륙시킨 거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3천6백만 쌍 기준을 중심삼고 3억6천만쌍 축복을 하는 거라구요. 이것은 산에서 부는 폭풍과 같이 수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쁘게 소원해 온 이 때를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몇 개월인가? 작년 11월 29일에 했으니까, 10개월 동안에 3억6천만쌍을 하는 거라구요.

3억6천만쌍까지 축복의 고개를 넘고 천주 해방권의 선포

이런 위세당당한 권위를 가지고 사탄세계를 굴복시키는데, 그 능력이 죽어야 되겠어요, 살아 있어야 되겠어요? 살아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꽃이 피고 과일, 결실을 맺어야 되니까 축복 세계화와 더불어 사탄 혈통 단절을 선포하고, 2세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권에 서는 시대, 세계적 봄의 시대에 들어갔다구요. 그러한 통일교회 자유 해방권 내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때, 전체·전반·전권·전능의 시대,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못 하는 것이 없는 시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전개를 사탄세계의 부인으로서는 주변을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구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이 일본이라는 해와 나라 전국민이라고요. 여기서 그대로 혼자 두게 되면 지옥 밑창에 떨어지겠으니까 그것을 품고 브레이크를 잡고 왔지만 정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에 와 있다는 것을 충고한다구요. 알겠어요? 이렇게 까지 확실하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는 책임 안 진다구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인간 가정을 연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분별 기준을 중심삼고 선생님의 뒤를 어머니가 따라왔지만, 세계적 축복권을 중심삼고 짜게 됨으로써 1992년 여성해방 선포와 더불어 시작한

세계적 여성운동을 중심삼고 옆에 서게 된 거라구요. 세계 가정을 흡수하는 해방권에 선 거라구요. 옆에 서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뒤에 있었던 하나님이, 인류 모두를 거꾸로 해서 거기에 따라가던 하나님이 선생님 앞에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모셔와 가지고 선생님 보좌에 앉게 해서 인사하고, 하나님 가정의 세계화 운동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3만쌍, 36만쌍, 360만쌍, 3억6천만쌍이라구요. 그렇게 해서 축복의 고개를 다 넘어와 버렸다구요.

거기에는 원수도 아무것도 없대구요. 에덴 가정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런 생각 의식을 하나님 심정으로, 사랑으로 소화함으로써, 승리한 아담 이상의 자격으로 하나님 해방과 더불어 사탄 악마의 살인자들까지도 해방해서 천국에 참석, 가입하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지옥 문과 천국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지금까지 축복한 가정들 중에는 마피아도 있고 일본 야쿠자도 있고 나쁜 사람, 살인한 사람, 지금 도망하고 있는 사람 등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대구요. 이런 처치를 함으로써 그 권내에 들어 있는 모든 죄인은 역사적으로 해방권에 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이웨이를 타고 그 나라에 닿을 때까지 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어디라도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세계적 천주 해방권을 선포했느니라! 아멘! (박수)

하나뿐인 천국 문

여성해방을 중심삼은 그 7년 동안에 선생님 일대에 해방권을 지금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일본이니 한국이니 하는 나라가 없대구요. 에덴으로 돌아가니까 말이예요. 이렇게 되어서 다시, 잃어버린 2차대전 직후의 그 기반을, 1952년의 세계적 완성권을 겨우 맞이해

서, 축복 세계화 운동을 중심삼고 해방을 선포하고 사탄 혈통 단절까지 선포했으니 사탄도 아무 조건을 걸 수가 없고, 하나님은 만세로 환영하는, 전권을 가진 새로운 이상세계가 전개되게끔 되었다구요.

그것은 통일교회의 승리한 가정, 순결을 지키고 순수한 가정 앞에 하나님이 상속해 주게 되는 거라구요. 잡다한 무질서한 가정은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런 종류의 정신을 철저히화하기 위해서 축복가정 교육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 세 번째에 일본 간부들이 참석했다구요. 모두 꼬리를 빼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 사탄세계의 개인으로부터 가정·종족·국가세계 전체가 축복의 혜택권 내에 들어온 거라구요. 축복받으면 그것은 세계적 해방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사탄적 문은 없다고요. 사탄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없다고요. 천국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참부모님이 와서 처음으로 천국 문을 개방한 후에 지옥 문을 개방하는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런 기준의 세계적인 축복 붐을 중심삼아 가지고 영계의 선조들을... 알겠어요?

영계의 조상들을 축복해서 지상의 아벨권을 보호하게 해야

영계의 선조들은 천사장 몸이 아닙니다. 아담이 16세 이후 사탄적인 몸이 된 거라구요. 타락 이후 천사장 몸이 되어서 낳은 것이 인류라구요. 이것을 해방해 줌으로써 선조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개인 천사장이 아담 가정을 보호하고 승리권에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벨권 천사장 가정이 그걸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타락한 혈통을 잇고 있는 영계에 있는 선조들을 축복하는 거라구요.

그들을 축복해 주면 그들은 천사장 형님과 같다고요. 천사장의 장자

권 가정이니까 천사장의 차자권의 입장에 선 가정은 자유로이 처리할 수가 있다구요. 지상에 있는 사탄적 가정은 완전히 추방, 제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축복을 해 가는 거라구요.

이것을 전부 계속 여기에 투입하는 거라구요. 영계의 선조들을 투입 시켜서 천사장이 개인적으로 미완성한 것, 다시 말해 이상 가정, 이상 국가 편성을 위해 가인권 선조들이 아벨권의 가정·국가·세계를 보호하는 시대로 전환해 가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사탄 가정을 추방하는 것과 더불어 하늘 가정을 돕는 거라구요.

이것은 사탄세계의 전부를 넘어간다고요. 이렇게 세계화했기 때문에, 그 천주적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요. 세계적 메시아는 재림주, 참아버님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국가 메시아, 그리고 종족적 메시아, 가정적 메시아로 메시아가 전부... 여기서 승리해야 할 것을 안 함으로써 잃었던 그것을 여기서 탕감복귀하는 거라구요. 천주 메시아 재림, 세계 메시아 재림, 국가 메시아 재림, 종족 메시아 재림, 가정 메시아 재림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교의 남미 통일권을 이뤄 신교의 북미를 통일하는 대전환기

여기 자르단에서 여러분 축복가정이 종족 메시아도 되고 가정 메시아도 된다는 거예요. 전체의 메시아가 여기에 모여 오는 거라구요. 여기서 잃었던 것을 여기서 탕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을 중심삼아가지고 이 땅을 수직으로 파면 딱 여기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남미 대륙을 중심으로 해서 가인 아벨이라고요. 브라질이 가인이면 파라과이는 아벨이라고요. 아벨은 동양 사람의 혼혈 국가라고요. 파라과이는 아프리카와의 혼혈 국가라고요.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초국민적, 초인류애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아벨 입장에 있고, 우루과이는 사탄적이라고요. 백인밖에 없어요.

흑인하고 유색인종을 다 박멸한 거라구요. 그것을 지금 이 기준을 중심삼고 가정 교육을 하게 되면 파라과이가 자동적으로 흡수되고, 우루과이도 자동적으로 흡수되는 거라구요. 그렇게 해서 4개국 경제 통일권을 이루어, 네 나라가 하나되어 미국을 방비하게끔 하는 거라구요. 이것은 유럽과 일체가 되어 있고, 그 이상은 북미하고 관계하고 있다가구요. 북미와 남미의 분쟁의 중간권에 문선생이 서서 구교와 신교를 통일함으로써 남미 북미가 통일되는 대전환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축복으로.

축복을 하는 데는 구교 신자도 신교 신자도, 남미 사람도 북미 사람도 하는 거예요. 통일권에 있어서 축복을 함으로써 하나의 문화권이 생겨나게 되니까 그런 조건으로 말미암아, 남북미가, 기독교의 구교 신교가, 옛날에 일체권이 안 되었던 것이 일체권의 입장을 이루어서 축복받는 그 승리권을 이루는 것과 더불어 세계를 초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에 모두 모여 있다구요. 하나님, 만능의 왕, 국가 메시아, 종족 메시아, 가정 메시아, 모든 축복가정을 여기서 결속시키는 거라구요. 지금까지 40년 이상, 이것을 여기서 했어야 되는데 잃어버렸으니까, 선생님은 혼자서 온 거라구요, 아무것도 없이.

문씨 종족이 분열되고, 나라가 반대하고, 그리고 동서문화가 결렬되고, 지상천국이 분열된 모두를 여기서 통합하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전체·전권·전반·전능이라구요. 세계 조직 체제는 평면권이 되는 거라구요. 벌써 좌익도 우익도 없어졌어요. 알겠어요? 전권은 뭐냐? 사탄적인 주권, 전권으로 하나님 법을 무너뜨리던 사람은 전능한 하나님의 전권을 중심삼고 뒤집어지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여기에 있는 일본을 중심삼고... 누구를 교육하느냐? 일본을 하는 거라구요. 한국 사람은 북한도 남한도 선생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구요. 한국을 중심삼고 탕감해야 될 모든

것을 선생님이 깨끗하게 한 거라구요. 일본의 나카소네 수상과 후쿠다 수상,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을 중심삼고 선생님이 3국에 대해 책임을 다해 온 거라구요. 그것은 시 아이 에이(CIA;미국중앙정보국)도 잘 알고 있다구요.

종교권을 연합해 유엔을 중심삼고 세계 정치체제를 컨트롤해야

선생님이 가정을 소화하면 야당 여당을 소화하고, 나라와 반도, 대륙을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해야 할 일본이 그 사명을 다 못 했으니까 도서국가연합, 반도국가연합, 대륙국가연합도 만들었다구요. 바로 유엔 체제를, 아벨 유엔권을 만들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선생님이 단연히 선포하는 거예요. 종교권을 결합하여, 종교가 하나의 정착지를 중심삼아 가지고, 유엔의 몸적인 대사를 중심삼고 세계를 멸망시켜 사탄권으로 이끌어 가고 지옥화하는 위험한 정치 체제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된다구요. 어떻게 해서 종교가 새롭게 대사관 제도를 만들어 커버하여 컨트롤할까 하는 거라구요.

선생님을 중심으로 종교 유엔, 종교의회권을 만들어 전세계 종교권 사람들이 하나의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서 결속하게끔 하는 거라구요. 사탄 역사관에는 그렇게 결속할 수 있는 이론적 내용의 진리가 없어요. 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통일교회를 중심으로 종교권 통일 의회를 만드는 길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을 소화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지금까지 일해 왔다가구요.

만약 일본 나라가 전국가적으로 이런 제2의 하나님의 나라로서 공인받는 입장에서, 구교의 로마 가톨릭과 같이, 바티칸과 같이 유엔 대사를 보낼 수 있게 되면 일본이 세계를 지도하게 된다구요. 아벨적인 대사관을 중심으로 가인적 대사관을 소화해 가는 거라구요.

그런 위대한 축복권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국가적 기준

에서 세계 전체, 천주 전체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입장에 서게 되면, 그것은 지옥 밀장으로 직행해 떨어져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비판 반대하는 입장에서부터 하늘도 땅도 다 구원하는 결정권을 향해 뒤로 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판타날 중심한 관광 취미산업 발전 계획

일본에 돌아가면 피난 보따리를 싸라구요. 안 하는 사람은 영원히 선생님과 결별이라구요. 알겠어요? 이것이 자르딘과 판타날... 이것은 수륙으로 가장 가깝다구요. 120킬로미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조건에 판타날과 자르딘과 그리고 벨지도와 살로브라가 있다구요. 이것이 소생적이고 살로브라가 장성적이고 판타날이 완성적이라구요. 지금부터 관광 취미산업을... 선생님이 말했지요? 취미산업을 일으켜야 돼요. 장래에는 전쟁을 할 수가 없다구요. 청소년들의 활기찬 그런 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해양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다구요. 야쿠자, 마피아, 테러단에 가입했던 나쁜 청년들을 해양훈련을 시킬 경우 거기에 취미를 붙이게 되면 술집에 안 가는 거예요. 모두 낚시를 기다려 가지고 해양 도전 기념일에 동서 남북을 막론하고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큰 붐이 되고 있다구요.

그것을 보면 아무리 선진국가 자녀들도 이런 해양 취미를 가지게 되면... 낚시를 하게 되면 흥분을 하는 거예요. 왜 흥분을 하느냐 하면, 사람은 피를 보면 흥분한다구요. 스트레스 같은 것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나(참치) 큰 것을... 선생님이 잡은 것 가운데 큰 것은 1,373파운드나 된다고요. 선생님의 6배, 7배에 가까운 그런 참치를 작은 낚시줄로 잡는 거예요. 그것은 뭐 걸작이라구요. 그 이상의

진지한 것은 없어요. 흥분도 그 이상의 흥분이 없고, 충격도 그 이상의 충격이 없어요.

잡게 되면 대단하다구요. 그것이 점핑하는 것에 따라 배가 춤을 춘다구요. 산 높이까지 펑펑 튀던 것이 피를 흘리게 되면 암소를 한꺼번에 열 마리 정도 잡은 거와 같은 피가 한꺼번에 쏟아 하고 배 주변에 쏟아진다구요. 그렇게 되면 작은 물고기는 뭐... 그렇게 해서 피를 흘리는 걸 보게 되면 흥분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돌아갈 때는 손을 들고 만세를 하면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춤을 추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배멀미를 하고 그랬어도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거예요.

그런 흥분의 장에 참석하기 싫은 사람은 죽어라 이거예요. (웃음) 피를 흘리는 물고기도 펑펑 점핑을 하는데, 점핑하지 않고 잠자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죽어서 세계의 비료권에 있어서 물고기들의 식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웃음) 그런 취미산업에 흥미 있어요? 취미 있어요? 취미라는 것은 환경이라구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구요. 알겠어요? 너 무슨 취미를 가지고 있는냐고 물으면 문학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한다고요. 재미있는 환경권을 말하는 거라고요.

세계 해방권을 이룬 참부모에 완전히 붙어 따라와라

환경에는 절대적으로 주체와 대상이 필요하다구요. 그것은 창조원리, 복귀원리의 내용이라구요. 주체 객체가 있을 때, 자기가 주체라면 자기가 영원히 재미있어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찾을 경우에, 나는 노동이다 하게 될 때, 매일 땅을 파서 몇 미터의 땅을 하루에 파는 기록을 내고, 하루에 5미터 이상 10미터 이상 파다 하는 그런 챔피언을 뽑기 위한 세계 노동 올림픽대회를 해 가지고 세계의 노동 챔피언으로서 서게 되면 그거 재미있다구요. 팬티 하나만 입고 일을

하게 될 때 땀이 줄줄 많이 흐른다고요. 땀이 눈에 들어가면 눈물도 나온다고요. 눈물도 나오면 이게 이 선을 따라가야 하는데 많이 나오니까 여기 입에 들어가면 침도 툇툇 뱉는 거예요.

삼수가 합쳐서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것이 쪽 흘러가면 배꼽을 통해서 불알을 통해서, 여자는 음부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 흘러서 털까지 다 젖게 하고, 발끝까지 젖게 하고, 그 발 주변까지 젖게 하면 하나님도 안심하게 된다고요. 삼수가 통일해서 감동적인 해방권의 물 세계를 이루는 거라고요. 물로써 모두가 재생되는 거라고요. 산천초목은 물의 공로로 말미암아 파란색 천하가 된다고요. 물의 공로라고요.

하나님도 그걸 보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삼수가 합한 데에 피까지 흘리게 되면 4수라고요. 그렇게 되면 자고 있던 하나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눈물과 피를 흘리는 그런 생사의 경계를 넘어서 승리를 하게 될 때는 하나님도 동참하여 축하를 하는 거라고요. 해방권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생님이 주류사상으로 해서 그런 길을 출발해 가지고, 청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40년 이상, 53년 이상 실천도상의 선두에 서서 승리의 권한을 넓히고 승리의 차원을 확대해서 세계 해방권, 고차원의 세계 해방권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찬양해야 돼요, 쳐야 돼요? (박수)

그렇게 보면 일본 민족은 찬양하는 민족이에요, 치는 민족이에요? 치는 민족이라면 그것은 지옥에 가야 되느냐, 천국에 가야 되느냐? 지옥 밑창으로 선생님이 차 가지고 쳐박아 버리지 않으면, 정비하지 않으면 그것을 메울 수가 없다라고요. 남겨 놓고 메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결점을 세계적 교육재료로 해서, 일본 사람 이상으로 세계 만민은 메우라고 하는 교육을 할 시대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고요. 이것은 천적인 상을 받은 찬양의 교재로서 쓰이든지, 지옥의, 파괴의 교재가 되든지, 두 가지 다 교재가 되는 거라고요.

선생님이 이루었던, 투입한 가치 기준에 반대가 되면 그 반대가 된 것을 확실하게 후세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 반열이 계속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가 있고, 만약 그렇게 이론 실적이 있게 되면 그대로 해서 지옥을 넘어 천국으로 직행하는 후세가 될 수 있는 해방의 지상천국 천상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일본 사람을 교육하고 있다구요. 결단을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교육받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에게 완전히 붙겠어요, 어떻게 되든 좋아요? 틀림없이 완전히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붙겠습니다.」 정말이에요요? 「예.」

그래, 붙겠다는 사람은 모두 그 자리에 일어서 봐요! 뒤로 돌아! 지금까지 뒤로 돌아서 해 왔다구요. 선생님 앞에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탐해 온 이 일본 사람, 지금부터 자기를 희생시키고 선생님 발자취, 선생님 뒤를 완전히 상속하겠다는 결심이 선 사람은 부부가 서로 손을 잡으라구요. 확실하게 잡고 어느 것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다 하는 입장에 서서 지금부터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다시 한 번 뒤로 돌아도 되지만, 결심 안 하는 사람은 뒤로 돌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럼 하라구요. 정말이에요요?

절대신앙사랑복종과 하나님의 4대 속성의 심정권을 가져야

피난 보따리를 준비하라구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연장해 보라구요. 그 기간이 끝나 보라구요. 터져 버린다고요. 여러분이 없어도 세계의 축복가정을 중심삼고 선생님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고생한 그 공로를 투입하면 세계 축복 3억6천만쌍은 문제없어요. 기독교 문화권에 다 교육되어 있는 거라구요. 일본적인 야오요로즈(팔백만)의 신, 잡교권... 일본 문부성에 등록된 종교만도 18만이라구요. 알겠어요? 「예.」

정신차리라고요. 활기차고 정정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부끄럽지 않은 일본의 축복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선생님은 충고한다구요. 알겠어요? 「예.」 그렇게 되겠어요? 「예.」 틀림없이 그렇게 되겠다는 사람은 다시 한 번 양손을 들고 맹세합시다! 「예.」 앉으라고요. 또 속이면 큰일이니까... 그렇게 선언한 뒤에는 지옥에 가더라도 선생님은 책임을 안 진다구요.

이렇게 해서 다 텅 비게 된 곳을 영계의 선조들이 다 들어가서 자기 종족 뒤에 연결하는 거라고요. 몇 억만 축복가정을 영계에서도 이루고 있는 거라고요. 천사장 가정을 중심삼고 타락한 천사장 가정을 소화하여 천국의 아벨적 천사장 가정으로 복귀하고 축복해 주면 참부모권의 사람을 전면적으로 응원하게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이 경계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경계선, 개인의 경계선, 가정·종족·민족·국가의 경계선이 없어지고 해방권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부 다 선생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가장 앞에 세우고 선생님과 어머니를 중심삼고 선생님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 올라가는 데 문제가 없다구요.

1945년부터 1952년까지의 축복 해방권을 이루고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 기준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의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결의를 해서 이룬, 그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가정적으로 완성한 그 기준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상대가 된다는 그것이 자르던 선언의 제1번이라고요.

제2 선언은 뭐냐? 하나님의 4대 속성권의 상대는 그 4대 속성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유일·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인 우리도 가정에 있어서 부모로서도 절대, 자녀로서도 절대, 부부로서도 절대, 형제로서도 절대, 이런 4대 심정권의 실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가정 자체 전부가 그런 완성권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르딘 제2 선언이라구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어요? 「예.」

부모로서 절대·유일·불변·영원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 중 한 가지만 되면 전부 완료된다고요. 자녀로서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자녀가 되고, 남편으로서 절대 남편, 유일 남편, 그리고 불변·영원한 남편이 되고, 아내로서도 그런 4대 심정권을 패스한 아내가 되고, 그런 부모를 중심한 자녀가 됨으로써 그러한 획적인 번식을 하는 가정으로서 그런 철저한 완성권에 일치된 해방권에 서게 될 때 사탄권과는 영원히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녹음이 중단돼 일부 수록하지 못함)

영계 해방과 지상의 완벽한 섭리로 복귀 완료를 선포한다

자르딘이 어떤 곳이나?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고, 바다를 사랑해야 되는 거라고요. 영계를 앎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영계 사정을 앎으로써 나라를 알게 되었고, 나라를 알게 된 사람으로서 산천초목 전부를 사랑해 온 거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생애에 걸쳐 물과 육지를 사랑해 왔다고요. 육지에서 바다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지를 연결해서 돌아가는 거라고요. 탕감 복귀라고요. 그 뒤는 사탄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해방권을 중심삼고 역사적인 죄를 전부, 하나님과 아담이 잃었던 것을 전부 찾아서 하나님 편에 입적시킴으로써 천하 평화 통일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해방 완성이라는 표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 이상의 해방권은 없습니다. 무엇으로 그 기쁨을 표시할 것이냐 이거예요. 천하를 상속하는 엄숙한 이 시간에 내심 맹세하고, 맹세한

결과 이상을 밟고 밟아서, 도약이 아니라 비약하는 하늘의 왕 앞에 나타나는 효도하는 효녀로서, 애국자로서, 성인으로서, 성자로서 하나님의 황족에 속하는 형제가 되는 축복가정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챔피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일단 단결한 기준에 있어서 선두에 서든 뒤에 서든 각자 결심에 따라 자유라구요. 챔피언이 될 거예요, 꼴찌가 될 거예요?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챔피언은 한 사람이예요, 두 사람이예요? 선생님이 챔피언이라면 여러분은 열두 제자라구요. 그리고 36 제자로서의 승리권을 얻은 챔피언권에 서는 거라구요, 시대에 있어서. 알겠어요?

복귀 완료의 탕감권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민을 사랑하고, 산천초목을 사랑하고, 바다를 사랑하는 노정을 감으로써, 전부 사탄에 의해서 분열된 것을 여기서 결집하여 사탄을 분별하고 직행함으로써, 가정적 배치를 하고 종족 편성, 국가 편성으로 여기에 올라가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4:4절을 선포함으로써 영계 해방과 더불어 지상의 완전 완벽한 섭리 복귀 완료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세와 더불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종교권 정치권을 중심삼고 완료했기 때문에 복귀 완료라는 이름이 표제가 되었습니다. (박수) 꿈같은 이야기가 그대로 되었다구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선생님은 10월 5일, 추석날에 영계에서 축복한 사람을, 가정적 가인 선조들을 지상에 배치했다구요. 사탄 가정은 무너진 다구요. 알겠어요? 만능한 전권을 가지고 평면적으로 밀게 되면 전체가 평지가 된다고요. 도랑이 자동적으로 메워져 평지가 된다 이거예요. 물과 공기는 평면을 만든다고요.

사랑도 자동적으로 평면화시킨다고요. 물보다도, 공기보다도 더한 접착력 통과력이 있으니까 참사랑이 침투할 수 없는 곳이 존재권에는 없습니다. 초월 존재로서, 주체권을 이루는 권한으로, 모든 실체를 사

량으로 주관하는 권한을 가지는 거라구요. 그것은 주인이 되고도 남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알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라구요. 알겠어요? 「예.」 박수해야 되잖아요? (박수)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이후 말씀은 녹음상태 불량으로 수록하지 못했음) *

사랑 세계의 왕자 왕녀

(아버지가 들려주신 사랑이야기 제12권 '지상과 영계편' 《삶과 사랑, 그리고 영혼의 세계》 제3장 죽음과 영혼의 세계. 제1절 인생필연지도 1.나는 어디로 가는가 2.우리가 가야 할 곳 3.죽음은 인생필연지도 4.인간이 결국 가야 할 종착점 5.'돌아간다'는 말의 뜻 6.죽음은 제2 출생의 복된 관문 7.새로운 세계로의 탄생 제2절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1.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 2.하나님의 형상과 심정과 신성을 본받으라 3.자신의 영원한 재산을 만드는 길 4.영계에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5.하늘나라의 백성을 찾아야 할 우리 6.영계에서 필요한 것 7.영생문제를 가르쳐 줘야 제3절 영혼의 세계 1.영계는 지상세계와 다른 세계 2.사랑으로 엮어진 저세계 3.심정권과 영계 4.영계란 어떤 곳인가 1)시공을 초월한 세계 2)사랑의 공기로 충만한 세계 3)사랑에 의한 직감의 세계 4)상상이 미치는 것은 다 가능한 세계 5.영계에선 사랑의 이상가가 행복의 대왕 6.영인의 활동 무대 7.영계의 생활 8.영계의 사랑의 위계 9.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는가 혼독)

영계를 알면 알수록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이 보게 되면 정상적이지는 않겠지요.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안 보이겠지

1998년 11월 7일(土),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자르단).

* 이 말씀은 제3차 40일 수련생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만, 그 영계가 막연한 영계가 아니고 공식적인 영계입니다. 그것이 주체의 세계라면 주체의 세계에 상대의 세계가 필요한데, 상대의 세계가 인간 세계, 인간이 이상 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영계와 접하는 두 가지 길

주체의 세계인 하나님을 중심삼고 상대세계인 인간세계를 보게 되면 타락했기 때문에 상대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 되는 하늘나라의 또 다른 주체, 주체 대시(주체)와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안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타락한 인간들이라 해도 영계를 안 가려야 안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영계를 알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쌓여진 모든 뭐라고 할까, 거름더미라든가 덮여진 모든 것을 치워 가지고 찾아오는 길하고, 그 다음에는 인간이 자기에게 썩워진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반대로 치워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하고 이 두 길밖에 없다구요. 하늘이 필요해서 치워 가지고 내려와서 접하는 길하고, 인간 세계가 이 모든 덮여진 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치워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영계의 타락하기 전 자리에 올라가는 길하고,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특별한 후손들, 선한 조상들을 중심삼은 심정적 기준이 높은 후손들입니다. 그 반대되는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옥에 속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청산해 가지고 타락 전 단계로 올라가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라는 것은 타락 전 단계에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입장이고, 여러분이 이것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고마운 것은, 여러분이 이제는 영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그 세계에서는 영계를 몰랐어요. 지금 선생님의 시대에 와 가지고, 성약시대에 와서 영계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이것은 꿈같은 얘기고, 공상과 뭐라고 할까, 황당무계한 세계와 같이 느껴지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누구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 세계의 내용을 원리원칙을 통해 가지고 발전적 궤도, 기차 레일을 까는 것과 마찬가지로 깔아 가지고 기차를 만들어서 태워 가지고 구경시켜서 가야 할 것이 구원섭리, 하나님의 섭리적 복귀의 노정, 복귀역사 노정이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삶에 맞는 영계에 가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어디 가면 어떻고 어떻다고 다 얘기했지만 그것이 연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처해 있는 자리가 하나의 중심을 중심삼고 둘러 있기 때문에, 360도에 둘러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와 가지고 레일을 보는 것하고 남쪽에서 보는 것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쪽은 남쪽의 개념이 되어 있어서 그걸 중심삼고 가기 때문에 가면서도 순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다구요. 지금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순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 온 습관적 기준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그와 같아요.

가야 할 길은 단 한 길인데, 동서 사방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360도의 길을 모아 가지고 한 길로 가야 할 텐데, 자기들이 몇 도, 몇 도를 중심삼고 상대의 세계를 바랐기 때문에 180도 전혀 반대되는 입장으로 가니까 마음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마음이

원치 않지만, 이걸 반드시 끝날에 역사시대를 통해서 언제든지 맞춰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맞으면 억천만세 저나라에 가서 보류 되는데, 보류되는 자기 입장과 같은 영계에 가는 거예요.

영계는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억천만 인간을 한 구덩이에 몰아넣을 수 있는 몇천 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믿고 가겠다.' 그러면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가 갈 곳은 저 먼 곳이라면 통일교회 사람은 거기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 360도 산 주변이 얼마나 커요? 거기에 가 가지고 올라가는 길은, 자기 갈 길을 자기가 개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올라가는 길은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돌아간 다 해도 맞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이 본연의 하늘과 직통할 수 있는, 하늘의 정문과 직통할 수 있는 그 길이, 개인으로부터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역사시대에 섭리의 뜻을 따라 나오는 인간들의 생활 배경이, 문화적 역사를 거쳐왔다 하더라도 그 전통과 환경 여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가지고는 하나의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 완성 체제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 갈라졌어요. 그래 가지고 전부 다 담으로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전지전능하더라도 사탄은 '내 세계를 뜯어고쳐 가지고 이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전권 전능의 주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적 뜻을 파탄시키는 왕 중의 왕이다 이거예요. 그게 악마예요, 악마.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역사시대에 종교를 세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종교는 중심과 같은 거예요. 가르치는 교리를 중심

삼아 가지고 사탄과 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개인 완성, 가정 완성... 이런 길을 닦아 나온 거예요.

이것은 종교들이 다 달라요. 개인 완성의 사명을 시키든가, 가정 완성의 사명을 시키든가, 국가 완성의 사명을 시키든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 완성을 하게 되면 가정 완성, 가정 완성을 하면 국가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런 도덕적인 길을 세워 나가기 때문에 성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인 중의 성인 예수님

그러면 성인이 아시아적 성인이나, 세계적 성인이나, 하늘땅의 성인이나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성인 중의 성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늘땅의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하늘땅의 성인이 되느냐? 하늘땅의 정도(正道)를 개척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이상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관(觀)을 중심삼고 볼 때 예수님이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대해서는 독생자(獨生子)라고 했습니다. 이걸 놀라운 말입니다. 독생자, 역사 이래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첫번 사랑이요, 몽땅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라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알겠어요? 타락한 세계에서 그런 의식을 가졌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런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나가서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독생자라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신 있어요? 없지요?

지금 한 말이 허황된 말 같고 망상적인 말 같은데, 여러분은 그걸 전부 다 소화하고 '나는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못 합니다. 따라가지도 못하고 넘어가지도 못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천년 만년 그 아래에서 넘어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을 억척만년을 거치더라도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게 된다면, 영계를 알고 있는 통일교회 교인이라면 나쁜 일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뒤로 돌아서 갈 수 없습니다. 돌아서면 어두우니까. 햇빛을 정면으로 바르게 받아 가지고 모든 것이 동서 사방을 볼 때 감싸고 그림자도 나를 중심삼고 센터에 있어서 좌우로 그림자가 같지, 그림자가 엇갈리게 안 되어 있다구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더라도 같은 그림자 가운데 따라가면 정도(正道)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는 구세주를 세워서 펼쳐 나가는데, 구세주가 뭘 구하러 와요? 어려운 사람에게 밥을 먹여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녹음이 잠시 끊김)

하나님을 중심한 뜻의 완성은 기독교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세계에 속해 있으니. 이걸 전부 다 깨끗이 청산하고, 없애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부정해야 됩니다. 내 삶을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중심삼고 사랑의 인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독생자인 동시에 신랑이고, 신랑뿐만 아니라 형제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이렇게 말한 교조는 오로지 기독교뿐입니다. 무슨 불교나 유교나 회회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삼은 뜻의 완성은 기독교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은 자동적인 결론이라구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한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는 종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개인이 있는데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개인의 갈 길, 가정의 갈 길, 종족의 갈 길, 나라의 갈 길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의 갈 길만 따라가게 되면 개인 완성, 가정 완성, 종족 완성, 민족 완성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라의 애국자가 되게 된다면 가정의 형제지간에 있어서 불신을 받게 되었다든가, 부모 앞에 불효를 했든가, 일족 앞에 배반자가 됐더라도 그 사람의 그런 과거의 모든 것은 취소돼 가지고 그 일족이 그를 애국자로서 다시 신봉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하면,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너나할것 없이 최고의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를 믿되 어떤 종교를 믿으려고 하느냐 하면, 최고의 종교를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종교가 무엇인지 몰라요. 어느 종교가 최고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지고, 7부 능선에 올라가 가지고 꼭대기를 가야 하는데 어디로 올라가야 할지 몰라 가지고 돌다가는, 올라간다고 하는데 거꾸로 가 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고 갔는데 내려오는 길을 타 가지고, 올라가는 길과 같아서 그 길을 타고 갔는데 거꾸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정까지 찾아가는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어려운 점에 부딪히게 되면 영계를 통해 담판을 지어 가지고 생사지권의 해결을 지을 수 있는 선지자들, 선각자들, 도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도주들의 기준이 세계에 널려 있는데, 그 널려 있는 도주의 기

준 가운데서 최고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말이 재미있습니
다. ‘독’ 자는 감독한다는 의미의 ‘독(督)’ 자입니다. ‘터 기(基)’ 자입니
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가르침의 종교가 기독교다 이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후에는, 7부 능선, 8부 능선에 올라가게 되면 수많은 세
계적인 모든 종교가 4대 종교로 수습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4대 종교.
4대 성인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역사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그 4대
종교가 올라가 가지고 2대 종교, 2대 종교로 되어 가지고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세상을 통일할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통일교회가 이 모든 종교를 통일해 나가는 거예요.
‘통일’ 할 때의 ‘통(統)’ 자는 ‘따라가는 통’ 자가 아닙니다. ‘거느릴 통
(統)’ 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중심이 돼 가지고 수습해서 거느려 가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영계의 복잡한 것, 지상의 복잡한
것을 거느려 수습해 가지고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지상 통일, 천상 통
일을 해 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까지도
통일시켜야 되는 거예요.

타락은 뭐냐 하면, 전부 다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도 갈라지고, 아
담 해와도 둘이 갈라지고, 가정도 갈라지고, 우주가 다 갈라져서 이렇
게 망하게 돼 있으니 통일세계를 이루려면,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면
갈라진 하나님까지도 통일시켜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아이고, 내가 천만금, 황금덩이 다이아몬드 보따리를 가졌으니 이
것을 줄 테니까 당신이 전부 다 통일해 주소.’ 이것은 안 통합니다. 하
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금은 보화를 일시에 몇천만 개라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계에 가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욕심도 많고 크지만 ‘야, 이렇게 대단한 곳이 있구나. 상상할 수 없는 비약적인 욕망을 플러스시킬 수 있는 장소다. 그러니 복 중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근원지다.’ 하고 느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알았다면 죽는 것이 문제겠어요? 그것이 내 세상이 된다면 그 뜻을 위해서 이마가 깨지고 배가 갈라지고 정면적으로 죽더라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런 곳이 있다면 천리 만리의 높은 산꼭대기라 하더라도, 천야만야(千耶萬耶)한 벼랑에서 점핑해 가지고 옥살박살이 나서 사지백체가 가루가 되어서 터져 나가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먹고 살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또 시간을 여기겠네. 결론을 내자구요.

인간세계에 접하고 싶어도 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입장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니 모든 도인들에서부터... 시골 산정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와요. 산정, 산꼭대기에서도 물이 납니다. 그거 알아요? 여기 꼭대기를 바늘로 찌르면 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나와요.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디든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산꼭대기를 파도 물이 납니다. 알겠어요? 바다 밑에서도 물이 나와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삼고 볼 때 생명의 큰 산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적 사랑의 산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산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좀 내려오소.’ 해 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올 수 있으면 세상 만사를 벌써 다 완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려올

수 없습니다.

사랑의 상대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 하나님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혼자 살았다 하더라도 늙어 죽게 되었을 때 소원 풀이가 뭐냐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가지고 악수라도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소원이 풀리는 거예요. 뭐 사랑하는 건 그만 두고, 뭐 키스도 그만 두고, 악수라도 한 번 하면 죽어도 한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대할 수 없었습니다. 핏줄이 달라졌어요. 인간은 원수한테 더럽힌 핏줄을 받았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간부(姦夫)입니다. 간부가 뭐 줄 알아요? 여자 셋을 합한 간부(姦夫)지요? 여자 셋이 합하게 되면 싸움만 생기지 평화는 없어요. 여자가 요사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 어머니, 만딸 3대 과부가 사는 집에는 강아지도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웃음) 할머니가 구박 안 하면 어머니가 구박하고, 어머니가 구박 안 하면 며느리가 구박하니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쥐새끼도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자 셋을 갖다 붙여 놓았으니 어때요? 간부는 뭐냐? 거짓 사랑의 상대를 갖고 번식한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오면 본연적 기준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양반이 쌍년하고 관계해 가지고 낳은 아들은 뭐예요? 홍길동 알지요? 「예.」 홍길동은 서자도 아니예요. 공비(公婢)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공비(共匪)는 공산당 스파이 아니예요? 공비를 통해서 났으니 그건 어디에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대감님이라 해도 한 방에 살 수 없어요. 죽어도 갈 수 없고, 죽더라도 거기에다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출 아들딸을 가지면 망신이라는 거지요. 직계 아들딸을 중심삼고 이렇게 가야 정상

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한국 전통이 참 놀라워요. 그런 전통은 세계에 없대요. 그건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사탄세계의 서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무엇이겠어요? 홍길동같이 태어난 거예요. 공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집에 가서 암만 황금포대기 이불이 퍼져 있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앉기를 하겠어요, 눕기를 하겠어요? ‘똥!’ 하고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올라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간세계에 접촉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창세 이후 연금상태의 고독한 하늘나라의 왕부(王父)로 계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주인 양반이 고독한 연금상태의 입장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해 메시아를 보낸다

생각해 보라구요. 그분이 자기의 본연의 아버지요, 본연의 주인이요, 이 우주의 주인이요, 본연의 사랑의 근원을 중심삼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사랑의 무한 환경권에서 살 수 있는 만물이 한번 그릇됨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그 고통권 내의 그늘 아래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을 하루 저녁에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구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그걸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 아담이 인간세계에서 거짓 부모가 되어 거짓 사랑을 뿌렸으니, 이것을 전부 다 취소시키고 본연의 사람의 가치 이상을 중심삼고 효자의 도리, 충신의 도리, 성인의 도리, 성자의 도리를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심정적 기준이 제일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다도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다봐야지 내려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중심삼고는 자기보다 높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결혼할 때 다 그랬지요? 암만 못생긴 얼굴을 가진 여인이라도 세계의 제일 미남자 중에서 대왕 미남자를 얻고 싶었지 추남을 얻겠다는 생각을 안 했을 거라구요. 여자는 제멋대로 생겼지만 말이에요, 마음이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자기 사랑의 상대는 자기보다 몇천만, 몇억만 배 좋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세포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종적인 사랑의 상대는 자녀고, 횡적인 사랑의 상대는 부부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상대는 자기보다 몇천만 배, 몇억만 배, 무한 억 배 낫더라도 ‘좋—’, 천년 만년이라도 ‘다!’ 그렇게 바란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랑의 상대를 복귀해 오는 그런 아들이 있다면, 그는 역사 이래에 자기가 바라던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는 몇천만 배, 몇억만 배 기다려도 찾을 수 없는 아들이다 할 수 있는 아들의 불길이 제일 높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들이 그렇고 상대도 그럴 수 있는 자리에 갈 때는, 모두 다 잊어버리고 세상을 내려다보고, 땅을 내려다보고, 그를 붙들고 따라가기만 하면 세상 천지 어디든지, 땅도 지옥도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으니 통일천하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차할 수 있는 길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서사방을 중심삼고 바라볼 때 360도, 위로 봐서 몇만 도가 되는 거예요. 구형을 전부 돌리면 몇억만 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몇억만 도와 같은 거기에 문이 있는데, 막혔던 그 문에서 그럴 수 있는 아들딸이 나오고 상대가 나온다면 그 이상의 문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바라는 이상세계보다 더 큰 이상세계가 되겠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타락권 내의 하나님도 더 날아갈 수 있는 희망적인 세계까지 연결시켜야만 자주적인 입장에서, 스스로 창조주의 입장에서 위신을 넘어 자기 사랑의 상대가 이루어진 그 세계에 따라가서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그래야 되느냐? 메시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라 하면 일본말로 식당 주인을 말하지만 말이에요. (웃음) 식당 아버지지만 영적인 식당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는 세상을 구해야 하는데, 세상을 구하는 데는 인간만 구해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까지도 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타락하던 기준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이해돼요?

메시아는 천사장의 협조 아래 가정이상을 완성해야

여러분은 지금 어느 레벨(level;기준)에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 이래 몇천만 년이예요? 큰 동물들을 보면, 상어로 보게 되면 2억5천만 년으로 잡아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데, 동물들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6천년 전에 만들었다는 것은 이론적인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몇억만 년이라는 거예요. 몇천만 년, 1억 년을 넘어서 2억5천만 년에서 2억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고 해야 이론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날부터 영어의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 나라의 왕이고, 여러분 세계의 왕이고, 영원 불변한 왕인 동시에 아버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될 때에 눈물이 나오고 뺨골이 다 운다는 거예요, 뺨골이.

그런 아버지가 있는데 뜻을 따라가는 이들이 자기 아들딸이 뭐 어떻고, 내 남편이 어떻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내 나라가 뭐 어떻다고

염려하는 게 쌍년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독수리 밥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세계에 직행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낸 것입니다.

메시아는 아담 가정에서 실수한 것을 복귀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이것을 찾아야 하나님이 위신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세워 가지고 이들이 절대신앙할 수 있고 절대 사랑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되기를 바라고 메시아를 보내 가지고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의 창조이상적 사랑의 모든 것을 무조건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그 복을 받아 가지고 나라를 이루어야 할 입장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다 파탄시켰어요.

그래, 예수를 중심삼고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었어요. 이건 가인 아벨이에요. 오른편 강도는 아벨을 말하고, 왼편 강도는 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맞아서 죽었어요. 맞아 죽는 자리에서 부활하지 않고는, 맞아 죽는 자리에서 부활할 때에도 사탄이 협조하지 않고는 아담이 완성할 때까지 협조할 수 있는 사탄적 기준을 전부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천사와 합해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천사장의 보호를 받아 가지고 가정이상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아벨은 맞고 맞고 맞고, 세계적인 해방 가정들은 맞고 맞고 피 흘려 가면서라도 때리던 그 가인은 천사장인데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끝날을 보지 못하게 되면 가정을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거기서 사탄을 사랑하고, 가인을 자기 아들딸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꿈쩍 못 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했다. 네 아들딸보다 더 사랑했다. 더 사랑했다.’ 하는 말은 네 사탄세계의 가정과 모든 것을 몽땅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자주적인 입장에서 상대권을 갖고 소유권을 가진 것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원래 상대권을 갖지 못하고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권과 소유권이 없던 너희들이 소유권을 가진 것은 비법적이니 원칙적 사랑의 주인은 나니까 그 주인 앞에 너희들은 다 내놓고 봉사하고 절대 섬겨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 할 때 ‘그렇습니다.’ 하고 다 내놓아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본연의 이상적 에덴 출발이 천국 출발과 마찬가지로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지금까지 직계 아들딸을 사랑해 보지 못했다

선생님도 그래요. 선생님의 아들딸을 지금까지 사랑 못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책임 다 못 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가정이 총탕감을 받고 있습니다. 흥진군도 그렇고, 지금까지 여섯 딸이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대신 그런 입장에서 서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선생님이 손을 대면 가정은 문제없다는 거예요. 전세계가 하나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모를 자기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통일교회 패들, 거지 떼거리 같은 것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자기 이상 희생하고, 하나님의 아들딸인 직계 아들딸은 무시하고 내버려놓고 동정하고 사랑한다 이거예요.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리가 그런 입장인데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36가정 거지 패들을 안고 지금까지 살아 왔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집에 무슨 잔칫날이 있더라도 아들딸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도 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너희들은 저 뒷방에 가서 밥 먹어.’ 그런 놀음을 했다구요. 그런데 통일교회 축복받은 36가정은 자기 아들딸 사랑하기를 선생님의 아들딸보다도 몇 단계 이상의 자리에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래 놓고 아들딸을 낳게 되면 ‘이제 너는 선생님의 아들딸하고 결혼하는 거야.’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 이거예요. 뭐 떡을 줄지 말지 한데 김칫국을 달라는 문세라구요. 36가정이, 대표적 가정이 전부다 그런 자리에 못 섰어요.

보라구요. 선생님이 수십 년 동안 외국에 나와서, 미국에 나와서 외국을 정비하는 이때에 있어서 한국에 돈이 부족해서 일화니 통일산업에다 수십억 달러를 모아 가지고 후원하고 다 그랬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썩어 가지고 도적질했어. 이놈의 자식들, 선생님이 그냥 안 넘어가. 똥싸개까지 파 가지고 갈래갈래 정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야. 이것이 날아가게 안 되어 있어요.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더럽히기 때문에 던져 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누가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여기에서 일본은 ‘아하, 그것 포기하니 좋다.’ 이랬어요. 독일 공장을 포기한 것이 좋다고 하는 게 일본 패들이예요. ‘일본이 아이 엠 에프(IMF; 국제통화기금) 금융 위기로 문제가 된 한국과 무슨 관계가 있고, 선생님이 통일산업, 일화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것 전부 팔아 치우면 되지.’ 이놈의 자식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은 끝까지 혼자 7년, 8년 기간을 중심삼고 끌고 나왔어요. 통일교회는 부도가 나서 망한다는 소문이 났지만 내가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러한 환란 가운데서 브리지포트 대학을 만들고, 선문대학을 만들고, 오늘날 남미에다가는 1억7천만 달러의 돈을 썼어요. 이런 놀음을 혼자 세상이 모르는 가운데 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동정이나 했어요? 이 녀석들을 살려줘 가지고 축복해 주고 해방의 제단을 만들어 복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줬는데, 이것도 이렇게 해놓아 가지고 뭐 어떻고 어떻고 하고 있어요. ‘왜 땅 끝에 가라고 해?’ 하고 말이에요. 어제 들었지요, 복귀 완료라는 말. 「예.」 여러분만 못해서 선생님이 이 놀음 하는 거예요?

40일수련 기간에 부부가 세뇌되어야

이번에 여러분이 완전히 세뇌되어야 됩니다. 남자 세뇌가 아니에요, 남자 세뇌. 부부 세뇌를 해야 돼요. 자기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요? 부부 세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세뇌.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영계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지요? 그런 부부는 없지요? 혼자서는 못 가요. 혼자서는 못 간다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가 있는데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걸 몰라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갔다가도 기다려 주고, 내려가서 끌어 줘 가지고 같이 가야지 혼자 가 가지고는 가정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전부 다 봐 가지고 축복해 줬습니다. 하나되거들랑 자기 자체들은 불행한 것 같지만, 천지조화의 균형적인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천운이 거기서 돌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똥 걸레 같지만 똥 걸레 가운데 다이아몬드를 쫓는 거지요. 다이아몬드와 황금 덩어리를 쫓 거와 마찬가지로요.

그래, 여러분의 사주를 보게 된다면 ‘어머니 아버지는 엉망진창인데, 아들딸은 왜 이런 사주가 나와?’ 이래 가지고 사주 보는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보고 통일교회라는 것을 알고 놀란 거예요. ‘야! 문 총재가 위대한 분이다. 사주 보는 사람 이상이다.’ 이런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유명한 사주 보는 사람이 있었다구요. 이모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주를 봐 가지고 궁합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고 특별히 배필을 빼려면 일주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밥을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 선생님은 그때 하루에 73쌍까지 하고 그랬는데, 하루에 73쌍

이 아니라 7천3백 쌍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준 사람의 이름하고 생일을 가져와 보라고 해서 갖다 주니까 그것을 보고는 나한테 일어서서 경배하더라구요. 이 사람들은 사주를 보니 죽을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맺어 줬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선생님은 눈이 이상해요. 내가 싹 도수만 맞추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울룩불룩에 가까운 사람은 뒤로 가고 쓰러지고 하는 이런 놀음이 벌어져요. 그런 생활 체제로 나가면 여러분은 남아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박수 무당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누가 들어오면 ‘뭐 하러 들어와, 자식아! 뒤로 돌아, 이놈의 자식!’ 그런 놀음을 했다고요. 그렇게 살게 되면 여기에 하나도 안 남아요.

완전히 몸뚱이 가지고 지상의 모든 영통인들까지 지배하고, 몸뚱이 가지고 악마까지 지배할 수 있어야 심신 해방권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영계를 알아 가지고 영계의 도수를 맞춰야만 지상 해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몸뚱이 가지고 영통하는 사람과 하나님까지도 내 뒤에 따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서는 해방을 못 해

하나님 혼자서는 해방 못 해요. 하나님은 자기 혼자 해방을 못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훌륭한 왕권을 가지고 사랑하는 부부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불효자가 나오면 마음대로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딱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불효자를 효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왕도 무릎을 꿇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문 총재도 사탄의 혈통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타락의 혈통을 받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먼 데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해서 넘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연 기준을 넘어서니까

바뀌지는 거예요. 이 기준을 넘어 가지고 그 위에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적 해방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이상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갈라졌던 것을, 재림주가 이 땅에 와 가지고 반대 되는 것을 전부 소화해서 개인 해방부터 다 해 가지고 기독교 문화권을 중심삼은 영적 해방권에서 실체적 해방권을 중심삼고 일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영육 다 잃어버린 걸 선생님이 재편성해 가지고 지금 복귀 완료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복귀 완성이 아니고 완료예요. 완성은 계속적인 의미가 있지만 완료는 끝입니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선생님 앞에 말을 듣고 앉아 가지고 공상을 하고 부정하고 ‘저런 건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박혀 있지 못해요. 전부 다 여러분의 컴퓨터에 기록되는 거예요. 마음세계의 컴퓨터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감정할 수 있어요. 1천 명을 순식간에 감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르륵 대번에 감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몇억천만 년을 순식간에 달릴 수 있는 그런 감정의 세계인데, 여러분의 모든 몇억만 년의 가당치 않은 것들을 순식간에 다 분석해 낼 수 있는 거라구요. 그 앞에 누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우리 통일교인들은 최고의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이 바라던 창조이상적 최고의,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기를 바라는 상대와 높기를 바라는 아들딸이에요. 그렇지요? 사랑의 상대는, 어떠한 남편이라도 자기 사랑의 상대는 높기를 바라고, 아들딸도 높기를 바라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참된 사랑의 상대, 참된 아들은 하나님의 본연의 심정 기준보다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에서 잘라 버리고 여기에서부터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를 수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해방할 수 없어요.

자르딘 교육본부의 역할

그런 기준에서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느 기준이에요? 똥통 가운데 똥통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뭐 입을 벌리고 통일교회 뭐 어떻고 어떻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멋대로 살았지요. 제멋대로 살다가 선생님의 가정까지 전부 다 버려 놔어요.

이제는 문제가 그래요. 선생님의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재산과 여러분 생명과 아들딸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일족(一族)을 제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국(一國)을 제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전체, 여러분이 살고 있는 통일교회 전체권을 희생해서라도 이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전체적 대표의 가정으로 서 가지고 이 일을 성사했다는 해방권을 받기 전에는 선생님의 직계 자녀의 기준을 통해서 선생님 앞에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억천만 수난의 길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욕을 안 하고 피를 안 봐요. 피를 흘렸지요? 내 일생에 핍박을 그렇게 받고도 참아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 성격인 줄 알아요? 어릴 때부터 괜히 매를 한 대 맞으면 잠을 못 잤어요. 복수하는 거예요. 집에 불을 놓고, 소 대가리를 까는 거예요. 별의별 짓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아무개가 한다 하면 못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팔십이 되도록 참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웁니다.」 피를 보게 된다면 피가 그치질 않습니다. 참부모의 가정에

서 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에텐에 있어서 아담 해와를 쫓아내던 것과 마찬가지로, 참부모의 가정에 있어서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부모의 자식은, 혈통은 쫓아낼 수 있지만, 참부모의 심정권이 연결된 혈통은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가정들을 끄트머리는 발꿈치가 썩고 죽어 가지만 달고 이걸 해부해 가지고 다시 가짜 손발을 만들어 붙여서라도 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데려다가 이 놀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헌금을 받기 위해서? 나 돈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죽으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리를 못 잡으면 거지 떼거리보다 더 천대받아요. 몰리고 쫓기고, 슬픈 역사의 햇빛을 바라보고 해방의 아침을 찬양할 수 없고, 달빛을 바라보고 밤에 사랑의 상대를 찾아가는데 축하의 빛으로 환영할 수 없는 비통한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햇빛을 보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달빛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후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해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이 원해서 행동해 가지고 일시에 다 죽더라도 그 길을 넘게 하는 것이 선생님의 올바른 지도로서 보는 관(觀)이요, 그것이 넘어야 할 길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똥구더기 같은 그런 돈 다발, 똥구더기 같은 아들딸을 여러분 부처처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구요. 그걸 살려 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세계의 축복가정들을 살려 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데, 여러분은 꿈에서라도 동정이나 했어요? ‘선생님이 남미에 가 가지고 뭘 하는 거야?’ 이랬지요?

여기 교육본부가 아니면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걸 누가 알아요? 아

무 것도 모르는 뭐라고 할까, 양반의 자식이 뭐예요? 서출보다 더하다구요. 이런 자식들이 된 것을 데려다가 왕궁에 왕을 모시고 만조백관이 회의하는 데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고 자기 딸을 자랑할 수 있는, 자기의 그 왕권의 축복을 바랄 수 있는 아들딸이 되어 있느냐, 축복받은 가정의 그런 실질적인 부부가 되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복을 주기 위한 이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영계에서 백년을 지옥살이할 거냐, 지상에서 일년 감옥살이할 거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걸어온 역사적 시대를 몇 년 동안에 탕감해야 되는 거예요. 배도 타야 되겠고, 감옥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감옥을 안 가면 감옥을 만들어 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계에 가 가지고 조건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문을 받아 봐야 되는데 고문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핏줄이 하나돼 있으면 부모가 맞은 핏자국은 전부 다 후손에게 남아질 수 있지만, 핏줄이 다르면 핏자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계에 가서 1백년을 지옥살이 할 거예요, 지상에서 1년을 감옥살이 할 거예요? 그런 가치를 모르지요? 보이지 않으니까 뭐 무심하게, 생각지 않고 넘어가지만 1백년이 아니에요. 억만년 세계의 승리의 패권을 지상 위에서 탕감할 수 있다면 일생을 감옥살이하더라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일생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예.」 지금도 매맞고 천대받는 것을 생각할 때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훈독회를 하는데, 왜 훈독회를 하게 하느냐? 말씀을 한 50년 전 그때는 고독단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매일같이 울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 가지고 승리의 날을 위해 하나님 자신이 지상을 대해서,

선생님을 대해서 승리하라고 빌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 때가 어디 있어요? 효자뿐만이 아니라 충신이 되고, 성인이 되고, 성자의 길을 가 달라고 빌어 주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사랑의 결실체가 되기를 바라는 내 자신이 천만 번 죽더라도, 인류를 쓸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길을 가는 것이 천리의 대도를 바라는 창조주의 소원의 직행 길임을 알기 때문에 이 놀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뜻길을 간다고 하는데, 뜻길이 그렇게 지저분하고 그렇게 막된 길이에요? 쓴 총알이 개인에서 가정을 뚫고, 종족을 뚫고, 민족국가세계천주하나님의 심장을 뚫고 되돌아와 가지고, 여기 나한테 와 가지고 상처를 입히지 않는 총탄이 되어 등에 와서 꽂혀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해요. 지금 형편 무인지경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예.」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 사다리가 필요하고, 그런 줄을 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멋대로 살고, 그런 탈을, 그런 감투를 쓰고 여기에 와 앉아 있는데 40일 교육을 받아 가지고 될 게 뭐예요? 4천년, 4억년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비행기에 붙은 파리처럼... 한국에 가는 대한항공이면 대한항공 비행기에 떨어지지 않게 딱 달라붙은 파리가 그 비행기가 한국에 내리게 된다면 같이 한국에 가는 거예요. 한국에 가 가지고 선생님의 집에까지, 안방에까지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안방에까지 찾아 들어가 가지고 '아이고, 알고 보니 대왕마마의 집이구만. 그분 둘이 사랑하는 것을 지켜 줘 가지고 참가할 수 있는 대표의 포석이 되겠다.' 하면 파리도 저나라에 있어서 사랑의 상대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위험한 환경에 거하고 있다

오늘 선생님이 새벽에 죽 돌아보니까 여기를 지키는 사람도 없더구만. 선생님의 집 말이에요. 자기들은 편안한 잠을 자겠다고 생각하지요? 여기를 생각해 보라구요. 원수가 얼마나 많아요? 천주교 전체가 원수라는 거예요.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 많아요. 여기는 1백 달러만 주면 살인 청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 생사지권의 체단 위에 홀로 자고 있는 선생님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기가 차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어디 있어요?

푸에르테 올림포가 있는 파라과이는 옛날에 케이 지 비(KGB; 소련 국가보안위원회)의 중심이 돼 있고, 시 아이 에이(CIA; 미국중앙정보국)의 중심이었던 격전지예요. 7천 명 이상의 케이 지 비 스파이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남미 전체를 주도했던 거예요. 범죄자들은 푸에르테 올림포에 찾아와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브라질에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3분이면 건너가요. 그래 가지고 연락이 왔다 하면 3분 이내에 왔다 갔다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치당이 여기 파라과이에 피난 오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는 곳입니다. 범죄자들이 도망해 오는 근거지고 은신하는 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복판에서 발가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효자가 되려면 천리 만리 원정길이라도 걸어와 가지고 그 땅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고, 부모님을 보호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나 가져 봤어요?

이 두 부부, 어때? 얼굴을 내가 처음 보는구만. 몇 가정이야? 「기성 가정입니다.」 그러니 처음 봤겠지. ‘선생님이 돈이 있으면 사업 안 시켜 주나?’ 해서 그런 것 찾으려고 여기에 왔어? 공짜나 바라고. 「아닙니다.」 아니면 뭐야?

3대를 제물 삼아야 해방 받을 수 있어

3대를 제물 삼아야 돼요, 3대. 할아버지, 부모, 자식의 3대를 제물 삼아야 해방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전부 다. 사탄 수까지 해서 사위기대를 중심삼고 7수입니다. 이 사탄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제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소속됐던 나라나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에게 바쳐 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자기 소유권을 보유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왔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잡으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나무를 심었는데 거꾸로 심어 가지고 순이 나고 가지가 난 것을 바꿔 심어야 되는 딱 그런 놀음이에요. 그래서 궁둥이를 힘 주고 다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나무처럼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붙이면 죽어요. 그러니까 잘라 버리고 선생님과 같이 가지를 바로 세워 놓고 접을 붙여야 사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어떤 관념을 가지고 살던 그 방식 가지고는 전부 다 거꾸로 되어 죽어요. 선생님과 관계없어요. 어차피 선생님이 정리하는 시대가 온다구요.

오늘날 발표한 요 기간 내에 모든 것을 중심삼고, 앞으로 통일적인 세계가 올 때는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을 공개 평가할 때가 올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자서전을 써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만물 전체, 아들딸 전체, 가정 전체, 일족 전체, 일국 전체, 이 사탄세계까지도 대신해서 조건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이런 조건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160마리의 고기를 잡는 것이고, 160가정 올림픽이에요. 또 냉전시대, 평화시대의 160개 국가 유엔 가입이에요. 160수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16은 4수의 4배수예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 놀음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물질 제물시대, 신약시대는 아들 제물시대, 성약시대는 부모 제물시대예요. 지금 때는 뭐냐 하면, 성약시대인데 부모 제물시대예요. 그 다음에는 해방 완성시대입니다. 해방시대입니다. 하나님 해방시대예요. 그러려면 이 우주를 전부 불살라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지상은 물론이고 영계까지 쓸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있어서는 안 될 게 생겨났어요. 전부 다 쓸어 버리고 다시 뒤집어 가지고 하늘에 바쳐야만 천국이 개문(開門)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제물권, 해방의 제물로서 모든 것을 바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려 드려야 돼요. 돌려 드리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뒤집어 가지고, 영계와 지상세계의 왕권을 180도 반대의 자리에 세워 가지고 통일천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간 내에 자기 아들딸을 사랑하고, 자기 아들딸 학비 뭐 어떻고, 집을 사 가지고 뭐 어떻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집이 어디 있어? 다 불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성염을 만든 거예요.

그래, 이제 통일교회 교인들은 앞으로 새로운 왕궁을 지으면 세계의 모든 만국이 합해 가지고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피값, 살값, 뼈값, 심정값을 총합한 전체 재산과 나라의 핵을, 골수와 같은 것을 모아 가지고 천년 만년 억만년 정성 들인 그 터전 위에 선생님이 살 수 있는 왕궁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조국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자기 가정의 정착의 근본이 되고, 민족 해방, 지상천상세계의 해방의 근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잖아요?

참부모가 아니면 미래의 세계를 개척할 수 없어

이번 3차 수련까지가 중요합니다. 3차까지 말씀한 것이 정리할 수 있는, 앞으로 미래의 심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저금통장을 남겨 가지고 선생님을 빚지게 해 가지고 빚쟁이한테 참소 받게 만들면 그 나

라, 민족이 편안할 수 없습니다. 다 들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신만고 수고한 모든 기반을 중심삼아 가지고 환고향해서 백성들을 전부 다 품을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북이 통일되는 거예요.

남북통일은 문충재가 아니면 안 된다고 지금 평가를 잘 내더구만. 지금 현대그룹하고 통일그룹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북한 남한정부들이 걸려들어 가지고 왔다 갔다 잘 한다 이거예요. 선생님이 바둑을 어떻게 두느냐에 달려 있어요. 북한을 놓게 되면 북한을 중심삼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남한을 중심삼으면 남한을 중심삼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 있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내가 한국을 안 가요. 북한도 안 가는 거예요.

한국을 버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을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구요. 하나님 자신만 찾으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가정을 대표한 효자, 국가를 대표한 충신, 세계를 대표한 성인, 하늘땅을 대표한 성자의 도리의 사랑권을 중심삼고 하나님을 가정에서 부터 나라로부터 세계에서 받들 수 있는 전체의 따르는 사람들이 통일 교회 교인 일족인데, 일족이 그 전체를 받들 수 있는 일체적인 기반 위에서만 하나님을 해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큰 시련과 거쳐 나가야 할 과정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앞으로는 헌법으로 정해 버려요. 유엔의 이름을 가지고 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유엔도 별수 없습니다. 선생님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미래의 세계를 개척할 수 없어요.

통일교회가 아니면 세계의 난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현재 제일 난문제는 청소년 문제입니다. 이 청소년 문제에 손들고 있어요.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소화할 수 없습니다. 부

시가 그때 그 기금의 3분의 1만 맡겼으면 다 해결했지. 가정 문제, 에이즈 병을 방지할 가정의 도의적인 질서를 세울 수 없어요. 통일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통일교회 원리를 알고 어떻게 탄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다, 이 쌍것들아! 「없습니다!」 ‘없다, 이 쌍놈의 선생아!’ 이래야 된다구요. (웃음)

그래, 하나님을 얼마나 반대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자빠졌다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을 부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유치원 졸업장만 가진 사람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대학을 나오고 고등학교 이상 나온 이런 사람들이 일일이 행동을 못 하면 각을 찢어 독수리 밥을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1심판이 벌어지니, 심판 안 받은 고기세계의 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고기가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습시다.」 고기를 파우더(powder; 가루)로 만드는 것같이 사람을 전부 다 파우더로 만들어서 고기밥을 만들면 어떻겠어요? 사람 고기 맛있겠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선생님은 여지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피를 흘리질 않아요. 죽이고 남을 수 있는 재료가 날리리둥둥 달려 있지만 피를 안 보기 위해서...

그 대신 동물의 피, 그 대신 고기의 피, 그 대신 통일교회 이 자식들의 피땀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 없이 따라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그림자와 같이 땅 끝까지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해방된 그림자에 속한 모든 것은, 그 안에 있는 금은보화는 해방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백만장자의 수표책도 그 그림자에 있으면 선생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탄 데 있다간 사탄이 들어붙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심판에 걸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심각하다구요. 원수를 갚아야 할 때가 왔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아프고 원통해하면 하늘이 침묵을 하며 통곡을 하던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백분지 일, 천분지 일이라도 이 세상, 최악 세상에 대해 미련이 없습니다. 무서운 사나이예요. 정신차리라고요. 다 말해줬는데, 나중에 가 가지고 말도 안 하고 선생님이 이런 일을 단행하느냐고 하지 말라고요. 공산당의 일은 한 때예요. 선생님의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모든 것을 이뤄 주고 싶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자기의 남편 아내

이제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자기가 부부를 이루었다는 사람, 남편을 가졌거나 아내를 가졌다는 사람 손 들어 봐요. 그 아내가 진짜 아내였고, 진짜 남편이었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봐요. (웃음) 왜 웃어, 쌍것들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언제 이렇게 물어 보겠어요? 교육받으러 왔으니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절대유일·불변·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4대 속성, 심정권을 대표할 수 있는 주체 대상으로서 지상에 하나님을 직접 흡수시킬 수 있는 완성한 가정 기준의 부부였느냐 할 때 어때요? 왜 웃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내리라고요.

남자로서 여편네가 소원하는 참의 길에서, 선한 길에서 여편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못 이루어 줄 수 없다, 있다? 「없다!」 (녹음이 잠시 끊김)

보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모든 아들딸의 마음을 이루어 주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효자의 마음, 고생하는 모든 걸 영원히 다 이루어 주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효자충신·성인·성자의 그 아들딸은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영원히 다 이루어 주고, 다 이루어 주고 영원 영

원히 계속할 수 있다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신 것입니다. 남편,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맞춰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천년 만년 내가 수난 길을 가더라도 감사히 소화하고 사랑의 그늘에서 죽고, 사랑해서 죽는 것이 그 사람의 책임이라면 하나님은 살려 주는 것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어요. 살려 주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죽을 고개를 넘어가더라도 가야 할 일은 나의 일이고, 죽을 자리에 가더라도 그것을 하겠다고 죽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일을 다 했다는 이름표를 달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세상의 지식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다 내 제자로 만들었어요. 노벨상 수상자들도 나를 선생이라고 모시는 사람이 많습시다. 선생님만 아는 세계, 영계를 선생님한테 배워야지요. 그들이 배워야 되겠어요, 선생님이 배우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잘났다는 사람이고 못났다는 사람이고 전부 다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해야 돼요.

그것은 참부모라는 말만 알게 되면 어느 누구나 가능해요. 참부모는 개인에게도 영원히 절대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도 절대 필요한 것이고, 종족에도 절대 필요한 것이고, 민족국가세계에도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도 절대 필요한 거예요. 개인 완성을 위한 참부모라면 하나님도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필요한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선생님이 요구하는 조건, 영계는 전부 다 즉각적인 심정권으로 창조해서 이룰 수 있는 세계인데, 그 세계를 만든 하나님이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겠어요, 안 이루어 주겠어요? 없더라도 창조해 가지고 이루어 준다는 책임을 짊어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계를, 천사장이니 뭐니 전부 다 정리해 놓고 ‘하나님, 당신도 보고 싶지 않은 이 타락한 것들을 다 없애 버리고 새로운 몇십 배, 몇백 배 이상적인 참사랑에 충만한 그러한 우주를 다시 만들어 주소.’ 하면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꿈같은 얘기인데 이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가정의 일곱 식구 마음을 못 맞추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수 있나

하나님의 무한 경계선의 대우주, 끝이 없는 그 세계를 만든 그 세계를 관리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세계에 구상할 수 있는 이상향이 있다면 그런 해방권을 만들어 주겠다는 책임을 추구해 가지고 공인 받지 않고는 그 세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권을 위해서 그 이상까지도, 그 몇십 배까지도 사랑의 심정을 중심삼고 위로할 수 있는 대상적 실체가 됐다는 자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각뿐만이 아니라 실체적 기반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것이 이론적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면 모든 인류가 효자, 충신, 열녀가 다 되었다 할 때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맞춰 준다는 거예요. 억만인이 한꺼번에 다 맞춰줬다고 환영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 우리 인체의 세포가 4백조 개 이상 되는데, 영계의 수천억 사람들이 이 세포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내 생명의 기쁨에 다 동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일시에 해원 성사하고 일시에 대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걸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식인 동시에 거기에서 부부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의 남자, 하나의 여자 마음도 못 맞춰요? 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 여섯 사람, 일곱 사람의 마음을 못 맞춰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겠다고? 남편이 되었으면 여자가 꿈꾸고 행복하겠다는 그 10배 이상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해주겠다고 할 때 미안해서 나 싫다고 도망가더라도 찾아가 가지고 그 자리에 데려가서 또 구경시켜 줘야 할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모든 사랑하는 자식들을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서 있는 자리에 가지, 그걸 맞추지 못하는 부부는 하나님을 대해 가지고 수직적인 아버지로 영원히 모실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는 데 있어서 남편이 마음에 맞지 않는 여자, 하나님이 복귀섭리에 있어서 수천년, 수만년, 수천만년을 거쳐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할 짓 못 할 짓 한 것을 참고 사랑으로 감싸 나오는 마음을 가졌는데, 여편네가 남편이 잘못된 것을 감싸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자신이 없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있다고 하더라도 없어요.

일단 첫사랑을 맺었으면 그 여자의 소원을 다 이루어 줘야 됩니다. 부모가 없어서 부모 때문에 눈물을 흘렸으면 부모 대신 내가 먹여 살리고, 형제 때문에 고통 받았다면 그걸 해방해 주고, 그 이상 해주겠다고 해서 앞에 남편을 세울 수 없게끔 될 때까지, 여자가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여자가 될 때까지 그 일을 더하겠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직계 아들인 남편을 모실 수 있어요?

선생님이 원망했다면 벌써 세계는 망했어요. 수많은 사람을 아예 암살시켜 버렸을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사람이라구요. 지금 땅 끝에서 지령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련에 내 스파이가 들어가 있어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래요. 어디에나 선생님의 손끝에 다 있어요. 앓아 가지고 천하통일이 돼요?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의 아들딸을 수십만 동원해 가지고 한 데 모아

서 게릴라 훈련을 시킬 거라구요. 여자들을 전부 다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통일교회에 들어온 예쁜 아가씨들을 중심삼고 원시림 지대에 집어넣어 가지고 게릴라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40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밥도 안 주고, 총 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개구리를 잡아먹든 뱀 잡아먹든 화살촉을 만들어 가지고 잡아먹어라 이거예요. 그래 놓고 '며칠날까지 집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녀석도 있고, 배굼아 죽는 녀석도 있고, 별의별 녀석이 있을 거라구요. 그런 놀음을 하고 있다구요.

지금 선생님이 소련에 스파이로 보냈던 절반은 노출됐지만 절반은 노출 안 됐어요. 소련을 내가 믿지 못해요.

*너, 그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있지? 그런 것을 공개하면 모두 다 뺏아 버리겠지요? 알겠어요? 「예.」 선생님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기억해 두라구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혈통과 관계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구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아내 마음 하나 못 맞춰 줘 가지고 되겠는가

알겠어요? 남편이 되어 가지고 여편네 하나 마음에 못 들어 줘요? 남자들이 사랑하기 싫다는 여편네하고 싸움하고 말이에요. 그것도 컨트롤해야 돼요. 여자가 싫다고 한다면 눈치 봐 가지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해 가지고 싸움을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자도 그래요. 색이 강한 여자는 남자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전후좌우상하가 그럴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 싫다고 해서 싫다고 할 수 있어요? 여자도 생리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달거리를 해야 하지요? 달거리가 끝난 다음에는 민감하게 되면 히스테리가 생기는 거예요.

요. 이렇게 될 때는 반드시 남자가 품에 품어 주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생리적으로 그걸 풀어 줘야 돼요. 그런 걸 몰라 가지고 남자가 바람 피우게 되면 그건 폭탄을 안겨 주고 폭발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남자들! 「예.」

도깨비 새끼들을 길러다가 왕자로 만들어 주니 도깨비 행동을 하고, 도깨비 옷 입고, 밤이면 도적질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축복가정이 별의별 놀음 다 하지 않았어요? 이러니 전부 다 자식들을 완전히 길러 가지고 천국에 입적할 때는 영계에서 호출 명령이 나게 되면 완전히 ‘깅!’ 정면적으로 전부 다 해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세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선생님 자신도 마찬가지로요. 젊은 어머니를 데려다가... 뭐 40세 된 장년이 열일곱 살 난 처녀를 부인으로 맞췄다는 게 도적놈이에요, 도적놈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복귀라는 것이 있어서 아니라고 하지, 도적놈이지요. 그것을 내가 알아요.

자기 어머니, 할머니와 같이 살던 것의 천 배, 만 배 이상 깨끗이 길러 가지고 훌륭한 동생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동생을 만들어 가지고 복귀하는 거예요. 훌륭한 쌍둥이와 같이 키워서 형제의 자리에 올려 가지고 오빠를 절대 믿고 복종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절대 믿고 절대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이 되고, 절대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3대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남편이 바로 가면 절대복종해야 할 책임이 있어

아무리 못났어도 남편은 우주를 대표한 하나의 주체자라는 거예요. 여자는 상대적 마이너스인데, 동서남북 구형에 있어서 이 주체 앞에 원하는 일을 언제든지 이루어 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

어요?

아무리 자기가 있더라도 그 주체 되는 존재가 갈 수 있는 정도의 길에 있어서 언제나 상처되지 않고 그걸 협조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남편이 바로 가게 되면 절대복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남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절대 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으로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에 박자를 맞춰 줘야 되는 거예요. 못 하더라도 손끝으로라도 박자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노래를 할 때 춤추면 손끝으로라도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입니다. ‘저 남편, 내 말 안 들어서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간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깜부기 알지요, 낚싯대 깜부기? 이 깜부기는 연추보다도 가벼워야 돼요. 알겠어요? 연추보다 크고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깜부기가 무겁게 된다면 가라앉아요. 여자는 깜부기와 마찬가지로요. 이것을 무겁게 한다면 깜부기가 다 가라앉아요. 죽어요. 알겠어요? 「예.」

여기 여자들, 남편 마음을 맞춰 주기 위해서 몇 년을 살아 봤어요? 일주일도 못 가서 앵앵거리잖아요? 돈이 없으면 나가서 헨드레이징해요. 다 배워 줬다구요. 남편이 실력 있거든 공부시켜요. 공부시키라구요. 20년 떨어져 어머니 대신, 할머니 대신 하라는 거예요. 나도 탕감 복귀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나지 못해서 이 민족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나는 잘난 상대가 돼 가지고 어머니, 할머니, 하나님 부인이 잘못된 것까지 복귀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굶어죽지 않게끔 벌어먹을 것 다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낚아채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한량 남편, 바람잡이 남편까지도 전부 다 뒤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바람잡이 남편이 자기의 바람을 던져 버리고 포위돼 가지고 그 품을 떠날 수 없는 사랑의 할머니 품, 어머니 품, 아내의 품, 누나의 품을 가져라 그말입니다. 남자는 어머니의 품을 죽더라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되라는 거예요. 할머니 품, 아내의 품, 누나의 품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자는 6대예요. 왕후로부터 할머니, 어머니, 첩, 그 다음에는 맏딸, 작은딸, 여자의 모든 품을 그리워하는 남자를 대해 가지고 높여 줄 수 있는 해방의 왕이 되겠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여섯 여인이 매일같이 와서 뭐 해 달라고 하면 그것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6백, 6천, 6만 사람도 해주겠다고 해야 그런 여자들을, 세계를 한꺼번에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상대적 조건이 되지, 대가리를 저으면서 나 죽겠다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있어요? 그 여자가 하나 있으면 만우주의 수천억 되는 여자들의 마음을 전부 다 해원성사해서 맞춰 줘야 할 하나님이 얼마나 질식하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어서 오라고 해서 축복을 해줄 것 같아요? 똘! 알겠어요? 「예.」

넓은 사랑의 보자기로 남편을 감싸라

집에서는 10배, 1백 배 이상 넓은 보자기를 가지고 남편을 감싸라는 것입니다. 싸라 이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싸기 때문에 ‘어서 싸 주소. 발끝까지 싸 주소.’ 하는 거예요. 싸 가지고 둥글둥글 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은 모가 많아요. 동그란 베어링이 사각형을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굴리고 이렇게 굴리면 그것이 자연히 동그랗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이상적인 베어링같이 하나님처럼 남자를 어디서나 잘 품을 수 있기 위해서는, 잘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랑의 보자기로 싸서 둥글둥글 굴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영원히 굴려 보라는 거예요.

맨 나중에, 끝날에 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둘이 같이 갈 때 하나님이 제일 가는 가정의 남편을 성공시킨 아내라고 챔피언의 금메달을, 다이아몬드 메달을 목에 걸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해요? 「예.」 그

거 원하는 여자들 손 들어 봐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보라구요. 하나님을 품고 살아요.

남편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 있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언제든지 같이 들어가 있고, 자식의 마음에 들어가 있고, 우주의 만물까지도 마음대로 모실 수 있는 주체적 사랑의 왕자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이상적 부부권,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 세계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2대, 3대 왕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부가 된다면 자랑스러운 부부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원한다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통일교회 마음이 얼마나 커요? 통일교회 사상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커요? 생각해 보라구요.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좁아요?

우리 어머니도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컸어요, 이제는. (웃음) 요전에는 누구 불쌍한 사람 있으면 사 주고 싶으면 사 주라고 했더니 전부 다 불쌍하거든. 자기 옷까지 다 나눠 주고 자기 기념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주었더라구요. 선생님이 제1차 세계순회를 할 때 7천 달러를 가지고 떠났는데 그때 기념물로 독일에 가서 라이카 카메라를 사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위해 색깔 좋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고 그랬어요. 여비를 7천 달러를 가지고 가서 7백~8백 달러를 남겨 가지고 왔어요. 알겠어요? 굶고 다녔어요. 왜? 그래야 기념이 되는 거예요.

그 기념물까지 누구 컸는지 모르더라구요. 결혼반지 해준 것도 누구 컸는지 몰라요. 잊어버리라고 했더니 진짜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신랑은 안 잊어버렸어요. 신랑 안 잊어버리면 됐지 그 외에 무엇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신랑을 잊어버리면 웅가당 땡가당 금은보석을 사지백체에 전부 다 걸고 끼고 가졌더라도 다 담 너머로 집어 던지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신랑만 필요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좋다는 일은 너무 잘 해서 걱정이라구요. 뭐 옷을 사 주라고 했더니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옷을 사 주려고 하고, 자기 옷을 다 나눠 주고, 내 옷까지도 전부 다 나눠 줬어요. 넥타이 한두 번

매면 나눠 주누만. 그것 망할 집이에요, 흥할 집이에요? 「흥할 집입니다.」 벅타이 없다고 할 때는 그 나눠 준 세계의 사람이 한꺼번에 전부 다 하나씩 갚아 주겠다, 못해도 열두 개씩 갖다 줘야 한다면 어떻겠어요? 이래 놓으면 부자 중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왜 그런 놀음을 안 하겠느냐 말이에요. (웃음) 알겠어요? 「예.」

통일교인 가정은 하늘나라의 노래방

이번에 돌아가게 되면 싸움하고 살래요, 웃고 살래요? 「웃고 살겠습니다.」 웃으면서 노래해요. 여러분, 노래방에 가 봤어요? 「예.」 하늘나라의 통일교회 사람들 가정은 하늘나라의 노래방이요, 이 지구 지역의 노래방의 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둘이 새로운 곳이든 어디 가게 되면, 교회장 교역장 교구장 체면이 있는데 아무개 부부가 노래 못 하면 창피하니까 유행곡이든 무엇이든 불러 보라고 해서 시키는 거예요. 대중을 포섭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 그거예요.

선생님이 원맨쇼를 잘 해요, 원맨쇼. 알겠어요? 말하는 데도 원맨쇼를 잘 하고, 그런 데 소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화무용단도 만들고, 유니버설 발레단도 만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세계 최고의 동양무용, 서양무용 톱의 자리에 올라왔어요.

몇 시야? (웃음) 여러분은 배고파서, 선생님이 이제는 나타나지 않고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밥도 안 먹여 주고, 시간 잡아먹고, 자기들 못 살게 만들고, 공부도 못 하게 하니까 ‘선생님 필요 없다.’ 할지 모르겠어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난 좋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것을 다 가르쳐 줬어요. 시험만 쳐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고 먹고 자고 싸우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통일교회는 예외가 없습니다.

마음세계의 해방권을 가진 왕자 왕녀가 될지어다

선생님은 한번 한다면 딱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약속한 대로 프로그램을 짰 그냥 그대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존경해요. 어머니가 누굴 존경한다구요? 「아버님을 존경하십니다.」 여러분을 더 존경하지 선생님을 존경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느냐? 나하고 둘이 약속했으면 약속한 말을 영원히 가도 깨려고 생각 안 해요. 깨자고 해도 안 깨지만, 어머니가 때로는 그걸 하고 싶을 때 ‘한 시간만.’ ‘하루만.’ 이런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것 안 돼! 약속은 약속이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존경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 단상에서는 큰소리하지만 집에서는 제멋대로 하는 사나이가 아니에요.

어때? 이 남자도 남의 말 안 듣게 생겼어. 눈이 조그마해 가지고, 족제비 같아 가지고 쥐구멍을 찾아 쥐 잡아먹겠다고 뒤질 수 있는 소질이 많겠구만. (웃음)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왕자, 그릴 수 있는 왕녀, 하나님께서 찾아올 수 있는 왕자 왕녀, 마음세계의 해방권을 가진 왕자 왕녀가 될지어다! 사랑의 세계에서 해방된 왕자 왕녀, 천주적 왕자 왕녀가 될지어다! 「아멘!」 그런 왕자 왕녀는 지옥과 천국은 있으나 없으나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일본 멤버들, 오야마타한테 고맙게 생각해 야 돼요. 이 녀석, 선생님은 감탄한다구요. 머릿속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말이에요. (웃음) 컴퓨터도 조정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안 되는데, 그 이상으로 지껄인다구요. (웃음과 박수) 지금 이런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지요? 오야마타가 통역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

하는가를 생각할 때 거기에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구요.

너! 거기에 앉아 있어도 돼, 이 녀석? 선생님이 몽둥이로 후려갈긴 다구. 이 안에서는 앉아서 보고 있어도 그대로 놓아두지만 밖에 나가면 틀림없이 몽둥이로 후려 친다구요. 그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문제, 사후의 문제, 앞으로의 생애 문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전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은 선생님을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박수) 고맙게 생각해요? 「예.」 선생님이 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더라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상권의 해방 세계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 수련회의 주된 목적입니다. 알겠어요? 「예.」 해방의 왕자가 되기 위해서...

배가 고프지요? 선생님도 뱃심이 없으니까 끝내자구요. (박수)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

통일신학대학원 출신자의 사명

이 양반은 누구던가? 내가 임자를 자주 만나야 할 텐데 몰라봤구만. 박 박사? 「예. 얼마나 학교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치의로서 무료로 다 돌봐 주시고... 한국 사람으로서 그렇게 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김효율 보좌관)」 음.

통일신학대학을 세우게 된 이유

학생들이 몇 명이나 왔어요? 이 사람들이 학생들에게요? 학생들에게요? 오늘은 다들 어디 가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 남아 있어요? 갈 데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웃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전부 따라 나가서 현드레이징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요. 그렇게 따라가게 하지 않은 것은 학교가 잘못했구만. 「하려고 했습니다만...」 직접 못 한다면 도와 주고 뒤처리해 주고 그래야 된다고요.

여기 아프리카 사람이나 각국 사람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학비를

1998년 11월 7일(土), 미국 통일신학대학원.

* 이 말씀은 통일신학대학원(UTS) 교수와 학생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자체로 벌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요. 학교가 지금 방학이 얼마 동안이
예요? 5개월 되잖아요, 5개월? 야-, 그 기간을 가지면 뭐 학비가 아
니라 학교를 세우겠더라구요. 학생들이 놀아 가면서도, 주일날도 있잖
아요, 주일날? 주일날은 계산 안 하나요? 주일날도 계산하라고요.

여기 누가 책임자를 정해서 하면 학생들이 돈 벌어 가지고 학비 내
고, 학교 비용까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미국 교회의 신세를 안 지고
자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요. 지금도 ‘아이구, 도와 주소.’ 한다고
요. 그것들은 자체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졸업생들이나 동창생
들, 선배 가정들을 찾아가 가지고 후원할 수 있게끔 다 학교에서 만들
어 줘야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학교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에게 매일같이 얘기하고 연결 지어 놓으면, 그 사람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 거라고요.

선생님이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선생님이 주선해 가지고
다 하잖아요? 몇 년째예요? 몇 년 됐어요, 이게? 75년이면 몇 년이
예요? 23년이 됐다고요. 23년 동안에 학생들과 동창생들을 움직여 가지
고 핸드레이징을 배우고 한 것을 실천하게 된다면 학교가 얼마나 풍요
해졌겠어요? 미국의 신학생이 일년에 몇 명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되
어 가지고 신학생이 일년에 몇 명씩 나오고 있어요? 1천 명 가까이
졸업한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내가 있었으면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내가 매일같이 3년 동안을 다
녔다고요. 다 신묘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신묘? 일본 사람이라고 말이
예요. (웃음) 그런 뭐가 있지요.

이 미국은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외국인이 가는 길을 열어 주고 해
야 된다고요. 이 유 티 에스(UTS;통일신학대학원)를 레버런 문이 한
다고 얼마나 꺾박하고 얼마나 제재를 많이 했어요? 그것을 모른다고
요. 내가 여기서 신학교를 해서 뭘 하겠어요? 미국을 살려 주기 위해
서라고요. 기독교가 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려고 있다고요.

*미국의 기독교에 희망이 없어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떤 교파도 도와줄 수 없다가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래, 선생님이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가 있어서 지금 미국 기독교가 할 수 없이 레버런 문을, 통일교회를 따라올 순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선생은 부모 대신이요, 왕 대신

아프리카 학생들이 많구만. 여기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러 왔기 때문에, 지식 수준이 미국에 지지 않게끔 리드할 책임을 절대로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가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 아프리카는 에이즈 때문에 큰일났더라구요.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70퍼센트 이상이 에이즈에 걸려 있더라구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 있으면서 그것을 느껴요? 「예.」 여기 와 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하는 건 틀린 거라구요.

정식 대학들 다 나왔어요? 「예.」 아프리카를 보니까 대학 수준이 뭐 형편없던데. 그래, 공부 잘 해요? 미국 사람보다 공부 잘 해요? 미국 학생들, 어때요? *아프리카의 학생들이 어때요? 「아프리카의 학생들이 공부를 아주 잘합니다.」 미국 학생들보다 잘해요? 「미국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웃음) 아프리카의 학생들이 공부를 아주 잘한다고 했는데, 어떤 레벨에서 잘한다고 한 거예요? 「많은 토론도 하고…」 그러면 일본 학생들은 어때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일본 학생들은 잘 하는데, 언어 때문에 불리합니다.」 언어 때문에? 언어는 문제가 아니에요. 「강의실에서 토론하고 그럴 때 조금…」 말이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것이 비교가 안 되지. 「일본 학생들이 새로운 측면의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그래. 일본 교육 수준은 미국도 못 따

라가요.

그래, 여러분의 선생님이 컬러풀(colorful;알록달록한)한 미국 학생들한테 모든 면에 본될 수 있는 교수라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하지요? 학교가 뭐냐 하면, 부모 대신이에요. 하나님은 뭐냐 하면, 참부모고 참스승이고 참주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뭐냐 하면 부모 대신이에요, 부모 대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생은 부모 대신이요, 왕 대신입니다. 전부 대신이에요, 대신. 그런 생각 없잖아요? 대표한 거예요. 대표한 거라고요. 세 사람을 대표한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 앞으로 교육문제, 공부문제, 생활비나 학비문제, 이 기숙사문제 등 전체를 교직원들이 책임져 가지고 완전히 부모 대신, 왕 대신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 관리 체제가 안 되어 있다고요. 학생들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이에요, 선생에게 찾아가 가지고, 지도자에게 찾아가 가지고 의논할 수 있는 의논 상대가 되고, 부모의 입장에서, 주인 입장에서 해결해 주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아는 친구들만큼도 못 돼 가지고는 참된 교육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학생들이 친구나 이웃 사람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그런 칸셉(concept;개념, 관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의 갈 길, 전통이 선다고요. 미국 사회는 개인주의니 프라이버시(privacy;개인의 자유)니 해 가지고 미국의 장래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선생에게 프라이버시가 있고 개인주의가 있어 가지고 뭘 하겠나 생각해 보라고요. 뭘 가르쳐 줘요? 뭘 가르쳐 줘요? 글만 가르쳐요? 나라를 대표할 수 있고 하늘이 믿을 수 있는 인격 배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학생들 대해서 한번 물어 봤어요? 눈물을 흘려 봤나 이거예요.

보라고요. 선생님에게 1975년이 제일 어려운 때였어요. 미국에 식구가 많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백인 식구를 선교사로 내보냈다고요. 그런 가운데서 75년에 유 티 에스(UTS)를 만들었는데, 전체 미국 식구

의 3분의 2가 잘려 가지고 몇 명이 안 남았다구요.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그 책임을 다 못 했다고요.

선생님이 미국을 살려주려고 하는 이유

선생님이 73년 74년에 전국 부흥회를 해 가지고 75년에 끝났지만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신학교를 그때 세우는 거예요? 전도시키지. 모가지를 잘라 버리고 죽은 몸뚱이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한 거라고요. 가미야마가 뉴요커 호텔에서 강의를 하루에 여섯 번 했어요, 여섯 번. 그때 그렇게 전도했다구요.

그때는 카터의 미국 정부와 싸우기 시작했다고요. 그때 그렇게 전도했는데, 지금 전도가 뭐예요? 1천 명 가까이 졸업을 하는데, 여러분 교직원들이 진짜 사장이 되어 가지고 동생을 위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 신학생 많이 오라고 편지를 하고 권유를 하고 해야 된다고요. 그런 놀음을 해 봤어요?

선생님의 목적이 미국을 구하기 위한 것인데, ‘똑똑한 청년들을 신학교에 보내자.’ 그런 주류적인 사상운동을 여기 배리타운 유 티 에스로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뭐예요? 전통이 안 됐다고요. 이방 사람이 와서 이려고 있는데 주인인 여러분은 그 열 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내가 이방이라고요. 그런데 이 유 티 에스를 미국에 세웠습니다. 주인이 이방인이예요. 그래서 모든 미국 사람들이 나를 반대했습니다. 원수처럼 반대했다구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이러면서 돈을 지금 까지 대 주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뭐예요? 그런 말 듣게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생각해 보라고요.

신학생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수백 명을 전부 다 책임지고 서로가

신학교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을 다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어야 할 텐데 뭐예요? 선생님의 10분의 1만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겠어요?

왜 학교를 허드슨 강 근처에 만들었어요? 카프(carp;잉어)를 잡으려고 그물을 만들기 위해... 몇천 발 이상 되는 그물을 선생님이 만드는 것을 그때 봤지요? 지금도 갖고 있나요? 그것을 선생님이 재미로 했다고 봐요, 사명으로 했다고 봐요? 재미로 했어요? 「사명으로 하셨습니다。」 미국이 해양세계, 고기 잡는 해양을 지배할 수 있는 기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양사업을 위해서 25년 동안 배를 탔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뭐 하러 내가 미국의 어려운 입장을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이게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기독교를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라고요. 지금 미국이 기독교 국가들을 인도하고 있는 센터인데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 어떤 미국의 국민들도 몰랐고 교회의 책임자들도 몰랐습니다. 프라이버시, 개인주의? 교회가 중심이 아닙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이거 뭐 부업도 안 되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누가 살려요? 살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떠난다고요. 그래서 다시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람이 있어야지요, 젊은 사람들.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 내가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유 티 에스 졸업생들 앞에 교직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가 되어 주고 다리 만들어 주고 하는 놀음을 지금까지 해야 할 텐데 못 하고 있다구요.

1년에 한 번 정도 방학 때가 되면 유 티 에스 교수로서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해서 졸업생들을 앞에 내세워 가지고 부흥회를 코치할 수 있는 놀음도 해야 할 텐데 한 번도 안 해 보지 않았어요? 교직원이나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걸 한 번 해 봤어요? 20년 동안 학생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진리는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원리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관념을 갖게 되면 어떤 세계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힘입니다. 그게 진리의 힘입니다. 레버런 분이 그 힘으로 발전해 나왔잖아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교수가 뭘 해요? 놀고 먹고 사는 그러는 사람 뭘 해요?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서면. 일주일 교육하고, 40일만 교육하면 여러분 신앙 기준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빼올 수 있다는 거예요.

20년이 넘은 지금도 '선생님, 학생 대 주소. 선생님 학생 빼 주소.' 이라고 있다구요. 이 망할 것들! 손 벌리고 '학생들 도와 주소.' 이라고 있다구요. 10년 전에 선생님이 죽었다면 다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남았겠어요? 정신차려야 돼요. 정신차려야 된다구요.

선생님이 정성들여 가지고 3년 동안 매일같이 오던 이 땅이 저주하고 이 자연이 저주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구요. 땅 보기가 부끄러운 걸 알아야 돼요. 어때요? 선생님 말이 가당한 말이에요, 듣기 싫은 말이에요, 안 들으면 안 될 말이에요? 「가당한 말씀입니다.」 가당한 말이라구요. 그걸 알아야 된다구요.

이것을 선생님이 내버리면 당장 없어져요. 내가 3년 동안 정성들었던 그런 기준의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안 됐다고 본다구요. 그래, 졸업생들 가운데 도와주려고 여기에 찾아와서 헌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답해 보라구요. 「없습니다.」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냐구요.

교수들의 책임이라구요. 그걸 알아야 된다구요. 여러분이 책임 못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향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구요. 앞으로 선생님이 졸업생들을 교회에서 잘라 버리게 된다면 말이에요, 교수들이 우리에게 선생님이 세워 놓은 전통적 사실을 안 연결시켜 줬다고 들어와서 참소하며 몽둥이로 후려갈길 수 있는 이런 때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때 어떻게 할 테예요?

생각해 보라구요. 선생님이 교수로 세웠으면 여러분 교수들이 대신 해 주길 바라서 세웠을 것 아니예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8백 명 모여들 수 있는 곳인데 4백 명씩밖에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구요. 4백 명도 못 해요. 요즘에는 기성교회에서 ‘아이구, 통일교회 교구장들 와서 강의해 주소.’ 하고 교회 문을 열고 환영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문을 안 열려야 안 열 수가 없대구요.

청소년 윤락, 가정 파탄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레버런 문의 가르침을 받고 레버런 문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세상이 다 알아요. 모든 국가 위정자들이 알고, 교육자도 알고, 종교 지도자도 알고, 테러단, 마피아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대구요.

*그것은 우리 전매특허예요. 그거 대단한 것입니다. 그 진리는 원자 폭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걸 알고 있어요? 세계가 그렇게 되었어요, 세계가. 보라구요. 남미의 3개국을 1년 동안에 묶은 것도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라구요, 그런 힘. 그런 힘이 있는 통일교회인데 이 미국에 와 가지고 썩었어요, 이십 몇 년 동안에.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상원의원이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라도 될 사람 어디 있어요?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라구요. 자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천 거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게 돼 있다구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구요.

*유 티 에스의 졸업생들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원리를 가르쳤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고 꺾박도 문제없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생각해 보라구요.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뿐만 아니라 공산세계와 민주세계도 하나되어 가지고 선생님을 반대했습니다. 레버런 문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레버런 문이 일생동안 그러한 박해를 받았습시다. 그러나 레버런 문은 무너지지 않았습시다. 그렇지요? 「예,」 무슨 힘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영계도 훤히 알았습시다. 이것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생각해 보라구요. 혼자, 레버런 문 혼자 이 60억의 싸움판을 밀어 체웠다구요. 이제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들. 후원하려고 한다구요.

보라구요. 미국 기독교가 원수라구요. 한국의 미국 선교사들이 통일교회를 반대한 괴수라구요. 그런 원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여기에 와서 감옥살이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워싱턴 타임스>를 만들고, 6개 단체를 만들고 이런 놀음을 했어요. 세상에! 왜? 하나님이 불쌍해서지 미국이 불쌍한 게 아니라구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의 모든 것이 뺨 깨지겠으니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랬다구요. 미국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기독교 때문에 그랬다구요. 기독교에 인맥과 돈과 선생님의 모든 것을 투입했어요.

*지금도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투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정신차리라구, 이 녀석들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게 뭐 있어? 대학을 나오고, 박사 되어 가지고 마음세계에 혁명이 된 게 뭐예요? 돈 받아먹는 거예요, 심정을 나눠주는 거예요, 인격을 나눠주는 거예요? 심정과 인격을 나눠줘야 되는 거

예요. 회개를 크게 해야 될 거라고 본다구요.

그 사람들 같으면 돈 한푼 안 주고도 얼마든지 세계에서 데려와 가지고 딱 채워서 먹고 살 수 있게 다 벌어서 줄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다 벌어서 먹을 수 있는 거라구요. 선생님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못한다고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래요? 선생님이 팔십 노인인데도 이렇게 하고 있다구요.

*여러분은 어때요? 아버지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젊지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파워풀(powerful;강력한)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브리지포트 대학을 중심한 계획

문제는 뭐냐? 여러분 마음이라구요. 마음이 문제라구요. 여러분이 마음을 중심삼고 하늘에 대한 심정적 인격 구성이 부족했던 거라구요. 내가 어저께부터 여기 오려고 그랬는데 못 왔다구요. 모레나 글피쯤에 브리지포트 대학에 가야 된다고요. ‘동서의학센터’ 개원식에 참석해야 한다고요. 원래 안 가려고 그랬다고요. 이놈의 자식들, 겨우 되어 봤자 유 테 에스 꼴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랬는데 자꾸 오라고 해서 가는데, 여러분을 중심삼아 가지고 여기에 선생님이 정성들였던 것을 모아 가지고 브리지포트 대학에 신학대학을 세우려고 그런다고요. 여기 보다 나은 신학대학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동서의학 통일 병원 개원식을 한다구요. 거기는 학생이 많아요, 학생. 여기에는 미국 놈 하나도 없이 딴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런다고요.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브리지포트 대학에 신학대학을 세우게 되면, 학생은 얼마든지 모을 수 있다고요. 내가 몇 번씩 가서 얘기해 주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학생이 너무 많아서 야단일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3년 동안, 3

년 동안 그래 보라구요. 학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꼴이 뭐가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해 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라고요. 신학교 졸업생들 수십 명씩 해 가지고 편지하고, 시간 있으면 지방 가서 만나고, 거기 가서 부흥회할 것을 준비하라고 그래 보라구요. 이런 준비를 했으면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얼마나 얼마나 발전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유티 에스를 졸업한 몇백 명의 통일교회 지도자가 필요한 때가 왔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리강의 하는 것, 부흥회하는 것을 코치한 것이 이걸 준비한 것 아니에요?

여기를 졸업하면 여러분은 뭐가 될 거예요? 선생님같이 될 거예요, 아니면 기생충같이 될 거예요? 흑인들도 그래요. 여기 흑인들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자면 혁명가가 돼야 됩니다.

선생님이, 한국의 촌에서 태어난 사람이 세계에서 이런 혁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영계를 알고,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구요. 여러분이 그 원리를 가졌으니 같은 협조를 받으면 하나님 대신 일할 수 있다구요. 더 이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반대가 없는 거예요. 환영할 때 아니에요?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선조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어디, 학생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렇게 되겠어요?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이렇게 전부 손들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안 그러냐고 물어 보잖아요, 교직원들?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교직원들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학생들이 한 시간 기도하게 되면 한 시간을 더 기도할 수 있고, 공부하게 되면 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수는 기도하고, 영적 체험을 하고, 세계적인 교회의 역사를 비교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교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라틴 학과라면 라틴 학과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24시간이 학교

예요, 학교.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시간이 되면 여기에 와서 같이 기도할 뿌리가 있었으면 ‘배리타운’이 세계 기독교에서 문제가 될 거라구요. 이렇게 소문냈으면 얼마나 멋지겠나 말이에요.

기독교를 살려야 미국이 살 수 있어

여러분이 청평에 가 가지고는 그런 것을 못 한다구요. 여기가 청평만 못해요? 아메리칸 청평이라구요. 그래야 미국 사람이 살아요. 미국 앞으로 큰일났어요. 미국은 망한다구요. 기독교를 살려야 됩니다. 기독교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한다구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벌써 ‘똥!’ 침을 뱉고 돌아간 지 오래 됐다고요. 나타나지 않는다구요.

20세기 신교 대국가인 미국, 2차대전 이후 전부 다 세계를 통일하라고 맡겨 준 것 아니에요? 선생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을 잃어버렸으니 내가 책임 안 질 수 없어서 여기에 와서 이려고 있는 거라구요.

*2차대전 후 미국이 세계의 제일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관이었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그 나라가 선생님을 맞이했으면 말이에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 삼은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연합국과 추축국도 하나되었을 거라구요.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랬으면 레버런 문을 중심삼고 7년 동안에 전인류를 축복하는 것도 문제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교와 신교가 선생님을 반대했습니다. 얼마나 반대했느냐? 그것을 크기로 말하면 얼마나 큰지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세력들이 하나되어 가지고 레버런 문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불쌍한 입장에 계셨던가를 생각해 보라구요. 2차대전 후 한국이 독립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중국, 소련,

일본과 미국이 들어가서 싸웠습니다. 그 국가들이 서로 자기네들의 세력을 중심삼고 독립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세계가 선생님을 도왔더라면 그 네 나라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문제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길과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선생님이 이화여자 대학과 연세대학의 젊은이들을 교육할 수 있었더라면 완전히 돌아설 수 있었을 거라구요. 6개월 이내에 모든 젊은이들이 한 방향으로 따라오는 것은 문제없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거라구요. 알겠어요?

메시아가 재림 때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라구요. 내가 가르치는 것은 백 퍼센트 다릅니다. 기독교가 그것을 듣고 레버런 문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다르니까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교파들이 이화여자 대학과 연세대학의 학생들이 레버런 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면 한반도가 분단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들을 일주일, 20일만 교육할 수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자동적으로 하나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버런 문을 반대한 거예요. 미국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구교와 신교를 대표할 수 있는 남북미 대륙을 통일해야 돼

한국에 군정(軍政)이 들어섰잖아요? 군정이 들어섰는데, 한국에서 통일교회를 때려잡는 이런 일을 종교의 자유 차원에서 군정 자체가 다시 분석하고 알아보라고 했다면 이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미국 책임

이고 선교사 책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종교 반대예요, 종교 반대. '종교의 자유'라는 관념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레버런 문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자.' 그러면 다 끝나는 거라구요.

소생 단계인 선교부가 나서고, 나라 대표한 장성 단계에서 나서 가지고 해결할 수 있었는데, 미국 정부 자체가, 선교부가 이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세계적으로 반대의 길이 열린 거라구요.

그래, 미국에 있다가 돌아간 이승만을 중심삼은 정부가 기독교 내각이라구요. 장면을 중심한 정부도 기독교 내각인데, 말씀만 들어 보게 되면 완전히 돌아가는 거라구요. 간단한 거라구요. 타락할 때에 거짓 부모가 나와서 결혼식을 잘못했으니 오시는 메시아가 참부모로 와 가지고 이걸 뒤집어 박아서 하늘나라의 출발을 봐 가지고 지상천상천국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이라구요. 누가 부정할 도리가 없대구요. 이론적으로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크리스천이 8억이라구요. 8억 인구를 중심삼고... 그때 세계 인구가 36억인가 됐어요. 그 8억을 중심삼고 일주일 동안이면 세계 사람이 축복 다 받는 거예요. 7년까지 안 간대구요. 그런데 레버런 문이 쫓겨나는 바람에 4개국을 잃어버리고,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김일성이 사탄 재림주로 와서 선생님이 상륙할 때는 세상의 악당, 붉은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별의별 놀음 다 해먹은 거라구요.

그게 뭐예요? 레버런 문을 한반도에 세워 가지고 갈라진 기독교와 하늘땅을 통일하기 위한 모든 주류적인 내용이 반대받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져 나갔기 때문에 선생님의 일족도 깨져 나가고, 한반도도 깨져 나가고, 선생님의 가정도 깨져 나갔대구요. 아들딸도 다 깨져 나가고, 추방당한 거라구요. 홀로, 홀로,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아담의 가정과 비교해 보면, 어느쪽이 더 불쌍해요? 내가 더 불쌍하다구요. 만약에 기독교 세계가 믿었더라면 세계를 해방하고 지상천국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래, 광야에 쫓겨나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은 만세를 불러 보지 못했어요. 쫓겨나 가지고 홀로 나온 거예요.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본향땅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완전히 제로 포인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래서 영통한 할머니, 80세 된 노인을 찾은 거예요. 해와가 잃어버렸으니 이것을 찾아서 연결시켜야 되는 거라구요. 그래서 80노인으로부터 인계해 가지고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의 자리에까지 나와 가지고, 14년간 그 놀음을 해 가지고 어머니를 택해 세운 거예요. 소생 7년, 장성 7년을 잃어버렸으니 14년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놈이 원수예요. 미국이 원수고, 영국이 원수고, 기독교가 원수라구요. 이래 가지고 한국에 기반도 없는 가운데 세계의 중심인 미국에 와 가지고, 지금까지 25년간 해 나온 거라구요. 배를 타면서 바다를 중심삼아 가지고 전부 다...

미국은 바다가 육지의 3배라구요. 아메리카 대륙은 몇 배가 되겠어요, 몇 배가? 이 땅을 중심삼고, 구교와 신교를 대표할 수 있는 이 남북미 대륙을 중심삼고... 남미는 구교고 신교는 북미인데, 신교가 잃어버렸으니 이것을 찾자는 거라구요. 이걸 세계적이라구요.

라틴 문명과 앵글로색슨 문명이 싸우는 것을 어떻게 하나 만드느냐 이거예요. 알겠어요? 기독교는 역사적인 로마와 통하는 거예요, 로마.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구요. 열매니까 여기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선생님 뒤를 따를 수 있는 자리에 가까이 섰기 때문에, 그 다음엔 남미에 내려가 가지고 구교를 중심삼고 접목을 하는 거예요. 접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했다구요.

언론사 창립과 정보의 중요성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하는 것이냐? <워싱턴 타임스>하고 세계 33개국에 신문사를 만드는 놀음을 하는 거라구요. 기독교 문화는 전부 다 미국의 영향 받을 수 있게끔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교는 물론이고 구교의 로마 교황청에서 보내 준 사람까지 전부 다 교육해 가지고 문제가 벌어진 거라구요.

그래, 바티칸(Vatican;교황청)이 아무리 반대했댔자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손들었어요. 언론기관을 딱 잡았다고요. 자기의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티 엠포스 텔 문도! 그것이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의 배후를 파헤치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한 것을 <워싱턴 타임스>가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로잡느냐? 미국에 1700개의 신문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파헤쳐서 고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워싱턴 타임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타임스>가 미국의 모든 비밀을 다 알아요. 시 아이 에이(CIA;미중앙정보국)와 에프 비 아이(FBI;미연방수사국)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클린턴 행정부가 우리가 이걸 들고나올 때 우습게 알았다고요. 뭐 세계의 힘으로... *처음에는 클린턴 행정부가 통일교회의 대표적인 <워싱턴 타임스>를 먼지처럼 우습게 안 거예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불면 날아간다고 생각했다고요. 천만에! 1차, 2차, 3차, 4차... 7차까지 딱 증거를 대는 거예요. 결국엔 시 아이 에이(CIA)가 손들고 후퇴했어요. 에프 비 아이(FBI)가 손들었어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아.

우리는 시 아이 에이의 비밀정보 이상의 재료를 갖고 있는 거라구

요. 그리고 전세계가 미국 위주로 나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각국의 정보처는 미국의 비밀을 전부 다 우리에게 보고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잠자고, 여기 학교에서 썩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런 놀음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모든 미국의 인맥 수만 명에 대해 조사했다구요. 계장, 국장까지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것, 언제 사장이 되었다는 걸 전부 다 딱 기록으로 만들었다구요. 조사 내용의 그 기록이 얼마나 되느냐? 세계의 큰 1백40개 도서관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 국방부에 가서 참조하려면 돈을 내고 참조해야 되고, 백악관에 참조하거나 국회 도서관에 가서 참고할 경우에는, 우리 신문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 말 처음 듣지요?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겠느냐 이거예요. 앓아 가지고 해먹으려니 될 수 있어요? 보라구요. 뉴욕에서 합동결혼식을 하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때려잡기 위해서 전면을 중심삼고 4차에 걸쳐 두드려 뺐는데, <워싱턴 타임스>가 한번 대응해 놓고 나중에 사회적 문제가 되니 에프 비 아이가 뭐냐 하면, <워싱턴 포스트>의 공적인 범죄라고 발표함으로써 다 끝났어요. 언론기관은 공적인 교육을 책임져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워싱턴 포스트>가 실수했다고, 공적인 범죄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조용했다구요. 그게 사실이라구요. 이게 무슨 관념이 아니라구요. 그렇게 된 것이 시 아이 에이라든가 에프 비 아이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되지 아니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같은 신문 종류는 보호하는 것이 사회 통념인데 말이에요.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를 만들자

여러분은 미국에 보이지 않는 미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모른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싸움 통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선생님을 동정하고 한푼이나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냥 되겠어요, 이게?

지금 18년이 됐는데 20억 불 가까운 돈을 써 버렸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국에 자기를 가르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놈의 미국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원수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쌍해서 기독교를 살리는 거라구요.

그래서 40년 동안 해 가지고, 1952년에 축복을 완성했을 것인데 40년을 연장해 가지고 1992년에 여성 해방과 더불어 축복 세계화를 중심삼고 7년 동안에 했다구요, 7년 동안에. 1945년에서 52년까지의 7년 동안을 탕감복귀하는 거예요. 1992년, 93, 94, 95, 96, 97, 98년까지 7년이라구요. 7년 동안에 하지 못한 것을 다시 돌아와서 상륙 작전 해 가지고 혼자 6천년 역사를 탕감복귀했다구요. 6천년이 아니라 수천만 년입니다. 혼자 고개를 넘어 모든 담을 헐고 영계와 지상에 평지를 만들어 놓고 성인과 살인마를 6월 13일에 축복해 준 것입니다.

탕감하는데 4천년을 4백년, 40년에 탕감하는 거예요. 4천년을 살 수 없잖아요, 선생님이? 4백년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제일 최소한 40년에 탕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망해 버리면 인류의 멸망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입장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40년 동안에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이걸 원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로 가야 돼요? 2차대전 직후 당시 영.미.불은 해와 국가, 아벨 국가, 가인 국가인데, 이것을 다 잃어버렸다구요. 잃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공산당과 합해 가지고 전부 다 반대했으니 기가 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머리를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꿈지만 붙들고...

보라구요. 일본을 해와 국가로 세워요? 그리고 독일을 뭐 가인 국가로 세워요? 미국을 아벨 국가로 세워요? 세상에 왜 그런 놀음을 해야

되느냐? 이 전부가 원수라구요. 그러나 소생 없는 장성이 없고, 장성 없는 완성이 없기 때문에, 유대교가 소생이고 기독교가 장성이니 이게 없으면 완성이 없어요. 울며 겨자먹기로 원수들을 합해 가지고 다시 찾아 세우는 자리에 세우지 않고는 땅에 상륙해서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세계적인 무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축복 세계화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영국은 해외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영국의 아들로서 아벨의 입장입니다. 가인의 입장에는 프랑스가 세워진 거예요.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된 기반 위에 어머니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2차대전 후 연합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축국을 소화한 거예요. 그 역사적인 모든 것을 대표하는 센터가 미국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원 네이션 언더 갓(One Nation under God;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원 월드 언더 갓(One World under God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이 되어야 합니다. 원 월드 언더 갓! 지금까지 미국의 관념은 원 네이션 언더 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달라졌다구요. 아버지가 원 월드 언더 갓을 주창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아니라구요.

훈독회의 중요성

이제는 축복가정이 6백만 가정을 넘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사탄의 혈통을 깨끗이 청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그것이잖아요? 어떻게 전인류를 해방해서 축복해 가지고 하나님 편으로 연결시키느냐? 그렇게 되면 사탄의 혈통은 자동적으로 청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천국이 현현하는 거라구요. 안 그래요? 이것은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그래서 정비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학교 다 필요 없게

된다구요. 세계의 신학교들이 합해 가지고 통일신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도 지시하기를, 미국 교회를 중심삼아 가지고 한국과 합하고 세계본부와 합해 가지고 선생님의 3백 권 이상 되는 설교집 가운데서 뽑은 주제별 정선 열두 권을 번역해 가지고 세계의 도서관과 모든 나라의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부 다 뿌리라고 했어요.

이것을 읽게 되면 완전히... 그래서 세계의 축복가정들이 혼동회를 하게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책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도할 필요 없어요, 이제. 그래서 혼동회를 하는 거예요. 영계가 어떻게 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가정 완성, 천국 해방에 대한 것도 다 나와 있어요.

신학교에서 그것을 다 못 가르쳐요. 이제는 하도 레버런 문과 통일교회가 유명하기 때문에... 가정 문제라든가 청소년 문제를 방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세계에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물어 본다는 거라구요. '우리가 이 다음에 커서 결혼하게 되면 레버런 문이 하던 식으로 몇천 명이 한꺼번에 국제결혼 해야 되겠소, 비둘기 모양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소? 레버런 문이 해 주는 결혼이 나쁘니까?' 하고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물어 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세계적으로 다 했는데 말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모든 젊은이들이 레버런 문의 사상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고 선생들한테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모르겠다.' 하게 되면, 텃 침을 뱉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레버런 문의 방식을 따라서 결혼하게 된다는 말이라구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정신차리라고요. 정신차려라 이거예요. 그게 눈앞에 왔어요, 눈앞에. 그리고 에이즈 병을 고치려면 순결을 지

키는 절대 부부를 주장해야 하는데, 그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에이즈 병을 어떻게 퇴치시켜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은 정신 차리고 미국을 살리는 데 선두에 나서 가지고 활동하라구요. 시간이 없어요.

내가 여기에 온다고 하니까 교수들은 뒤에 서 가지고 ‘우리는 필요 없다. 학생들만 모인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잘 모였다고요, 오늘. 방학이 되어서. 학생들만 몇 명 모아 놓고 자기들은 뒤에 서 가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잘 모였다고요. 그래,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면 손 들라구요. (웃음) 기분 안 나빠요?

너는 어때? 너, 교장은 어때? 「행복합니다.」 해피? 해피가 아니라구요. 자, 그 다음에? 정신차리라구, 이 사람아. 미국과 사이가 떨어진 땅에 가서 그러고 있으니까 미국 대사관이 우리를 돕겠다고 한다구요.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이제 레버턴 문의 위대함을 알겠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이래 가지고 미국의 대사관이 눈을 떠 가지고 지금….

수역지구를 점령하는 주의나 국가가 세계를 지배해

미국 행정부도 그래요. 이제 레버턴 문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미국과 떨어졌던 남미권은 형제예요, 형제. 형제인데 떨어졌다고요. 그것을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 아니예요? 구교하고 신교가 떨어져 가지고 원수가 되지 않았어요? 공산당보다 더 멀어요.

여러분은 이제 방학 때니까 내가 불러내 가지고 어디 가서, 육대주에 배치해 가지고 부흥회 하자 하면 할 거예요? 「예.」 그럴 때가 왔어요, 지금.

미국 50개 주에서 전부 다 유명한 사람들을 중심삼고 상원의원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판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다 틀어졌어요. 이제는 중국과 소련이 기다리고 있어요, 소련과 중국.

물이 적구나. 여러분 그릇에 갖다가 하나씩 나눠주라구.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라구요. 선물도 하나씩 나눠주라구. 캔디, 캔디 맛같이 달게 생겼다구. 몇 시야? 와, 한 시가 넘었구만. 여기서 밥을 안 주면 떠나서 가다가 맥도널드 햄버거를….

여기 못에 카프(잉어)가 많아요? 여기에서 그물을 가지고 카프를 몇 번이나 잡았어요? 그물 다 썩었겠지만. 앞으로 바다와 물을 잇는 수역 지구를 점령하는 주의나 국가는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해양사업을 지도하는 거라구요. 그 다음에 공해문제와 환경 문제가 거기에 달린 거예요. 수역지구, 수역지역에 환경문제가 달린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도 물가에 사는 거라구요. 강을 중심삼고 살기 때문에 강을 보호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누가 노래 잘 하면 노래나 한번 하라구요. (박수. 노래)

*지금부터 신묘는 교수, 직원, 그리고 학생들을 여름방학 동안에 각 지역에 배치해서 훈련시켜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구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한 지역의 교회를 중심삼고 현드레이징을 하면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도하게 되면 다음부터 여러가지의 어려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일체의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학교에서 지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지금 여름방학이 몇 개월이라구요? 일반 대학은 3개월이지요? 「유티 에스는 2개월입니다.」 2개월이에요? 그 기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 학교에서 그 기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를 물어 보는 거라구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각자의 수업료를 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름방학을 1개월로 하고 겨울

방학을 2개월로 하든가 해서 반 년 이상의 기간을 적절하게 나누면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크리스마스라든가 추수감사절과 같은 때에도 헌드레이징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같은 때를 포함하면 반 년 이상을 쉬게 된다고요. 토요일 같은 때도 뉴욕이나 워싱턴 지역을 중심삼고 교회의 멤버들을 도와주면서 헌드레이징을 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졸업한 후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자가 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라고요. (*부터 일본어 말씀) (식사하시고 책에 사인해주신 뒤 보고를 들으심)

이젠 볼 사람들 다 보고, 다들 기쁘게 미남 미녀들이고 잘생겼다고 칭찬하고 가니까, 아버님이 안 오면 좋겠다고 하지 말고, 또 오라고 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가 봐야 되겠다고요. 지금 손님들이 온다고요, 내일 모레 행사하기 때문에.

보스턴 교구장이 지금 참자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라고 했다고요. 지금 올 거라고요. 선생님이 없으면 섭섭하고 그럴 텐데, 가 봐야 되겠다고요. (박수) 여러분은 전부 다 자르딘에 가서 가정수련을 받으라고요. *

해방·통일권 세계의 도래

〈기 도〉 사랑하는 아버님, 오늘은 1998년 11월 8일 새 달을 맞이하여 두 번째 맞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하늘땅이 공히 주시하는 이 자리, 하늘과 땅이 해원·해방·통일을 바라고 있는 이 대전환 시기를 당하여 공히 천주가 연합하여 천지부모를 중심삼고 이와 같은 경배식을 갖게 해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축복 세계화라는 과제를 중심삼고 금년에 저희들이 ‘참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3억6천만쌍 축복 완성과 사탄혈통 단절’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놓고, 전세계에 널려 있는 통일의 축복받은 가정들과 자녀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종족 복귀와 세계 복귀, 지상천상천국을 복귀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 역사적 과정에서 하나님의 슬픈 역사, 인류의 슬픈 역사 등 모든 수난의 역사를 해원하고 해방하고 통일하기 위한 엄숙한 숙명적 과제를 풀기 위하여 개인 시대, 가정 시대, 종족민족국가세계천주 시대의 8단계 수난의 역사를 거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1998년 11월 8일(日),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브라질 자르딘).

* 이 말씀은 주일 경배식 때 제3차 40일 수련생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이 모든 역사적인 한이 하나님 앞에 미쳐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온 만물에까지 미쳐짐으로 말미암아, 이걸 청산하기 위한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 해원 해방시대를 향하여 나오신 역사적 과정을 돌아보게 될 때에, 만물이 희생되었고, 자녀가 희생되었고, 부모가 희생되었고, 하나님이 희생되었던 엄청난 역사적인 과오가 아담 해와의 한 순간적 사랑의 길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사고를 이루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남자의 생명, 여자의 생명을 이 땅 위에 출생시키는 사랑의 도구가 이렇게 엄중하고 중차대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남자에게 사랑이 있고 여자에게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은 홀로 나타낼 수 없고 홀로 그 사랑과 생명과 혈통적 인연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역시 사랑을 가졌고 생명·혈통·양심을 가졌지만 그 자체로써는 이것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 존재를 세워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 하나님의 참된 생명, 하나님의 참된 혈통, 하나님의 참된 양심, 통일적인 남자와 여자가 하나되어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4대 속성인 절대·유일·불변·영원한 가정이상을 이루기를 원하였던 아버지의 뜻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전부가 탄식권 내에 떨어져 버린 엄청난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이 아담 가정의, 그 한 가정의 짐이었지만 이것을 한 가정에서 풀 수 없기 때문에 개인 탕감 시대, 가정 탕감 시대, 종족 탕감 시대를 통해서 국가 탕감 시대까지 역사과정을 거슬러 올라오는 수난 길을 거쳐 해결하기 위해 제물 역사를 엮어 오신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만물을 희생시켰고, 신약시대에는 자녀를 희생시켰고, 성약시대에는 부모, 하나님의 실체 되시는 부모를 이 땅 위에 보내 가지고 희생의 길로 몰아낸 한의 한의 한의 역사를 청산 짓게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심중 깊이 반성 회개하면서 이 모든 역사시대에 저끄러진 원한의 터전을 해방해야 되겠고, 이 해방된 기준

을 통일하기 위해서 통일교회와 통일제단이 생겨났사옵니다. 이 모든 것을 청산 짓기 위해서 이 우주적 사망과 타락과 원한과 해원을 맡고 있는 모든 전부를, 통일을 파괴시킨 모든 전부를 넘게 하여 전체의 제물 시대를 맞을 수 있는 때를 가진 사실이 모든 역사적 탕감복귀라는 이 과중의 역사였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탕감을 하지 않으면 해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요, 해원을 하지 않으면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요, 해원 해방을 거치지 않으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역사적 총 해원과 해방과 통일의 하나의 조건으로, 제물로 갈라져 사탄에게 전 주권을 양보했던 모든 것을 끊어 버리고, 하나님 홀로 전체적 참사랑의 주인이요, 참사랑의 아들 완성과 딸 완성, 가정 완성과 국가 완성과 세계 완성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시대를 중심삼고 해방시대를 맞을 수 있는 이러한 때를 갖기 위한 수난의 역사에 탕감·해원·통일의 역사를 남기신 모든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계에 미쳐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일신과 일가에 있어서 이 일이 저끄러졌기 때문에 이 총해원을 중심삼은 총생축헌납제를 거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개인적 해원·해방·통일권을 가지고 자유천지, 지상천상천국을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해방적인 시대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개인과 해방된 아들 딸이 해방된 가정을 가지고 해방된 국가를 이룬 그 터전 위에 하늘 부모를 모시고 모든 완성 시대를 완전히 통일하기 위한 7년노정을 넘을 수 있는 이 시대를 갖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북반구의 한국을 중심삼고 조국 광복이라는 이 엄청난 역사적 사실을 기독교를 중심삼고 바라 나오던 지상 위에 한 나라를 찾아 가지고 지상천상천국의 승리권을 세운 부모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심을 수 있는 가정을, 국가 전체를 잃어버린 것을 세계적으로 확

대 연장하여 재림이라는 한 날을 중심삼고 이 종말시대에 그와 같은 참부모를 현현시켜 가지고 종횡의 부모를 중심삼은, 종횡의 사랑을 중심삼은 일체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해원·탕감·해방·완성·자유·통일·평화권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에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이 자르딘을 중심삼아 가지고 이제 가정적 3차 수련을 시작 하였습니다. 1차, 2차, 3차의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를 넘어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삼은 해원·해방·통일 시대를 맞기 위한 모든 전체를 정비해야 할 이런 자리의 준비를 하고 있는 가정수련회의 역사적인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시사 1차, 2차, 3차를 맞게 해주심에 하늘 앞에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기에 참석하신 축복받은 가정들은 심신 일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한 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남자의 마음 가운데 여자가, 여자의 마음 가운데 남자가 완전히 점령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서 가지고 소생·장성·완성이라는 인간애의 총칭산을 지을 수 있는 착지의 기반이 오늘의 축복가정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르딘 선언을 중심삼고 4차까지 참사랑을 중심삼고 모든 것을 규합하기 위하여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본연의 창조이상의 그 기반을 저희들이 회상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의 이상적인 대상인 4대 속성을 중심삼고 어느 한 분야에서도 일치 안 됨이 없는 이러한 기준을 갖추기 위한 참된 부모, 절대·유일·불변·영원한 부모로서,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자녀로서, 절대·유일·불변·영원한 남편과 아내로서, 이들이 하나가 되어, 사위기대의 형상적 성상적인 실체가 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운데 아들딸까지 하나되어 이 사위기대가 하나의 몸, 하나의 사랑의 화신체로 화할 수 있는 절대 기반이

가정 기반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정이 완전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참부모, 종횡의 부모가 정착하고, 그 다음에는 남자가 영원히, 여자가 영원히, 자녀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절대 정착적 기원을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영원히 영원히 관계없는 자리에 해방적 지상천상천국의 중심적 표제가 저희 가정들로 말미암아 성사된다는 것을 확실히 체휼하고 결의하고, 이 일을 중심삼고 세계에 선포할 수 있는 하나의 표제의 중심으로 나타나기 위한 이 수련 과정의 모든 것을 새롭게 정비하고 환고향할 수 있는 무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북반부에서 남반부로 와 가지고, 탕감의 역사는 밤이었던데 이제 돌아가면 아침 역사로부터 낮 역사를 거쳐 가지고 환고향하기 위한 4대 자르던 선언을 했고, 여기에 북반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자녀들과 더불어 영육을 연결시키는 이런 탕감조건을 세워 가지고 4·4절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차대전 이후 1945년을 중심삼고 천지부모 합덕 시대를 중심삼은 해방적 지상천국 평화 통일시대를 맞이할 것이었는데, 부모님이 착지하지 못한 이것이 타락된 결과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가정을 이끌어 가지고 탕감 길을, 밤길을 걸어오면서 개인적인 가정을 구원하여 종족적 가정, 민족적 가정, 국가적 가정, 세계적 가정, 대표적 메시아적 가정 전체 해방권을 위하여 밤 시대의 탕감시대를 거쳐 가지고 북반부에서 승리한 모든 잃어버린 것을 남반부에 와서 승리적 기준을 중심삼고, 밤의 핍박 시대를, 가인적 핍박 시대를 제거하고 영계에 축복가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사탄세계의 가정 3억6천만쌍 전인류, 전세계 축복 해방권을 이룬 기반 위에 천상세계의 선조들을 축복하여 이 땅 위에 가인적 가정을 배치할 수 있는 은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담 개인이 가정을 형성하지 못하였던 것을 하늘 편 가인 가정의 선조들이 아벨 가정을 협조할 수 있는 환경적 일체

이상을 이루어 가지고, 어두운 세계를 박차고 낮 세계로 환고향할 수 있는 전 세계시대를 맞게 하여 주신 은사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축복가정들은 가정에 있어서, 축복받은 가정들이 자녀를 가져 사위기대 완결과 더불어 4대 심정권을 표준으로 한 절대 가정, 절대 가정을 중심삼은 절대 주인, 제1, 2, 3 창조주, 그 다음에는 이것을 해원 탕감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서 4·4절을 세우게 되었사오니, 해방된 하나님을 직접 모실 수 있는 지상시대의 종적인 부모와 횡적인 자녀의 사위기대를 편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나 하늘 대해 거슬림 없이, 이와 같은 가정의 축복 기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가정들이 아담 가정 세계화 완성 조건을 갖춘 그런 주체로서 만 우주상에 나타날 수 있는 시대를 청산 짓기 위한 이 수련 과정을 거쳐 돌아가야 할 이 모든 길들을, 아버지, 지키시옵고, 참부모를 중심삼고 일체이상을 가지고 낮 세계에 있어서 통일된 가정과 통일된 국가와 통일된 세계의 해방시대, 통일시대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데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가정과 일족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늘땅의 부모와 가정과 나라를 갖춤으로 말미암아 입적시대를 갖춰 가지고 하늘 주인 절대 시대를 맞을 수 있는 시대로 전진하는 이 축복가정 수련회를 축복하시어서, 만사가 일체가 되고, 만사가 통일되고, 만사가 해원·해방·통일권을 갖춘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효자의 도리와 충신의 도리와 성인의 도리와 성자의 도리를 맞을 수 있는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모의 날이요, 자녀의 날이요, 부부의 날이요, 가정의 날, 세계의 날, 온 천주의 해방의 날을 가질 수 있는 시대상을 저희에게 부여하여 주신 하늘 부모 앞에 감사드리며, 땅 부모 앞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천사권 준비를 위하여 신앙계의 희생하던 모든 전부가 축복의 은사를 공히 받아 가지고 참부모의 뒤를 따라, 영계의 축복가정들이

지상의 가정과 하나가 되어 천상세계의 해방권으로 도약뿐만이 아니라 비약할 수 있는 시대로 확대 확장하여 하나님 절대 사랑 주권 통일시대로 전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에 감사합니다.

이 가는 길 앞에 전체·전반·전권·전능의 행사를 대행하여 주체의 권한을 어디든지 억만년 실행할 수 있는 해방의 세계, 통일의 세계를 갖게 허락하여 주신 은사를 감사하오며, 계획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일이 승리의 결실과 성사의 길로서 전진하기를 참부모의 이름으로 영계와 육계를 대신하여 축복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말 씬> 자, 그냥 해도 괜찮아. 몇 페이지야, 지금? 「1백82페이지입니다.」 남은 것이 몇 페이지야? 「남은 것이 1백10페이지 됩니다.」 몇 장까지 있어? 「지금 3장의 4절을 읽고요…」 절반 됐어? 「절반 더 읽었습니다. 내일이면…」 그래. (아버지가 들려주신 사랑이야기 《삶과 사랑, 그리고 영혼의 세계》 훈독)

지상에서 가정을 이뤄 사랑을 느껴야 저나라에서 호흡이 안 막혀

『제3장 제4절 영계를 맞기 위한 준비…… 3.영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증명서가 필요해. 우리가 영계에 가는 데 있어서 저 깜깜한 지옥에 가고 싶으나, 광명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고 싶으나? 광명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현실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냐? 영계에는 예수님이 라든가 공자, 석가모니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성현들이나 위인들, 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가정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나라

는 가정을 확대한 세계, 절대사랑을 중심삼은 가정을 확대한 세계이니 만큼, 타락하지 않았으면 가정에 있어서 상하 관계인 부자지관계, 좌우 관계인 부부관계, 전후 관계인 자녀관계가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백 퍼센트 완성된 사랑을 이룰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 자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 자체가 해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가정을 완성해서 사랑권을 느끼지 않고는 저나라에 가서 호흡기관이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를 보게 되면, 머리에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 그와 마찬가지로 가정이란 것을 중심삼고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중심삼고 사위기대의 기반이 되어 있고, 삼대상목적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중심삼고 보게 된다면 하나님, 아내, 아들, 전부 다 4수를 중심삼고 연결되어 하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사랑을 완성한 가정을 이룬 지상에서 완전히 호흡하지 않고는 가정이 천국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모델을 중심삼은 가정으로부터 확대된 영계의 사랑세계 판도에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안 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놀음놀이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나와 내 가정, 그 나와 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나라는 자동적이요, 세계와 하늘땅의 완성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에 있고, 결혼이 얼마나 무서우냐 이거예요. 아들을 낳고 품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이거예요. 본연의 사랑을 통해 본연의 남편 아내가 되고 본연의 부모가 돼 가지고 본연의 가정 형태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위안축복의 상대는 영계에 가면 상대가 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4대 속성인 절대·유일·불변·영원한 가정이 되어 이 땅 위에서부터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에서 축복받고는 이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혼할 수 없는 거라구요. 그래서 축복받았던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세상에서 혼자 살다 보면 사탄세계 주위의 유혹이 많기 때문에 대신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위로축복입니다.」 위로축복입니다. 위안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위안축복을 받아 가지고 살더라도 저나라에 가서는 위안축복을 받아 가지고 살던 그 상대와 부부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들딸이 태어났더라도 그건 자기 아들딸이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의 아들딸이요, 저나라에 가 가지고 본 어머니가 낳은 것으로 해서 사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안축복을 받은 여자 남자들은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 어디가 먼저냐 하면, 지상에서 먼저 결혼한 가정이 먼저입니다. 위안축복 받은 것은 그 부속품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본처의 가정과 후처의 가정이 돌아서니만큼 이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뜻을 못 이뤘으니 후처와 같은 것을 남겼지만 본연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거꾸로 된다 이거예요. 동생이 형님의 자리에 있어도 그게 형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형님이 먼저 축복을 완성했기 때문에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요전에 왔던 윤 박사(윤세원 박사)도 영계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나이인데, 위로축복을 받은 그 사람이 자기 영원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눈을 이려고 있더라구요.

아무리 못생겼어도 참사랑을 가지면 저나라에서는 미인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뭐 하더라도 저나라에 가면 사랑의 미인입니다. 사랑의 미인이라구요. 하나님의 진짜 참사랑을 하면 할수록 점점 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남자나 여자나 잘나고 못난 것은 사랑의 결실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의 결실의 가정을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에 달려 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바라는 수직적 사랑을 중심삼고 온전히 90도를 갖출 수 있는 입체적 사랑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절대 미인, 절대 미남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잘났더라도 귀가 찌그러지고, 어디가 병신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흑인도 없고 병신도 없습니다. 흑인이라도 그 마음을 중심삼고, 본성적 첫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되어 살았다면 빛나는 하나님과 같은 대신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체면 주체의 빛을 받아 가지고 화동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권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참사랑의 운동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황홀하고 세계 만유의 존재를 하나님이 주체로서 느끼는 것을 우리 자체가 전부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그래, 가정 기준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이것을 똑똑히 알고 가야 된다고요. 제멋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일본 식구는 일본 식구대로 제멋대로 살지만, 일본 냄새를 풍기고 일본 누더기 보따리를 짊어져 가지고, 머리는 누더기 보따리를 쓰지 않지만 몸뚱이는 일본 누더기 보따리를 걸치고, 일본 옷을 입고 케타를 신고 일본말을

하고 일본 풍습을 따르던 것을 전부 무시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커버하고 그 모든 것을 주체로 출발해야 할 것이 참사랑을 중심삼고 일체 된 가정이상입니다. 알겠어요? 그것이 먼저지 일 본이니 무엇이니 하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니 무엇이니 하는 관념이 없다구요. 하나님적 사랑, 하나님적 습관, 하나님적 풍습권 내에 화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절대적 가정을 중심삼은 참사랑을 표현화시키고, 내적으로도 물론 표현화시키고 전체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대신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생각할 수 없다구요. 자기 가정을 생각할 수 없다구요.

가정 위에 뭐가 있느냐? 수많은 가정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이 나라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그 수많은 가정을 희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 가정이 투입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가정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천국, 지상천상천국에는 많은 나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라와 자기 가정과 자기까지 투입해야 하늘 세계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 저쪽 끝에 있는 사람도, 내적인 사람도 끝에서 주고받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세계를 대신하고 세계에 널리 있는 사람도 개인을 중심삼고 주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중심의 핵이 되어 있으면 이걸 중심삼고 개인들은 전부 구형에서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더 확대시켜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순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참사랑이 아니면 순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가정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가정 절대 정착 기반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천

지를 창조할 때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지었습니다. 자르던 선언이 뭐냐 하면,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입니다. 절대신앙 가운데 참사랑의 씨를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심어 가지고 씨가 트니까 이것을 키워야 되는데, 누가 키우느냐 이거예요. 아담 해와가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키울 수 없습니다.

가정천국에 들어가려니 가정이 완전해야

그런데 사랑의 상대는 하나님 자체보다도, 어떠한 존재보다도, 자기보다도 몇천만 배 더 훌륭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적인 상대가 아들딸이기 때문에 아들딸은 버릴 수 없습니다. 아내와는 이혼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상대적 입장에서 90도로 도는 것입니다. 도니까 동서남북으로 변하면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아들이라는 것은 종적이기 때문에 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부모들이 이혼하더라도 자식을 놓고 싸움하지요? 그거 미친 것들이라고요. 그것은 천상세계에 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혼하게 되면 여자가 아이들을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80퍼센트가 그래요. 그러나 여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남자라고요. 이것 하나만 고쳐 놓아도 미국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가정천국으로 들어가려니 가정을 중심삼고 이 땅 위에서 숨을 쉬고 살고, 이럼으로 말미암아 가정 씨를 중심삼고 열매로서 확대될 수 있는 그 세계에 들어가려니 가정이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천국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곡식들, 모든 수확된 가정이 같으니까 천상에서 전부 다 한 창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알겠어요?

지금까지 제멋대로 살았다 이거야, 이 쌍것들! 축복을 받고 이혼을 생각하고... 축복을 뚱개 취급하고, 아이들을 무슨 장난감 놀음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어?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선생님 자신도 그 길을 향해서 지금 재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그래요. 아들딸도 그래요, 전부 다.

일대 혁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사람 손 들라구요. 똑똑히 알아야 되겠다구요. 천국 갈 가정이나, 천국 갈 부모나, 천국 갈 부부나, 천국 갈 자녀나 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영계의 천주대가족 분위기에 화합, 하나될 수 있는 가정을 이뤄야

그래, 자르던 제3차 선언은 뭐냐? 하나님은 제1 창조주요, 아담 해와는 제2 창조주, 우리는 제3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가 타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딴 길을 갈 수 없다 그말이라구요.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해원 뭐예요? 「숙명적 해원」입니다. 숙명적 해원. 하나님이 지금까지... 숙명적이란 부자지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부자지관계는 하나뿐이지 둘이 없습니다. 가를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둘이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자녀관계도 절대적으로 하나입니다. 부모를 갈아치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숙명적이라구요. 죽어서라도 이뤄야 되고, 죽어서라도 하나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전부 다 망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데에는 쌍쌍제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필요 없고, 부모가 필요 없고, 상대고 뭐고 전부 다 자기를 중심삼고 나가면서 이것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

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어서 타락하지 않은 부모의 아들이 있으면 부모의 아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저나라에 있어서 완전히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을 중심삼은 사위시대 사랑이상을 체득해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 위의 삶은 임시입니다. 잠깐 세상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위해 준비했으니 영원한 세계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저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하늘 부모를 중심삼고 무한한 사랑의 세계에서 보호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 천지입니다. 상하전후좌우 관계의 구형으로 하나되어야 합니다. 운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랑이 미치는 곳에서는 자기 가정이 자유 활동할 수 있는 씨가 되는 거예요.

영계에 가면 이 가정이 절대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고요. 거기서 나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종족이 나오고,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가정들이 확대되고, 그럴 수 있는 나라들이 확대되어 가지고 공식에 의한 천상세계의 전체 천국 분위기를 연결시킬 수 있겠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상적 개인이 필요하고, 부부가 필요하고, 형제가 필요하고, 부모가 필요하고, 그런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정의 기반에 나라가 필요하고, 천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집입니다. 우리 집이라고요, 우리 집.

영계에 들어가 가지고 천주 대가족 그 분위기에 일체 될 수 있고 화합하는 데 상충적 조건이 안 되고 운동하면서 하나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 땅 위에서 체험하지 않으면 저나라에 가서 다 걸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그 각도만큼 반대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또 아내를 무시하면 가정이 찌그러지니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면 각도가 90각도로 안 맞으니 전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 되는 존재가 전부 다 갈라진 것이 지금까지의

지옥이고, 지금까지의 영계였어요. 가정이 없습니다.

자기 조상과 일족, 후손을 탕감하기 위한 제물이 되어라

이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을 참부모가 지상에 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계에서 억천만 년 기다리고, 이 해원의 한 날을 땅이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영계에서 바라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 눈이 빠지고 사지백체가 녹아나고 없어지더라도 그 일을 하겠다고 정성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초점 상에 선 남자 여자로서 축복받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생활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 이걸 결부시키기 위한 수련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가정수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니 사위기대가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와야 됩니다.」 이제 돌아가 가지고 자식들을 붙들고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던 모든 전부를 세뇌해야 되겠어요, 세뇌. 세뇌보다도 투입해 가지고 절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타락하지 않은 부모가 오라 이겁니다. 영원히 그 부모는 하나님이 바라는 실체 대상자로서 이 땅 위의 어느 존재가 부정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혈통의 인연을 받은 그 자는 자연히 부모를 숭배하고 자연히 부모를 사랑하고 천국 갈 수 있고, 자식도 역시 부모 대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아들딸에게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자연히, 자연히 알게 되어 있다구요.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을 형적으로 평균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그런 부모와 사랑을 하듯이 이 땅 위에서...

그 아담이 타락한 16세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던 시대인데, 가

정을 중심삼고 사랑하던 시대와 종족을 중심삼고 사랑하는 시대와 나라를 중심삼고 사랑하는 시대를 못 느꼈기 때문에, 이걸 재탕감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가정을 종족을 위해 투입하고, 종족과 가정은 나라를 위해 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이라구요. 나라를 가졌으면 세계를 위하여 또 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해방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해요? 「예.」 확실히 알았어요? 「예.」 자기 눈으로 보듯이, 눈보다 더 확실해야 되고, 숨쉬는 코보다 더 확실해야 되고, 말하는 입보다 더 확실해야 되고, 귀보다 더 확실해야 되고, 그 모든 것보다 확실해야 됩니다. 왜? 사랑은 모든 오관의 출발의 기원이기 때문에, 그 참사랑을 오관보다도 더 확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이 쌍것들, 됐어? 「예.」 말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했으면 벌써 세상이 다 됐게?

이 고개를 어차피 여러분이 가정에 가 가지고 넘어야 됩니다.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선생님을 중심삼고 가더라도 각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러면 부모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언제 바로잡아요? 사각형의 각도를 줄이기 위해 볼 베어링을 돌려 가지고 각도를 죽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매일같이 몽둥이로 들이 췌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모든 잘못된 것을 탕감할 수 있고, 일족을 탕감하고 후손을 탕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위해 한꺼번에 제물 되어서 맞아라 이거예요. 두드려 패라 이거예요. 그 모든 탕감을 고맙게 받아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며 받지 않으면 해방권이 없습니다. (녹음이 잠시 끊김)

자기 가정과 일족을 투입해 나라를 찾아야

선생님에게는 변명할 도리가 없지요. 땅에서 씨를 심었으면 씨를 거

두어서 창고에 들어야 됩니다. 창고가 한 창고니 천국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부부, 절대 자녀, 절대 부모, 절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그런 사랑을 중심삼고 느끼고, 어디 가든지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디 가든지 자식을 생각하고, 어디 가든지 부부를 생각하고, 어디 가든지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제일 중심에 갖다 놓고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정을 중심삼고, 그 씨와 같은 것을 다시 확대시키면 종족이 되는 거예요. 종족에는 수많은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족을 희생시키고 종족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게 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종족은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라는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계는 천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투입해야 됩니다. 투입할 수 있는 길이 막히면 자기 완성 기반이 전부 막혀 버리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절대복종, 절대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 가정들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벌써 전부 다 투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망가져 버렸으니 가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완성한 가정은 자기 가정을 투입해 가지고 종족을 편성해야 됩니다. 탕감복귀예요.

종족을 완성했으면 민족을 위해 투입해야 되고, 민족은 국가를 위해 투입해야 되고, 국가는 세계를 위해 투입해야 됩니다. 국가를 투입했으면 세계와 국가와 가정과 자기를 투입해 가지고 천주를 하나 만들어야 해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상속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축복받았다고 전부 상속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받은 가정은 종족을 위해 투입해야 됩니다. 왜 종족을 위해 투입해야 하느냐? 종족에는 몇백, 몇천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가정을 몇백 몇천 가정을 희생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 종족을 위해 투입해야 되고, 종족

과 하나된 가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됩니다. 국가에는 수많은 종족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족이 들어가 있으니, 한 개인의 자기 종족권을 희생시킬 수 없으니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창조하는 데 있어서 투입하는 길이, 절대 투입하는 길이 없으면 민족과 국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오면 통일교회를 위해야 됩니다. 절대 가정과 일족을 투입하지 않으면 국가가 안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거기에서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지옥 가요. 앞날이 막혀 버린다구요. 선생님이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한 대로 살았다구요. 내 것이 없어요. 알겠어요? 「예.」 가정이 축복받았다 하더라도 그 가정이 해방권을 못 이루면 종족이 없습니다. 그 종족까지 투입해야 됩니다. 소생·장성·완성입니다, 그게.

마음이 소생이라면 몸뚱이가 장성이고 완성이 부부입니다. 알겠어요? 「예.」 개인을 중심삼고 볼 때는, 개인이 소생이라면 부부가 완성이고 종족이 완성입니다.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종족을 중심삼고 볼 때, 종족이 소생이라면 민족이 장성이고 나라가 완성입니다. 나라를 중심삼고 보게 되면, 나라가 소생이고 세계가 장성이고 천주가 완성입니다.

타락으로 그것을 다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자체에 가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투입해야 됩니다. 누가 투입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투입 안 해요. 하나님께서 투입 안 하고 선생님께서 투입 안 합니다. 자기들 일족과 가정을 투입해 가지고 나라를 찾게 되어 있지요? 절대복종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사고가 났으니 가정이 희생을 통한 투입의 길을 가야

싹이 텄으면 그걸 키우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투입해 가지고 재창조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투입 안 해 주니 우리 개인과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이 투입해 가지고 그 고개를 넘어야 할 그런 가정적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십자가, 하나님 사랑의 십자가를 수억만 년 지고 가고 있으니,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지상의 모든 것을 해방해 가지고 풀어 줘야 할 가정적 책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정 자체를 투입해야 되고, 종족 자체를 투입해야 됩니다. 국가가 있으면 국가 자체를 투입해야 됩니다. 국가를 투입하지 않으면 세계가 안 나옵니다. 또 세계와 국가와 종족과 가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천주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그런 사고가 났으니 여러분 가정이 그걸 의무로 알고 응당히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가야만 천상세계의, 대우주의 해방권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상대이상을 갖춘 본연의 장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것을 다 몰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이제 확실히 알았다고요. 알겠어요? 「예.」

가정도 선생님에 의해서 축복받았으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된다고요. 선생님은 그렇게 해방해 나왔다고요. 부모가 간 길은 자식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요. 선생님은 핍박받으며 나왔습니다. 세계를 돌며 돌며 천대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돌지 않아요. 누가 핍박을 안 해요. 선생님은 세계적으로 핍박받으면서 세계를 위하여, 하늘땅을 위하여 지금까지 투입한 것입니다.

1년 현금하게 된다면 하늘땅 해방권의 제물을 만들어 놓고, 세계의 해방권의 제물권을 만들어 놓고, 국가 해방권의 제물을 만들어 놓고, 민족, 종족 해방권의 제물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가정이 그걸 해야 된다고요. 지금 현금하는 것은 우리 가정을 위하여 현금하는 것이 아

납니다. 종족을 위하여 헌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세금을 바쳐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예.」

가정을 깎아서 갖다 붙여야 접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정을 접붙여야지요, 나라에? 접붙이려면, 나라에 접붙이려면 가정이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세계에 접붙여야지요? 그러려면 그 나라와 세계를 희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천주 앞에 세계를 희생시켜야 되는 이런 길이 남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타락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것을 조건으로라도 맞추고 돌아가야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저나라에 가 가지고 하늘나라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삼고, 참부모의 가정을 중심삼고 어루 모여 붙을 수 있지, 이것이 툭 떨어져 나가면 가정적 낙원과 가정적 중간영계, 가정적 지옥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이시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 있는 재산이나 자기에게 속하는 것을 영원히 지옥에까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총생축헌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가정은 생사의 길에서 완성 미완성을 심판할 수 있는 절대 기준

이래서 이 모든 세계적 가정을 종족 앞에 투입하고, 종족을 민족 앞에 투입하고, 민족을 국가 앞에 투입하고, 국가를 세계 앞에 투입하고, 세계를 하늘땅 앞에 투입했다는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 일을 해 나왔어요. 그런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절대·유일·불변·영원한 가정, 하나님 대신 창조주 대신 선생님 대신자로 섬으로 말미암아 숙명적 해원이 이뤄집니다.

부자지간도 하나입니다, 하나. 한 번입니다. 부부관계도 한 번입니다. 자녀관계도 한 번입니다. 그러니 절대·유일·불변·영원한 가정입

니다. 내 가정은 영원히 하나입니다. 그게 유일이요, 불변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새 끼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엄지손가락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엄지손가락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다 파탄되는 것입니다. 딴 것을 바라는 것은 파탄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딴 것을 바라 가지고 타락하고 사탄세계를 만들었으니 딴 것을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 원칙입니다. 천도라구요. 하나님도 그 길을 가야 되고, 모든 인간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땅이 다 화합해야 됩니다.

결혼은 뭐냐 하면, 천지 합덕입니다. 알겠어요? 「예.」 남편은 하늘이요, 여자는 땅입니다. 그게 하나되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꽃아야지, 옆으로 꽃겠어요? 부부가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남자가 드러누워요, 여자가 드러누워요? 물어 보면 대답을 해야지! 「여자가 드러눕습니다.」 왜? 수직이 되기 위해서, 수직. 알겠어요? 「예.」

가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가정이 내 생사권의 영원한 길의 완성 미완성을 심판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표를 받아야지요? 부모가 딱딱, 부부가 딱딱, 자녀가 딱딱, 가정이 딱딱... 그래, 숙명적인 해원 성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한입니다. 부모의 한입니다. 자녀의 한입니다. 남편의 한입니다. 아내의 한입니다. 가정의 한입니다. 한이 있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해원·해방·통일의 내용을 기도해 줬어요. 이제 선생님이 내일 모레면, 오늘이 8일이니까 내일 모레면 미국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말,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다 해줬다구요. 이번에 내가 여기 있으면서 어디 어디 가 봐야 되겠다고 관심 있던 곳을 돌아보고 그랬다구요. 지금 여기서 떠나더라도 '관심 없다.'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청산하고 간다.’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와도 되고 안 와도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봄이 되면 아담 해와를 하나님 이 봄에 심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씨를 거두어 가지고 그 아들딸, 천천 만만 대 후대 후손은 부모가 하던 그 식대로 따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봄에 밭을 갈아 씨 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참부모 문화권이 생겨나

그렇기 때문에 아담 가정 문화권이 생겨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생님을 중심삼고 참부모 문화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천국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받았다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4대 심정권을 중심삼고 절대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각하지요?

그것이 여러분 뺏골에 사무치고, 그것이 주류사상이 되어 가지고 주체적 자기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 심신의 모든 것을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잊어버려 가지고, 오늘날 완성한 가정에 모래 한 줌을 가하고 자갈을 가해 가지고 빌딩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천지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대 왕궁을 짓는 자기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한 집을 짓느냐? 재미만한 집을 지으면 자기 영역이 재미만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새만한 집을 지으면 자기 그 분야가 새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천지의 대왕마마를 우리 가정에 모시려고 하면 얼마만큼 정성들여서 집을 지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알겠어요? 왜 개인은 가정을 위해서 투입하고 희생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예.」

아담 가정이 전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 안 했으면 그것이 한

꺼번에 다 연결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가정은 그 가정밖에 없습니다. 종족민족이 없다구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참부모가 전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땀을 때워 주었으니 참부모를 중심삼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관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이동 준비를 하라

이번에 전부 보따리 싸서 이동할 준비를 하라고 그랬지요? 「예.」 언제 ‘남미 출동! 대이주!’ 하면 어떻게 할 테예요? 어떻게 할 테예요? 「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준비하고 피난 보따리를 싸고, 자기들이 여기에 왔다갔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끼리 정성들이고 이것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옮겨가야 된다고요.

전세계 통일교회 3억6천만쌍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미에 나오면 브라질이 누구 나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교육받고 2천 명이면 2천 명, 몇만 명이 모여 가지고 한 3년만 지내 보라고요. 이 남미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그들이 보니까 미친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임자네들, 미쳤어요? 이시이! 미쳤어? 부부가 미쳤어? 절대적인 부부로서, 가정을 보게 된다면 자기들의 모델 형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사람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 남녀들은 다 여러분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서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와서 교육받게 되었느냐? 그런 미친 것들이 어디 있어?’ 하고 본다는 거예요. 사실 미친 것들이예요. 일본에서 교육받으면 되지. 자기 나라 한국을 중심삼고, 일본을 중심삼고 대마도에 수련소를 지어 가지고 수련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왜 여기에서 이러느냐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

계평화이상가정교육본부?

선생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상가정교육본부라는 말이 적중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그거 부정할 자식들 있어? 대가리가 똥개 대가리라구. 가자마자 일본 나라 것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복지, 애급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중심 삼고 4천3백 년, 4천3백 년 동안 수난당하면서 갖춘 모든 전부를, 금은보화를 자기 고향 땅에 갖다가 쌓아야 할 텐데, 수고의 피 흘린 모든 수난의 것을 모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부모님 앞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못 돌려요. 부모님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 아담으로부터 거짓 사랑이 생겨났으니 참아담이 나와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빼앗아 가지고, 지금까지 영어의 몸이 되어 있던 하나님을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자기 집에 있는 접시 하나라도 보따리 싸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급 할 때 도적질해 가지고 나왔어요. 금은보화 모든 전부를 도적질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사탄이 도적질해 갔으니 이 간나 자식들은 주인 행세하면서 도적질해서, 나라의 모든 것을 뜯어와 가지고 대이동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이동해야 되겠어요? 남미로 이동해서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은 밤 시대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됩니다. 가인 세계를 지나서 영계의 장자권을 축복해서 밤 세계의 사탄을 축복가정이 몰아내고, 다시 이동해 가지고 사탄세계를 축복해 가지고 이것이 아벨을 모셔야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모시지 못했으니 축복가정 선조들이 지상에 와 가지고 개인적으로 책임 못 한 것을 가정적으로 책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 몸뚱이를 이어받았거든. 그걸 탕감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계를 절대 희생시킨 것입니다. 영계의 선조들을 절대 희생시켜 가지고, 지상 위의 축복가정을 절대 희생시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영계의 역사를 통해서 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나라를 찾을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예.」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구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숙명적 해원 성사를 할 수 있는 가정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모델입니다.

이렇게 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사랑의 그 씨가 작거나 크더라도 전부 소나무면 소나무가 되는 거예요. 소나무 이상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세계이기 때문에 영계는 출발이자 영원입니다. 우리와 같이 시간 관념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예.」

가정 절대주의다! 알겠어요? 가정 유일주의, 가정 불변주의, 가정 영원주의다! 이건 숙명적인 과제입니다. 내가 여기에 미완성품이 되면 영계에 가 가지고 억천만세, 천국에 들어가도 자리를 못 잡고, 천국에 입적해 가지고도 왕권을 중심삼은 황족권 내에 친족들이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고립된 입장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못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정적 낙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거 왜? 이놈의 가정들이 책임 못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적 중간영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내버려둔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명한 햇빛이 비치면 반발하는 것입니다.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건 영원을 두고 싫든 좋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계의 실재를 전부 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혼동회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3회 때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성약시대 다음에는 해방 통일시대

오늘 기도도 그래요. 기도한 내용이 해원과 해방과 통일에 대한 것입니다. 해원은 탕감복귀입니다. 탕감을 하지 않고는 해원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탕감해야만 해원이 되고, 해원해야만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해방이 벌어져야만 몸과 마음이 하나되고, 부부가 하나되고, 가정이 하나되고, 나라가 하나되는 거예요. 나라의 탕감·해원·해방이 되어야만 통일권이 이뤄지는 거예요. 세계의 탕감·해원·해방이 되어야만 세계의 통일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해원하는 것은 제물시대입니다. 구약시대는 물질 제물 시대, 신약시대는 아들 제물 시대입니다.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불효자가 되었으니 부모가 희생한 거예요. 부모 해방시대를 맞는 거예요. 이게 성약시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시대냐 이거예요. 무슨 시대예요? 하나님의 해방 통일시대입니다. 지금 해방이 다 안 됐습니다. 통일이 다 안 됐습니다. 그것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래,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 그 다음에 뭐라구요? 해방 통일시대입니다. 해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탕감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탕감을 다 했어요? 가정에 대한 탕감을 했어요? 가정이 언제 희생해 봤어요? 부모님이 다 했습니다. 부모님이 다 했으니, 부자지 관계가 되어 있으니 부모님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 참된 자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 뭐가 없다는 거예요. 대학 학사과정을 통하지 않았는데 박사과정을 밟을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랑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참사랑의 관계에서는 그런 대등한 가치를 얼마든지 갖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부모 가정을 절대 모심으로 말미암

아 자녀의 가정이 종횡 좌우를 중심삼고 대표적인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부모와 하나되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모순이 없고 또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공증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인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여러분의 가정에는 종족이 없습니다. 종족 편성, 조건적 종족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개인·가정·종족, 3단계입니다. 그제한 카테고리(kategoria), 철학 용어로는 범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이 설 수 있어요? 세계통일 지상천국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정성을 들이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제물을 다 바치고, 자기들을 재창조해 가지고 자기 소유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 될 수 있는 씨는 부모님에게서 돌려 받았으니 하나님 것으로 돌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씨로 해 가지고 얼마만큼 번식시키느냐에 따라, 거기서부터 자기 소유권이 벌어지고, 거기서부터 천상세계의 자기 격위가, 자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중심삼고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것도 걸릴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유권은 여러분이 축복받을 때 소유권 장학보험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축복받은 다음에는 소유권 장학보험에 여러분이 가입해 가지고 여러분 기반을 드릴 수 있는 희생적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가정이 종족권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족이 새끼쳐야지요? 그렇지요? 그건 누가 투입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입해야 된다고요. 가지면 가지 자체가 속한 모든 것은 그 본체를 통해서, 줄기와 모든 천운을 중심삼아 가지고 영양소를 보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어 가지고야 보급받아 가지고 크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개인은 가정을 위하여 뭘 해야 된다고요? 투입, 희생해야 됩니다. 왜? 부모님이 조건적인 것을 복귀했으니, 여러분은 종족을 완성하여 통일국가를 이루어야만 여러분의 할 일을 빨리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통일될 수 있고, 지상 천상이 통일될 수 있고, 헌법을 중심삼고 법의 기준을 중심삼아 가지고 절대 일체화됨으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없으면 개인 개인은 영원히 고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제물, 아들 딸, 부모까지, 자신까지 고생하고 투입한 거와 마찬가지로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또 투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상천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으로 보편화, 일체화, 통일화해야 할 것이 통일가의 책임임을 똑똑히 알아야 되겠다고요. 알겠어요? 「예.」

투입하고 잊어버려야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여러분 가정이 가야 할 길은 뭐냐? 조상의 자리에서 자기 후손들이 가야 할 이 원칙에 부합될 수 있는 전통을 세우는 데 선두에 서야 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 선두에 서 나왔습니다. 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도 팔십 노인이 선두에 섰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피곤이 뭐야, 피곤이?

통일가의 축복가정들이 도중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사는 부모님을 고생시키고, 하늘 부모와 전체 하늘 가정을 고생시키고 자기는 복 받겠다고? 복이 뭐야?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가정적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 일족이 얼마나 참소하겠어요? ‘이놈의 간나, 축복을 받지 말지 왜 이렇게 고생시켜?’ 하고 말이에요. 여기서 잘못되게 되면 길이 없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

입니다. 확실해요? 「예.」 확실하다고 하는 사람은 왼손을 들어 보라고요. 바른손은 다 망했습니다.

이번에 반대로, 하늘나라의 가정 축복의 상징으로 처음으로 내가 왼손을 들라고 했다고요. 알겠어요? 「예.」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살라고요. 그렇게 안 살게 되면 나하고 영원히 이별입니다. 부모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양심적 가책을 느끼게 되면 ‘부모님!’ 하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앞의 원수를 때려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훈독) 계속! 확실하지요? 「예.」 왜 투입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가정적 조건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생애를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일족을 중심삼고 일국을 만들 수 있는 전통적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투입하고 잊어버리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울에 가려면 자동차로 몇 만리를 같이 돌아야지요? 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쉴 새 없이, 빨리 돌면 빨리 가는 것입니다. 빨리 투입하면 빨리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의 모든 전체가 소모예요. 탄 사람도 소모고, 차 자체도 소모고, 달리는 속도도 얼마나 위험해요? 위험천만한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전부 다치는 거예요.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 다 알았다니까 넘어가자구요.

나는 내일 모레면, 10일은 간나 자식들이 사진 안 찍어 줬다고 10일에 사진 찍겠다고 해서 그게 걸려 있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웃음)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갔을 거라구요. 얼마나 바빠요, 내가! (웃음) 자기들은 사진이 귀하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사진 안 찍어 줘요. 다음에 오게 된다면 선생님 큰 사진을 해 가지고 세레 요한을 비추는 것같이 해 가지고 사진 가지고 사진을 찍어 줄 거예요. 사진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웃음) 조건적으로 사진 찍지, 실제 사진은 못 찍을 것이다 이 거예요. 그래, 불평하고 대가리 젖던 녀석들은 곤란할 것입니다. (웃

음)

사정해 가지고 하늘과 통해요? 하나님의 사정에 통해야, 자기 가정을 무시해 놓고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지지, 자기 조건 가지고 그마만큼 수직선이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상대 자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주체가 없는 것은 여기나 여기나 동서사방 어디에 있더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중심과 연결된 90각도의 부자지관계, 부부관계, 가정적 관계가 아니면 하늘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똑똑히 알았지요? 「예.」 자, 똑똑히 알았다구요.

어머니, 한번 물어 봐. 한번 물어 보라구. 똑똑히 알았느냐고 물어 봐요. 「똑똑히 알았어요? (어머님)」 「예!」 (박수) 자, 넘어가자구.

조상들을 귀중하게 여겨야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손자를 자기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앞에 아들과 손자가 있어서 아들과 손자를 사랑하는데, 그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귀하냐? 손자가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맺힙니다. 그 가지에서부터 종족이 나오고, 민족이 나오고, 국가가 나오고, 세계가 나오고, 미래에는 더 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을 존중시해야 됩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노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세상을 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기 여편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누구인지 모르고, 어머니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갈 날이 가까운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이 지식을 담는 의식구조가 점점 약해져 가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린다구요. 이게 영계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 끊어

버리고 영계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사랑의 마음에 불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상을 그리워하고, 그래야 돼요. 제일 사랑하는 아들딸의 이름도 모르고, 자기 여편네 이름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다구요. 사랑에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랑만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지상에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조상들을 천대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갈 길을 도와 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기억해 가지고 그분이 잊어버린 부모 대신, 잊어버린 형제 대신 대해 줘야 돼요. 자식의 이름을 잊어버린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하는 사람은 자식 대신, 부모 대신, 처자 대신 도와줄 수 있어야 형제의 자리, 일족의 자리에….

요즘에 그런 노망한 사람을 천대해 버리고 동네의 별장 같은 데다, —별장도 아니지요.— 뒷방 하나 얻어 가지고 내버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인생 길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입장, 천지의 도수를 맞추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알기 때문에 통일교회의 인생관, 통일교회의 생활관이 얼마나 멋진가 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천국과 통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선생님도 이제 건망증이 생기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때가 돼요, 안 돼요? ‘저놈의 늙은이 빨리 죽으면 좋겠다.’ 할지도 모르지만, 빨리 안 죽는 것은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조건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도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결혼했던 남자가 불구자가 되면 도망가는 여자들 많지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불구자의 남편을 가진 아내는 저나라에 가면 최고의 미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잘생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흑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눈이 먼 봉사라도….

저나라에는 봉사도 없어요. 얼마나 서로 위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저나라의 인격의 미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때문에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둥글고 예쁜 형태는 있지만 말이에요….

사람은 눈, 귀, 코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리워했으면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꽃과 같이 빛나고, 거기에는 어두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기를 통하게 되면 빛을 내는 전구의 필라멘트가 텅스텐으로 되어 있는데 새까맣게 되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면 새까매서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못생긴 부부가 사는 것을 보게 될 때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세상에 가서 미인 중의 미인이요, 미남 중의 미남으로 화할 수 있는 지상의 통일적 사랑을 어떻게 완결 짓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영계까지 생각하면 공평한 하나님이 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참사랑은 생명권 이상의 자리에서 연결돼

자, 여러분 부부가 세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브레인 워싱(brain washing; 세뇌), 통일교회 문선생이 가르치면 전부 다 세뇌 안 될 수 없어요. 선생님도 세뇌되지 않았어요? 이런 내용을 중심삼고 그렇잖아요? (웃음) 선생님이 먼저 세뇌 받은 챔피언입니다. 챔피언이 돼 가지고 망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내 발 아래 다 머무르게 되어 있지,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못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사랑은 제일 가볍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참사랑은 제일 가볍기

때문에 제일 높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드벌룬(광고풍선), 풍선 있잖아요? 수소를 넣어 가지고 띄우는 풍선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 가볍다는 것입니다. 빠르고 중량이 없기 때문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사랑, 아시겠어요? 「예.」

참사랑은 타락한 세계의 생명권 이상에서 연결되지, 타락한 생명권에서는 연결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땅의 애국자니 무슨 충신이니 하는 것은 이 이상에서 시작되지, 이 이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생명이 사랑 이상에서 시작됐으니까 자기 생명을 투입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자리에서만 참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했습니다. 타락한 세계에서, 타락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걸 부정하면 부활이 벌어집니다. 예수도 자기 생명을 부정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켜 준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가르쳐 줬으니, 죽는 것은 내 책임이고 살려 주는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살려 줄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해 가지고 사랑의 대상으로서 복귀한 아들 딸의 자리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 사탄세계에서 그냥 그대로 습관화 상습화 전통화되어서 사는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 치워야 합니다. 그러한 원칙적 기준이 해결 안 된 종교권은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나이 많은 사람 손 들어 봐요. 칠십 이상 손 들어 봐요. 선생님 하나밖에 없구만. 저 할머니 하나밖에 없구만. 손 들어 봐요. 「둘 있습니다.」 칠십 난 할머니 같은 사람이 선생님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활동할 수 있어요? 어저께만 하더라도 차를 다섯 시간 반, 여섯 시간을 타고, 배를 네 시간 이상 타고 왔습니다.

그거 다 청산해야 됩니다. 어디 가고 싶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 그랬던 사람은 말이에요, 그 조건 다 청산해야 됩니다. 갈 때 청산하고 가야 됩니다. 다 잊어버리고 가야 됩니다. 통일교회 여러분, 축복가정 다 잊어버리고 가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가르칠 것을 못 가르쳐 주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천주를 통일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려니 생활 자체가 달라야

선생님은 지상에 대해 뭐 관심 없습니다, 이제. 영계에 가 가지고 할 일이 지상보다 더 많습니다. 그야말로 막 들이 깨뜨려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뒤집어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세계입니다. 사탄세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을 중심삼고 하니까 누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영계에서 선생님이 오길 더 바라겠어요, 지상에 있는 여러분이 더 바라겠어요? 「저희가 더 바랍니다.」 바라면 어떻게 해? 영원히 여기서 살 수 있나? 여러분이 죽고 나서도 더 살기를 바라요? (웃음) 지상에 선생님이 살고 있으면 여러분이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선생님을 섬기고 싶지, 영계에 있고 싶지 않다고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선생님이 영원히 지상에 있으면 천상세계에는 해방권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욕심쟁이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런 것은 사탄권 내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내가 다 책임지겠으니 선생님은 빨리 영계에 가서 처리 하여 조상을 해방하소.’ 하는 것이 효자의 도리입니다. 어차피 그 길을 가야 된다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3세계의 이런 이론적인 기준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논리적 기준에서 영계가 없더라도 ‘있

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들어 내소.’ 해 가지고 만들어 주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입장으로까지 몰아낼 수 있는 놀라운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해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어디 있어요? 세계 통일이 아닙니다. 천주 통일입니다.

지금 임자네들이 물을 마시는데 세계 같은 주머니에 물을 넣어 놓고 한 잔 물을 마셔 가지고 되겠어요? 한 잔 물을 마셔야 되겠어요, 파이프를 대서 그 전체 물을 들이마셔야 되겠어요? 전체 물을 들이마신다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 내게 이 전체 물에 파이프를 대 가지고 여과기를 통과시켜서 제2의 물을 나눠 준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생활 그 자체가 틀려야 된다고요.

생각은 절대 이 자연 원칙에, 물리적 현상세계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놀라운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팔십 노인인 선생님은 열 시간도 서서 얘기한다구요. 다리가 굳어지면 ‘이놈의 다리야! 주인의 갈 길이 남았어, 이놈의 자식아!’ 이릅니다. 강제로 하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건강해요, 약해요? 「건강하십니다.」 요즈음 다리를 보라고요, 얼마나 가늘어졌는가. 얼마나 가늘어졌느냐 이거예요. 옛날에는 뚱뚱하고 둥그랬는데, 요즈음은 점점점 꺾테기만 남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살아요. 몸무게를 다룰 수 있는 이런 입장이에요. 늙어 가지고 배가 나오고 배 부자가 되게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저혈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모양이지요? 아시겠어요? 「예.」

어머니는 조금만 뭐 하게 되면 대번에 따라가다가 ‘아이구, 나 쉬겠다.’ 하지만 말이에요... 섭리의 길을 가는데 천리 길을 놓고 쉬겠다는 사람이 정신병자요, 정상적이요?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고 가야지요. 그래, 어머니 부분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책임자는 그래야 됩니다. 자식들이 못 하게 되면 자식 부분까

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식들은 망하지 않고, 그런 아내는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게 된다면 그걸 중심삼고 그 이상 하려고 하고, 그 다리를 타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자기가 세우지 못하면 죽어서라도 상대의 자리에 서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악처도 선한 처가 되고, 악한 아들도 효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아시겠어요?

통일교인들은 많이 울어야

통일교회 교인들은 많이 울어야 됩니다, 선생님을 중심삼고. 통일교회 앞의 선생님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동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동정했다가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동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르는 것, 세상이 모르는 내용을 전부 다 수습해 가지고 선생님에게 맡겨 줘 가지고 하나님 대신 나눠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눠 주기 위해서 땅 끝까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놀음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선생님이 영계에 가게 되면, 동네에 세 집이 있더라도 눈물 흘리지 않는 집이 없는 그런 기준을 남겨 놓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선생님이 돌아갔다 하면 눈물 안 흘릴 사람 손 들어 봐요. 정말이에요? 「예,」 그럼 눈물 흘리겠다는 사람 손 들어 봐요. 아이고! (웃음)

그거 보면 선생님이 행복한 사람이지요? 왜? 부자지정, 부부의 정...

이것을 알아요. 선생님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구요. 형제지정, 부부의 정, 부모의 정, 천적인 천운의 법도가 운행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 고향을 사랑하고, 인연을 가진 사람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안 흘릴 수 없다는 사실은 통일천하입니다. 일본 놈, 미국 놈, 한국 놈, 되놈, 무슨 놈 할 것 없이 다 같다는 거예요. ‘놈’이 ‘남’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남편님, 자녀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남았나? (웃음) 「30페이지 남았습니다.» 30페이지? 오늘 그 내용이 귀한 내용이라구요. 30페이지 계속할까요, 선생님이 오늘 좀 바쁘는데 굿바이해요? 더해요? 「예.» 오늘은 그만 하고 다음에 하자구요. 여러분이 책들 있으면 읽으면 좋겠는데 책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구요. 내가 얘기 한마디 하겠다구요.

해원·해방·통일하기 위해서는

오늘 기도한 내용은 중요한 것입니다. 해원·해방·통일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제물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 그 다음에 뭐라구요? 해방·통일시대를 얘기했다구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해원해야 됩니다. 해원해야 된다고요. 해원하는 데에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탕감복 귀되어야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돼야 천국화되는 것입니다.

몸 마음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다 안 되어 있지요? 몸 마음이 하나 안 돼 가지고, 부부가 하나 안 돼 가지고, 종족이 하나 안 돼 가지고, 민족이 하나 안 돼 가지고 있어요. 전부 갈라졌어요. 그 모든 것이 내 몸 마음에 걸려 있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안 되어 있어요. 몸똥이가 해원이 안 돼 있어서 천국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해원해야 되는데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몸똥이의 해원을 말합니다. 몸똥이가 제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알겠어요? 제물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몸뚱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된 내가 되지 않고는 사탄의 핏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피가 준동하고 있으니 피를 다 빼야 되는 것입니다.

피를 다 빼 버리고 하나님의 피살을 중심삼고 재차 추슬러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빼와 살이 사탄의 핏줄에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자기가 칼로 찢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잘라 버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걸 느껴 봤어요?

마음을 참부모·참스승·참주인으로 여기고 살아야

해원, 마음이 나에 대해서 해원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불쌍해요? 마음이 참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누구나 하면 말이에요, 부모보다도 앞서 있는 것입니다. 부모보다 앞서 있고, 스승보다 앞서 있고, 주인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출발했느냐? 출발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부모 중의 부모요, 스승 중의 스승이요, 주인 중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씨를 나에게 심어 주었는데 그것이 마음입니다.

그래, 자기를 낳아 준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지상의 학교에서 배우는 선생님보다도, 지상에 사는 어떠한 대통령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 준, 참부모·참스승·참주인이 될 수 있는 씨를 심어 준 이 마음을 지금까지 억천만 년 동안 인간들이 유린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이 통곡, 통곡, 통곡, 비운의 비운의 역사를 거쳐왔다는 걸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 앞에 죄를 짓고 간 인류, 지금까지 영계에 간 수천억 되는 모든 조상들도 마음 앞에 죄를 짓고 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나에

게 해원해 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있고, 이 우주 본성이 울고 있다는 겁니다. 본성이 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절대 부모와 같이, 절대 스승과 같이, 절대 법과 같이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헌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지의 근본, 하나님의 분신을 나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에게 부모의 사랑·생명·혈통을 전부 다 심어 줬지요? 누가 이것을 손댈 수 없습니다.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주인입니다.

양심은 부모 앞에 있고, 또 양심은 스승 앞에 있고, 양심은 주인 앞에 있는 거예요. 양심을 교육하자는 말 들어 봤어요? 당신네 양심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미비한 양심이에요? 양심을 교육하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심대로 살라고 그러지요? 양심적이냐고 물어 보지요? 양심은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양심에 주인이 필요 없습니다. 심판자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주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해방, 양심의 해방을 했다면 참부모의 양심을 가졌을 것이고, 참스승의 양심을 가졌을 것이고, 참주인의 양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갖추지 못했으니 이 참주인적 3대 주체사상을 내 자신에서 이루어 가지고, 절대 양심권을 중심삼아 가지고 부모를 절대사랑하고, 스승을 절대사랑하고, 나라의 주인을 절대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애족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런 주인, 영원히 영원히 갈라질 수 없는 주인을 결부시킨 이 주인을 하루에 몇 번씩 무시해요? 미인 된 여자를 하루에 천 번, 만 번, 영원히 보고 싶지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낳아 준 부모와 자기를 가르쳐 준 스승과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은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영원히 나와 더불어, 나면서부터 영원히 저세상까지도 나와 더불어 같이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유린한 죄를 어떻게 용서받겠는가

그 마음이 지상에서 살 때 책임 못 하면 영원한 세계에까지 가서도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대하여 앉아서 '나'라고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 못 하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안 그래요? 몸 마음이 싸우지요? 몸 마음이 안 싸우는 사람 손 들어 봐요. 지금도 싸우고 있지요? 기가 찬 일입니다. 타락 안 했으면 그런 것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양심을 유린한 역사의 죄를 알게 되면 회개 안 할 자가 없습니다.

어디에 숨어서 혼자 가 가지고 자기가 아는 악의 기준을 중심삼고 나쁜 짓을 하게 될 때 양심이 명령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암만 죄 많은 사람이라도 양심은 '이놈아!' 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유린했어요? 그래도 나를 떠날 수 없는 불쌍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또 누더기같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신창이 된 그 상태로 저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기가 차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양심은 영원히 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온, 영원히 나와 더불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와 더불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할 입장에 선 그런 나를 만든 그 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지옥 가야지요. 벌을 받고 죽을 사지에 간다 하더라도 양심 앞에 몸뚱이가 잘못된 그 자체를 고백하고, 그런 사실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 양심을 아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양심과 갈라질 수 있어요? 양심과 이혼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양심이 부모와 부부와 자녀의 입장에 전부 다 엮어져 있는데, 그런 역사적 중심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그런 양심하고 이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모를 부정하고, 형제를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자라 가지고 형제가 되고, 형제가 자라 가지고 부부가 되고, 부부가 자라 가지고 부모가 되잖아요? 가정 판국의 그런 4대 요건을 내 자체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심이 원하는 것은 이상적인 대상입니다. 그 가정 앞에 양심과 몸뚱이를 투입하고 싶고, 전부 다 화합시키고 싶어하던 양심의 소원 기준을 얼마나 유린했느냐? 부모에게 불효하고, 자기를 중심삼고 형제들을 이간 붙이고, 부처끼리도 사랑이상의 일체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것을 내 것 만들려고 도적질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양심 앞에 지은 죄를 누가 회개해 주겠느냐? 누가 용서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면,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심어 준 것이 하나님의 죄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심어 준 양심이 이렇게 만들라고 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그래, 천상세계에 가 가지고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 앞에 반항하고 변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참부모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세워 준 하늘 앞에 어떻게 변명할 거예요? 참스승의 도리를 다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변명할 수 있어요? 참주인의 도리를 하려고 했는데 어디 가서 변명해요? 도망갈 수 있어요? 양심이 가야 할 길 앞에 방해되었던 내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자기가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둘 가운데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 하고 싸우더라도 양심은 둘 다 안다는 것입니다. ‘저쪽이 나보다 좀 낫지. 내가 잘못했다.’ 하고 알면서도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 사탄의 핏줄이 동하는 것입니다. 자기 절대 주체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탄의 피가 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내가 심판하지 않으면 내 이상적인 천국은 나와 영원히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라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한 사람들의 가정이 나라에 꼭 있다면 나라가 망하겠어요, 흥하겠어요? 「흥합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문총재는. 내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억울한 게 많은 사람이라구요.

그래도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 세계 끝까지 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태양 빛이 동쪽으로 났다가 서쪽으로 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프리 섹스, 호모, 레즈비언은 동물세계에도 없어

이제 세상이 달라졌지요? 제일 문제가 가정 문제입니다. 청소년 문제, 가정 파탄 문제가 마지막입니다. 사탄 전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사탄이 '아담 해와를 마음대로 품고 사랑하던 그 기준을 인간세계의 끝날에 와 가지고, 그렇게 뿌렸으니 그런 요사스러운 사랑을 중심삼고 전체를 파탄시킬 수 있는 전권 행사를 나에게 허락해야 내 소원대로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없으니 참소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하니 하나님이 '그렇다.' 해서 사탄 전권 시대를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性)해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호모, 레즈비언이 있어요? 그것이 천사장권입니다. 끝날에 가서는 천사장권에 서... 천사에게는 상대 이성을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상대가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주장하면 사탄 자체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단신이 되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 남자 남자끼리 결혼해요? 그런 동기를 만든 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말하게 되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가짜 성기를 중심삼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호모들입니다, 호모들. 어떻게 하는 게 호모예요? 남자들끼

리의 호모는 뭘 하는 거예요? 가짜 성기를 가지고 남자 남자끼리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부족하니 가짜 성기, 가짜 성기보다도 동물과 같이 사는 여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가 차지요.

그래, 정욕이라는 것을 인간이 이길 수 없습니다. 암만 도의 길을 가더라도 그 자리에 가 가지고 산보(三秒;3초) 이내권 내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관할 수 있습니다. 뭐 별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사상에 남녀칠세(男女七歲) 뭐라구요? 「부동석(不同席)입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면 벌써 그것을 중심삼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잘생긴 미인이 ‘난 남자 필요 없다.’ 그런다 하더라도 남자 성기를 꿈에나 낮에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자들, 그래요? 나는 여자가 안 돼 봐서 모르겠다구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성기를 꿈에나 낮에나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정신이 거기에 정착하고, 손발이 거기에 가서 머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래, 남자 없는 여자는 불쌍한 것이고, 여자 없는 남자는 불쌍한 거예요. 그 건 멸망입니다, 멸망. 세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없고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세계에서는 호모, 레즈비언이 나와서 성해방을 주장하는데, 그런 것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끝장. 그래 가지고 친족 상간관계를 장려하는 프리 섹스 시대가 됐다구요. 그 말이 뭐냐 하면, 할아버지하고 손녀하고 산다는 거예요. 손자가 할머니랑 같이 산다구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한 방에 살면서도 그런 짓을 막지를 못해요. 세상에! 어머니가 아들하고 그 짓을 하면서도 같이 사는 거예요. 여편네가 막지 못해요. 프리 섹스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동물세계에도 없습니다. 말 같은 것은 4대를 지킬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영리한 것은.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리한 개는 그렇습니다. 개만도 못하고 동물만도 못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지옥만 있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엇을 주장해요? 절대성(絶對性)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성.

선생님이 이혼하게 된 사연

그러면 선생님은 왜 이혼했느냐? 그런 문제가 문제 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혼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혼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물리고, 물리고, 일가가 전부, 일족이 동원돼서 ‘우리 최씨네 집안은 저런 이단 괴수하고 상대할 수 없다.’ 이랬다구요. 문중이 평안북도에서 이름난 기독교 집안으로 유명합니다. 또 그 집 자체도 군에 있어서 유명한 교회를 지은 집안입니다. 봉사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만나기에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이런 최씨 집안이 가짜 예수와 연결돼 가지고, 딸이 연결되고 손자니 무엇이니 연결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성진 어머니 자체도 원수의 핏줄을 안 남기겠다고 그런 것입니다. 참 지독하지요. 알겠어요? 왜? 그 어미 아버지가 교육해 가지고 이혼하라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을 감옥에 처넣은 것도 성진이 어머니 일가가 후원해 가지고 된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할 것이 아니지.

여자한테 천대를 받고... 악처가 누구라구요? 소크라테스의 악처, 공자의 악처를 말하는데 그건 뭐 아무 것도 아닙니다. 별의별 일을 다 당한 거예요. 선생님은 얹어놓아도 신사지요. 젠틀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세상의 남자들 중에 성진이 아버지 이상 훌륭한 남자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를 내 남편 만 들려고 하는데 이놈의 쌍년들이 모여 가지고 바람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바람나서 흘러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람날 게 뭐야?

그래, 이 여자들이 얼마나 나쁘냐 말이에요! 성진이 어머니가 있으면 와서 사모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는 말이에요, 밥테기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가면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해주는 여인으로 생각했다 이게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사모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사모님은 내가 되겠다.’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을 어떻게 겁탈하느냐?’ 이랬다구요. 이놈의 타락한 여자들이 가랑이를 벌리고 사방으로 나발을 불었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통일교회 교인들이 선생님을 사랑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선생님 같은 남편을 얻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너는 어드래? 안 그렇겠어? 다 그래. 그런데 너는 그러냐 이거야. 아, 물어 보잖아? 그게 사실이야, 아니야? 「예.」 그래? 남편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간나가 부인이야? 그걸 가만 뉘? 이놈의 자식! (웃음) 천사장이니까 가만 뉘야 되는 것입니다. 본연의 남편 찾아가는 것을 도와주지 못하면 천사장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여자를 3년 왕후와 같이 모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손을 댄 사람은 법정 처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여기는 여자를 얼마나 때렸어? 얼마나 때렸나 물어 보잖아? 몇 번이야? 대가리를 보니까 생기길 그렇게 생겼어. 주먹질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 주장할 수 있게 생겼다구. 틀린 길로 가면서도 옳다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있다구. 알겠어, 이놈의 자식! 여자, 몇 번 맞았어? 일어서라구. 일어서라구. (웃음) 후려갈기라구. 안 갈기면 내가 갈긴다구. 갈기라구. 후려갈기라구. (부인이 남편 뺨을 때림) (웃음. 박수) 한 번 더, 한 번 더! 이제는 그런 일이 없겠지.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영계에 가서 걸리는 것입니다. 남자의 성격이, 여자를 때리고 싶지 않은 남자 어디 있어요? 선생님도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불쌍한 여자라구요. 여자가 불쌍하잖아요?

키도 작고 모든 게 부족하잖아요? 남편 모가지를 안고 안겨 살고 싶은 것이 여자의 마음이지, 매맞고 살고 싶은 여자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여자들? 「예.」

그러니 선생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천년 만년 감사해야 됩니다. 여자 해방의 대왕마마가 됐다구요. 그게 쉬워요? 어휴! 잡된 여인들 해방자가 되었으면 잡된 남자 이상의 기준을 다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른 길을 전부 다 세워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환경에서 이혼하게 되었을 때 선생님이 기뻐했어요, 기가 막혔겠어요? 통일교회가 출발할 수 없으니, 하나님 명령에 따른 거예요. 잘라 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3년 이상 끌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죽어서도 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에 대한 교육이 그거예요. 어머니는 성진이 어머니하고 이혼한 것을 보지도 못했대구요. 14년 전에 벌써 헤어진 거예요, 14년 전에. 그러니 무슨 관계가 있어요? 통일교회가 그렇게 핍박받은 것이 그 여자 때문이라구요. 감옥도 그 일패들이 집어넣은 거라구요. 이 박사 시대에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라구요.

그렇게 될 때 선생님이 양심적 고통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이런 길인데, 남편이 가야 할 길은 이런 길이고, 참 어머니, 참부모가 바라는 길이 이 길이고, 참스승이 바라고 참주인이 바라는 이것이 전통인데, 그런 자리에 서고 싶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서게 될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축복가정의 모든 문제를 용서하기 위한 40일 자르던 수련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걸 느껴야 됩니다. 양심에 부끄러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축복받은 해방의 가정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를 가더라도 밥을 먹게

될 때에는, 아침을 먹게 될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자기 여편네, 아들 딸을 생각하며 가려 주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정이 어렵더라도 그건 자동적으로 순식간에 수습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수습해 놓고 자기 가정을 수습해야 하는 것이 하늘의 법이라구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제물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딸, 가정까지도 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돌아서게 될 때에 말이예요, 가정적 기준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게 선생님의 가정을 하늘이 파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조건 용서한다고 축복가정은 전부 다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영계의 악마들까지도 해방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의 사실들을 이 기간에 용서해 준 거예요. 가정적 모든 것이 비로소 돌아설 때에 사탄도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쪽에서 저쪽까지 하 나도 걸림이 없게끔 대책을 해서 결단을 내린 것이 이번 성인 살인마 축복입니다. 그건 전부 다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탕감 법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순식간에, 일주일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려 주면 말씀을 안 듣겠어요? 영계의 사실을 안다면 통일교회 안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40일 동안 듣게 된다면, 그건 뭐 병신이 아니라면, 쓰레기장에 이미 들어가 있는 폐들은 모르지만,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틀림없이 선생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40일 동안에 모든 가정적 문제를 용서하고 여러분 가정을 다시 내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알겠어요? 「예.」

얼마나 잘못했어요? 선생님을 언제 생각해 봤어요? 개인적 탕감으로부터 가정·종족·민족... 8단계 고개를 넘어 팔정식을 발표하기까지 서럽고 기가 막힌 사연들을 품고 나온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모님

을 얼마나 생각했어요? 자기들 편할 것만 생각하고 말이에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선생님이 최첨단에 섰지요? 나 앞에 나서서 ‘통일교 문선생 당신 뜻 대해서 한 게 뭐요?’ 이렇게 입을 열어 가지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사람은 입을 쩍 버리고 헛발을 빼 버려야 된다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빛을 지지 않기 위해 천신만고의 길이라도 감사하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장래의 후손들, 일족을 위하고, 부모님 가정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조상들이 갈 길, 부모가 갈 길, 처자가 갈 길, 형제가 갈 길을 닦으면서 참고 십자가의 길을 감수하고 넘어온 것입니다. 고맙다면 그런 고마운 일이 없어요. 그건 역사 이래에 있을 수 없는 복된 사실입니다. 복음적 사건입니다.

‘복귀완료’의 의미

어저께 얘기한 게 뭐예요? ‘복귀완료’라는 말을 했지요? 「예,」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천지의 모든 안팎을 받아 가지고 통일적 한 축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중심삼고... 가정이지요?

여기에 이상가정교육본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천주 메시아, 세계적 메시아인 만왕의 왕 재림주, 국가 메시아, 종족 메시아, 가정 메시아의 이름을 중심삼고 사탄과 관계없는 여기서 하나돼 가지고 사탄세계, 밤 세계를 거쳐 해방해서 영계를 축복하여 채워 가지고, 영계의 축복 자리는 천사장 자리인데 천사장이 개인적 기준에서 아담 가정을 완성 못 시켰으니, 가정적 기준에서 천국 들어가는 정문 앞에서 가지고 비로소 조상들도 해방함과 동시에 자손을 대해 책임 못 한 부모로서 전통을 세우지 못한 것을 참부모님이 대신 세운 것을 감사하면서 있는 정성을 다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여러분 후손들을,

가정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 안 당하게 하려니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조들이 여러분의 갈 길을 죽고자 하게 해서 구하는 놀음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죽고자 하는 녀석이 하나도 없다구요. 도망간다구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론적으로 현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자네들 가정을 빼낸 뒤에는 선조들을 내세워 가지고 가인, 천사장권이 개인적으로 못 된 것을 가정적으로 사탄세계의 가정을 만들어 냈는데, 사탄세계에서 이 가정을 빼 버려 가지고 하늘세계의 조상들이 천사장 입장에 서지만, 아담이 16세에 하나님께서 멈췄던 그 기반을 중심삼고 선생님이 그 기대에 수천만 년 번식했던 그 몸뚱이를 대신해 가지고 16세 그 기대 위에 선생님이 승리한 개인·가정·종족... 전부 접붙여 가지고, 선생님 동생과 같이, 접붙인 동생 씨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축복. 개인시대의 축복, 가정시대의 축복, 종족시대의 축복, 국가시대의 축복, 세계시대의 축복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걸 이론적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그냥 물러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에 모르는 것이 없고, 천하에 해결 못 할 것이 없는 그러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통일천하입니다. 지성인이든 미욕한 녀석이든 뭐든. 미욕한 녀석들은 모르니까 그렇지. 지성인들도 지금까지 몰랐지만 여기에 굴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말이에요.

참사랑이 싫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동물도 식물도 전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수술 암술이 사랑 길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광물도 그래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안 이상 그 길을 안 갈 수 없기 때문에 통일천하가 된다는 것은 이론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가 무서운 것입니다.

통일교회 문선생의 사상을 받으면 백퍼센트 돌아섭니다. 돌아섰어요,

여러분? 「예.」 완전히 돌아섰어요, 중간 께예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삼팔선을 중심삼고 양다리를 걸치고 이랬다저랬다 이래요, 아예 개인 삼팔선, 가정 삼팔선, 국가 삼팔선, 세계 삼팔선, 천주 삼팔선인데 이것을 다 건너 가지고 천주 삼팔선에 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기준에 있어요? 국가 기준에 걸려 있어요, 천주 기준을 넘었어요? 천주 기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다 닦아 놨습니다,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1945년 이후 반대받아 가지고 쫓겨나서 잃어버린 북반부를 다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선생님이 가정적 기준을 이루려고 했지만 전부 갈라졌어요. 원수입니다. 이걸 대해 가정을 중심삼고 가려 가지고 개인·가정·종족... 하나님까지 다 갔으니까 반대하던 사탄이 길을 열어 주는 거예요. 지니까. 이래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가정에 막혔던 모든 담을 부수고 하나님을 모셔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하는 세계를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는 데에는 그냥 오지 않아요. 영계에 축복가정을 채워 놔으니까 사탄 가정은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없애 버려야 됩니다. 축복 세계화를 이룬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이래 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조상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몇십 배, 몇백 배의 영계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이건 뭐 구멍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동원해 가지고 일시에 파탄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구요. 밥을 짓게 될 때 뜬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안 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정해서 해야 사탄이 돌아서더라도 미련을 갖지 않고 ‘당신은 절대적인, 원리 원칙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모시지 못하지만 다행입니다.’ 이라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천년 만년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은 지옥 중의 지옥이요.’ 이라고 말이에요. 이

지옥에 갈 사탄까지도 천국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이예요. 그러니 악마도, 살인마도 용서해 주지 않아요? 나치의 왕 된 히틀러도, 살인마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녹음이 잠시 중단됨)

인류가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 바다에 나가 낚시질을 한다

영계에 있는 모든 믿고 간 불교면 불교의 후계자들 다 있지요? 석가 모니를 중심삼고 수천 수만 명이 축복을 같이 받았다고요. 이들이 지상에 와서 반대하면 병 주고 약 주고 해 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만있어도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시대가 와요.

자기들이 잘될 줄 알았는데, 자기 이익을 취했다가는 언제 살인마들이 사고난 데 찾아가 가지고 소리도 없이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왜? 조상들이, 악마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물에 많이 빠져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한 조상들이 들어와서 모아 놓으면 자기 조상들과 후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빨리 치워 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온다고요. 두고 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라고요.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내가 손 안 대더라도 다 정리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대는 날에는, 선생님이 피를 보게 된다면 인류의 3분의 2를 잘라 버려도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소생·장성 시대의 인류를 희생시켜 나온 사탄세계의 칠십 배, 칠백 배 이상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 총재의 일생은 피를 안 보기 위한 놀음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으로 대신한다는 거예요. 바다를 사랑하고 낚시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류 가정의 피를 안 보기 위해서 그것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심판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바다를 찾아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바다는 세상이고 고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했지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 놀음이라구요. 심판 받지 않는 고기를 제물 삼는 것입니다. 고기가 심판 받았나요? 이런 말도 처음 듣는대구요. ‘야, 문총재는 저런 남 모르는 것을 다 알고… 야, 고기는 심판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총재가 처음이다.’ 할 것입니다. 왜? 고기를 대신 잡아 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서 먼저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물. 내가 처음 잡은 고기는 안 먹었습니다. 동물도 그렇고. 왜? 그것들을 해방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동식물의 멸종을 막기 위한 계획

제물 시대에 동물이 제물 됐는데, 고기가 얼마나 희생되었어요? 만약 한국 같은 나라에 킹 새면 같은 고기가 있어서 잡으라고 하게 되면 멸종시킬 거라구요. 조기도 다 멸종시켜 놓지 않았어요? 새끼도 다 잡아먹고 말이에요. 그러나 미국도 그렇고 여기 브라질도 금어기(禁漁期)를 정해 놓아 가지고 11월 12월 1월의 3개월 동안 새끼치라고 고기를 못 잡게 하는 거예요. 새끼치는 것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아기 뱀 여인을 잡아가겠어요?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니까 ‘잡는 세계에서 지금까지 희생시킨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양식해 가지고 종자 멸종을 방어하겠다.’ 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고기는 3천6백 종이 있습니다. 식물도 최고의 종류가 있고, 곤충도 3천6백만 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멸종 안 될 수 있게끔 보호하기 위해서 3천6백만 종의 곤충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은 것인데, 부모를 위해 지은 것을 하나라도 멸종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멸종시키면 여러분 후손들이 탕감해야 할 조건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복지 천국에 있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정성들여야 되겠어요, 안 들여야 되겠어요? 자르던하고 판타날하고 육지하고 전부 다 수렵지구입니다. 벨지도도 맑은 물을 중심삼은 수렵(포획)지구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중간 물 지역인 살로브라는 맑은 물 지역까지는 수렵지구입니다. 3개 수렵지구를 중심삼아 가지고 세상을 맑혀야 되고, 육지를 맑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보고는 고기를 잡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잡아서 앞으로 후손을 위해 탕감해서 길러 주겠다는 거예요. 동물도 잡아라 이거예요. 사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맞은편에 사냥터를 만들려고 해요. 깨끗하게 총을 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미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사냥터에 데리고 가고 낚시터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친다구요.

참부모 말씀만 들으면 지옥 갈 수 있는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래, 지금 오션 챌린지(ocean challenge;해양 탐험)라 해 가지고 미국에서 유명하다구요. 깡패 새끼들이 혈기왕성해 가지고 분하고 원통한 것을 해소할 도리가 없습니다. 부모가 해소를 해주나, 선생이 해소를 해주나? 그걸 누가 풀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근본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으니 그거 내 책임이다. 내 말대로 하면 살아난다.’ 해서 들어 봐야 거기에서 해방 안 되니 ‘죽을 데로 가자.’ 이래 가지고 깡패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깡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통일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깡패도 왕자님이 된다구요. 알겠어요? 일본의 야쿠자의 손자가 통일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할아버

지하고 문제 됐는데, 그 할아버지가 찾아와 가지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자를 넘겨 주소!’ 그랬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구요. 마피아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이 마피아보다 나은 게 무엇이고, 야쿠자보다 나은 게 무엇이에요?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웃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천국 못 간 자 있으면, 천국 가고 싶으면 나한테 와. 보내 줄 터인데 네가 원하는 대로 와. 마피아면 마피아로부터 전부 다. 마피아는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대로 하면 마피아에서부터 깡패, 테러단, 부랑자, 불효자식, 바람 피우는 남편, 창녀와 같은 여편네 전부 다 복귀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면 지옥 갔던 사람들도 천국 갈 수 있다! 가능한 말이요, 가능성 없는 말이요? 「가능한 말입니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믿어요? 백주에 젊은 놈들이 할 짓 없어 모여 있어요? 그거 믿어요? 믿지 말라구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습니다!」 믿지 말라우, 아 쌍놈의 자식들아! 「믿겠습니다!」 다 미쳤지. 미쳤다는 것은 도(道)에, 도달할 곳에 다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미쳤다는 것입니다.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좋아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좋아하고, 죽으면서도 좋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으니 망한다면 문 선생 이상 망해야 될 사람 없고, 흥한다면 문 선생 이상 흥할 사람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지옥 갈 수 있는 폐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자신 하지요? 「예.」 천국 가겠어요? 「예.」

더 큰 세계를 위해 투입해서 복귀해 나가야

여기 잘생겼구만. (웃음) 부처끼리 잘살면 좋은 아들딸 낳겠구만.

너, 좋은 여편네인 줄 알아? 썩- 해서 많은 여자들을 품고 동네에서 화동동이 될 수 있다 이거야. 그런 소질 있어? 「예,」 잘 모시고 살아 봐. 훌륭한 아들딸이 태어난다구. ‘우리 부부도 그렇게 평해 주면 좋겠는데, 이미 평하게 다 만들었으니 평을 만 번 하는 것보다도 몇백 번 평한 그 결과를 내가 알고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니 평이 필요 없다.’ 하고 생각하면 된다 그말이라구요. 알겠어요? 「예,」

내가 보더라도 ‘야, 이거 누가 맞춰 줬는지 참 잘 맞았다.’ 이런 생각이 나요. 그게 재미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앉아 있는 것보다 쌍쌍이 앉아 있는 부처를 들여다보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다구요.

하나님도 그럴 것 아니에요? ‘야, 내가 창조한 그대로 딱 그렇게 참 대조가리로 갖다 맞추니까 밤에 맞추나 낮에 맞추나, 사시사철 천년 후에 맞추나 딱 들어맞는다!’ 할 때 하나님이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좋습니다.」 여러분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그래, 좋게 살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입니다, 해방. 알겠어요, 선생님 말씀?

내가 하나 권고하는 것은 그거예요. 통일교회 폐단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축복받으면 다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받은 가정은 일족을 구하고, 일족은 일국을 연결시켜야 되고, 일국은 일세계, 일천주까지 연결시켜야 할 각자 새로운 조상의 자리가 남아 있다는 탕감의 노정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 제멋대로 살았어요. 알겠어요? 제멋대로 살았다구요.

이것을 하려면 억천만세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대에는 가지 못합니다. 그 일을 선생님이 대신 탕감한 기준을 중심삼고 그와 같은 기준을 넘어설 수 있기 위해서, 가정의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둘은 가정을 위해서 아들딸을 중심삼고, 가정은 종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종족 가운데는 몇천 가정도 들어갈 수 있다구요. 몇천 가정을 자기 휘하에서 지배하겠다는 도적놈이요 악마입니다. 알겠어요? 거기에 자기 가정과 아들딸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정상적이라구요. 보다 투입한 사람, 보다 희생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중심, 종족적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로 말하게 되면 뼈가 생기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선생님이 대신 갔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세계적으로 탕감했지만, 여러분은 새로운 조상이 돼 가지고... 여러분이 축복받았더라도 여러분 가정을 중심한 일족은 아직까지 하늘나라에 등록 안 되어 있습니다. 일족을 등록하고 일국을 등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세계, 일천주를 등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탕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가정의 아들딸까지도 종족을 위해 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상을 해방해야 됩니다. 조상을 해방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일족보다, 자기 직계보다도 조상을 사랑하고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영계, 천상세계의 지옥에 간 조상이 지상에 찾아올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가정들을 불러 가지고 여러분을 중심삼고, 여러분이 중심에서 가지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래, 보다 투입하는 자는 중심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종족과 가정은 나라가 필요합니다. 나라를 중심삼아 가지고 여러분 미래의 나라가 세계와 연결 안 돼 있다구요. 선생님이 조건적 기준에 있을 때 책임해서 그 조건을 세워야 된다고요. 종족과 가정과 자기 자신을 나라를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애국적인 종족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예.」

그 다음엔 선민적인 국가 형태의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계를 위해서 나라와 자기 종족과 가정과 개인을 투입하지 않으면 세계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 기준이 되었으면 천주를 대해서 세계와 나

라와 종족과 가정과 개인을 투입하지 않으면 천주까지 나갈 수 없습니다. 왜? 타락한 복귀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담이 완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다 파탄시켰으니 그렇게 복귀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참부모는 세계 복귀, 축복가정은 국가 복귀의 책임을 해야

선생님이 완성한 아담이 되었다라든가 조건적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가지가 난 이 자리에 접붙이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를 뺏게 되면 여러분이 영양소를 받아 가지고 가지 종족이 되고, 가지 민족, 가지 국가, 가지 세계, 가지 천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천주적인 큰 나무의 가지와 같은 가치, 대등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불가피한 길입니다. 이것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알겠어요? 「예.」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아담 대신 왔기 때문에 세계적 탕감노정을 가야 됩니다. 세계 일대일의 청산입니다. 선생님은 조건적 청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조건적 청산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구요. 또 조건적 청산뿐만 아니라 환영적 조건입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일족이 가정을 지도해 주기를 바라고, 환경적 나라가 충신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세계가 성인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하늘땅은 성자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교육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곳은 통일교회밖에 없으니, 세계가 전부 바라고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못 하면 죽어야지요.

이래서 해방권을 다 해놓고 지상에 정착할 수 있는 그때서부터 그 탕감시대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가정적 탕감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구요.

그 일을 위해, 선생님이 세계적 복귀를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이 선생님이 닦아 준 조건을 절대 믿고 하나된 자리에서 엑스(X)

하면 큰 엑스의 글자를 따라 그대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새끼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생을 투입해 가지고 세계의 해방권까지 나왔고, 여러분은 일족을 중심삼아 가지고 전체를 하나 만들어서 투입해 가지고 일족과 연합해서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라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동적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못 했다고요. 알겠어요? 「예.」 그 투입을 주저한 것이 통일교회가 지금까지 책임 못 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은 세계 복귀를 위해서 나왔지만 여러분은 국가 복귀의 책임을 못 했다고요. 이래 가지고 지금도 아이 엠 에프(IMF;국제통화기금) 사태니 해 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세계로 가는 데 있어서 ‘아이구, 선생님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손 벌리고 있다구요. 이거 도와줘야 되겠어요, 안 도와줘야 되겠어요? 이놈의 자식들, 자기 소유재산을 다 가지고 꼭 끼고 있으면서 도와 달라고 하고 있다구요. 그런 민족은 벌받아야 된다고요.

아이 엠 에프로 국가가 망하면 통일교회 자체도 망해야 된다 이겁니다. 망하지 않을 수 있는 해방권을 중심삼고 이것을 하늘 소유로 전부 다 전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하늘 앞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하늘 편에 존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높음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새로운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교육. 알겠어요? 「예.」

일족을 위한 세계사적 탕감조건을 세워야

여러분은 소유권 있지요? 자기 일족을 전부 다 해방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일족 재산, 일가 재산을 전부 다 투입하고, 일국 재산을 전부 다 투입할 수 있는 전통을 누가 세워야 되느냐? 여러분이 세워야 되는 거

예요. 안 세우지 않았어요? 나는 세계 기준을 세웠다고요, 세계 기준.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오색인종이 다 형제지요? 선생님이 말할 때 주먹질하고 이러더라도 불평 안 한다구요. 가정적 부모 아니에요? 싫더라도 선생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니 무엇이니 다 없어집니다. 막혀 버려요. 그러면 그 아들딸이 암흑천지의 마피아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이번에 이걸 확실히 해 가지고 여러분이 축복받은 이 자리에서 선생님이 세계적 탕감조건을 중심삼고 세계적으로 가지 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 하면, 순하고 통거리, 몸체하고 뿌레기가 다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봄이 되어서 가지는 떨어져 버리고 순하고 몸뚱이하고 뿌리 중심이 다 살아 있습니다. 알겠어요? 여기에 가정을 접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접붙여지는 가지는 말이에요, 세계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접붙이는 놀음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조건적 가지가 되려면, 6천년을 컸더라도 1년의 그 모양의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그런 조건적 기준에 갖다 맞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투입하고 종족민족국가, 이런 요소 조건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걸 접붙이면 쪽 살아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하나님이 순하고 나무통하고 뿌레기를 다 갖추었는데 가지를 다 잃었으니 이걸 전부 다 교육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봄을 맞아 가지고 거기서 가지를 중심삼아 가지고 꽃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상에 누구 맞을 것도 없어요. 만국에 있는 통일교회 씨를 그대로 뿌리면 사탄세계는 뭐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지금까지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은 일족을 위한 세계사적 탕감조건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족적 탕감조건, 국가적 탕감조건, 세계적 탕감조건. 이것을 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아들딸 앞에 교재가 없습니다. 부모가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세계적 탕감노정에서 천주사적 가치적 기준에 있어서 ‘일족에서는 우리 부모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전적으로 희생하고 전적으로 투입한 분이다. 절대 사랑을 주장하기에 가당한 사람이다.’ 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불쌍한 사람을 동정하여 살아 있는 하늘을 체험해야

여기! 희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생겼는데? 어디 보자, 보자. 희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부부라구.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말이야. (웃음) 구멍으로 뺨장어같이 빠져나가기 쉬울 수 있는 부부구만. 뭘 했나, 지금까지? 뭘 했어?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디 목회? 「전남교구입니다.» 전남교구에서 목회도 편하게 하려고 하지? 「아닙니다.» 아니야? 넌? 너희 들은 목회 같은 건 싫어할 타입인데? 어때? 색시는 목회 좋아해?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고 돈벌어 살자고 그러지 않아? 물어 보잖아? 「잘 따릅니다.» 뭘 잘 따라? 잘 따르게 안 돼 있어. 말하게 되면 네 말을 분석해 가지고 옳으면 옳다 하고, 그르면 그르다 평가하게 돼 있지, 따르게 안 돼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런가, 안 그런가? (웃음) 이 쌍것들, 그러나 안 그러나 물어 보는데 답변 안 해? 그것이 흥이 아니야. 이런 때 공개 재판받는 것과 같이 다 털어놓으면 훌훌 날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야.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목회 할래? 늙어 죽도록? 「예..」 예? 하다가 장사가 안 되면 보따리 쌀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웃음)

목회로 장사하겠다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나 미친 사람입니다. 수십억의 돈을 불렀습니다. 수십억 돈을 불렀지만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돈 한푼 없어요. 요전에 내 지갑까지 잃어버려 가지고 호주머니에 지갑도 넣고 다니지 않아요. 지갑을 넣고 다닐 때는 1천

달러를 불쌍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주기도 했는데, 아예 지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 가지고 다니니 불쌍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도와주려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만나 돈을 주면 지갑을 털어 주지, 뭐 10달러 1백 달러 세어서 주지 않습니다. ‘네 후손도 이럴 수 있는 후손, 통일교회 교인이 못 되면 통일교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하면서 지갑째 털어서 주는 거예요.

참 하늘은 살아 있습니다. 아들딸이 병이 나뉘다 하게 되면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을 중심삼고, 아기를 업고 장사하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지갑을 털어 주면서 ‘하늘이여, 불쌍한 이 여인을 동정하시고 앓고 있는 우리 아들딸을 낫게 해주소.’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하고 돌아와 보면 나아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구요. 전체 환경을 수습해 사는 것이 천륜이란 것을 생각할 때, 그런 일을 하고 뒤돌아보고 ‘아이고, 아깝다.’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내가 하루에 몇천만 달러도 씩니다. 돈이 있나요, 없나요? 돈이 많아요, 안 많아요? 3억6천만쌍 결혼기금만 모으면 수조 달러입니다. 한국의 아이 엠 에프(IMF) 경제를 몇십 배 해방하고도 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자기가 ‘이것을 안 물고 저축해야 되겠다.’ 하면 안 된다구요. 천국 들어갈 때 큰일나는 것입니다. 막혀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물 때까지, 자손들이 안 물게 되면 천년 만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안다면 물겠어요, 안 물겠어요?

이번 1만6천 달러를 물겠어요, 안 물겠어요? 「뭘입니다.」 그 돈 가지고 뭘 하겠어요? 나는 돈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습니다. 별거벗고도 살 줄 알고, 집 없어도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그거 훈련돼 있습니다. 먹고살고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3개월이면 내 먹고 살 수 있는 기

반을 닦는다구요. 여러분을 다 그렇게 훈련시켰지요? 그러니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맨 손 가지고 나라도 만들고 말이에요. (딱 치심) 왜 이렇게 놀라노? (웃음) 좋아서 놀라? 「예.」 답변은 잘 한다, 이 쌍짓!

아내를 할머니, 어머니, 누이로 생각하라

가정이 문제입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이 천하를 망치는 괴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축복받은 괴물 취급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몸 마음이 하나 안 되어 있으면 그렇다구요. 마음이 부모고 스승이요 주인인데, 부부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체예요? 남편이 주체예요. 남편을 부모 대신이요, 스승 대신이요, 주인 대신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남편은 여편네를 할머니 대신이요, 어머니 대신이요, 자기 아내요, 누이동생 누님 대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때릴 수 있어요? 여자가 없으면 선생님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입니다. 해방될 수 있는 권이 여자에게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여왕으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자기 상대로부터 맏딸, 작은딸까지 여섯 여성들이, 한 집안이 동원돼 가지고 선생님을 따라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족이 구원받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런데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 나라 여왕 도적놈, 할머니 도적놈, 어머니 도적놈, 여편네 도적놈, 맏딸 도적놈, 작은딸 도적놈, 여자 전체를 도적질해 간 강도의 괴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아들딸까지 도적질해 간다.’ 하는 거예요. 8대라구요, 8대. 아들딸 까지도, 동생까지도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여편네와 아들딸을 빼앗아 가니 나는 홀로 남았다.’ 이래 가지고 천사장이 반대한다 이거예요. 문 선생을 남자들이 싫어하지, 여자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군요.

너도 선생님을 좋아해요? 「예.」 이렇게 못생긴 여자가? (웃음) 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없을 때에는 전부 다 어머니 후보자입니다. 팔십 년 노인으로부터 10대, 열두 살까지 ‘선생님이 내 남편이다.’ 하고 영계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살아 남은 선생님이 참 위대한 남편입니다. 여자 소굴 틈에서 헤엄쳐 가지고 사고 없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집이 하나 피해를 받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피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해와가 타락하게 되면 아담이 창조하던 거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해와를... 그 어머니가 해방되면 그 아들딸도 선생님을 절대 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원리를 알고 보면 신기하게 다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청산하기 위한 것이 이번 축복식입니다. 성인하고 살인마를 같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축복하기 때문에 옥중을 개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지상에는 아무 것도 개방 안 됐지만, 영계 옥중을 개방하여 축복의 자리에 세워 대등한 특사를 허락한 거예요. 참부모가 이 땅에 나와 가지고 소원한 해원의 한날을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특사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참가한 모든 가정도 이중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이니만큼 고마움을 가질까! 아멘! 「아멘.」

천국 들어가기 위한 심정적 체휼을 가정에서 해야

나이들이 차서... 처녀 때 들어왔던 사람도 다 있는데, 나는 늙었구만. 나도 늙었지요? 36가정들 왜 전부 다 왼쪽에 모여 있어? 바른쪽으로 가지 않고. 선생님 편에서 보면 바른쪽이라고 앉았나? 여기 나이

많은 패들, 박도희 반대머리, 전두환 딱 그대로 생겼어. (웃음) 전두환 닮았지요? 「예.」 박수 좀 쳐 봐요. (박수. 웃음) 왜 웃어요?

고약한 여자, 남편 말도 안 듣지? 김영자! 「이영자입니다.」 응? 「이영자입니다.」 이놈의 여자가 이영자인지 저영자인지 모르겠구만. 앉으라구. 이놈의 간나 같으나라구. 국가 메시아로 나간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별의별 행동 다 해 가지고 한국 여자의 이미지를 전부 다 망쳐 버렸어. (뉘라고 말함) 입 벌리지 말라구! (웃음) 선생님이 허재비가 아니라구. 보지 않고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놀음을 해먹는 거야.

이정희, 남편 어디 갔나? 남편 어디 갔어? 「죽었습니다.」 반대하다가 죽었구만. 「아닙니다.」 아니긴? 처음에 반대하지 않았어? 얼마나 울고 다녔어? 여편네가 남편한테 매를 맞고 울고 쫓아다니던 거 잊어버렸어? 자기 남편한테 매맞고 와서는 나한테 사정을 해? 세상에 그럴 수가 어디 있어? (웃음) 그러니 정분이 났다고 소문나지. 여자들 꼴을 얼마나 내가... 엄청나고 기가 막히는 사실을 다 알아. 여자들이 요물이에요. 요물이 아니라 고물이라구요, 고물. (웃음) 요물, 고물.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심정적 체질을 지상에서 부자지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를 중심삼고 하나님의 4대 속성인 절대·유일·불변·영원한 그 틀거리 가정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배치되지 않는 일체화 사랑 가정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직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나라에 가 가지고 그냥 그대로 편하게 하나님을 중심삼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준비해야지요.

천국은 가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가정이 들어가기 위해 정리해야 할 것이 많으니 내가 지금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45년을 중심삼고 워싱턴 축복식을 통해 평준화해 가지고 전부 다 같은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그 열매는 같은 열매라구요. 같은 열매를 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려야 된다고요. 그것이 되게 되면 거기

서부터 새로운 종족 편성, 민족 편성, 국가 편성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성 해방시대를 참부모가 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당 야당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당할 수 없습니다. 여당 야당 당수의 부인들, 각료의 부인들이 통일교회 축복받은 거라구요. 알겠어요? 그러니 여당 야당이 없어져 가지고 통일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통일당? 절대사랑을 중심삼은 통일 가정당입니다, 가정당.

선생님이 가정당을 발표했다구요. 그게 몇 년? 4~5년 전에 가정당을 발표했어요. ‘무슨 당’ 할 때의 ‘당(黨;黨)’ 자는 말이에요, ‘형(兄)’ 자를 썼다구요. 강제 행동을 했다구요. 도둑놈들이라구요. 그러나 이걸 ‘집 당(堂)’ 자입니다, ‘집 당’ 자. 이 당은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요, 이상이 살 수 있는 집이요, 나라가 살 수 있는 집이요, 하늘땅이 살 수 있는 집입니다. 그런 가정당을 만들었다구요. 그래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당 야당의 책임자들은 들어와서 교육받아라 이겁니다. 안 들어오는 사람은 앞으로 차 버릴 것입니다. 여자들은 전부 다 선생님을 따라와야 된다고요. 운세가 그래요. 여자 해방시대라구요. 알겠어요?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천상지상세계 여자 해방시대가 왔다구요. 그 해방의 목적은 뭐냐? 참된 남편을 찾고, 참된 아버지를 찾고, 참된 형제를 찾고, 참된 가정을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여자가 바라는 소원이 그것입니다.

여자들은 시집가 가지고 사랑의 유린을 당해 가지고 눈물을 흘려 나온 역사를 엮어 나왔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다가 죽고 살고 하는 놀음이 벌어진 거예요. 가정 파탄의 요인을 남편이 만들어 가지고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죽음 길을 허덕이며 나온 여자를 선생님이 비로소 해방해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여자의 최고 사령관이 문 선생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나 통일천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이거 줄이 꾸불꾸불하니 내가 다닐 수 없구만. (웃음) 소리내지 말라구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 있느냐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 여러분은 천국 들어가야지요. 이제 이걸 다 알았으니,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아내는 남편에게 물어 보고, 같이 수련받았으니까 남편은 여자에게 물어 보라구요. ‘당신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아내입니까?’ 하고 묻게 될 때에 자기 양심으로 볼 때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된다고요. 언제나 수평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수 있는 내용을 다 알아요. 모른다는 것은 선생님 앞에서 인정이 안 된다고요. 다 알았지요? 「예.」 남편이 갈 길, 여자가 갈 길, 부모가 갈 길, 자식이 갈 길, 소년 시대에 갈 길, 유년 시대에 갈 길을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합격되지 않은 자는, 자기 양심을 중심삼고 불합격자는 그 자리를 비워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가출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도 가출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쫓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를 쫓아낸 거와 마찬가지로 미련 없이 쫓아낼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천리대도의 갈 길을 어지럽히는 그 아들딸은 자기 품에 들 수 없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라구요.

만년 독자인 아담 해와를 살아서 쫓아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아들딸이 타락할 때는 쫓아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통일교회에도 그런 녀석들을 지금까지 끼고 앉아 가지고 사는 부모들

이 있다면 그건 통일가의 오점이요, 통일가의 수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도 그렇지요? 타락하게 되면 쫓아내지요?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냈다고요. 선생님이 그걸 알고 안 쫓아낼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예.」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시이, 알겠어? 「예.」 그런 가정이 못 되어 있지? 천국에 직행할 수 있는 가정으로 완성되어 있지 못하지? 응? 「예.」 언제 돼, 언제? 「오늘부터...」 (웃음) 아무리 그러더라도 아직까지 그렇게 못 되어 있다는 거라구. 그거 사인이 안 되어 있잖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거짓말이 아니라구. 「예.」 그것이 거짓말이면 선생님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땀을 흘리면서 이려고 있겠어요?

천국 건설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입하라

일본을 상대권에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어? 「예.」 이 녀석들! 일본의 미래가 전부 다 캄캄합니다. 지금 일본의 젊은이들을 망칠 수 있는 가정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 보따리를 싸 놓으라고요. 저금통장이 있으면, 은행을 정해 줄 테니까 거기에 저금을 하라고요. 피난민 생활을 세 번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일본 땅의 어디를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세 번 이상 피난생활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한국, 미국, 그리고 여기까지 세 번이지요? 그렇지요? 세 번 이렇게 되는 데는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제일 아래이기 때문에 미국과 부모가 구해 주어야 됩니다. 에이즈 환자의 80퍼센트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 선진국의 재물을 전부 다 투입해서 구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훌륭한 병원과 학교를 선생님이 세우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일본의 모든 것을 다 투입하더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한푼도 없는 생활을 하더라도 망하지 않았다고요. 선생님을 따라오는 것이 충효의 길입니다. 알겠어요? 「예.」

일본 통일교회의 멤버들은 중국의 은행에 저금! 한푼이라도 지금부터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소련, 미국과 한국의 지정은행에 저금! 바로 한국의 은행에 저금하라고 하면 문선생이 하라고 해서 했다 하는 조건에 걸리기 때문에 사위기대를 통해서 네 번째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소련, 미국 그리고 독일도 좋으니까 그것들을 다 잘라 버리고 한국의 은행에 저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앞세우고 입국해서 3년 동안 살아야 됩니다. 그 3년 동안 천국 건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입해야 됩니다. 자기의 재산은 물론이고 자기의 일족까지 투자하게 되면 그 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되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상의 영광의 기반을 닦게 될 거라고요. 하늘은 빚지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일본의 똥 묻은 돈은 선생님한테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8년 동안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도 선생님은 섭리노정을 연장시키지 않고 할 일을 해 나왔습니다. 돈은 한푼도 없는데 몇천만 달러를 결제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선생님의 믿음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지요? 선생님은 이상하게도 아무리 일본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걱정스러운 말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전능한 창조의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어요?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부터 수직으로 비약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험을 해 나와 가지고 천하가 모실 수 있는 실적을 가진 남자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도 못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회밖

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청소년 문제를. 그렇지요? 그것은 문선생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머니가 세계적인 여왕, 임금의 아내, 황후가 된 것입니다. 해외가 천사장을 다스려야 됩니다. 40개국을 돌면서 순회강연을 하고 있다구요.

그것은 축복의 개방입니다. 기분 나쁘면 일본은 빼 버리고 12월까지 하게 될지 모릅니다. 일본을 잘라 버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물에 빠진 생쥐 같은 이상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웃음) 심각하게 듣고 있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심각한 결과라구요. 알겠어요? 「예.」

이제는 일본도 참부모를 따라오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왔다

대이동! 보따리를 싸 가지고 피난민으로서 세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국가세계천주. 선생님은 그렇게 하고 있다구요. 미련 없이... 미국에 와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모든 것을 소화했습니다. 남미에서도 정교(政敎)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늘이 먼저이지 하늘을 뒤에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배짱 좋은 남자지요? 정말이라구요.

일본도 그렇지요? 통일교회 박멸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옴 진리교와 같이 취급해서 물어 버리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뺏치고 있는 데까지 일본은 못 미치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케이 지 비(KGB; 소련국가보안위원회)뿐만 아니라 영국의 어디든지 정보세계의 배후에는 문선생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公安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일본 정부가 선생님을 반대하면 큰일납니다. 일본 대사관을 추방해 버린대구요. 일본 대사들이 과전국에 가 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정보를 얼마든지 모으고 있습니다. 신문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씩 가 있는 선교사들을 중심삼고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 120명의 일본 여자들이 선생님의 명령에 절대복종이에요, 절대 불복종이에요? 「절대복종입니다.」 정말이에요? 일본 여자들이 그래요? 「예.」 일본 여자들이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여자를 환영할 수 있는 남자들이에요? 「예.」 이렇게 몰아붙여 버리면 곤란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마약을 먹으면 내뱉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순결운동을 전개했을 때도 그랬지요? 순결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일본이 그것을 반대하면 아만족의 국가라는 비난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라고요. 지옥과 같은 국가라고 하는 만민의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알기 때문에 말이에요,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는데, 요즘에는 ‘해라. 해라!’ 하고 있다가요. 지금은 통일교회가 공원이거나 어디든지 활동하는 것을 경찰이 보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요? 뭐 정부 자체가 항복할 수 있는 단계를 70퍼센트 이상 넘었습니다. 알겠어요? 「예.」

일본 남자들, 자신을 가지라고요. 자신을 가지라구, 이 녀석들! 20년 전에 문선생이 일본을 구해 줄 메시아, 참아버지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민단을 소화해서 한국말을 배우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해서 통역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말을 일본에서 소화운동을 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민단의 재산이 무한합니다. 일본 전체의 5분의 2까지 해당합니다.

그것을 선생님한테 주면 아시아를 통일하는 데 쓸 수 있을 거라고요. 지금은 민단이 선생님과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존재의 위기에 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싫더라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선생님을 따라오기 싫더라도 어쩔 수 없이 따

라오게 되어 있다구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까지 축복가정으로서 따라오면서 반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너는 어때? 반대했어, 안 했어? 일본의 꺾데기를 벗고 싶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잖아? 그래, 안 그래? 「안 그렇습니다.」 통일교회의 가라(殼; 꺾질)로 일본을 덮어씌우려고 했어? 「예.」 그거 어떻게 자기 자신이 ‘예’ 할 수 있어?

아내는 어때? 그런 면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지? 뜻을 따라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남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지? 물어보잖아, 이 녀석? 하이(はい), 노? 하이? 대답하라구! 자유롭지 못하지? 어때? 자유롭다고 생각해? 이 녀석, 회개하라구! 양심적인 여자라고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철저히 남자에게 순종하는 여자입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반대하는 환경을 환영하게 만들었으니 축복가정의 길은 쉽다

여러분은 축복받고 선생님만 따라가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가지 입장인 여러분 가정들은 통거리가 생겨날 때까지 모든 것을 이어받기 위해서 아담 가정과 같은 새로운 조상이 돼 가지고 새로운 종족, 새로운 민족, 새로운 국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천주 해방권을 가질 수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가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발을 벗고 선생님과 같이 선두에서 가지고 자기 일족을 구하기 위해 나서야 됩니다. 거지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왕의 아들과 같이 돈벌어 가지고 일족을 위해 쓰고 그래 가지고 일족이 존경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할 텐데 그걸 안 했다고요.

이제 선생님을 세계가 반대하는 환경을 환영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 놓았으니, 지금은 쉬우니까 이것을 재차 강조하는 거라고요. 알겠어

요? 조건이라도 빨리 세우라구요. 여러분은 일대일입니다. 선생님은 탕감조건이 일대일이 아니라 일대백, 일대천입니다. 4천년 역사를 40년에 탕감했으니 몇 배예요? 1백 배라구요. 1백 배지요? 4천년이 아니라 4천만년이라구요.

그러자니 선생님은 지붕 꼭대기에 선 자리에서 나왔다고요. 그거 알려구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세계적 기반이 안 닦아졌다고요. 하나님 이 전적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 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선생님이 세계의 정치계나 경제계나 예술계나 교육계나 손 안 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올림픽대회(세계문화축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 훌륭한 선생님이예요? 「예.」 얼마나 훌륭해요?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는 데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했어요? 훌륭한 자리에서 모셨어요? 훌륭한 반대가 뭐인가요? 「비참한…」 비참은 말도 안 되지요. 쩌쩌도 안 되고, 말이 없다구요. 생각해 보라구요. 이렇게 앉아 가지고 선생님의 이런 말을 듣기에 합당한가 안 한가를. 거기에 다 패스(pass)한 사람한테 경고해 가지고 날아가라고 해야 할 텐데, 지금 도약하는 각도를 줄여 가지고 수직까지 언제 날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길을 안 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좋지요? 「예.」 여자들은 좋고 못 살 선생님인데 놓쳐 버려요. 놓쳐 버린다구요. 놓쳐 버린다구요. 날아간다구요. 특별히 여자들이 더 단단히 알고 책임을 완성해야 되겠다구요. 알겠어요? 「예.」

4대 유엔 편성 계획

내가 여자들의 왕이라구요, 여자의 왕.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비참하기 때문에 해방해 주잖아요? 여자 해방의 왕자라구요. 그 다음에는 가정의 왕입니다. 여자의 왕인 동시에 가정의 왕이고, 가정의 왕

인 동시에 종족의 왕이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왕이 안 돼 가지고는 종족의 왕, 민족의 왕, 국가의 왕이 안 됩니다.

세계가 전부 가정의 왕이 다 되었으니 일주일 이내에 조직 편성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4대국 왕권이, 대통령들이 나라를 바치는 일이 벌어지면 세계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거든 유엔 자체를 새로이 만들어 가지고….

유엔은 국가 형태가 아닙니다. 여기에 종교 유엔, 여자 유엔, 장자 유엔, 차자 유엔의 4대 유엔권을 가입시키는 날에는 국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본 나라를 소화하는 것보다 쉽고, 미국 나라를 소화하는 것보다 쉽고, 한국을 소화하는 것보다 쉽다는 것입니다. 이들 나라는 데 대한 똥 묻은 전통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은 주인이 없습니다. 여기 남미도 주인이 없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쟁이예요. 속여먹으려고 그런다구요. 거짓말하고 속여먹으면 주인이 못 된다구요. 정직하고 새로이 주인 될 수 있는 의식을 우리가 심어 주면, 세계는 우리를 중심삼고 완전히 벌컥덕 벌컥덕 뒤집어질 수 있는 환경이 엮어지는 것입니다.

판타날 개발 계획

선생님이 자리를 잡지 않은 것 같아요? 상파울루에서 버스 타고 왔지요? 「예.」 자면서 왔어요, 보면서 왔어요? 「자면서 왔습니다.」 (웃음) 그러면 별판, 저 지평선을 모르겠네? 「봤습니다.」 봤어도 구석에서 봤지 북판에서 못 보지 않았어? 우리나라를 찾아 가지고 우리나라가 북판에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양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 기지가 된 걸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 와서 살아야 된다구요. 알겠어요? 「예.」

그래, 판타날을 사랑할래요? 「예.」 선생님은 매일같이 25년간 바다

에 나가서 새벽 다섯 시부터 해질 때까지, 아프리카에서는 새벽 네 시까지 낚시를 한 거예요. 밤에도 얼마든지 낚시질을 할 수 있거든. 세상에 아침 다섯 시부터 새벽 네 시까지 24시간 낚시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구요. 하루만이 아닙니다. ‘몇 달이고 낚시를 그렇게 계속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낚시 세계에서는 대왕마파다. 또 바다를 사랑하는 데에는 나 이상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래요.

여기에는 박물관, 새 박물관을 만들 거라구요. 식물 박물관을 만들 것이고, 고기 박물관을 만들 것입니다. 다 새끼쳐 가지고 멸종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가, 불참가? 「참가!」 참가? 어디에서부터? 교수면 교수부터 시작할 거예요, 목동으로부터 시작할 거예요? 「목동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땅을 파서 개간을 해야 할 텐데 개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나무판에 가 가지고 나무를 잘라내야 된다고요. 선생님이 그 놀음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판에 가서 나무를 베어 가지고 집을 짓자는 거예요. 준비 다 해 났다고요. 제재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놓았다 이거예요. 산판도 브라질에서 제일 가는 산판을 레버린 문이 샀습니다.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아이구, 아마존 강 자연까지도 점령하겠다는 레버린 문을 어떻게 퇴치해 버릴 것이냐?’ 이런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는 데에는... 땅을 한 1백억 평 정도 사면 좋겠어요. 지금 한 1억5천만 평의 땅을 샀습니다, 1억5천만 평. 일본이 해줬으면 지금 한 7억을 넘어 10억 평까지 넘어갔을 것입니다.

50억 평을 사서 해놓으면 거기에서 30만 식구를 동원해서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교육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대학을 만들고 다

하잖아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전부 다... 저 뒤 전체는 중고등학교가 들어설 거예요. 교실을 13개 내놨어요, 13개. 교실 13개 되는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만들고, 땅을 파서 농지를 만들고, 바다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잖아요? 또 선생님의 기술 있잖아요? 세계 과학기술의 첨단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구요.

‘어떻게 한 사람이 그런 기반을 닦았느냐?’ 하는 게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우하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닦아 준 기반이 필요하지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필요하니 그걸 가지려면 조건적 기반이 서야지요. 동쪽으로 모이라면 동쪽으로 모이고, 서쪽으로 모이라면 서쪽으로 모이고, 북쪽으로 모이라면 북쪽으로 모이고, 바닷가에 모이라면 바닷가에 모여야지요. 그렇게 할 거예요? 「예.」 일차 피난민, 한국 백성도...

미국은 통일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정도가 되었다

선생님이 한국에서 몇 번 피난한 줄 알아요? 6·25동란 때 말이에요. 그것도 세 번입니다, 세 번. 선생님도 세 번 만에 서울에 갔습니다. 그게 원리적입니다.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그 다음엔 소련, 미국도 침략자입니다. 피난민을 넘어서 가야 합니다.

*일본 멤버들도 마찬가지라구요. 중국, 소련, 미국으로 피난민이 되어서 넘어와야 됩니다. 아시아에서 침략국으로 낙인 찍힌 것을 어떻게 지울 거예요? 문선생을 앞세우면 여러분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50년 전에 저지른 만행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피난민으로서 중국으로 가라구요. 반대적인 조건으로 무시당하더라도 통과해 오라구요. 소련에도 가라구요. 아무리 죽을 수 있는

경지라고 하더라도 통과해 나와야 돼요. 미국에도 가요! 어떠한 입장에서든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재산을 움켜쥐고 일본에 눌러앉아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바보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차 버리고 서로 앞다투어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는데, 그냥 눌러앉아서 저금통장을 움켜쥐고 살겠다고 하는 무리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원리입니다.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나라를 버리고 말이에요, 아프리카까지... 내 일은 자이르의 대통령을 만나라고 하고 있다구요. 사절단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앞서서 도와주어야 할 것인데 반대하고 있어요. 이번에 상파울루의 종교회의 때도 일본 대사는 ‘반대해라! 기사 같은 것을 내지 말라! 문선생이 굽직한 꼬리를 흔들면 세계가 망한다.’ 했다고요. 그렇게 공문까지 내면서 반대한다구요. 뻘! 아무리 일본이 반대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보다 미국 정부가 선생님과 가깝다구요. 알겠어요? 시 아이 에이(CIA;미국중앙정보국)와 에프 비 아이(FBI;미국연방수사국)가 일본 정부보다 가깝습니다. 중국, 소련, 남미보다 가깝습니다. <워싱턴 타임스>가 미국을 구해 주었다구요. 뼈가 부러지도록 국민을 지도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존경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구요. <워싱턴 타임스>를 지도하는 문선생이 1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지금 틀림없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말이에요,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이 한 마리도 없게 되었습니다. 한 마리도 없기 때문에 욕을 해도 좋다고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한 마리라고 하더라도 조건에 걸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선생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망합니다. 미국 자체가 알고 있다구요. 이번에 비자 문제 때문에 알렉산더 헤이그가 일본의 고위급 인사에게 영향을 미쳐서 도와주지 않을 수 없게 했다고요. 그

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부시도 도와줄지 모르지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다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되겠어요? 빼창코(べちゃんこ; 눌러 납작해진 모양)가 되는 거예요, 빼창코. 선생님이 일본에 2주일만 들어가면 내장을 전부 다 들어내서 무엇이 나쁜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조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생님을 뺑감 같은 남자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구요. 뺑감을 알아요? 뚫은 감이 뺑감이잖아요?

지금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입 속에 들어가면 하악 하면서 내뱉어 버릴 그러한 통일교회의 문선생으로 생각하지요? 그렇지요? 내뱉으면 내장까지 끌려나와 버린다고요. 단감을 뺑감처럼 취급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뭐예요? 돼지도 안 되고, 고양이도 못 되는 것입니다. 그걸 먹겠다는 사람이 한 마리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북해도는 소련, 오키나와하고 규슈는 중국, 본섬은 미국을 통해서 점령해서 2차대전 때의 변상을 요구할지도 모른다고요. 그 변상문제를 제기하게 된 데에는 선생님의 공로가 컸습니다. 장개석을 이해시켜서... 구보키 회장한테 물어 보라고요. 대만도 유엔에 가입시키지 않으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의 재산을 전부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입시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구, 문선생이...’ 하면서 안 좋게 생각했는데, 뭐 3년도 안 되어서 선생님을 찾아와서 ‘중국의 공산당과 대만의 국민당이 만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정해 주소!’ 하게 되었다구요. 그래서 선생님이 2인자들의 회의를 두 번이나 시켰습니다. 그것을 세계는 모릅니다.

최후에는 브리지포트 대학에서 그 두 사람한테 명예박사 학위를 주어서 세워 달라고 했지만, 그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브리지포트 대학의 교육은 자유입니다. 선생님의 권한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엔 본부 앞에서 일본 사람들이 4일 동안 금식하면서 데모를 했지요?

예언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세계가 공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선생님이 예언한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국가를 넘어서 세계가 공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통일교회 멤버들이 공인할 수 있는 실체들이 되지 못한다면 선생님이 얼마나 분하겠어요? 선생님의 고민, 불만, 원한 같은 것을 일본 사람들을 통해서 탕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은 무서운 남자입니다. 중국과 소련에도 지하조직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게릴라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앉아서 천하를 수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반을 닦아야 됩니다.

20일에는 브리지포트 대학의 병원 낙성식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자녀의 날 행사를 마치고 간부들을 데리고 가서 테이프를 끊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구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장치를 통한 원거리 교육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학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백 과목의 과정을 완전히 준비해서 세계적으로 학교의 폐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대혼란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만민을 평등하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선생님을 반대하는 국가라든가 개인은 이 땅 위에 남아 있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 축복가정들은 각오를 단단히 하

고 돌아가라구요.

너는 뭐야? 네 어머니 아버지야? 아들딸? 가정이야? 「사위기대…」 사위기대, 누가? 사위기대가 함께 온 사람들은 손 들어 봐요! 부자들 이에요, 아니에요? (웃음) 부자가 아니면 더 훌륭하다구요. 그래, 사위기대를 데리고 왔어? 몇 살이야? 지금 몇 살이야? 열두 살 이상의 사위기대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선생님이 특별히 사진을 찍어 주겠다고요. (박수) 여자들, 알겠어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십시오)

너는 남편 어디 갔어?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어, 아직 없어? 그걸 물어 보는 거야. 「10일에 옵니다.» 왜 10일에 오는 거야? ‘죽어도 사진만은 찍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는 거구만. (웃음) 그래, 사위기대 사진 찍어 주는 것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부부는 뭘 하나? 「농사짓고 있습니다.» 부부가 마음 맞아 농사지어? 「예.» 교회 일을 하지, 왜 농사지어? 교회 내에서 농사짓나? 「예.» 색시는 좋아하지 않겠는데? (웃음) 선생님 말이 맞아, 안 맞아? 물어 보잖아, 이 녀석야? 「맞습니다.» 교회 일을 해, 이 녀석야. 「예.»

내가 무슨 관상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자기들 짝패를 맺어 주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라고요. 죽기 전에 감사하고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집안이 풀려요, 집안이. 축복 제물이라구요, 축복 제물. 일족을 살려 주고, 일국을 살려 줄 수 있는 축복 제물로 묶어 준 거라고요.

말씀을 뼈살에 새겨 실천궁행하라

오늘 가정이 뭐라는 것을 알았다구요. 여러분 자신들이 가지로서 세계까지 연결할 수 있는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전체를 동원할 수 있는 순과 줄기와 뿌리가 전부 되어 있는데, 여기 여러분

가정이 하려면 축복받은 가정과 일족은 일국과 일세계, 천주와 연결할 수 있는 조건적 투입이 있어야 된다 그말이라구요. 지금까지 그걸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가르쳐 주었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아멘.」

지금까지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원칙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양심이 ‘하지 마라.’ ‘해라.’ 하고 다 가르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중심삼고 부활시켜 가지고 실천궁행할 수 있기를, 명령하는 대로 따라서 지금까지 양심을 유린한 역사적인 한을 풀어 주고, 양심 해방과 자기 일신, 일가족, 일세계에 대도(大道),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충고의 말을 하니까 뼈살에 기억해 가지고 실천하기를 바란다구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겠다는 사람 손 들어 봐요.

부끄러운 양심을 갖지 말고, 해방적인 양심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딸이 틀림없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심했어요? 「예.」 그럼 오늘은 이만 하고….

*이시이, 알겠어? 「예.」 이시이야, 우니(うに;섬계)야? 판타날에는 관심이 없잖아? 낚시 같은 것도 관심이 없지?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웃음) 죽기보다 무서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했지… (이후 몇몇 가정과 대화식으로 말씀하심)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지금 혼독회를 해야 하는데... 「효율이, 《그는 누구인가》 책 가지고 와. (어머님)」 「예.」 (녹음 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영계를 확실히 알아야 어려운 고비 길을 헤쳐 갈 수 있어

마음은 본래부터 갈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못해도 이것만은 환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순서를 1권서부터 12권까지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그것을 세 번 이상씩 읽어야 돼요. 읽고 또 읽고, 세 번까지 읽어야 된다고요.

영계를 모르면 안 된다고요. 눈앞에 일어나는 무엇보다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요. 밥 먹는 것보다도 확실해야 여러분이 갈 길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직행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영계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운 고비 길을 다 헤쳐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요. 걱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찾아오는 영계의 그 길을 어떻게 맞느냐 하는 것이 제일 과제입니다.

1998년 11월 21일(土) 오전, 이스트 가든(미국).

*이 말씀은 세계 지도자 회의에서 하신 말씀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뭐 먹고살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계는 틀림없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의 입국, 입성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의 몸 마음이 하나되어야 되고, 부부가 하나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중심삼고 하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르딘을 중심삼고 하고 있는 가정교육이 전부 다 이런 같은 공식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다구요. 알겠어요?

자녀들에게도 영계에 대한 내용을 암기시켜야

앞으로 영계에 대해서, 아이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이 말씀선집(주제별정선)을 암기시켜야 되겠다구요. 설명을 잘 해주고 말이에요. 이제 자녀에 대한 교육은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자녀들은 80퍼센트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브리지포트 대학에서도 얘기했지만, 타락하기 전의 양심은 하나님 자체 모든 내외의 가치가 심어져 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부모보다도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양심은 스승보다 앞서 있고, 양심은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의 대상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귀한 거라고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본심이 그릇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든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딴 것 보고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양심에 물어 봐라 이거예요. 기도할 때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본심을 가졌기 때문에, 본연의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 귀한 것과 하나돼야 된다고요. 이 본심과 하나될 때는 자기 일신의 모든 것을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심전 계발이라든가 본심의 마음 문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맞춰야 되고, 심전 계발, 이것이 본성 계발이라구요. 그래, 생활에서 그걸 중삼삼고 나가려면 영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지요? 「통역을 해주어야지요. (어머님)」 무슨 통역? 「영어 일어요.」 그거 모여 가지고 해. 「영어 일어 해줘요. (어머님)」 그거 개략적인 것만 해줘도 돼. 「일본 말 통역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

집회할 때는 언제나 이어폰 가지고 와서 통역하는 것을 전부 다 듣게끔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통역하지 말고, 앞으로 한국말 중삼삼고 집회할 때는 반드시 각 나라의 말로 통역해서 들을 수 있는 이어폰을 준비해서 나와야 되겠다고요.

한국에 예언서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유지해 나올 수 있었다

『참메시아미륵불정도령·진인, 율곡비기 삼역대경에 나오는 한국 비결서의 《정감록》 《격암유록》 《초창록》 《홍수지》 《마상록》 (《그는 누구인가》 책 표지 훈독)』

한국을 알아야 돼요, 한국을. 한국이 이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태어났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전부 준비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이런 예언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랜 역사 과정에 있어서 나라를 유지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백십자란 무엇인가? 궁궁(弓弓)이란 글자 두 자를 놓고 뒤에 한 자를 돌려놓으면 백십자란 이런 글자의 모양이 되는데, 그 글자 중앙에 생기는 것이 백십자 모양이다. 그것을 파자로 풀이해서 해석을 해본 것이다.』

기독교는 적십자, 통일교는 백십자예요. 실패한 것은 적십자, 승리는 백십자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중에 통일교는 백십자라고 말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하늘에서 내릴 심판은 불(火)이다. 불(火)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은 물(水)밖에 없다. 이번엔 물로 살아남아야 하는데, 이것은 오행상극(五行相剋) 원리고 수극화(水克火)다. 그런데 이때의 물은 유교 불교 기독교 등 모든 종교를 통합한 곤륜산(崑崙山) 백석정수(白石井水), 즉 백십자를 뜻하므로 그 백십자 진리의 물을 먹은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교회가 지금 바다를 중심한 해양사업과 같은 거예요, 판타날. 물이 근본이에요. 자, 계속하라구.

『……지구의 동양과 서양이 하나로 관통될 때, 천하통일은 될 것이다. 이때가 되면 진인(眞人)을 볼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성인(聖人)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남미와 북미의 남북이 축을 이루는 거예요. 자르딘의 역사라구요, 자르딘의 역사. 그거 한번 더 읽어 주라구, 처음부터.

『마상록(馬上錄)은 반계(澣溪) 유형원의 저술이 확실하다. 독자들을 위해 일부를 기재한다. 지구의 동양과 서양이 하나로 관통될 때, 천하통일은 될 것이다. 이때가 되면 진인을 볼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성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예언서로 본 구세주의 객관적 조건』

한국의 예언서에서 말세(末世)에 오시는 구세주(救世主)는 다음과 같은 해당요건(該當要件)에 부합(符合)되는 인물이어야 한다.

① 성인(聖人)은 삼팔선(三八線) 이북에서 출생한 사람이다. ② 세계의 명산인 금강산 정운기(精運氣)를 받아 반도 북쪽(北朝鮮)에서 출생하여 1945년 8·15 광복 전 동쪽……』

그 내용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김일성이를 내가 만날 때 김일성 자신이 금강산 개발을 나에게서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북한은 이게 김일성을 중심삼은 유훈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길을 헤쳐 버리면 모든 것에 재앙의 불길이 난다는 거예요. 한국이 망할 수 있는 운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황선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전라도 패라고 해서 도우면 안 돼. 「예.」

아버지가 원수고 형제가 원수예요. 세계일보를 중심삼고 통일교회 교인들이 잘못 해석한 사람이 많습니다. 방망이가 나타나야 돼요, 방망이. 그게 언론기관이라고요. 끝까지 우리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 김일성에 대해서 내가... 전부 다 북한을 반대한다고 해서 통일교회는 절대 북한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원수같이 취급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 버렸지만 사랑으로써 품기 위한, 뒤집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야 돼요.

어머니 나라인 일본은 희생하면서 자녀인 세계 인류를 길러야

『.....여기서 태양의 나라는 어디일까?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이다.

일본이 세계 인류를 사랑으로 감싸안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책임을 다 했을 때, 구세주의 천법은 유지될 것이며, 자녀인 세계 인류가 속해 있는 각국으로 파급되어 나갈 것이다.』

*일본 사람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세계의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먹이고 키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여자들은 어머니의 사명을 완수시키기 위해 각국에 130명씩 파견할 것입니다. 일본의 재산과 몸, 즉 어머니의 몸을 전부 분배해서 자녀들의 뼈와 살과 피를 만들고, 또 그 자녀들을 완성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방면에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교육과 생활의 양

면을 생각하면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희생하면서 자녀를 성장시켜 가지고, 그 나라의 미래의 중심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중심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미 일본 본부에, 국민학교 중학교의 교육 테스트 북을 번역하도록 말했던 것입니다.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일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성하지 않고 불평을 말하는 사람은 자멸할 것입니다, 자멸.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한일 일체화 운동을 해야

가미야마(神山;일본의 전 회장)! 「예.」 일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구? 「세계를 구하는 어머니의 나라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누구의 나라에 속해 있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래요. 아버지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되어서 입적하지 않으면 하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일체, 일체화가 되어야 돼요. 알겠어요? 「예.」 일체화, 빨리 일체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은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통일교회의 입적 문제가 거론될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응원하고 강요해서라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한일 일체화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일본의 재산은 한국을 위해서 많이 써야 됩니다. 한국에 가지고 가서 쓰는 것이 좋아요. 일본에서 일본을 위해 쓰는 것보다도 한국에 갖고 가서 쓰라고요. 전력을 다해서 한국을 위하고 한국 사람을 도와서 아버지의 사명을 하게끔 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체화입니다. 알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한국 남자의 부인들, 한국 목회자의 부인들은 특히 전면적으로, 180도 달라져야 됩니다. 일본의 전체 조직체 형으로부터 전부 달라져야 돼요. 일본 여자로서 태어난 그 풍습이 남아졌을 때는 큰일입니다. 출가했으면, 시집을 갔으면 남편의 전통을 전부 상속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알겠어요? 「예.」

왜 선생님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프로그램을 짜서, 어머니 나라를 세우고, 미국을 장자권 나라로 세우고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통일권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합국가, 도서국가가 하나되어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중심국으로서...

그 장녀, 장녀는 가인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족과 아버지와 원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로서는 누구를 경계해야 되느냐 하면 장남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미국을 따르면 안 됩니다. 전면적으로 희생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신의 모든 것을 투입해야 된다고요. 아버지를 위해서 사선을 넘어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하늘로 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미국에 가서 협력하려고 하면, 미국 사람은 고개를 저으면서 싫다고 해야 합니다. 장남인 미국의 전통은 가정적인 모든 것의 해체입니다. 모든 것이 붕괴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일체가 된 가정의 전통을 세워서 그것을 장남에게 전수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담 국가, 해와 국가가 아닙니다. 이름이 달라요. 아버지 나라, 어머니 나라라는 거예요. 어머니 나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3년간 있는 정성을 다 들여서 투입하지 않으면 일본은 날아가 버립니다.

영국, 영국이 그렇게 돼 있지요? 영국,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전부 섬나라입니다. 영국의 여동생이 캐나다입니다. 대만과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은 대륙의 섬나라입니다. 어머니 상징이에요. 그리고 필리핀은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식민지였습니다. 2차대전 후에는 또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섬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영국의 여동생입니다. 섬나라의 세 자매입니다. 세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의 사명이 얼마나 커요? 그렇게 해서 세 나라가 일체화를 이루어 일본을 방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일본 민족은 분산되어 버립니다. 알겠어요? 그러니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패전한 후 금전적인 변상을 안 했잖아요? 그걸 하지 않으면 일본은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일본 민족이 어머니의 사명을 다 하지 않으면 동서남북 4개국으로 갈라져서, 달을 쳐다봐도 별을 쳐다봐도 전부 눈물 바다가 될 것입니다. 울면서 멸망해 간다는 거예요.

사탄 혈통 단절은 일본이 해야

그리고 일본은 잡신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계속 사탄으로서... 36년간 한국의 귀한 내용들을 전부 더럽히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도 말살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45년 8월 17일에는 20만 명의 기독교 신자들을 학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자와 유대교 신자를 전면적으로 말살하고자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렇지요? 사탄의 권한을 최대한 휘두르고, 사탄의 힘을 가지고 활동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망했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가 세계 통일의 상징입니다. 영국은 섬나라인데, 그 앵글로색슨의 후손이 미국입니다. 그런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이 계속 투쟁해 나왔던 거예요. 그것은 꼭 어머니와 가인 아벨과 같습니다. 거기에 잃어버린 가정을 찾아 세계적 승리권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다. 그런 가정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담입니다. 미완성의 상태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수 없으니 양육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시는 분이 구약시대의 메시아요, 신약시대의 재림주입니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천주의 아버지가 지상에 착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세계적인 가정 완성권 위에서 일체화되어야 합니다. 일체화되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야 합니다. 거짓 부모가 되어서 거짓 사랑, 거짓 혈통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전복시켜야 됩니다. 참아버지와 참어머니를 중심삼고 일체화되어서, 결혼 전복운동을 세계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지금까지의 하나님은 참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형제가 참하나님을 보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시고 자랑하는 것은 3억6천만쌍 축복 완료에 의해서… 그에 따라서 사탄 혈통의 단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탄 혈통의 단절, 그것은 일본 여자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혈통을 누가 연결시켰어요? 여자지요? 그러니 일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인류의 장래에 길이 없습니다. 시집가는 여자가 자기 친정에 남길 것이 뭐가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자르딘에서 하고 있는 수련회는 최대의 분별 수련회입니다. 가정 분별 수련회라구요. 역사에 없는 축복가정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본래는 일본에서 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아담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축복가정 전체를 중심삼고 제물을 드리는 세계의 어머니 모습이 되게끔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참부모와 일체화되어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재림주가 함께, 그리고 국가 메시아와 종족 메시아, 가정 메시아가 함께 하나될 수 있는 거라구요.

일본은 전부, 뼈와 살과 피를 전부 뿌려서라도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일본의 장래는 없습니다.

일본이 침략 국가의 이름을 지우려면 참부모를 따라야

아시아에 있어서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것은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이라구요. 중국과의 일청전쟁, 그리고 대동아전쟁, 전부 한국을 중심삼고 실패한 것입니다. 일본은 타락한 해외의 입장에서 한국을 점령했습니다. 장래 천적인 승리를 이루어야 할 남편의 기지, 지켜야 할 그 기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박탈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은 세계평화 옹호의 길을 재차 차단시켜 버린 것과 같습니다. 아시아의 일국 섬나라로서 세계를 탐했던 것입니다.

한반도를 중심삼고, 한국을 기지로 중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을 손에 넣겠다는 것이 대동아전쟁입니다. 한국을 점령하면, 중국과 러시아, 미국까지도 나갈 수 있고, 일본 내의 반발세력까지도 통일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싸운 거예요. 그것이 대동아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일미전쟁, 그거 누가 일으킨 거예요? 일본입니다. 섬나라예요, 섬나라. 일본은 하와이 섬을 점령하면 미국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아시아의 역사에 있어서, 50년 이내의 역사권 내에 있어서 침략 국가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중국을 침략하고, 러시아를 침략하고, 한국을 침략하고, 미국까지도... 동서남북 전부에 침략 국가라는 라벨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지울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름, 그 모습으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침략 국가라는 이름을 지우려면 선생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예요. 그런 한국을 미국이 지켜 준 것입니다. 천사장의 입장에서 40년간 한국을 지켜 준 거예요. 아시아의 모든 나라를 버리고도 한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나라인 미국은 장남으로서 전체의 승리권을 이루어 아담의 입장에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하나님께서 보호한 것입니다.

보호해서 뭘 할 것이냐? 미국은 효도를 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을 바쳐 효도해야 돼요. 사탄세계의 모든 것, 지식, 과학의 힘,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된 그 힘을 가지고 오시는 재림주, 아버지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남으로서, 하나님의 장남으로서, 하나님의 권한을 박탈해 온 장남으로서, 절대 효자, 절대 충신, 절대 성인, 절대 성자의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미국이 전부... 그러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시대, 그런 대전환기의 정점에 있는 자신들의 입장을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 나라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리고 동서남북 전체를 정비하는 입장에 있는 한국을 가진 것이 통일교회입니다. 그러니 일본을 넘을 수 있는, 아시아를 넘을 수 있는 폭발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데모하라구요, 데모. 참가정과 순결을 표어로 데모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마피아도, 테러단도 반대 안 해요. 가정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므로 그것을 들고 나서는 것이 제일입니다. 나라에 있어서 제일 곤란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패들도 전부 환영한다는 거예요. 반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세계적인 것이 됩니다. 알겠어요? 「예」

배짱 없는 일본의 통일교회 멤버들, 일본의 전국 방방곡곡을 끌고 다니면서 데모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살아남을 길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전권을 하나님 편으로 끌어오는 길 외에는 살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결정적인 내용을 일본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날짜까지 딱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선생님이 그런 예언서

를 전부 연구해 가지고 알고 있었다면 선생님은 사기꾼입니다.

여자 나라니까 남자(아버지)를 위해 완전히 바쳐라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그 책을 통역해 받아 가지고 처음 읽었어요. 그리고는 ‘와—’ 하고 놀랐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것을 중심삼고 움직였더라면... 선생님에 대한 걸 전부 예상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결과가 된다는 것을 몇천년 전에 전부 예언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한국 민족 가운데 그런 예언자가 있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7천년 역사를 거쳐오면서 전부 예언해 놓고 일본 사람들이 오는 걸 기다렸던 것입니다. 미국 사람과 공산당이 오는 걸 기다렸다는 거예요. 김일성에 대한 것도 그대로 예언해 놓았어요. 러시아의 450년 역사라든가 영국 미국 등...

알겠어요? 「예.」 이제 돌아가면 지금까지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자 일신 전부는 여자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구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숨기거나 하면 안 됩니다. 전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몸도, 혈육도, 골육도, 마음도, 사랑까지도 전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을 위해 완전히 바침으로써 완전한 사랑의 전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체화되면, 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차별하고 하면 전부 결렬입니다, 결렬. 분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경제, 가네(金;돈), 가네 하는데 ‘가네’라는 것은 한국말로 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가 버린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면 가 버린다는 거라구요. 알았어, 가미야마? 「예.」 절대적입니다. 절대유일영원불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미야마가 일본을 중심삼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일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16세 때부터 일본 학교를 다녔습니다. 일본 사람에게는 지
지 않겠다고...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때 벌써 열두 권 정도의 책을
기억해 버렸습니다. 전부 감동했어요. 하룻밤에 108페이지 정도 기억
해 버리는 거예요. 전부 보이니까... 심신을 통일시키면 못 할 일이 아
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 후로는 통역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통역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이니 심각한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해 두지만, 선생님에게 빛을 저 놓고
자기가 편히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
걸 철저히 교육하고 있는 것이 자르던 교육입니다. (*부터 일어로
말씀하심)

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바람잡이 여자를 며느리로 얻고... (녹음상
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김효율! 「예.」 통역해 주라구! 「죄
송합니다. 안 들려서...」 안 들려? 왜 안 들리는데 앉아 있어? 에텐에
서는 마이크가 없었다구요. (웃음)

여러분은 하늘땅을 감동시킬 수 있는 효자충신성인성자가 될
수 있는 만이들입니다, 만아들. 그런데 전부 똥개 새끼들이 됐다고요.
기독교를 이제 재교육해야 돼요. 일본이 전부 말세라고요. 미국이 갈
데가 없어요.

자, 결론을 지으라구. 내가 중간에 폐풍을 놓았다고요. 일본 패들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가려니 할 수 없다고요. 일본 사람들에 대해 이렇
게 말했다구요. 선생님의 말이 아니예요. 읽으라구.

가정 이상 왕권의 전통으로 세계 인류를 해방해야

『일본이 세계 인류를 사랑으로 감싸안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책임을
다 했을 때, 구세주(救世主)의 천법(天法)은 유지될 것이며, 자녀인 세

계 인류가 속해 있는 각국으로 파급되어 나갈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천법을 가지고 세계의 지도국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선교, 선교 나가야 한다구요. 어머니 책임을 해야 한다구요. 그 나라의 어려움, 아기가 오줌을 싸고 똥을 싸는 것을 기저귀를 채워 치우면서 길러 내는 어머니의 책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계속하라구.

『천법=세계 평화법. 일본은 구세주와 동맹자가 되어 세계 평화법의 모국으로서 인류 평화의 지도 국가가 될 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잘못된 점에 대하여 면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평화법은 일본의 평화헌법을 뜻한다.

그리고 노스트라 다무스의 예언에서 ‘동맹의 하나가 위대한 헤르메스에서 생긴다.’고 했다. 이것은 지상으로 오신 하느님의 장남이 헤르메스에서 동맹자를 얻지 못하면 그의 구원 역할을 결실 맺기는 힘들다는 뜻이다.』

*구원받는 거예요, 용서. 타락한 해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근본은 신(神)입니다. 잡신이에요. 유일신을 멀리하고 잡신을 믿는 잡교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 문부성에 등록된 잡교의 수가 18만 개나 됩니다. 18수, 그것은 사탄의 완성 수입입니다. 18만의 종교가 등록되었다는 거예요.

팔굉(八紘: 전세계, 천하, 팔극의 예스러운 말)은 천하통일입니다. 완성권의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의 순결한 혈통을 1할 정도... 팔굉은 천주통일을 말합니다. 팔굉은 인간의 구형의 모든 것을 말해요. 팔이 두 개, 지상천국, 하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똑같습니다.

뭐라고 해도 일본의 전통정신은 여자의 정신입니다. 남성 절대주의, 무사도(武士道)가 그렇잖아요? 잘라 버린다고요. 일본도(日本刀: 일본 칼)로 잘라 버린다는 거예요. 히노모토(日本;일본의 미칭), 아시아에 있어서 그런 여자 신의 나라가 잘도 섰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섬나라 영국을 상징해요. 영국은 기독교적 유일신이

아니라 왕계 전통이 있습니다. 국왕의 왕계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유일신입니다. 남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그래서 영국이 지금까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어요. 일본의 궁중이 끝장이에요. 일본의 왕세자들은 형제들 전부 왕족이 아니면 결혼을 안 합니다. 끝장이에요. 영국은 또 그 반대입니다. 전부 왕족이 아닌 사람들과 결혼합니다. 색기 있는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가정문제, 남녀문제로 전부 엉망진창이 돼 버렸습니다. 끝장입니다. 왕족의 전통을 그렇게 중시했는데...

그러니 세계 통일권의 가정이상 왕권의 전통으로 해방시켜야 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늘의 전통을 전수시켜 가지고, 내려왔던 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선생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주장이 아니에요. 전래의 전통적인 복귀노정입니다. 창조이상에 위반되는 것을 바로잡아 가지고 구하기 위한 길을 선생님이 밝혀 나온 거예요. 해외 국가도 지금은 다 평등해졌습니다. 그러니 장자권 복귀를...

일본이 사명 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도서국가연합을 만들었다

교육하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지금부터 계속... 영국이 아담을... 영국과 일본을 비교했을 때 선생님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탐감복귀해야 됩니다. 2차대전 후 부모권을 중심삼고 세계 축복권을 확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혈통 전환운동을 하여 지상천국을 발족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대전환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미국이 반대하면 그것이 자녀에게 갑니다. 그렇게 되면, 운세가 영국에 재차... 선생님은 거기에 대비하여 준비했습니다. 몇 년 전인가?

3년 전이구만. 도서국가연합을 만들었어요. 3년 전에 일본의 대표를 세워서 도서국가 조직을 만들도록 임명했다구요. 일본이 사명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황야의 끝에서 돌밭을 개척하고 있는데 돌아보지도 않았습시다. 그러니 잘라 버려야 돼요. 잘라 버릴 경우에는 여자들은 전부 영망진창이 됩니다. 여자 3형제, 대만과 필리핀과 캐나다를...

대만은 대륙과 연결된 천사장 국가의 섬나라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하나님 편 천사장 국가의 섬나라입니다. 그것이 형제 원수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나라의 섬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대륙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 캐나다를 멸망시킬 수 없는 거예요.

캐나다는 남자를 가까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늘 딸려 있게 되어 있어요. 북귀섭리관으로 볼 때, 아담이 미국이라면 해와는 캐나다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일본이 사명을 다 하지 못했을 때는, 이 섬나라, 영국의 여동생인 캐나다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세계적인 비행기 회사와 최고의 스페이스 엔진 등 세계 최고의 것을 캐나다에 준비한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차렌자라는 회사가 넘버원입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있지만, 통일중공업과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로 묶기 위해서...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는 안 돼

통일교회가 아시아의 중국과 소비에트와 북한을 전부 통일산업에 의해서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심으로 한 독일의 공장 그 외의 것들도 전부 돈이 없어서 영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격적으로 일본 이상의 공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독일의 기술을 가진 기계공장과 15년 전부터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조인트 벤처를 해 가

지고 세계에 같이 나가자고 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독일의 기계기술, 그것을 중심삼고 일본을 포용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시아와 전 세계의 기술권의 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세계에 있어서 독일을 중심삼은 무역센터 기술센터 등을 중심삼고 다투어 그걸 개발하는 시대로 넘어갈 것입니다. 최고의 기술은 전부 모형적, 조직적인 거예요. 그것의 십분의 일, 백분의 일의 조건을 가지고, 세계의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생사를 다투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하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것을 조사하는 배후의 층도 방대한 것입니다. 군대식으로 넘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부 기술센터에서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 모형이라든가 설계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기술세계의 투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무서운 세계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일본이.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면, 남미에 가서 즉시 정치계, 기술계, 사상계 전부를 완전히 제압할 거예요. 그것은 기계기술에 따라서 하는데, 실패했을 때는... 실패했다는 말을 남길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아이 엠 에프(IMF)의 긴급시기에 어떻게 해서든 조건이라도 남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이루어 나온 기반이 전부 잘려 버린 다구요. 누구에 의해서 잘리는 거예요? 일본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갈 길이 어떻게 되느냐구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일 개인의 일신을 망쳐서라도 이것은 남겨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다 하지 못했다는 역사적인 부끄러움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런 중간에서, 선생님은 몇십 배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8년 전부터 부도네, 도산(倒産)이네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지요? 일본이 사명을 다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일본은 도산입니까?

반대 방향에서 나라가 변영할지 모르지만, 그 반면 통일교회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시다. 안 죽었어요. 죽음 이상의 경지에 서더라도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이 저금통장이라든가 하는 가정의 권한을 갖고 있지요? 그렇지요? 가인의 입장이니까... 남편은 천사장입니다. 가정을 중심삼고 출애급 해야 되는 거예요. 고향은 지구성입니다. 그러니 출애급을 향해 대이동해야 돼요.

대이동을 할 때는 자기 집의 모든 것, 금은 보석을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랫동안 고생해서 모은 가정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간다구요. 밤중에 도둑질을 해서 탈출(夜半逃走;야반도주)한다고 하잖아요? 여자가 역사상에서 희생한 그 공로를 전부 탕감하기 위해, 사탄의 금은 보석을 전부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른다구요. 태평양을 넘을 수 없습니다. 원숙 국가 중국으로 갈 수도 없고, 소비에트에도 못 갑니다. 한국, 아버지의 품에 돌아야 된다구요. 선생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맨 몸으로 선생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중국도 미국도 전부 선생님의 것입니다. 세계가 기대하는 그런 현상을 볼 줄 모르는 정치가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끝장이에요, 알겠어요? 한국의 전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탕감복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도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엉망진창입니다.

단지 홀로 남은 문선생이 세계에 그 이상의 내용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되었을 때는 금방 세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때 일본이 거기에 동조하고, 동위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동위권에 설 수 있는 조건을 연결시키기 위해, 아이 엠 에프 해방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입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선생님은 돈 필요 없어요. 일본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부끄러운 자신을 모르는 그런 여자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네 개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일본을 살려 주기 위한 하늘의 섭리

알고 보니 예언서대로 하고 있더라구요. 세 명의 딸들을 통해서, 어머니의 그런 부끄러운 오점을 커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머니의 사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차대전 후 비참한 입장에 있었지요? 일본열도가 분화산에 의해서...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풀을 보면서, 물을 보면서, 곤충과 동물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일본, 모국을 그리워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비참한 민족이 될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북해도는 소비에트에 점령당할 수 있고, 규슈와 오키나와는 중국에 점령당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점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만에 점령당했을 경우에는 금세... 그리고 중앙은 미국에 점령당할 수 있다가요. 전부 분할된다는 거예요. 시고쿠(四國)라는 곳이 있지요? 그거 4개국으로 분열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고쿠라는 이름도 이상한 이름입니다. 일본에는 시고쿠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져 있어요. 전부 갈라져 있다가요. 갈라진 섬이라 시고쿠라는 거예요. 시고쿠의 '시(四)'는 4지요? 「예.」

또 북해도(北海道)는 왜 도(道)예요? 북으로 따라가든지 시고쿠로 따라가든지 하지 않고 말이에요. 또 규슈(九州)의 구(九)는 사탄 수입니다. 아홉 개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키나와는 뭐예요? 오키나와(沖繩)는 묶는 실과 같습니다. 그러니 오키나와를 점령하면 일본을 점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열도는 그렇게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까지... 아담이 어디로 가

야 되겠어요? 남편이 머리는 머리대로 몸은 몸대로 사지가, 전부... 손발이 전부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그렇지요?

또 오우(奥羽: 동북의 지명)는 뭐예요? 그것은 혼슈(本州: 일본의 몸 부분, 섬이 아닌 한 중앙 부분을 통틀어 말함)의 어디예요? 「동북 지방입니다.」 해방받는 데 있어서 제일 깊은 곳입니다. 혼슈를 하나님께 헌납해야 돼요. 일본 민족은 아무 것도 모르면서 그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일본이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히노모토라고 하지요? 그 히노모토란 악마의 히노모토입니다. 사방팔방이 다 죽을 지경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탄권의 일국으로서, 타락의 여자로서 영원히 남아질 것입니다. 해와 국가로서 유대교, 기독교를 전부 학살하고, 남김없이 박멸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 일본을 사랑하겠다고 선생님은 후... 선생님은 메시아로서 일본에 있어서,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원수 중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일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사탄 자신이 참소하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일본을 중심삼고, 일본이 망할 것 같으니, 일본을 부인의 입장에 세워서 그 사명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명을 다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불평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대이동입니다. 보따리 싸 가지고 중국으로 가요. 툰드라, 툰드라 평원으로 가고 소련으로 가요. 미국의 사막지대로 가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가지 않으면 세계를 대해 저지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알몸으로 쫓겨나 가지고 아무 것도 없이 통곡하면서 죽을 수 있는 입

장에 서야 됩니다. 알겠어요? 넥타이를 보거나 일본의 기모노(着物: 일본의 민족의상)를 볼 때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해와 국가로서….

주변 강대국들을 자연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

선생님은 공식석상이 아니면 넥타이도 안 맵니다. 집에 들어가면 양말도 안 신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어디 가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세계 여기 저기에서 식량이 없어서 죽어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포용해야 돼요. 자기가 그런 입장에 대신 서서 동정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아프리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에이즈라는 병은 선진국의 죄의 병입니다. 전멸이에요. 비율이 35퍼센트에서 40퍼센트를 넘습니다. 어떤 나라는 80퍼센트가 에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본의 여자를 죽이는 일이 있더라도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겠다는 사람 없어요? 가미야마! 너, 어디 간다고? 남미에 간다고 했나? 「예.」 왜? 너를 세워서 남미를 개척하고, 아프리카를 개척하려고 하는 거야. 왔으니 출발해 가지고, 남미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유럽까지….

미국과 유럽 대륙도 참부모의 손도 발도 넣지 않겠다고 통일운동을 거부했습니다. 지금의 일본과 똑같았어요. 전부 원수예요. 극단의 해와와 똑같습니다. 일본과 똑같은 고초를 겪는다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은 어머니 나라와 천사장 나라입니다. 천사장의 입장에서, 사탄적인 천사장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일본과 꼭 같아요. 그러니 모범적으로 잘 나가야 됩니다.

종교 통일을 중심삼고는 통일교회가 선두에 서 있습니다. 불교니 유교니 마호메트의 회회교니 기독교니 전부 선생님이 볼 때는 실패예요.

미국에서는 전권을 가지고... 아시아 대륙의 카푸투타, 이것도 하나의 종파입니다. 박해받고 있어요. 오히려 선생님이 더... 통일교회는 약소 국가에서는 전부 받아들이잖아요? 선전하고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를 해방시키고 통일시켜서, 워싱턴 회의를 하고 종교인 회의를 했던 거예요. 동경에서도 했지요?

일본은 지금부터 종교를 반대한 그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일본이 힘들어져요. 미국도 하나님께서 그 배후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경제 기반도 잘려 버립니다.

대만 해양, 태평양 해양을 방비했을 때 일본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핵이고 뭐고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90퍼센트 이상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식간에 당해 버리게 돼 있다구요. 소비에트도 원수이니 한꺼번에 올 것이고, 중국도 그 주변의 나라들이 한꺼번에 협동해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은 공격하지 않고 자연굴복시켜 가지고, 사탄을 쫓아낼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에 불을 켤 수 있는 힘이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소비에트를 움직이고 있고, 중국을 움직이고 있고, 미국을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여러분이 행동했을 때, 일본 정부가 갈 길을 막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순결운동, 참가정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한국 일본이 하나되어 미국을 돌려놓아야

일본은 큰일입니다. 미국보다 더 썩었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일곱 살 정도의 아이 때부터 성적인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참합니다. 그런 마지막의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미국은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이 해외를 타락시켰던 것과 똑같이, 미국이 일본에 들어와 일본의 청년들을 망쳐 놓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런 지경에 떨어지고, 미국도 세계에

서 그런 문제를 안고 인류와는 반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일본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두고 보라구요.

축복과 평화의 길은 남지 않습니다. 그런 뿌리를 완전히 뽑아 버리지 않으면 세계의 정착지, 평화의 정착 기점은 생기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전부 침뱉었다구요. 일본이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했으면, 종처럼 심부름꾼처럼 봉사했으면 이렇게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여자 주제에 남자를 전부 짓밟고, 전권을 휘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전부 배후에서 반대합니다. 저 여자 죽어 버리면 좋겠다고….

이번 수상은 여자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기점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세를 보면 90퍼센트가 틀렸어요. 그러니 대세를 전환해 가지고 상자의 입장에서 대결단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선생님은 무자비한 남자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선생님은 출동명령을 하는 거예요. 전부 끌어안고, 여동생들이 다리를 끌어안고, 형제가 서로 붙안고, 어머니는 뒤에서 오비(기모노의 허리에 묶는 벨트)를 당기고… 일본이 그걸 잊지 않고 있습니까? 일본 민족이 그런 형제애와 모성애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 이중의 사랑을 가진 어머니가 되어 있습니까? 어머니를 찾아 이렇게 왔는데, 이거냐구요. 찾던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버리고….

지금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자가 없으면 큰일이지요? 그런데 장남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길을 일본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일체가 되어서, 미국의 반대 기준을 넘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일체가 되어서 철저한 정신을 심어 줘야 돼요. 미국에 있어서 일본의 경제적인 문제… 그러지 않고 미국이 따라올 것 같아요? 그런

조건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조건적으로 전부 정비해 놓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끔... 섬을 하나 사서라도 나라를 세우면 그것도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인구 5만 명의 나라도 있다구요. 선생님에게는 선생님과 인연을 가진 3억6천만쌍이 있습니다. 그것은 30억 이상 되는 인류의 3분의 1 이상 되는 수입입니다. 그러니 세계를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다구요. 무엇을 하든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가 선생님을...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을 누가 어디서 맞이해 줄 것 같아요? 세계가 전부 싫어하는 일본 땅일 것 같아요, 선생님을 반대한 한국 땅일 것 같아요? 전부 생각해 봐요. 조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소생이 가정어요 장성이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졌을 때는 조건적으로라도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현금을 하라는 것은 일본을 살리기 위한 작전

한국 민족은 북쪽 사람도 남쪽 사람도 선생님을 애국자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북한까지도 그렇다구요. 그것으로 됩니다. 5천년 역사 이래 전 세계를 봐도 누구 하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전 세계 이상향을 말하고, 전 세계에 대한 애국자라고 불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5천년 역사에 없는 애국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그 이상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머니 나라가... 인정해요? 생각해 봐요. 인정해요?

유일한 통일교회까지도 일본화시키려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도 벌써 경제적인 현상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결국에는 세상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문선생은 바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을 세계의 선두라고 해요.

‘문선생이 하는 건 전부 일본에서 원조하는 돈을 써서 한다. 그러니 원조금을 끊어 버리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끝장이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구요. 영계는 압니다, 이 세상은 몰라도. 그것이 선생님의 작전입니다, 작전. 일본을 구하기 위한 작전이라구요. 알겠어요? 그들은 ‘문선생이 세계를 점령할 수 있는 열쇠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사가와 영감을 알지요? 그가 선생님에게 ‘문선생님, 구보키씨를 소개해 드릴까요?’ 하더라구요.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몰라요. 아무 것도 모르고 죽어갔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그런 할아버지를 사랑을 가지고 대해 줬어요. (녹음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영계에 가도 선생님은 참스승이라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후손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의 구국(救國)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현금이라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일족이 그런 선생님의 기준에 서서... 선생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도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따라오는 거잖아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데는, 재생활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세계적인 어머니의 몸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원리를 최후의 일본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미야마, 그거 알아? 《하나님의 뜻과 세계》 이것은 옥중에서 선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통적으로 일본 민족에게 가르치게 되면 절대 옆길로 안 가게 돼 있어요. 일본 전체가 그 책을 어떤 책보다 많이, 소중하게 읽었으면 일본이 이렇게는 안 되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저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얼굴이 전부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입니다. 골이 생겼어요. 선생님이 못 따라가요. 여러분이 반대의 소생·장성의 길을 가게 되면, 선생님이 그만큼 먼 길로 돌아가야 됩니

다. 일본 해와 국가를 위해서 도서국가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반도국가연합도 세웠고, 대륙도 아시아 대륙국가연합을 세웠어요. 어디를 두고 보더라도 그 나름대로 전부 처치해 놓았다는 거예요. 해양도 서국가연합, 반도국가연합, 대륙국가연합, 전부 만들었지요? 「예.」 언제 어디가 망할지 모르니까, 선생님은 세계에 그런 살아 남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생사를 걸고.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미국에서 돈을 얼마나... 왕 중의 왕입니다. 일본을 위해 그렇게 못 합니다. 이놈의 자식들! 일본은 세계를 대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완전히 알몸이 되어서, 기모노를 벗고 알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맹세를 열두 번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본이 어머니로서...

한국의 아리랑 고개에도 열두 고개가 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열두 고개... 사랑의 고향을 찾아가는 데는 그런 고개를 열두 개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그런 열두 고개입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어머니를 세울 때처럼 어머니 나라를 찾기 위해 고생길을 나왔다

여러분은 일본의 대표입니다. 소유권 전환했어요? 소유권 전환, 그리고 무슨 전환이에요? 가미야마! 「혈통 전환, 심정권 전환입니다.」 심정권 전환, 그리고 혈통 전환입니다. 가정, 가정을 낳는 거예요. 축복 가정 자체를 전환하는 거예요. 일본의 가정을 완전히 전환하는 거예요. 통째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통 전환에는 심정적인 자녀...: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를 거쳐 어머니 아버지는 그것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천국 건설을 위해,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권에서 축복세계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쫓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전부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재차 대륙에 투입하느냐 이거예요. 목숨을 걸고 침투하는 거예요. 노인, 낙엽과도 같은 그런 입장에서 해와 국가, 어머니 국가를 찾기 위해서….

80세의 할머니까지도 영계를 통해서 자기가 어머니라고, 몇백 명이 선생님을 중심삼고… 80세 할머니부터 60세, 50세, 40세, 30세, 20세 처녀로부터 10대 소녀까지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머니를 찾아 세우는 데 14년 걸렸습니다. 소생·장성입니다. 장성 원리결과주관권(간접주관권)을 넘어서 직접주관권에 서야, 하늘의 하나님과 아버지와 어머니를 중심삼고 직접주관권의 책임 분담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한 거라구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40세의 남자가 17세의 딸 같은 여자를 색시로 삼겠다니 도둑과 같지요. 거기에서부터 반대로 하나님은 해와 국가의 전통을… 횡적인 입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오빠와 같이 따라야 합니다. 몇백 명이 되는 여자들이 전부 자기가 선생님의 부인이요, 우주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들을 자연굴복시켜야 하는 거예요. 원리의 길이 그렇습니다.

남자가 여자에 의해 타락했으니,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바람을 맞더라도 선생님은 오빠로서… 레아가 라헬의 약혼자였던 야곱을 빼앗았듯이 반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빠로서의 사랑을 여동생에게 전수해 주고, 마지막에… 비참한 남자입니다. 비참한 남자예요.

7수, 알았어요? 70년간, 7천년의 심정적인 고통을 메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여자들이 어머니는 자기라고 목숨을 걸고 선생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어머니냐?’고 하던 것을 잊을 수 없어요. 하늘로부터 전수받고… 그걸 전부 컨트롤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없었으면 큰일났을 거예요. 어머니를 죽여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 입장에서는 천하도 나라도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에

요. 모든 환경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 사랑의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원수입니다. 이견 뭐 늑대와 같고, 멧돼지나 사자 이상이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고, 결혼하고 3년간 밖을 못 나갔어요. 교회에도 못 들어간 거예요. 3년간 별도의 집에 살게 하면서 평면적으로... 그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 무한한 고생의 결정, 천지가 바라던 보물을 여러분에게 허락했는데, 그것을 무작정 훔쳐 버리는 것과 같은 태도... 생각해 봐요.

종적으로나 횡적으로나, 상하로나 사방으로나 방향을 잃어버릴 정도로 분하고, 길이 막혀 버릴 정도의 슬픔을 품은 선생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나, 가미야마? 「예.」 세계 기동대 재편성을 임자에게 맡겼는데, 그거 하고 있나? 「예.」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삼고, 유럽을 중심삼고 섭리의 재건으로 미국을 해방해야 된다고. 알겠나? 「예.」

일본 사람은 선생님의 친족과 같습니다, 친족. 그러니 철저한 섭리관을 가지고, 철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독립하기 위해 한국과 함께 모든 면에서 선두에 서서, 세계에 모범적인 씨를 뿌려야 된다고요.

자르던 사위기대 축복가정 교육은 천국 가기 위한 분별의 교육

그래서 이름이 가미야마(神山)예요, 가미야마. 산 가운데서도 가미야마가 넘버원이라구요. 일본에서는 진자(神社)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그런 일본 땅의 실제적인 왕 이상, 진자의 정신 이상 되는 가미야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해 두라고 말한 거예요. 전부 얘기했어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의 이런 숨겨진 이야기는 원리 책의 세 권 이상이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모른다

구요.

명확하지 않은, 미완전한 길에서 자신들의... (녹음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을 40명 이상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왔나? 40명이 돼? 어디 손 들어 봐요. 전후 40년 일본을 황야의 슬픔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 자기 일신과 함께 일본 전체를 세계에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불 태워져서 제물이 되어야 해방권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자르던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잘라 버릴 것입니다. 여기에 온 사람 중에 자르던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 봐요. 이 놈의 자식들! 한꺼번에 전부 다... 일본 자체가 멸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라도 남겨 놓겠다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일본을 복귀하기 위한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한 대분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가정교육입니다. 사위기대 축복가정교육이에요. 전부 영망진창이라고요. 자기들 멋대로 생각해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철저한 내용을 가지고, 골육을 갖춰 가지고, 정면의 방향에 일치시킨 땅에 있어서 그 정면의 방향과 천국의 중심이 딱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들어가서 왕궁의 보좌가 보이는 그런 길을 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가미야마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

후루타(古田)도... 전부 영망진창이라고요. 일본의 가인 아벨 문제를 전부 정리하고 한국에 가요. 그래 가지고 한국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와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대이동이에요. 나라를 버리고 한국에 가라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널을 뚫으라고 한 거예요. 배로 가려면 힘들잖아요? 비행기는 공적인 것이라 간단하지 않고... 알겠어요, 일본 사람들?

일본의 야카라(패거리)들! 야쓰(놈, 자식)가 좋아요, 야카라가 좋아

요? 가미야마! 「야카라가 좋습니다。」 알긴 아누만. 야카라가 좋아요, 아이가 좋아요? 「아이가 좋습니다。」 (녹음상태가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고생하는 것을 알지만 다섯 남자를 복귀하는 책임을 해야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 일본의 돈 한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해 왔어요. 미국의 국세청에서도 ‘문선생은 공적인 돈은 한푼도 안 쓴다. 돈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대구요. 여러분이 고생해서 모은 그 돈은 압력으로 탐내는 그런 일은 못합니다. 참아버지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 여자 식구가 7년간 같은 속옷을 입고 활동했다는 보고를 듣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 일본 민족을 선생님은 잊지 못합니다. 불쌍한 그 여자 식구를 누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 살려 주고 싶은 것입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 집에서 거느리는 종이라도, 밤에 혼을 냈으면 다음날에는 혼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소리쳐 혼을 내던 그의 손을 쥐고 위로하면서 과일이라도 먹여 주는 것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한 쪽으로는 남자, 한 쪽으로는 여자의 손을 쥐고 그 손을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해외 국가의 권한을 가지고 조건을 세워서 모든 남자, 다섯 명의 남자를 전부 복귀시켜야 됩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바뀌서 해봐요. 아무리 해도 똑같은 걸 하지 않으면 영계에 걸립니다. 그 책임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쓰러질 수 없습니다. 연장될 뿐이니까... 그걸 포기했을 때는 일본이 납작해져 버립니다. 한국과 함께 납작해져 버린다구요.

여러분, 한국의 통일교회, 본부 통일교회는 원리의 제일 깊은 것을

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인 여러분에게만 가르쳐 줄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가르쳐 줬다간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흘러가 버린다고요. 한국 사람을 재차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이상 자기 자신들의 노정을 돌아보고, 성약의 아침해를 맞이해 가지고 당당히 재분석해야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 자체를 비평하고 비판해야 된다고요. 나쁜 것들을... 양심에 물어 보라는 거예요.

보따리 싸 놓고 나라 세우기 위한 출동 준비를 해야

선생님은 명령합니다. 보따리 싸 놓으라고요. 알겠어요? 언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제대로 경계선을 만든 다음에는 전부 막아 버릴 거예요. 선생님은 사탄적인 세계주의자가 아닙니다. 36억의 인류를 한꺼번에... 그 위에 또 3단계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소생·장성·완성의 3단계예요. 그것을 향해 ...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아집니다. 뼈에는 골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신일체의 같은 요소가 세포와 같습니다. 그것이 일본에 건너와서, 천국인의 부모 대신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 재교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자기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해와는 습관적이 돼 있어요. ‘하더라도 중간 정도 하면 되겠지. 나머지는 선생님이 해줄 거야.’ 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티켓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 집에 가면 사진하고 꽃을 같이 놓고, 매일 영계의 선조들을 불러서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계도 지금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영계에는 변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확실히 남아진다는 거예요.

성인과 살인마들을 같이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지옥을 철폐하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해야 됩니다. 그들이 전부 선생님에게 절대복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보다 먼저가 될 것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여러분을 어떻게 영계가 동정해 주겠어요? 축복을 받고도 저 미물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 아버지를 역사 이래에, 자신을 낳은 어머니 아버지보다, 자신을 키워 준 어머니 이상, 메시아가 하나님을 따르고 봉사하는 이상의 길을 통해 가야 되겠다.'고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들이 여러분 앞에 선다는 거예요, 앞에. 큰 일이라구요. 알겠어요? 「예.」 정신차리라는 거예요.

천주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성인들과 그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출발해야 합니다. 때를 잊고 잠을 자고 있으면서,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뭐가 어떻게 저떻고...

뭐예요? 일본에는 취직하지 않은 저 헌신 멤버가 있었잖아요? 그들을 전부 분배해서 쫓아내라구요. 알겠어요? 「예.」 여자가 못 하면 남자를 보내라구요. 오쓰카(大塚)는 '커다란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쓰카라고 해요. 쓰카는 무덤이니까 재차 살아난 오쓰카라고 하라구. 「알겠습니다.」 해외는 오쓰카 중심으로 나가지 않으면 일본이 지옥 밀창으로 가게 돼 있다구요. 그러니 오쓰카의 권한으로... 별명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이름 붙여서 책임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 정비된 남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미야마는 어때? 너도 정비하고 있어? 전부 종족을 동원해서 선생님을 증거하고 방랑하면서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데... 종족 메시아가 뭐예요? 선생님의 기지를 만드는 씨족의 대표를 말합니다. 국가 메시아는 뭐예요? 선생님의 세계 국가를 만드는 국가적인 대표입니다. 선생님이 살 수 있는... 선생님은 자녀로부터 개인 완성, 가정 완성, 종족 완성, 국가 완성, 세계 완성...

선생님의 역사를 대표한 상속자는 자기보다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상대자는 선생님 이상 높아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없으면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가 힘들고 뭐가 고생이에요? 죽어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선생님은 죽음의 모험의 끝없는 황야에 알몸으로 혼자 있습니다. 방비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모험 길에서 박해를 받고... 알겠어요? 「예.」

깨끗이 정리하고 보따리를 싸 놓으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저금해 놓은 돈이 있으면 보고해요. 그래 가지고 선생님이 명령하는 은행에 전부 모아 댑요. 피난민의 가정에... 선생님은 지금까지 일생동안 피난민입니다. 개인·가정·민족국가세계의 피난민으로서 국가를 찾기 세우기 위해서... 확실히 알았어요? 「예.」

고생시키는 것은 전통 정신을 세워 주기 위함

오쓰카! 「예.」 에리카와! 「예.」 도쿠! 「예.」 이나모리! 「예.」 이나모리는 부자지? 이나는 쌀이니까 쌀을 쌓아 놓은 모리(森; 숲)라는 뜻이라구. 부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두에 서서 일본의 생명의 이나모리가 되라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일신에 굶어지고 하지 않으면... 규슈에서부터 홋카이도까지 지방을 넘어서 전부 그래야 된다구. 알겠어요, 일본 사람들? 「예.」

니혼진(日本人; 일본사람)이에요, 니뽀진(日本人)이에요? (판서하시면서) 전통 정신을 가진 니뽀진이라는 거예요. 히노모토(일본; 태양의 근원, 일본의 미칭)라고 하잖아요, 히노모토? 영계에서는 선생님이 히노모토가 됩니다. 알겠어요? 지상의 동체의 빛이 지지 않는, 낮에도 빛나는 빛으로 밝히는 히노모토, 그것은 선생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혈통권의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내용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설 곳을 만듦으로써, 이 지상의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나온 것입니다. 진짜 주인처럼 행세해 나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확실히 하고 가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만나서 얘기해 줄 시간이 없으니….

오늘도 상세히 이론적으로 해명해 주려고 했는데, 여러분은 전부 책임자이니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미리 정리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걸 못 한다면 어디에도 쓸데가 없어요. 알겠어요?

자르던 교육을 받으러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한 번씩 가다 보면 천3백 달러는 든다구요, 천3백 달러. 한 사람이 천3백 달러라고요. 그거 계산해 봐요. 그러니 일본에서 하는 게 좋아요, 거기에서 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은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 좋은지. 장래의 희망이 서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뭘 해봐야 여러분이 따라오지 않으면… 일본에서 자기들이 하면 되잖아요? 제주도에서 할 수 있잖아요? 같은 일입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 가서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권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을 고생시키는 것은 전통적인 정신을 세워 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사다리를 놓아 놓으면… 우루과이가 딱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4개국을 우루과이를 중심삼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거기에 호텔을 세웠던 것입니다. 신문사를 만들고, 은행을 만들고, 인쇄소를 만들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게끔 말이에요. 그게 영망진창이에요. 전부 자기 이익을 탐내고 사라졌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책임지고 전부 정리하고 있어요. 흘러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모릅니다.

자르던 수련소도 1년 반에 완료했습니다. 18개월에 다 했어요. 이미 하나님권의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일본 축복가정은 절반 이상 모든 것을 끝내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 선생님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이 큰일이라구요.

어머니의 사명을 해야 할 마지막 기회

지금 금강산 그룹을 움직이고 있는 것도 선생님입니다. 세계의 뼈가 되는 히말라야산맥, 곤륜산, 태백산맥을 주욱 따라서 금강산을 행진해야 할 한국 사람입니다. 금강산과 선생님의 운세는... 김일성과 만났을 때도 선생님은 금강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치가 좋은 그곳을 자유세계에 맡기면 전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큰일난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금강산을 맡기겠다고 사인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금강산 개발을 위해 4백만 달러를 투입했어요. 그런 걸 알아요?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어요. 김일성이 사인한 걸 말이에요. 그걸 현대그룹이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결국 싸우고 싸워 가지고 마지막에 선생님을 찾아올 거라구요. 김정일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그걸 알게 되어 있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 일본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요. 자기들의 마지막 찬스를 잃어버리는 무지한 여자들... 찬스예요, 찬스. 국권의 전통을 세워야 할 일본 사람들! 역사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명을 해야 할 입장에서 그런 찬스를 잃어버리면 일본은 사라져 가는 거라구요. 일본이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붙들고 죽자살자 뒹굴어도 어쩔 수 없어요. 알겠어요?

그걸 못 하면 그것이 선생님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일신 전체를 이 성약시대에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선생님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를 이끌고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일본 사람인 여러분은 3분의 2를 바쳐야 돼요. 사탄세계의 3분의 2, 소생장성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탕감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 선두에서 3분의 1을 한국 사람들이 바치고, 3분의 2를 일본 사

람들이 메워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짐을 짊어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보따리를 싸서 메고 어떻게 할 거예요? 알겠어요? 죽어서 쫓김 받고 울면서 ‘선생님, 왜 더 강하게 명령하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이상 어떻게 더 가르쳐 줘요? 그런 문제들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라고, 네가 뿌린 공로의 씨가 썩어 버린다고…. 그 전에 여러분들 가미야마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 못 하지요? 그걸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 이런 명령을 내릴지, 그걸 예상하고 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위해서 자르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한국은 안 해도 선생님 한 사람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한국에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나라의 대표요, 국민의 대표입니다. 선생님 가정이 앞에 서면 전 민족이 뒤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탄세계도 그걸 부정 못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몸 마음이 하나된 사람은 소유는 자연히 따라와

선생님이 이 땅에 돈을 갖고 온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사랑과 참사랑의 자녀의 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참사랑에 의해서 여러분을 축복해 준 거예요. 그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소유권을 지키려고….

아담 해와 창조 이래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인인데, 절대적인 소유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양심이 주인이요, 몸 전체가 소유물입니다. 그것이 사랑에 의해 하나됨에 따라서 주인까지도 함께 하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의 몸을 중심삼고도 사랑으로 인해 일체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식 때 하나님이 주체 입장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

들이 그 상대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것입니다. 무슨 소유물? 사랑의 소유물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심정권에 일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물건의 소유권, 이것은 사탄과 연결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인의 소유물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마음의 소유물은 몸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돌아감에 따라 중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임재하여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권에 일치된 사람, 일신의 몸과 양심이 일체화된 그런 사람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인의 입장, 여자 남자 자체가 주인의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남자에게 절대복종하는 여자가 있어 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되면 그 여자도 주인으로서 소유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 자체는 아무도 없어도 주인의 입장에서 소유권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 여자의 소유권이요, 남편 자체가 그 여자의 소유권이 되는 거라구요. 여자 자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참사랑은 그거 한 점입니다, 한 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반을 쌓는 이는 외적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은 육신 노정의 지상의 요건일 뿐이지, 영원한 사랑의 세계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겠어요.

심정일치가 된 위에 상대와 일치되고 자녀와 일치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가정, 영원히 전수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개인 완성, 부부 완성, 가정 완성, 종족 완성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자신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의 입장에 계신다면, 자기도 똑같이 주인이 되는 거라구요. 그것이 이상(理想)입니다.

그런 것을 바라는 하나님 앞에, 만물이니 자신의 소유권이니 하는

건... 자연 속에 전부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외적으로 그것을 흡수하고 커 가는 거예요. 커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일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 대신 주인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연령이 되면, 하나님의 소유권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라면 밑이 되고, 하나님이 왼쪽이라면 오른쪽이 되고, 하나님이 동쪽이라면 서쪽이 되는 상대권에 서서 함께 일체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주위에 자신이 주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 해와가 축복을 받아서 그런 소유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정을 정착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물건의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씨족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담에게 소유권을 허락하면 큰일납니다. 축복하기 전에 소유권을 허락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물건을 위해서 나라를 해매는 통일교회, 환드레이징을 위해서... 환드레이징을 통해 재창조의 물건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중심삼고 사탄세계에 현금의 기반을 쌓고, 사탄세계를 자동적으로 주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특권을 얻기 위한 거라구요. 그것은 참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일본 사람들? 「예.」

선생님은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결의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선생님은 그런 하나님의 상대로서, 소유권의 결의를...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입니다.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투입하는 하나님의 도량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으로 일체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소유물이 되고, 소유물이 주인의 것이 되어 일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 기반 위에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서 정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이런 원칙을 여기에서 확실히 알아둬야 되겠다구요. 절대적인 주인 앞에 절대적인 소유물이...

너도 들었어? 여기 없었잖아? 전에 얘기한 내용 말이야. 「들었습니다. 일부 내용을...」 듣고 잊어버렸지.

그런 외적인 만물창조의 상대라든가 주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대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 이것을 이루었을 때는 만물은 자동적인 상대권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동적으로 자기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정비해야 돼요. 그걸 위반하는 사람은 전부...

그 기모노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전부 벗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텐 동산에서는 별거벗고 살았다구요. 일본 사람들, 전부 별거벗기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다른 건 필요 없어

여러분, 부인을 사랑할 때 기모노를 입혀 놓고 하나요? 별거벗고 하잖아요? 금은 보석 전부 벗어 놓고 하잖아요? 알겠어요? 그런 걸 전부 깨끗이 정리하고 보따리 싸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남편에게 시집갈 때, 선생님이 있는 나라로 돌아갈 때 그 나라의 보물로서, 어머니의 보물로서 남겨 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일본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여자 그 자체를 전부 훔쳐 가지고 방종한 일들을 저질러 온 사탄세계 앞에 당당히 전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전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시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어요?

심신이 불타 가지고, 불타 가지고 빛을 비추는 입장에서 남편과 하

나가 되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소유권이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 투입했어요. 제단입니다, 제단. 그 위에 제물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에리카와, 남편하고 사랑할 때 벌거벗고 하나, 기모노 입고 하나? 흑이라도 있으면 그것까지도 잘라 버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일본 사람들은 마빠다카(벌거벗다)라고 하지요? 마빠다카가 돼 가지고, 태어났을 때와 똑같이 쌍둥이의 입장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 해와가 쌍둥이입니다. 에덴에 있어서 쌍둥이라구요. 그러니 뭐가 있어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님과 하나님과 남편 아내 이외에는 없어요. 절대적인 정착지가 거기에요.

물건이라든가, 일본의 쓰러지기 시작한 집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아이쿠, 사탄 덩어리! 그걸 불태워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별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것을 지금은 사랑을 가지고 성별해야 합니다. 성염을 가지고 성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 성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꺼지지 않을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불탈 수 있는 그런 것이, 거기에 일치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절대사랑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도 발도, 사지백체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안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재창조해야 됩니다. 재정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 철저하게 자르던 교육에 참석해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예.」 전부 같 거예요, 안 같 거예요? 「가겠습니다.」

못 하겠으면 심장이라도 팔아 버리랴구요. 간장도 3분의 1 정도, 대장도 하나 떼 버리고... 돈이 얼마라고? 1조라고? 「예.」 그게 좀 커졌

지? 「본래로 돌아갔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야 돼요. 구멍이 뚫리더라도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메워 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심장….

지상천국 이상을 전수해 주지 않으면 일본은 영원한 한을 짊어져

선생님은 모험의 세계에서 누구보다도 선두에 서서 나왔습니다. 도망간 적이 없어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선문대학, 브리지포트 대학…: 어제 그 대학에 갔지요? 또 남미에 가서 1억7천만 달러라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라구요. 일본이 원조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 고생은 일본의 누구보다도…: 현재의 1억5천만 명 가운데 선생님이 이상 고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을 구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일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장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함께 장자를 찾아 나온 것입니다. 차남은 필요 없습니다. 부모의 나라, 장자의 나라를 세웠으니 그 전통을….

이것은 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평면적이예요. 선생님은 종적인 입장에 서서, 평면적인 입장의 해와 국가와 자녀에게 전부 상속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계를 대표한 내적 외적인 조건이 정비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어머니는 외적으로도 영계의 지상천국 이상을 전수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천륜적인 사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숙명적인, 숙명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살아서 이루어야 됩니다.

일본이 이 사명을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한을 짊

어지게 됩니다. 다른 나라를 정점으로 다리를 건너서 헤매게 된다고요.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깨끗하게 찢더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일본을 제쳐놓고 다시 영국을 세워야 됩니다.

어차피 한국의 남북은 통일됩니다. 지금은 중국에도 소비에트, 대만, 인도에도 축복가정이 5천만 명 이상 됩니다. 일본 자체는 4천만 명입니다. 미국도 그런 세계가 되어서 그것을 소화하려면 길이 있어야 합니다. 손도 댈 수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해결할 길이 없다고요. 하나의 옳이나 가지를 꺾어서 구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일본의 옳도 전부 때 버릴 수 있고 뿌리도 뽑아 버리고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선생님의 힘을 가지고 미국에 쓰게 되면, 미국과 일본에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놈의 자식들! 일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구할 자료는 현금수금밖에 없어요. 동물, 경제적인 동물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요?

세계에 있는 일본의 대사관들,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돌아가라, 이놈의 자식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 여자를 2주일 이내에 배로 도망시킬 수 있는 힘을 이 선생님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일본 대사관에 가서 테모하라고 하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일본 멸망’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아무 것도 모르는 패들, 자녀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도산된 회사가 몇 개예요? 지진이 몇 번 있었어요? 「여섯 번입니다.」 여섯 번째인가? 몇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의 다리를 붙들고 나온 거라고요. 이제 잘라 버릴지 모릅니다. 방해가 되니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일본을 세워

서 교육하면 훌륭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알겠어요? 「예.」

일본은 언제나 선생님의 표정을 지켜보라구요. 선생님의 명령이 내려지면 뭐 순식간에 끝장납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남겨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단에 서서 지금까지의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대로 가만 있다가는 걸립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활 속에서 몇 시간을 버틸 것 같아요?

재정비해서 새로이 결의해야 할 일본

오쓰카! 「예.」 에리카와! 「예.」 이것들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선생님은 혼자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정신을 철저히 갖고 다시 40년노정을 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여기에 이견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별반을 것입니다. 이견 협박이 아닙니다.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부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비해야 된다고요. 선생님 이상 영계가 다 압니다. 나라에 돌아가서 미련 없이 소유권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가미야마하고 에리카와에게... 정비시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비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한 입장에서 일본도를 가지고 심각하지 않은 사람을 심각하게 잘라 버리고, 천국의 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도, 신검을 만든 최고의 승리를 탐내던 그들의 바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6대 명검을 만든 사람이 심각한 입장에서 배를 가르고 죽었습니다. 그거 알아요? 「예.」

그 이상의 결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후손들 앞에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할 것이 아니에요? 자기 구두의 흔적, 그 발자국은 자신의 발자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이요, 하나님의 구두자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흔적을 남겨 놓고 가지 않

으면 안 된다구요. 알겠어요?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유럽 멤버들에게 이거 다 얘기해 줬어? 너희들은 일본말도 못 하잖아? 담벽이 왜 이렇게 많아? 어이쿠! 자, 이제 결론 부분을 읽으라구!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의 기대를 갖출 때가 왔다

『.....만약 태양의 나라 일본이 한국으로 오신 구세주의 동맹자가 되지 않는다면 일본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다. 구세주 하느님의 장남 되신 분의 뜻을 받들어서 함께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만이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것이 곧 한일 양국 국민의 하나님에 대한 책무이다.』

일체화, 알겠어요? 「예.」 강제로라도 해야 된다구요. 죽어 나자빠지더라도 이걸 하지 않으면 일본 민족이 피를 흘리게 된다구요. 절대신앙을 하지 않으면 피를 흘리는 거예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면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누구인가》 끝까지 혼독) (녹음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이제 통일교회는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갖출 때가 왔습니다. 몇천년 몇만년을 통해 암중모색(暗中摸索)하면서 그늘에서 나왔지만, 이제 몇천년 몇만년을 날릴 수 있는 새로운 힘의 기대를 갖출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 힘들 갖고 있어요? 어때요? 지쳤어요, 지치지 않았어요? 「지치지 않았습니다.」 지치지 않은 사람 손들어 봐요.

통일교회에 들어올 때 원리 말씀을 듣고 밤이야 낮이야 달리던 그때와 여러분의 지금 때를 비교해 볼 때, 언제가 더 열심이에요? 어느 때가 열심이에요? 지금이 열심이에요, 그때가 열심이에요? 「지금도 열심입니다.」 그때보다 더 열심이에요? 「예.」

그때는 밥을 안 먹어도 좋고, 어머니든 뭐든 교회 안 가면 안 되게

되어 있었다구요. 그 이상 열심히 한번 해보라구요. 옛날에는 조그맣게 출발해 가지고 돌아올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서하시며) 맞출 때는 맞춘 이 뿌리는 핵이에요. 핵점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딱 옵니다. 이게 큰 가운데로 돌아올 때, 이렇게 맞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커요, 출발할 때 이게 커요? 아, 답변하라구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쌍것들!

자, 출발해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면 크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에 와서 맞추는 데는 말이에요, 요것 출발할 때는 한 점인데 여기를 중심 삼고 여기를 맞춰야 되겠어요, 여기를 맞춰야 되겠어요, 딱 중앙을 맞춰야 되겠어요? 「중앙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커요? 이게 더 커요, 작아요? 이게 더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커야 됩니다。」 지금 크냐 말이에요. 커요, 작아요? 「큵니다。」 이놈의 자식들, 크다고 하는 것보다 작아진다고 해야지. (웃음) 웃을 일이 아니라구요.

선생님이 맞춰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요만큼 와서 이게 어디 가면 모를까, 선생님이 맞춰 주는 거예요. 끝까지 절대신앙·절대사랑... 선생님이 때를 잘 맞춰 나왔지요? 「예。」 그거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구요. 그렇지 않으면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고, 가려고 해도 이 몸뚱이가 안 움직여져요. (녹음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밥 먹고 하자구요, 그냥 계속하자구요? 「밥 먹고 합시다。」 (웃음) 뭐라구? 「밥 먹고 하면 좋겠습니다。」 밥 먹다 죽은 사람도 많은데? (웃음)

유중관! 바다에 나와서 이렇게 고기도 잡고 말씀도 듣는데, 잘했다고 생각하나, 못한다고 생각하나? 「예. 잘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40일 동안에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웃음) 억지로 그렇게 됐네. 그런 말은 필요 없어. ‘몰랐습니다.’ 하면 된다구. (녹음상태 불량)

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사탄세계의 재물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납해야

어때요? 밥 먹겠어요, 먹고 얘기하겠어요? 놀러 나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는 길을 나가는데 그게 험산준령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호랑이가 나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호랑이를 전부 다 쇠를 채워 놓았다는 거예요. 뱀이든 구렁이든 입에 자갈을 물려 뱉다는 거예요. 그 놀음을 해 나온 거예요. 언제 무엇이 밥이 될지 모르게 꺼져 버리는 거름더미 같은 것들을 남겨 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지금도 걱정 아니에요? 내가 임자들 신세를 져야 되겠어요, 임자들이 선생님 신세를 져야 되겠어요?

여기 김홍태 나왔구만. 하라는 일을 자기가 죽고 살고 한다더니, 약속한 걸 하나도 못 해 가지고... 세상에! 심각하다구요. 알겠어요?

7년 전부터 통일교회 부도난다고 그런 가운데 선문대학교를 세웠대구요. 누가 꿈에라도 나를 동정해 준 사람이 있어요? 밥 한 끼를 안 먹고, 하루 이틀 동안은 살 수 있어요. 금식을 해 가지고라도 한 끼라도 말없이 투입했다는 그런 조건을 세워야 돼요.

도둑놈의 새끼들이 아니에요? 도둑놈의 ‘새끼’가 아니고 새끼예요. 악마는, 사탄은 도둑놈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은 뭐예요? 도둑놈의 새끼라구요. 부모님을 전부 굶어먹고 손해 입히고 말이에요. 손해 입히는 패예요, 뭐예요? 악마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손해 입혔대구요. 그 새끼들도 참부모를 손해 입히고 나왔대구요.

나는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만큼 됐다고 꿈에도 생각지 않아요. 부모 앞에 자기들이 고생길을 가는 것을 응당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암만 그래도 죽지 않아요. 죽을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죽지 않으면 몸이, 몸이 죽지 않으면 마음이 타깃이 돼요. 심적 충격을 받든

가 육적 충격을 받지 않으면 못 넘어간다구요. 그렇다고 쓰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 있으니 살 생명줄을 붙안고, 죽더라도 그걸 붙들고 당기면서 죽어야지, 놓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세의 사체를 가지고 싸우고 예수의 사체를 가지고 그 능선을 넘기 위해 싸워 나온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심각하다구요. 이런 걸 다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아들딸을 교육하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전부 다 투입하고, 그 집은 전부 다 나라에 기부하고 교회에 저축해 놓고, 부모는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았어요. 자동차로 가고 싶는데 비행기를 할 수 없이 탄 거예요. 이게 마사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하는 것은 앞으로에 있어서 전 세계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교육장소가 옮겨지게 된다면 그것이 줄이 제일 길 것이다 이거예요.

사탄세계의 재물은 나라를 건국하는 데 헌납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에 있는 모든 비행기라든가 군함을 중심삼고 자기의 모든 귀한 재산을 몽땅 쓸어서 전부 다 조국에 갖다 접붙여야 된다고요. 접붙여 가지고 다시 분배받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권속이 못 되는 거예요.

세계의 금은 보화를 다 모아 가지고, 놚들 데가 없을 정도로 모아 가지고 둘 데가 없으니 다 나눠 줘야 돼요. 기쁨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역사에 없는 보물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나눠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반도국가인 것이 고마운 거예요.

자, 먹고 할까요? 꼭정환! 밥 먹고 해? 오늘도 다 끝날지 어떨지 모르겠다!

참사랑을 중심하고 살면 천국의 주인이 되고 하늘의 상속자가 돼

기분이 어때요, 이 말 들으니까? 거짓말도 잘 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명문입니다.」 명문 같은데, 명문이 아니라 명사건이에요. 문(文)이라서 그런 표현을 했지, 사실은 사건입니다. 세계적 사건, 우주적 사건이라구요. 저런 나라에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저 비결을 신앙촌의 김장로는 박장로를 성인으로 풀고, 또 그 김장로가 이승만 장로에게 비결서를 줬거든요. 그분은 교리 전부를 풀었어요. 또 이승만 장로가 구성모 씨(《그는 누구인가》 편저자)를 줬는데, 구성모 씨가 송영석 회장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행 회장) 그건 박장로 꿰들이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구성모 씨가 정통으로 풀었죠.」 정통으로 풀었어? 거짓말인지 나도 아직 모르겠는데? 정통으로 풀었다는 것을 보니 메시아보다 낫구만.

누가 메시아 같아요? 선생님이 메시아 같아요, 뭐 무슨? 「문인선입니다.」 문인선이, 문인선이기도 문 가(家) 아니예요? (웃음) 문 가인데 말이예요, 이것 참 놀랍다구요. 꿈 같은 일 같고 이상하고, 사실이라면 잘 수가 없고, 알아 있을 수도 누울 수도 없으니 날아가야지요.

그래, 한국 백성들이 외국 사람을 부르는데, 다 놈이에요. 일본 놈, 미국 놈, 중국 놈, 러시아 놈, 다 놈이에요, 놈. 무슨 놈? 도둑놈! 놈이라고 해서 선생님을 선생 놈이라고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를 부모 놈이라고 그래요? 도둑놈에 대해서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남과 비슷비슷한 거예요, 도적놈.

여러분은 뭐예요? 아들이예요, 제자예요? 제자 놈? 그래요? 「제자입니다.」 제자는 뭐예요? 「제자들.」 무슨 ‘제’ 자예요? 「아우 제(弟) 자입니다.」 ‘아우 제(弟) 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들 자(子) 자입니다.」 ‘아들 자(子) 자, 결국은 거꾸로 돼야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제’가 ‘제자’가 되었다구요.

‘자제’ 할 때 ‘제’ 자는 무슨 ‘제’ 자를 써요? 광정환이, 어떤 ‘제’ 자

를 써? 「아들 자(子) 자하고 '아우 제(弟) 자를 씁니다.」 그런가?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복귀해야 된다 이거예요. 한문이 참 묘해요.

선생님이 말하면 취한다구요. 자기가 말하는 것에 취해야 된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말이 얼마나 빨라요? 호르르르릉-. 옛날에 선생님이 말을 세 시간, 네 시간 하게 되면 다 알아듣지 못했다고요. 글로 써 보니까 알아듣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용을 변경해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구요.

강현실? 몇 권 읽었나? 「80권 읽었습니다.」 3분의 1밖에 못 읽었구만. 「예,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래,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어? 「느끼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도 제목이 똑같은 게 없더라구요. 전부 다 달라요.」 올라가니까, 365일 올라가는 거지. 돌기는 360도 도는데 전부 다 다르다구요. 선생님 말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 말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죽지. 이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녹음상태 불량으로 일부 수록하지 못함)

참사랑을 중심삼고 살면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늘 앞에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자, 그렇게 알고 식사하자구요. (경배)

경배할 때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구요. 하늘과 더불어 모든 축복가정들이 같이 경배하는 거예요. 거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내일을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럼, 언제 모인다구? 「식사 다 끝나고 연락 올리겠습니다. (곽정환)」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라구요. *

자르딘 선언의 의의

그 다음엔 뭐예요? 「자르딘 선언문입니다.」 그래, 자르딘 선언, 자르딘 선언 알아요? 그거 설명해 줄게요.

영계를 확실히 알아야

그거 다 읽어야 돼요. 오늘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한 이것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가 메시아들이 돌아가서 해야 할 전통적 코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 세 번, 세 번씩 한 번 다하고는 또 세 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두 번만 하면 전부 환할 것입니다.

그래, 영계를 확실히 모르면 안 돼요. 알겠어요? 「예.」 확실히 알게 되면 전부 다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어차피 그 세계에 가는 거예요. 뭐 핑계할 도리가 없어요. 자기가 원한, 자기가 된 자리에 틀림없이 가는 거예요. 그 고개를 넘어가는 과정적 모든 것을 정해서 그나라에 가서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일족들을 협조하고 지상의 후손들을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혜택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못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1998년 11월 21일(土), 이스트 가든.

* 이 말씀은 세계 지도자 회의에서 하신 말씀으로, 제목은 편집자가 붙였음.

재림 완성할 수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정적인 기준을 협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체적 내용을 지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상에 못 와요. 똑똑히 알라구요.

탕감의 원리는 통일교회의 특권

*(판서하시며) 왜 자르던 가정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예.」 1945년, 1952년, 1992년이에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판서하시며) 「1992년입니다.」 92년. 「92년부터 98년입니다.」 98년, 그런가? 이 40년은 4천년의 탕감... 「1945년에서...」 여기서부터, 45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45년에서부터 이것이 7년, 여기서부터 40년 이라고요. 「52년부터...」 그래, 52년부터 40년. 「예.」 45년에서부터 7년 하니까, 여기서 7년을 잃어버렸으니 탕감복귀 7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1998년 4월까지 7년 간이에요. 92, 93, 94, 95, 96, 97, 98. 98년 4월까지 7년 동안입니다.

비로소 여기에서 기독교와... 기독교의 사명이 큰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통일천하예요. 하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타락 안 했으면, 가정으로부터 자연히 발전하면 종족이 자연히 완성되고, 민족이 자연히 편성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코치 밑에서, 부모님의 코치 밑에서 형성될 것이었어요.

복귀시대에 참부모를 통해서 그 일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 예뻐 동산에서는 누가 소개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이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탕감복귀 시대에는 이것을 전부 다... 부모도 탕감해야 되고, 자녀도 조건적인 탕감을 하지 않으면 본연의 세계에 못 들어가니, 타락의 보응이 얼마나 무서워요? 인과 법칙이 얼마나 무서우냐 이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탕감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탕감의 원리라는 것이 통일교회의 특권입니다, 탕감원리. 알겠어요? 떨어졌으니 그냥 못 올라간다구요. 닷줄을 매야 되고, 구덩이를 파 가지고 딛고 올라가는 층계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냥 올라가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소모가 벌어져야 돼요.

반드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복귀하기 위해서는 탕감복귀라는 것이 절대 요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절대 요망 조건이에요. 알겠어요? 원리가 그렇지요?

2천년 전에 잃어버린 육적 기준을 재림주가 와서 찾아 맞춰야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국가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 완성 기준을 넘어서 세계로 출발할 수 있는 때가 기독교를 중심삼은 끝날입니다. 이 정비시대가 기독교의 끝날 시대예요.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국가 기준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 출발시대로 넘어가 가지고, 사탄과 관계없는 해방세계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시는 재림주를 중심삼고 잃어버렸던 가정의 어머니와 아들과 천사장, 셋이 싸움터를 만들어 났던 것을 국가적 기준에서 통일시킨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해와 국가가 영국이고, 아벨 국가가 미국이고, 가인 국가가 프랑스입니다. 그러한 영적 기준에서... 기독교는 영적 구원입니다, 영적 구원. 지상에서 가정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영계에 올라가서 영적 자녀를 해산하는 놀음을 해 가지고, 영적 구원 지상세계권을 만들어 놓은 것이 기독교 문화입니다.

2천년 전에 잃어버린 육적 기준을 찾아야 되겠기 때문에,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동양에서 잃어버렸으니 동양으로 다시 찾아와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뭐냐? 지중해 반도 시대로부터 섬

나라 시대를 거쳐 대륙 시대를 중심삼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때는 미국 대륙을 중심삼아 가지고 아시아 대륙을 찾아가는 거예요.

대륙과 대륙은 반대이지만, 아시아를 위해서 미국이 동생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형님이 아니라 동생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중심삼고 나오게 될 때, 아시아에서 잃어버린 몸뚱이를 찾아가는 도중인데... 지금까지 세계의 큰 나라 문명은 태평양 문명권입니다. 대서양 문명권은 지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건 왜냐? 예수의 몸뚱이를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 가지고 일체 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세계 복귀의 기반 위에 육적 승리권을 이룬 것이 2차대전 연합국의 승리였습니다. 영적 기독교의 중심인 연합국이 몸뚱이인 추축국 사탄 편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 맞춰야 된 다구요.

그럼 이것을 누가 맞추느냐? 연합국이 맞출 수 없고 추축국이 맞출 수 없어요. 누가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도 맞출 수 없고 사탄도 맞출 수 없어요. 그러니 거짓 부모로 말미암아 거짓 사랑, 거짓 생명, 거짓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는 참부모가 나와야 돼요, 참부모. 참부모가 와 가지고 참사랑·참생명·참혈통을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마무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타락이 뭐냐? 아담 해와가 결혼을 잘못해 가지고 거짓 부모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걸 제거해 버려야 돼요. 혈통을 전환하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개인·가정·종족민족의 혈통만 전환시키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금년에 사탄 혈통 단절과 초국가적 인류의 기준, 60억 인류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의 기준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 시대가 왔다고요. 알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지금부터 어떤 때가 되어야 하느냐? 기독교를 중심삼고... 기독교예요. (판서하시며) 이것이 중심이에요. 기독교를

중심삼아 가지고 재림주가 와서 이걸 해야 하는데, 기독교가 할 것은 뭐냐?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가 왔을 때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가 하나돼 예수님의 신부를 준비했어야

실패한 동기가 뭐냐? 오시는 주님이 사람이라는 건 다 알았다고요. 알겠어요? 유대교와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 나라인데, 국가가 가인이요, 교회가 내적 아벨입니다. 그렇지요? 마음적 기반이 유대교고 몸적 기반이 국가이기 때문에, 이 둘이 하나 되어 가지고 메시아를 중심한 국가 체제를 갖출 수 있는 안팎의 기준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원수가 된 형제가 하나되어야 된다고요. 가인 아벨의 자리에서 하나되어 가지고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시는 주님이 왕으로 온다면, 왕후와 같이 백관 대신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왕후 하나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여자들을 준비해서 그 여자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백관 대직(大職)들을 새로 결혼시켜야 된다고요. 그때까지 사탄세계의 1대를 그만두고 2대를 맞아 완전히 새로운 체제에서 결혼해 가지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 해와를 중심삼고 볼 때, 몸뚱이를 잃어버린 것이 동생인데, 그 몸뚱이 가운데 두 형제(자매)가 나와서 싸운다고요. 그것이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와야 돼요.

그래, 사가라 가정의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는 뭐예요?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인데 첩이에요. 혈통이 달라요. 어머니가 다르다고요. 알겠어요? 「예.」 혈통이 달라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머니 편이 해와, 백관 대직들을 결혼시킬 수 있는 여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의 여동생과 같은 어머니의 동생이 수없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의 왕궁에는 많은 여자들이, 궁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백제 같은 나라는 3천 궁녀라 했지요? 그게 뭐냐 하면, 전부 다 중전마마를 중심삼고 여동생과 마찬가지로요. 알겠어요? 핏줄이 달라요, 핏줄이. 핏줄이 달라야 된다고요.

예수가 여왕(아내)을 모셨다면, 그 모든 동생급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백관 대직, 6대 부처면 6대 부처를 중심삼은 백관 대직들을, 우리가 780명의 여자를 중심삼고 축복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축복해 줘야 된다고요. 그 장(長)들은 전부 다 사탄 편 천사장이예요, 사탄 편 천사장. 거짓 동생을 접해 가지고 타락했으니, 이제는 진짜 동생과 합해 가지고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귀시대에는 전부 다 본처하고 이혼하고 새로이 처녀 장가를 보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서 안 되겠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갈라 가지고... 1세, 2세는 가르게 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속세의 왕궁에는 많은 여자가 있어요. 그 왕궁의 여자가 하룻저녁에... 그 왕후가 자기 처가 아니예요. 그 여왕을 오시는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레아예요. 그래 가지고 그 동생들을 전부 다 맡아서 거기에서 왕권을 대치해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세계의 그러한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 없으면 큰일나는 거예요. 완전히 어머니로 말미암아 혈통이 달라져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여러분이 다 풀 수 없는 거라고요. 뭐 그런 얘기는 전부 다 아는 얘기지만 말이에요.

그래, 요셉 일족하고 사가랴 일족이 다르다고요. 이것이 전부 다 한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집에서 신랑이 나오고 여자가 나와 가지고, 가정문제를 해결하고 왕권을 수립할 수 있는 황족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에덴 동산의 모습을 재차 이루기 위한 청소년 순결운동

기독교가 그랬으면 전부 다... 신부 수녀들이 뭘 해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거 다 때를 맞추기 위한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비구승 비구니가 있지요? 그것도 때를 맞추기 위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런 모든 수녀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기독교의 성직자들이 전부 다 축복을 받아 가지고, 세계 지도 국가의 모범적 가정 형태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비로소 에덴 동산의 형태를 재차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2세들을 중심삼고 소생시켜 가지고, 새로이 편성한 나라를 중심삼고 세계를 전부 끌고 가야 된다고요. 거기에 1세는 관계없는 입장이라고요. 그래서 통일교회를 섞어 놓았어요. 불가피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걸 전부 다 정리해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2세를 중심삼고 다시 순결운동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2세, 이들을 중심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적인 면의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순결한 가정이 아니에요. 기성가정 축복했으니, 이제는 내적인 세계적 순결한 처녀 총각을 결혼시켜 가지고 전부 다 선생님의 동생과 같이, 어머니의 동생과 같은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동생이 둘이에요. 기성가정은 전부 다 레아 입장이고, 이걸 라헬 입장이에요. 이 둘을 엮어 가지고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씨를 어디에 심느냐 하면, 노틀(늑은이)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걸 염려해 가지고 하프(HARP; 전국중고등학교원리연구회), 타프(TARP; 전국교사원리연구회)를 만들라고 한 거예요, 교직원까지. 이것을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축복시대를 넘어서면서 청소년 순결운동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거기에 선생까지 집어넣어서 하는 거예요.

천사장 왕이에요. 하늘 편 천사장은 학교의 왕이 벌어져요. 천사장 새끼들이 전부 다 축복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그래, 가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중심삼고 정비운동을 해 가지고 학교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축복해 가지고 지상천국의 본격적인 출발이 벌어지는 거예요, 초민족적 입장에서. 일본도 이걸 해야 돼요.

원수 국가 사람들끼리의 교차결혼을 하지 않고는 평화세계는 없어

*일본 멤버, 알겠어요? 한국에서 청소년 순결운동을 하고 있는데, 돌아가면 즉시 그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예.」 그래 가지고 일본과 교차결혼을 시켜야 되겠어요. 성인과 살인마, 원수를 묶어서 축복가정을 편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은 원수입니다, 원수. 그들을 교차결혼시키는 거예요. 원수의 친족과 부모가 자기 일본 사람의 가정보다, 한국 사람의 가정보다 더 훌륭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함에 따라 거기서부터 평화로운 세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원수, 원수, 복수를 생각해 가지고는 평화의 세계 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둘의 가정이 원수예요. 그러니 서로 죽이고 쥐어뜯고, 모든 것을 넘어서 쥐어뜯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을 정도의 반대를 일본과 한국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반대하느냐 하면, 남자 국가인 한국보다 여자 국가인 일본이 더 반대합니다. 그러니 해와 국가가 큰일입니다. 뿌리가 뽑혀 버리니까, 죽을 힘을 다 해 가지고 반대해요. 서양 전체의 축복 가정을 대표해 가지고, 일본에서 납치 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대표가 되어 있다구요. 그걸 격려하고 승리하게 하는 일본 정부는 깃!

그건 미국이 가만 안 둘 거예요. 천사장이 가만 안 둔다구요. ‘이놈

의 지식! 일본의 인권 유린을 바로잡아라!’ 해 가지고, 정치적인 교환 조건으로 쓸지 몰라요. 정치적으로 인권 유린을 세계적으로 선전해 가지고, 일본 자체를 깜짝 놀라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이 지금 그런 미국 정부를 움직여 가지고, 종교 자유의 해방권을 내걸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정치적으로 짜고 ‘문선생이 코치해서 워싱턴의 종교 자유화도, 동경의 자유화도, 베를린의 자유화도, 상파울루의 자유화도 이루어졌다. 세계 평면적인 4대 종교의 자유권을 호소한 것은 문선생의 코치에 의해 되었다.’ 한다구요. 「아멘!」 아멘이 아닙니다. 일본은 새빨개져 가지고 ‘큰일이다!’ 하게 돼 있어요.

전 종교권의, 신앙 종교권의 선취권(先取權)을 선생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선주권이 아닙니다. 선취권을 잡았다는 거예요. ‘종교 자유화는 문선생에 의해서 가능해졌다. 1년간 4대 대회를 무사히 끝냈다.’ 하는 거라구요. 뭐 1백만 달러 이상 썼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상파울루 대회를 2주일에 해냈습니다. 2주일에 세계적인 유명인을 모은 거예요. 그만한 인맥 동원의 비밀을 통일교회는 갖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1주일 이내에 동원할 수 있다구요. 그런 건 미국 국무부도 못 합니다. 이런 훈련을 철저화시켜서 만일 군대를 만들었다면, 세계 제일의 군대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독일군 일본군이 따르지 못할 정병의 군대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거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만일 선생님이 그걸 해보고 싶어서 그런 군대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섭습니다.」 (웃으심) 군대도 뿔도 안 갖고 있고 가라테를 하는 사람만 갖고 있는데도 무서워하는데, 군대를 갖는다면 어떻겠어요? 세계의 지식계 교육계의 최고를 점령하게 돼 있습니다. 지식의 왕권, 군대의 왕권, 정치의 왕권은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선생님은 전

식구를 축복하여 해방권 가정의 왕이 되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참가정과 혼전순결 교육을 어머니 나라가 해야

이제 문선생이 축복가정의 왕이라고 선포한다 해도, 그걸 반대할 때는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일을... 참가정 건설과 결혼 전의 순결운동은 누구나 바라는 표준이라고 환영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반대하겠어요?

마피아나 테러단, 그리고 일본의 야쿠자는 더 난리지요. 아무리 야쿠자라고 해도 자기 가정이 붕괴되는 건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배후에서 ‘어서 해라, 어서 해라! 더 해라!’ 한다구요. 그런 가운데 돈을 원조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전부 하나같이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옹호를 받게 된 통일교회입니다.

용사의 반대는 뭐예요? 졸자인가요? 이걸 뭐 세상에 없는 군대를 만드는데 별레 같은 사람이 뭐... 알겠어요? 순결운동을 대표하는 용사, 올바른 가정 건설의 용사로서 당당히 서는 사람 앞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마리도 없습니다. 천하를 누르는 당당한 환경이 생겨나고, 환영의 손을 들어 부모의 입장에서 포용해 가지고, 만민을 180도 반대권으로 돌리는 것이 당당한 축복의 불입니다.

그러니 ‘세계여! 눈을 떠라! 일본의 어머니가 찾아간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본 국가가 축복가정을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로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일본의 전통이 아니라 하늘의 전통, 참부모의 전통을 전수하

는 거예요. 일본의 기반, 일본의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의 전통은 복수의 전통입니다. 복수라구요, 복수. 아다우치(あだ討ち; 원수갚음, 복수, 양갚음)가 그거잖아요? 여자든지 남자든지 가치가 없어지면 즉시 잘라 버리고... 그거 안 됩니다.

칼을 놓지 않으면 원수가 없어지지 않아요. 원수가 자신의 하인이 아니라 종이라도 되어서 기꺼이 봉사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이상의 승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밤에 감추었던 것을 낮에 가지고 와서 통일교회 신앙의 선배에게 바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승리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훌륭하지요? ‘스바라시(すばらしい;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스(す)’는 뭐 신 건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ば)’는 나쁜 아버지를 본떠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웃음) 신 것을 노인들은 다 싫어합니다. 아이들은 싫어하지 않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라(ら)’는 뭐예요? ‘라파(らっぱ: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하지 않는 자는 전장에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し)’는 뭐예요? 주(しゅう;主)를 따르는 자는 천지가 같이한다, 천하가 친구가 된다는 뜻이라구요. 주의 이름을 말하는 자는 하늘도 땅도 부모도 친구도 감동해서 자기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스바라시’라구요. 가정에서 그런 해방의 주를 호소해서 훌륭히 자신의 책임을 다 하고, 나팔 소리를 듣고...

‘바(ば)’는 할머니(ばあさん)을 잃어버린 해와의 모든 것을 완성하라는 뜻입니다. 실패한 해와가 완성한 할머니가 되어 영원히 모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스(す)는 ‘스빠갔다(すばかった; 시다의 과거형)’는 달디단 설탕산의 분화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분화구를 연구했나? 감동해서 ‘아-’ 하니... 너, 분화에 대해서 좀 아나? 정치계잖아? 「철학계입니다.」 그런 노력을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스바라시(멋진)’ 일이 있도록...

기독교와 미국 선교사들이 하나돼 주님을 모셨더라면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전세계가 통일되는 거예요. 그때 연합국가, 추축국가는 뭐 벌써 하나되어 있었어요. 지상 천상 결혼식이 시작된 거예요. 1945년에 선생님은 기독교의 반대를...

이화여대와 연세대학의 남녀학생 퇴학 사건이 일어나서 선생님 붐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환영하는 언론계는 어떻게 해 보려고 했지만, 기독교가 서로 반대하는 걸 보고 전부 뒤로 빠지고, 선생님 혼자 대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입장이 되었어요. 그 책임은 미국의 군사정권에 있습니다. 군사정권이라도 종교 자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한국이 그런 종교의 혼잡으로 인해 난리가 벌어졌을 때 선생님의 말을 들었더라면, 종교 통일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중국소련일본미국에 흩어져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전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알겠어요? 크리스천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구요. 해방과 더불어 중국에서 돌아온 김구 선생이나 미국에 가 있던 이승만 선생도, 일본에 와 있던 사람도, 공산당이었던 소련에 가 있던 사람도 전부 종교권이었다구요. 그런데 그 종교 분쟁과 분열에 의해서 종파가 갈라지고 파벌이 점점 심해졌던 거예요. 그것을 미국의 군사정권이 분석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고 있을 때 선생님이 나와서 전부 통합시키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류 종교는 전부 준비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하나가 되었을 때는 큰일입니다. 그것을 미국의 선교사도 반대했고, 미국 정부도 반대했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 통일교회는 반대의 태풍에 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만일 옹호하지 못했을 때는 큰일이라구요.

당시 연세대학과 이화여대는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남자 여자들이 전부 모이게 되어 있어요. 4대 종교단체가 전부... 그들 대학교에 미

국 대륙의 선교본부가 전부 원조해 가지고, 일년에 35만 달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의 김활란이가 선교사에 대해 반대하게 되면 큰일이니, 어쩔 수 없이 눈물을 삼키면서 이 일을 성립시키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반대의 희생이 돼 가지고… 알겠어요? 세계적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두 반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국민도 동요해 가지고 전체가 반대해요.

여기에서 선생님은 통일입니다. 가정 통일… 그때 선생님은 이미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과 씨족을 걸고, 부부의 씨족권의 기반을 넘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국가적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런데 전부 반대하고 쫓아냈습니다. 국가가 쫓아내니 씨족이 남아나질 않고, 씨족이 쫓아내니 가족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가족이 전부, 씨족과 더불어, 민족과 더불어, 친족과 더불어 가족이 분열되어 홀로 된 몸이 되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같이, 지상천국에서 쫓겨난 가정의 왕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만일 여기에서 나라가 군사정권이었다면 일주일 이내에 국가 종교가 되었을 거예요. 뭐 종교권의 독립운동을 한 것이 기독교의 전통정신이기 때문에… 미국은 뭐 전부 크리스천이잖아요? 자신의 보자기를 찢어 버리고 축복을 받았다고 흥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진 원리를 갖고 있으면서 무슨… 이화여대도 뭐 전부 무너져 갔기 때문에… 그거 이론적이라구요.

만일 거기에서 환영하게 되면 큰일입니다. 일본이 큰일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이거 3년 이내에 정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소생·장성권을 중심삼고, 통일 한국이 48년 이스라엘의 장성권으로서 미국의 보호 아래, 반대하는 기독교의 나라 미국의 보호 아래 지금까지 이끌어 나온 것입니다.

모든 기반이 파괴된 상황에서 40년 동안 혼자 이뤄 나왔다

40년 간 미국이 한국을 잘라 버렸을 때는 천운에 반발하는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심적인 지도자들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 나왔던 거예요. 아시아에 있어서, 세계에 있어서 40년의 역사를 거쳐 원조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를 원조했지만 전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한국 한 나라만이 미국의 원조 기반 위에 성공의 기준으로 남아진 것입니다. 그것을 재차 아이 엠 에프(IMF;국제통화기금)로 친 거예요. 일본과 함께, 동서양이 함께….

그러면 천사장권이, 해와가, 그 자녀가 전부 하늘의 법을 짓밟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완전히 선생님을 쫓아낸 거예요. 세계적인 박해권에 내몰아 가지고, 어디 가도 선생님은 설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둘로 갈라 세웠던 것입니다. 동양 서양의 문화, 지상 천상의 문화, 국가적인 남북 분할, 씨족의 분할, 가정의 분할, 부자관계의 분할… 전부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탄을 대해 선생님은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가정의 지상천국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해방의 만세를 부르고 난리를 쳐도, 선생님은 한 번도 만세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공식석상에서 만세를 불러 보지 못했다고요. 하나님 만세, 참부모님 만세, 통일교회 만세, 이것은 나라를 못 따릅니다. 사회입니다. 통일국가 만세를 불러야 돼요. 그런 선생님의 한을 어떻게 느끼느냐 이거예요. 그런 운명권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알겠어요? 「예.」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본말은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하자구요. 「예.」 그 말이 무슨 말이나? 이화

여자대학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애국운동을 한 사람들은, 중국에 가 있으나 소련에 가 있으나 미국에 가 있으나 이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의 진리를 가진 모든 성경의 비밀, 이 모든 주류사상에 대해 확실한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이 싸우지 말고 연합운동을 해 가지고 새로운 교파니까 한번 만나서 들어 보자고 했으면….

열렬한 기독교 신앙인이었던 성진 어머니

성진이 어머니도 지하 기독교 운동을 하는 총사령부에서 일했다구요. 그걸 여자가 했는데, 거기에서 둘째 번 책임자였어요. 알겠어요? 영계에서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여자라구요. 지금도 받고 있을 거라구요.

그때 기성교회가 반대 안 했으면 말이에요, 통일교회가 이런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반대하지, 나라가 반대하지, 가정이 반대하지… 성진이 어머니는 하루에 성경을 다섯 장씩 안 읽으면 밥도 안 먹고 자지도 않았어요. 틀림없이 주님이 올 때가 됐으니 전부 다 오라고 해 가지고, 재림주는 구름 타고 온다고 해서 구름이 끼게 되면 문을 열고 이렇게 바라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열렬한 것은 통일교인은 1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대단한 여자예요. 하는 말이 ‘통일교회 문선생이 그러한 분이었으면 왜 발바닥에 흙을 대게 하느냐?’ 이거예요. 현실이도 들었겠구만. 들었어? 만나 봤나? 생각나? 「만나 봤습니다.» 현실이! 「예.» 성진이 어머니 생각나? 「생각나지요. 같이 살았잖아요?」 응? 「같이 한 집에서 몇 달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그렇잖아?

‘당신이 모시는 문선생이 그분이라면 왜 발바닥에 흙이 묻게 하느냐?’ 그거예요. 자기가 했다면, 전부 다 일생 동안 앉아서 떡게끔 벌어서 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다구요. 사실 그런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

람이에요. 그거 틀림없는 사람이라구요.

이거 뭐 이혼한 여자를 칭찬하니... 잘사는 여자 칭찬해도 바보라고 하는데, 이혼한 여자를 칭찬하니 그건 뭐 정신이 돌았지요. 그렇지요? 정말이라구요.

여자 중의 여자로서 훌륭한 참어머니

어머니가 훌륭한 것이 그거예요. 뭐 이혼한 것을 듣기를 했나, 보기를 했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말이에요, 세상 같으면 말만해도 죽겠다고 할 텐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된 여자인지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구요.

성진이가 있는데 어떻게 무시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 손자들에게는 할머니인데, 큰할머니 될 수 있는 성진이 어머니하고 작은할머니 되는 어머니가 둘이 싸우면 안 돼요. 하나의 할머니로서 소화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상관없더라도 아들딸을 중심삼고 관계되어 있는 주장을 하게 된다면, ‘누구 아들이야?’ 할 때는 ‘그분은 나와 상관 없습니다.’ 이래야 된다고요. 꿈에도 전부 다 복을 빌어 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되지 않고는 걸린다고요.

내가 한마디했더니, 일생 동안 생활비를 대 주고 집을 세 번씩이나 갈아 준 거예요. 그 집을 내 허락 없이는 못 사는 거거든. 안 그래요? 하도 궁금해서 집이 어디냐고 물어 보지도 않고, 문사장이 알기 때문에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는데, 그때 어머니를 불렀어요. 나하고 어디 좀 가자고 말이에요. 어디 가느냐고 해서 가면 안다고 하고 그냥 데리고 갔어요.

세상에 그런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꿈에 다시 생각을 해도 무서울 텐데 말이에요, ‘나서라구.’ 해서 같이 갔다고요. 가 가지고 해질 녘에 집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그 집이 누구네 집이

나 하면 성진이 어머니 집이라고 했어요. 세상 같으면 뭐 벼락이 떨어지고 야단이 벌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 그러세요? 난 더 좋은 집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마음이 아프네요. 앞으로 더 좋은 집을 사 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머니는 패스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 자격을 갖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 아들딸이 갈 때, 어머니와 우리 아들딸을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이면 열 번 저주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어머니에게도 그렇고, 성진이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는 일을 누가 막아 줄 것이냐? 내가 해야 할 터인데... 지금까지 그 수고를 한 거예요.

요즘에 내가 한번 만나자고 통고를 해서 만날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성진이 어머니를 만나야 할 텐데, 준비하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만날 준비가 완전히 됐으니 만나고 싶은 시간 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여자 중에 이런 한국 여자가 있을 수 없다 이 거예요. 내가 바람을 피우고 그런 것은 아닌데 말이에요. 알겠어요? 해방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훌륭한 어머니예요. 뭘 주라고 했더니 자기 반지까지... 내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 왔어요. 3천7백 달러인가 주고 사 왔어요. 그때 돈으로 그거 비싼 거라구요. 내가 여비로 가져간 7천 달러를 안 쓰고 사 왔다구요. 그래 가지고 8백 달러인가 1천2백 달러를 남겨 왔어요. 그걸 어떻게 했는고 하니, 식구들이 순회한다고 비용을 대 주고 그래 가지고 올 때 기념으로 타이거 무비 카메라를 사 가지고 왔는데, 그걸 지금 누가 도둑질해다가 쓰는지 모르겠다구요.

선생님이 왔다고 해 가지고 모여 온 사람들이 한푼 한푼 가져온 그것으로 비용을 썼어요. 3등 호텔을 찾아다녔어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은 일쭉고 말이에요. 그런 놀음을 했다구요. 여행 중에 제일 비참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하루 벨기에에서 제일 비싼 호텔에 들었어요. 그

때 돈으로 방 하나에 380달러더라구요. 그거면 내가 열흘을 지낼 텐데 말이예요. 그렇게 지내고 돌아오는데 그것이 아쉬웠던 생각이 지금도 기억 난다구요. 나 그렇게 살았어요. 잘살았어요, 못살았어요? 여러분은 암만 어렵더라도 그렇게는 안 살았을 거라구요.

죽어 가는 사람을 살려 주기 위해서는 별의별 일을 다 해야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아버지고, 제일 무서운 시아버지예요. 알겠어요? 거기에 마음 맞춰 가지고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말없이 명의를 옮겨 줘 가지고 증서만 넘겨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아들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선생님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중심삼은 모심의 도리, 효자의 도리라고 믿고 나오는 선생님의 생애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럴 수 있는 놀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백 번 죽으라고 하면 천 번 죽어야 돼요. 천 번 죽으라고 하면 만 번, 영원히 죽겠다고 해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고 이 일을 하라고 통고하고 못 살게 했던 하나님이 말이예요, 복 받는다고 축복해 놓고는 감옥에 처넣던 하나님이, 이제는 일하겠다고 하면 일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뒤를 따라온 눈물자국이, 하나님의 눈물자국이 나 있다는 거예요. 천하는 거기에 엄숙히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은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멀어요?

선생님은 노숙도 많이 했어요. 찬 마루에서 자면 설사를 하는 거예요. 별의별 놀음을 다 겪었어요. 탕감길이 이렇게 모질고 험한 길입니다. 알겠어요? 「예.」 감옥에 들어가서 별의별 놀음을 다 한 거예요. 죽어 가는 사람을 살려 주기 위해서는 눈물도 흘리고 별의별 놀음을 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동생 이상, 부모 이상 위해야 돼요.

내일이면 갈 것이 틀림없는 사람에게 내 밥을 안 먹고 쥐도 못 먹어요. 그 밥을 먹다가 죽어 가면 입에서 그걸 꺼내 먹겠다고 싸움하는 세계예요. 그런 세계에서도 그들이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내 일을 돕겠다고 한 무리가 얼마든지 있었다구요.

내가 가는 데는 죽어 가는 사람이라도 서로 앞장서서 따라가겠다고 한 거예요. 왜? 일하기 편하니까. 하루에 1천3백 가마니가 책임량인데, 그 가마니를 내가 혼자 다 올렸어요. 챔피언입니다. 3미터 이상 되는 자리에 딱딱 떨어뜨려야 돼요. 암모니아 산을 혈어 가지고 하루에 1천3백 가마니를 담아서 옮기는 거예요. 난다긴다하는 사람도 7백 가마니 책임량을 하기도 힘든데 말이에요. 이거 뭐 큰 산 같아요. 그걸 전부 다 묶어 가지고 도로꼬(운반차)에 실어 가지고 옮겨갈 수 있게끔... 그제 소련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책임하지 못한 한 때가 그런 억울한 역사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한 때예요. 순간이에요, 순간, 순간, 순간! 알겠어요? 순간의 한 때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억천만세의 한이 맺힌 거예요.

기독교가 재림주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돼 나갔더라면

아담 해와가 타락한 하루의 사랑의 실수가 몇억천만년 하나님을 탄식권 내에 고랑을 채워 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나라가 생겨 가지고 축복했다면, 이 축복의 내용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러면 일본 나라 같은 것이 해와 국가가 될 게 뭐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패전국으로서 2차대전에서 손해난 것을 전부 다 변상해야 돼요. 그런 모든 것도 선생님의 공이 크다구요. 알겠어요?

한 때의 실수, 지금 말하는 이때, 이 한 때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생님은 피해 안 받아요. 다 갈 길을

가려 놓았어요.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선생님이 명령한 것을 위해서 충실히, 선생님이 떠나더라도 자기들이 검토하고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랬으면 말이에요, (판서하시며) 선생님의 가정을 중심삼아 가지고 나갔으면 말이에요, 문씨가 하나됐겠지요? 문씨가 원수예요. 연세 대학에서도 문 누구예요? 문희성이던가? 「문상희입니다.」 아까 문상희 있었지요? 그것도 탕감복귀입니다. 문상희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대학이 그렇게 반대한 거라구요. 알겠어요?

그리고 문교부장관이 통일교회 등록을 안 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문희석이에요. 또 공산당 대표 문익환이 있어요. 김일성을 만날 때 20리 밖에서 전부 배밀이하면서 경배했지만, 문선명은 가서 친구같이 해 가지고 김일성과 뒷짐지고 사진까지 찍고 끌고 다녔다구요. 역사 이래 처음으로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어요.

보라구요. 옥세현 할머니가 출발한 것도 문씨 할머니의 은혜를 받아 가지고 그런 건데, 그 문씨 할머니가 반대한 거예요. 야! 가인 아벨이 틀림없어요. 문씨 가운데 제일 나쁜 사람이 있어요. 문익환! 남한에서 공산당의 괴수 아니예요? 데모하고 그랬다구요. 「문세광이도 있습니다.」 문세광이도 있고, 다 있어요. 아주 지독하다구요.

사탄세계가 깨지겠으니 문씨를 사탄이 채가는 거예요, 자기편에 실력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싸움 좋아하는 패들이예요. 알겠어요? 옥먹고 가만히 있는 머저리 같은 것은 전부 다 하늘 패예요. 나 머저리 됐어요. 옥을 먹고도 가만히 있고, 매를 맞고도 가만히 있어요. 이런 역사를 말하면 전부 다... 통곡이 나올까 봐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성격이 얼마나 무서운 성격이에요? 선생님이 무서운 성격인 줄 알아요? 「예.」 그건 틀림없지요? 「예.」 무골충입니다, 무골충. 동네북 놀음을 해 나왔어요. 그것이 망하면 수가 난다는 거예요, 수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참고 나왔어요.

그러한 역사적 모든 갖추어진 기반 위에 서 가지고, 그 은덕을 보상 하겠다는 마음이 없어 가지고는 벌을 받아요. 통일교회를 잘 믿던 사람들도 나쁜 병에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거 그런가 안 그런가 알아보 라구요. 자, 알겠어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온다는 것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최씨예요, 최씨. 성진이 어머니가 최씨지만, 그 집안이 정주군에서는 기독교를 먼저 세운 조상 집이에요. 그 집 터 위 에 큰 예배당이 있어요. 최씨 하게 되면, 최씨 교회 하면 유명하고 말 이에요, 이름 있는 그런 집안이었다구요.

거기에 중심 장손과 같은 그 집의 아가씨의 남편이라는 것이 뭐 재 립주가 사람으로 온다고 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구름 타고 올 날이 가까워 왔는데 재림주가 사람으로 온다고 하니 그 얼마나 야단을 했겠 어요? 그 어머니로부터 야단이지요. 그 딸들이 얼마나 드센지 몰라요. 전부가 그 면에서는 아주 열렬 패예요.

결혼한 후에는 나를 대해서 말하게 되면 못 당하니까 아예 마을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런 역사를 거쳐왔다는 거예요. 그거 참 역사지요. 결혼할 날이 4월 27일인데 결혼하기 일주일 전 에 장인이 죽었어요. 그거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꼭정환! 「가셔야 되겠습니다.» 왜? 「일단 정해져 있으니까요.» 탕감을 받아야 돼요, 탕감.

그러니 할 수 있어요? 날짜를 정했지만 그럴 수 없으니, 시집을 날 을 5월 4일로 정했어요. 그 날은 또 봄비가 내려요, 시집오는데. 세상 에! 전부 탕감이에요, 탕감.

성진 어머니가 야-, 무서워요.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 벌써 (영계로 부터) 반대로 받아요. 딱 반대로 받는 거예요. ‘당신은 저리로 가려고

하지요? 나는 이리로 가겠습니다.’ 이렇다구요. 야-, 무서울 정도예요!

그 다음에 ‘문씨의 핏줄을 안 받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문씨의 핏줄을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사탄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그러라고 했어요. 성진이는 뭐 낳았지만 말이예요. 그런 신앙이에요, 그 여자가.

2천년 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 수밖에 없다는 말을 어떻게 무엇으로 표시하겠어요? 2천년 전에 무엇으로 표시하겠어요?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비행기 타고 온다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명년에는 전세계 40개국을 돌려고 그러합니다, 비행기 타고. 제일 좋은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비행기를 타야 되겠어요, 중등급을 타야 되겠어요, 말등급을 타야 되겠어요? 「제일 좋은 비행기를 타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비행기가 없으면 어떡할 테예요? 빌릴 거예요, 살 거예요? 자, 똑똑히 얘기해요. 빌릴 거요, 살 거요? 「사야 됩니다.」 돈은 누가 대고?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주님이 올 때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오나요? 누가 만들어야 돼요? 해와 국가와 아담 국가, 가인 아벨이 준비해야 돼요.

비행기를 사고 비행기 회사도 만들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해 가지고, 왕궁 대신 여왕을 모시고 백관 대직의 결혼식을 준비해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추어 가지고 오시는 그 왕을 천하에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왕을 모셔 가지고, 그가 가는 길에는 기세당당하게 로마도 새끼발가락만큼으로도 여기지 않고 밀어 댈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임자네들이 그렇게 됐어요? 이번에 비행기 계약했던 거 물었어요, 지금 뒤렸어요? 「아직 미결 상태로 있습니다.」 그거 돈은

누가 댈 거예요? 내가 대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사야 되겠어요? 그거 얼마인가? 세계 국가가 합해서 그 비행기 하나 사야 되겠어요, 안 사야 되겠어요? 「사셔야 됩니다.」

이거 물어 보라구, 아메리칸 멤버들에게. 그 비행기를 사야 되겠어요, 안 사야 되겠어요? 비행기를 사야 되겠어요, 안 사야 되겠어요? 어디 갔어, 효율이? 「예.」 통역을 왜 안 하나?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통역을 하고 있어? 「홍경배 씨가...」 「제가 하고 있습니다. (홍경배)」 잘 하나? 「예, 잘 합니다. (김효율)」 그런데 내가 물어 봐도 다들 대답을 못 해? 효율이가 하면 대답하던데. (홍경배 씨가 영어로 다시 통역함) 「사야 됩니다. (미국 멤버들)」 누가? 미국에서 살 거예요? 장자권 나라가 부모님이 탈 수 있는 비행기 하나 사 줄 만해요, 안 사 줄 만해요? 「사야 됩니다.」 응? 「예.」 여러분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예스!」 (박수)

그러면 2천5백만 달러, 2천5백만 달러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어? 「내년 한 4월까지입니다.」 그렇게까지? 그렇다면 이 사람들 신세 질 게 뭐 있어? 내가 다 물어 대지 뭐. 끌고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끌고 가 보라구. 지금부터 70일 이내에 2천5백만 달러를 만들 수 있어요? 답변해 보라구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답변해 봐요. 닐! 「예.」 임자 얼굴이 안 보이네. 임자가 닐 맞아? 「예.」 닐은 뭐냐 하면, 니드 니드 포에버(need need forever;영원히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니이일 하는 그 소리가 비슷해요. 닐은 뭐냐 하면, 비행기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라구(닐 민스 니드 에어플레인;Neil means needs airplane!)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박수) 주동문, 닙아 치라구! 주동문! 「예.」 닙아 치라구.

자, 여러분이 못 하겠으면 일본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일본의 후원을 받으면 좋겠어요, 장자권 혼자 해야 되겠어요? 「혼자 하겠습니다.」

혼자? 미국 혼자? 왜 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예스!」 더 큰 소리로 해 봐요. 「하겠습니다!」 이거 저녁인데 내가 졸음이 오다가 갑자기 놀라서 깨다 보니 넘어질 것 같구만.

자, 비행기 사 줬어요. (웃음) 주동문이는 이거 못 하면 벌받아야 돼. 약속해! 일어서서 약속하라구, 선생님이 하라고 했다고. (주동문 씨가 영어로 설명함)

비행기 회사 이름이 뭐예요? ‘워싱턴 타임스 파운데이션 에이비에이션’입니다. 이미 비행기 회사를 만들었어요. 지금 첫 번째 비행기도 그렇고, 두 번째도 척 나서면 복도에 ‘워싱턴 타임스 파운데이션 에이비에이션’이라고 딱 박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워싱턴 타임스 파운데이션 에이비에이션이라구요. 그거 미국 비행기 됐어요. 미국 비행기예요. 미국이 하나 안 사면 안 된다고요. 미국 비행기 회사가 그 책임을 해야 돼요.

일본과 한국은 지금까지 첫째, 둘째 번을 했어요. 그거 남아진 것이 뭐인가? 글로벌 익스프레스예요. 이것이 미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인데, 널 살로닌은 제일 싫어할지 모를 거라, 돈 내야 되니까. 「아버님께 사 드리고 싶습니다. (널 살로닌)」

그 다음에 일본 사람! 이거 계약을 일본을 믿고 했는데 빼앗겼으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응? *가미야마는 계약한 거 알고 있나? 「예!」 일본을 믿고 그렇게 계약했는데, 미국에 빼앗기면 어떻게 할 거야? 일본의 선취권을 빼앗겨 버린다고. 그거 싫어, 좋아? 「싫습니다!」 크게 말해. 미국 사람들은 귀가 멀었으니까. 싫어, 좋아? 「싫습니다!」 큰소리로 대답하라는데 왜 쳐다보고 있어, 이놈의 자식! 「싫습니다!」 저쪽에서 웃고들 있어요. 똥들 하는고 하고 말이에요. 모르니까 알게끔 하라는 거예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어서 말해. 네가 말해야지. 그거 전수하고 싶지 않다고 싸우라는 거야. 이긴 쪽이 하는 거야.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미국 멤버와 일

본 멤버가 서로 하겠다고 큰소리로 외침) 둘다 파이팅, 파이팅! 알겠어요?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준비해서 선생님한테 갖고 와요. (웃음) 집을 팔아도 좋고, 아내를 팔아도 좋고, 자식을 팔아도 좋아요. 뭐라도 팔아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경쟁해서 지면 뭐...: 일본은 머리가 결정하면 전부 할 거예요. 확실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선생님이 정말 비행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비행기는 언제 엔진이 멈출지 모르잖아요? 절대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절대 안정!」 안정은 비행기를 타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웃음)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도 아닌데, 일본말이 안 통하니 이상하네. 그렇잖아요? 그런 거 선생님한테는 안 통합니다.

자, 싸웠으니 내일부터 같이 경쟁해서...: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한다면, 한 대 더 사도 돼요. (웃음) 그런 결과가 되었으니 뭐 한 대가 문제 아니에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미스터 주, 문제없을 거라구. 두 나라가 서로 자기들이 사겠다고 하니만큼 비행기 두 대도 문제 없다 이거예요. (웃음)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박수해야지! (박수)

자,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게 되면 기분상으로도 좋다고 ‘그러면 그렇지!’ 이럴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나 그거 둘 다 필요 없습니다. 고아원에 주겠습니다.’ 해서 ‘야, 그러면 안 된다.’ 하게 되면 안 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을 지경으로 해보라구요. 그것을 해서 전부 다 세계를...

요전에 학교에 9천만 달러를 기부했더니, 미국이 깜짝 놀라 가지고 ‘레버런 문!’ 이래 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여기 비행기 두 대 살 것을 전부 다 고아원에 기부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나 비행기 필요 없어요. 비행기 필요 없다구요. 좋은 비행기 필요 없어요. 비행기 탈 적마다 나는 자는 거예요. 알겠어요? 언제나 피곤해요. 차를 타는 시간은 자는 시간이요, 비행기 타는 시간은 자는 시간이

라구요. 그러니 좋은 비행기가 필요 없어요. 그렇다구요.

자, 그러니까 생각대로 해 가지고... 서로 사겠다고 싸우려고 하기 까지 했으니 우선 두 대는 사고도 남을 것이다 이거예요. 자기 집들을 팔고 전부 다... 그렇다고 갱스터(gangster; 갱단원)가 되어 가지고, 마피아와 같이 협박하지는 말라는 거요. (웃음) 갱스터가 나와 가지고 '레버런 문이 그런 선서를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에 불타는 사나이들이 은행 갱이 되어 가지고 비행기 열 대를 샀다.' 하면 별받아요. 별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자우, 말자우? 넘어가기를 원하면 박수하고... (박수)

4천년 역사를 40년 동안에 탕감복귀해서 자르딘에 상륙하게 됐다

(판서하신 걸 가리키시며) 여기에서 해방이 벌어지면 통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어진다구요. 알겠어요? 종족 축복, 민족 축복, 세계 축복, 전부 다 통일천하를 이루는 거예요. (판서하시면서) 이것을 이 선을 중심삼아 가지고 연장해서 보면 이와 같은 것이 돼요. 가정 복귀, 종족 복귀, 민족 복귀, 국가 복귀, 세계 복귀가... 이걸 짝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가 다 포괄돼요. 이런 각도가 되면 수직이 돼요. (판서하시면서)

동서가 통일, 상하가 통일, 전후가 통일이라구요. 그런데 여기서 이 걸 못 했다구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쪽으로 쫓겨났어요, 혼자. 하늘땅을 통일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동서 문화의 자주 통일할 것을 다 잃어버렸고, 한국의 통일을 다 잃어버렸고, 일족의 통일을 다 잃어버렸고, 가정까지, 부모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홀로, 홀로 광야시대에 모세가 애굽에 가서 준비하던 그 놀음을 하면서 40년 동안 다시 상륙작전을 한 거예요.

(판서하시면서) 그러려면 4천년의 수난을 탕감해야 돼요. 40년 간

에 개인 탕감시대, 가정 탕감시대..., 8단계의 탕감시대를 전부 다 넘어와야 돼요. 이와 같은 8단계를 탕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하던 것과 같이 늙은 계시 받는 할머니들을 통해서 거기서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륙작전을 해 가지고 별의별 것을 다해서, 세계적인 이런 기준까지, 40년 동안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판서하시면서) 선생님하고 하나님을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 다시 찾아 올라가서 개인 점령... 전부 다 이걸 점령해 버려야 돼요. 여기서 축복을 못 했으니 세계적 축복권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선생님이 여기서 길을 닦아 가지고 여기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 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축복시대에 자르던권에 이르러야 된다고요.

(판서하시면서) 탕감복귀! 개인 시대, 가정 시대, 종족 시대... 세계 축복화 시대를 중심삼고 사탄 혈통을 단절하지 못한 것을 여기에 와서 단절해야 돼요. 여기서 못 하지요? 이것을 여기에 와서 찾아 가지고 이기고 올라가야 될 길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올라왔던 것을 전부 다... 여기서 안 된다고요. (판서하시면서) 타락한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가 아니에요. 새로운 자리, 반대되는 자리에 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르던 40일수련은 가정적 자격을 인정해 주기 위한 것

여기는 뭐냐 하면 천주적 메시아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적 메시아, 재림주지요? 그 다음에 국가적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 가정적 메시아, 전부 다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전체를 하게 되면, 개인 메시아, 가정 메시아, 종족 메시아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대표한, 하나님과 천주를 대표할 수 있는 승리한 메시아를 모셔 가지고 여기 한

집에서, 집에서 그것이 통일되어야 돼요. 그것이 세계평화이상가정교육
본부예요. 여기에 다 오는 거예요, 여기에 다.

*알겠어요? 하나님 뒤에 재림주, 국가적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 가
정적 메시아예요. (판서하시면서) 이게 줄서서 들어가야 됩니다. 전부
가 한 곳에서 승리의 결정을 이루고, 천국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알겠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비로소 역사 이래 없는 가정적 수련회예요. 천국
들어가기 위한 가정적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고, 부모와 국
가적 메시아 뒤를 따라갈 수 있는 합격한 가정적 자격을 인정하는 거
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전에 지상천상천국 문을 전부 다 개문했지요? 개문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여기에 합당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야 한
다는 것을 자르던 선언을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 여기에 참석 안 한 사람은, 이 수련에 빠졌으면 돌아 가지고
선생님이 없더라도 자기들이 모여 가지고 대신 그런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 기간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위해서 선생님은 2세를 세웠어요. 아시겠
어요? 2세예요, 2세. 1세에 못 했으니 2세권으로 들어가야 돼요. 3세
권, 앞으로 3시대, 3세권인 손자시대에 못 들어가면 영영 그 다음에는
간혀 버립니다. 3대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요. 1대에 끝나야 되는 거예
요, 그게.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 준 거예요. 사진을 찍고 혼자 돌아갈 수 없
어요. 일본 나라하고 한국 나라는 형제예요. 자매 관계예요. 앞으로 그
형제 된 가정들은 자기 일족끼리 결혼하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알겠어
요? 일본 사람이라도 일본 사람하고 결혼 못 해요. 자매결연을 한 한
국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통일적인 나라가 나타
난다 하는 결론이 나와요. 알겠어요?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하나돼 반대 없이 나가야 되는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통일교회가 일본과 한국이 하나의 체제 내에서 한 나라로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하는 날에는 미래의 자기 후손이 설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막혀 버려요. 알겠어요?

그걸 일본 나라가 원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나라가 원해야 될 것 같아요? *대답하라구요. 「일본이 원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장래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어머니가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모든 것을 어머니가 책임지고 수습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의 천적인 법칙입니다. 천적인 철칙이라구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한국의 책임자가 일본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전통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자녀와 함께... 큰일이 라구요. 그거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해요. 확실히 대답하라구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 볼 때, 옆에서 입을 삐죽삐죽 하다가는 전부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끔 확실히 가르쳐 주니 방비해 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선별해서, 한국과 합쳐 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형태도, 그림자도 보고 싶지 않은 결과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세계의 메시아는 하나님의 뒤를, 국가 메시아는 세계 메시아의 뒤를, 종족 메시아는 국가 메시아의 뒤를, 가정 메시아는 종족 메시아 뒤를 따라 줄서서 들어가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게끔 해야 됩니다. 여기에 사탄은 없습니다. 사탄 대신 반대했을 때는 그건 사탄의 혈통이니 처

치해야 됩니다. 그건 탕감의 세계가 아닙니다. 속결 판결입니다. 속결 속판이라구요. 탕감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탕감이 있어요? 속결 판결함에 따라서, 전체가 그 법칙에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이름의 형태도, 그림자도 없는 거라구요. 선조가 처치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손을 쓰지 않으면 선조가 처치해 버립니다.

많은 유명인들이 통일교회를 반대하다가 죽어가잖아요? 그거 선생님이 기도하는 시대에 들어갑니다.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확실히 할 거예요? 여기에 와서 축복가정, 만민의 가정은, 여기 전체의 가정은 이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전체의 축복가정이. 그리고 여기(판서하시면서)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영계 축복가정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사탄적인 가정이 천적인 가정 이상의 아벨 가정 입장으로 바뀌고 동시에, 타락한 천사장 가정 대신 영계의 선조들이 승리한 완성의 천사장 가정으로서 가정적으로 보호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를 영계 전체가 보호하는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론적으로 가정 탕감복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런 이론, 그런 원리적인 관점에 있어서 전체를 단 하나 선생님이 대표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국가 메시아 대표요... 전부 대표하는 거예요. 천주까지도 대표합니다. 이전에 주인과 소유권이 하나되었을 때는 전체를 대표한다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올라가는 거예요. 메시아를 중심삼고 국가 메시아를 여기에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갈 길도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알겠어요?

이것은 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평면적이예요, 평면적. 그러니 탕감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쇠파이프 같은 걸 떨어뜨리면서) 것과 같아요. 승리한 탕감의 길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해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조 당시의 하나님처럼 절대신앙·사랑으로 재창조의 길을 가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출발한 기준에 있어서 가정 전체가 횡적으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걸 평면적입니다. 이걸 뭐 점점 넓어집니다. 점점 좁아져 가지고 ‘아, 싫다!’ 하게 돼 있지 않아요. 서로 양보하고, 매일 돌고 돌면서 여기에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신앙이 필요합니다. 절대신앙이라구요. 하나님의 천국에 재차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신앙이 필요해요. 출발의 기원이 절대신앙입니다.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신앙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했으니 절대신앙을 가진 상대자가 여기에 성립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신앙 뒤에는 절대사랑이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생사의 문제를 중심삼고, 생명을 걸고 가는 데 있어서 죽어도 좋다고 할 수 있는 절대신앙을 갖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 사랑의 실체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봐도 그렇지요? 결혼식한 날, 여자가 마음 몸과 더불어 자기를 절대 믿을 수 있느냐고 물을 때 영원히 믿는다고 말하지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사랑의 본심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도 남자도 같은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심정권에는 절대사랑이 부착되는 거예요. 심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생명의 싹이 텄을 때 그것을 누가 키워 줄 것

이나? 하나님이 투입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점점 점점 커 가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100만큼 투입한다고 한정했을 때는 100 이상이 되면 그 이상 투입을 못 합니다. 그러나 투입한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점점 점점 커 가는 것입니다. 만물 창조의 때에 그 주인이 그런 마음으로 상대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고 투입하고 잊어버림으로써, 영원히 투입하고 잊어버림으로써 대우주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론적인 결과에 도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전부를 포용하고도 남을 수 있는 천적인 사랑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한히 투입했을 때는, 창조된 본체가 무한의 힘을 갖는 것입니다. 절대 무한의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는 절대 유한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공권이 되면 태풍이 부는 거예요. 완전 진공이 되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떨어졌을 때는 천하가 뒤집어집니다. 위의 것이 밑이 되고, 밑의 것이 위가 되어 완전히 섞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운동이, 영원한 무한대의 운동이 시작되어 무한히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주 형성의 평균이 이루어져 우주는 영원히 존재를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한국 사람 알았어요? 윤태근! 「예.」 알았어? 일본에 몇 달씩 가 있지 않았어? *여러분이 싫어도 일본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의 뒤만 따라오면 됩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여러분은 선생님 뒤만 따라오면 돼요, 죽겠다고 하지 말고.

절대신앙·사랑·복종으로 참부모를 끌어안고 따라오라

여기서 절대신앙을 가지고 선생님을 중심삼고, 선생님 몸뚱이에 착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가는데 파리

한 마리가 옷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못하게 글루(glue;접착제, 풀)를 발랐어요. 절대 글루를 발라 가지고 날지 못하게 딱 해 가지고, 한국에 가서도 문을 연다고 날아가지 않고 달라붙어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벗고 자게 될 때,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굴러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방안에 떨어지면 한국 나라 메시아의 왕궁에 있는 파리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예.」

떨어지지 말라구요.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떨어뜨리려 해도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발길로 차든 밭 하든, 손이 떨어지든, 발이 떨어지든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발가락이 한두 개 떨어져도 새끼는 칠 수 있잖아요? 알겠어요?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만 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짝이 다시 터 나왔으니 길러야 될 것 아니에요? 길러야 할 그 아들딸이 자기보다 높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랑의 상대가, 아들이 못나기를 바라는 부모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너도 그래? 다 그래? 「예.」

*가미어마도 그래? 「예.」 그게 공식이 돼 있어요. 그게 어디서 그런 동기가 되었느냐? 하나님도 그런 동기가 되어 있으니, 결과가 그렇게 안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론적입니다. 입을 열어 가지고 중얼중얼 말할 수 있는 아무 조건도 없어요. 변명할 수도 없게 돼 있다구요. 정말 그래요? 정말이에요? 「예.」 이럴 때 대답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머리가 멍해져요. 앞으로 몇 시간이나 이야기해야 되는데... 힘들다구요. 정신차리구요. 대답이라도 확실히 해 놓으라구요.

너, 이름이 뭐야? 부인 이름이 뭐야? 「스에나가(未長)입니다.」 머리가 길다는 거야, 꼬리가 길다는 거야? 수에(未)나가(長)니까, 꼬리가 길다는 말 아니야, 끝이니까? 확실히 하라구. 부인에게 지고 있잖아? 민단(대한민국거류민단)에 들어가서 뭐 했어? 부끄러운 일이야.

선생님이 민단에 손을 댄으면 전부 소화해서 없어졌을 거예요. 비료

가 돼서 손자, 식물로 하면 3대 4대가 됐을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머물러 뿌리를 내리고 늘려갈 것이냐 이거예요.

완전 소화의 판타날 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소화하자

일본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선생님은 소화했잖아요? 남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에게 완전히 소화되었어요? 판타날의 정신은 뭐냐 하면 ‘완전 소화’입니다. 완전 소화라는 거예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통째로 삼키라는 거예요. 소화론이 그래요. 흙이 묻었든, 똥이 묻었든….

악어는 뭐 커다란 물고기도 더러운 물과 함께 죽지 않기 위해 전부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웃으면서 먹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빨리 먹지 않으면 큰일이라고 뭐 맛있게 빨리 삼켜 버리는 거예요. 그 물고기의 뱃속에는 똥이고 뭐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배에 넣어서 소화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소화할 자신이 있으면 무엇이든 먹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무엇이든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화될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소화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절대 병에 안 걸립니다. 그런 동물은 걱정도 없이 통째로 삼키면서 좋아합니다. 알겠어요?

일본 땅에 나쁜 사람이 있어도, 뭐든지 통째로 삼키라는 거예요. 중영중얼 불평을 하는 사람도, 환영하는 사람도 같이 삼켜 버리는 거예요. 선생님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판타날에 가면 통째로 먹습니다, 작은 물고기든 큰 물고기든. 큰 물고기가 자기보다 작은 물고기를 ‘흡’하고 삼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을 말할 수 없어요. 알겠어요?

선생님도 거기에서 배웠습니다. ‘야! 하나님은 적을 사랑하라, 원수

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통째로 삼키는 왕이 돼야겠다.’ 한 거예요. 축복을 이렇게 하도록 결정한 것도 저 판타날의 호텔에서였습니다. 박 마리아의 가정을 축복할 것도 거기에서 결정한 거예요. 박 마리아가 하는 말이 누가 해방시켜 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문선생이 해줬는데도 문선생이 그랬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부 해방시켜서 통째로 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도, 악마의 대장도 한꺼번에 통째로 삼켰어요, 못 삼켰어요? 「삼키셨습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같이 뱃속에 넣고 소화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의인들 성인들이 선생님에게... 어제 그 옷을 입은 게 그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 부인에게 보내 온 옷을 입은 거예요. 야, 대왕마마...!

가미야마, 그거 물어 봐. 그게 거짓말이면 큰일입니다. 예수님이 뭘 보내 올지 몰라요. 나라를 보내 줄지 몰라요, 천국의 그 나라를. 그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일본 죄악사의 제일 우두머리를 재판정에 내놓고, 정의의 판결을 내려 가지고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런 작전을 하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도 안개에 싸인 채 미지의 세계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세계적으로 하면... 그거 세 건까지도 안 갑니다. 두세 건만 해도 난리가 날 거라구요. 그 판결 조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목전에 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숨길 수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숨길 수 없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생님 앞에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옛날부터 왕자라고 말했고, 지금도 육신을 쓰고 사탄의 모든 권한을 능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때이기 때문에, 만일 옛날 처럼 그런 짓을 하다가는 뭐 그야말로 큰일납니다. 그 자리에 일어설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몸을 가지고 영계와 함께 통째

로 악마와 함께 주관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개척한 거예요. 그것이 지상천국 건설의 출발입니다. 알겠어요? 「예.」

선생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손이, 손이 가는 거예요. 손이 저절로 간다구요.

네 부인은 어때? 약해, 똥똥해? 「딱 좋습니다. 요즘에 조금 똥똥해졌습니다.」 뭐가 딱 좋아? 불알에 좋다는 거야, 그것에 좋다는 거야? (웃음) 딱 좋다고 하니 그런 느낌이 들잖아? (웃음) 「그쪽에 딱 좋습니다.」 (웃음) 그래? 정말이야? 이건 야한 남자구만. 그쪽 방면에 전문적인 남자가 아니야? (웃음)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왜 웃어? (한국 사람들에게) 알지도 못하면서 웃고 있다구.

자, 절대신앙절대사랑절대복종하고, 죽어도 달라붙어라 이거예요. 알겠어요?

세계 대중들이 관심 갖는 분야의 품목을 우리 조직을 통해 팔자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전부 다... 아까 뭐? 박상권! 그 나일론 이름이 뭐야? 「바리바쓰입니다.」 *봐야 알잖아? 장사할 줄 모르는구만. 그거 갖고 와! 시간이 없으니까 가지고 오라구. 그는 바다에서 해양생활을 20년이나 했으니 그 방면에 전문적이라구요. 좋은 것이 아니면 상대를 안 해요. 세계 제일의 것을 전부 모아 온다구요. 바리바쓰예요, 아리바쓰예요? 「바리바쓰입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그거 설명 좀 하라구. 「예.」 일본말로 설명 좀 해보라구. 「예.」 여기 놓아도 괜찮아. 됐다구. 얘기 빨리 해. 시간이 없다구. 잘 들으라구요. (박상권 사장이 바리바쓰에 대해 일본말로 설명함)

「한국말로 좀 할까요, 아버님? (박상권)」 응? 「한국 메시아들한테...」 한국 놈들은 눈치로 다 알고 있다구. (웃음) 「다 알았어요.」 한

마디만 해, 한마디만. 「예.」

선생님의 명령에 의해서 앞으로 운동기구나 낚시도구는 전부 세계 최고의 것은 우리가 여기서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 같은 조직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알겠어요? 「예.」

판타날에서 이번에 국가 메시아들이 훈련할 때도 180개국에서 일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낚시도구 같은 것을 팔더라도 세계에서 우리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취미산업에는 운동하고 낚시하고 사냥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술분야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후에 있어서 세계 대중이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모든 품목을 종합해 가지고, 취미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출발했다구요. 알겠어요?

이게 그 한 부분의 품목이에요. 일본 전체가 팔고 있는 것을 다른 나라가 계약해도 우리를 못 따라갈 거예요. 미국과 남미의 판매량이 전세계 어떤 나라도 못 따라갈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 놓으면 우리 때문에 낚시도구 업계도 세계적으로 데모하는 놀음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구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쓸 돈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깁니다.」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알겠지요? 「예.」

이 박서방이 거기의 책임자라구요. 아주 미남자로 생겨 가지고 목소리도 팔팔팔 하고, 여자들이 보면 반할 수 있는 남성 격을 갖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여자 나라이니만큼 이 남자를 따라가게 되면 일본도 잘살고, 이 남자 나라도, 남자세계도 잘살 것이다! 노멘, 아멘? 「아멘!」 알기는 아누만. 됐어! 「예.」

더 할래? 「장사를 좀 해야겠습니다. 잠깐.」 아, 내가 바빠. 「잠깐 동안 하겠습니다.」 뭘 해? 「장사하려고요.」 장사를 지금... 말씀 중간에 끊고 장사하는 법이 어디 있어? 「짧게 하겠습니다.」 (박상권 사장이 국가 메시아들에게 부끄러움을 버리고 보따리 장사를 시작하자고 경제기반을 닦는 방법에 대해 설명함)

「박사장!」 「예.」 「이익금이 6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돼.」 「60퍼센트 이상입니다. 70퍼센트도 있고요.」 그런 말은 하지 마! 열 배를 넘기면 흥길동이 돼. 도적놈이 돼.

아 이거 딴 사람이 이래 가지고, 내가 기운 다 빠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지 다 잊어버렸다. (웃음) 그래서 외도하면 큰일나는 거예요, 외도. 외도하면 큰일나는 거예요. 몇 시예요? 중간에 이걸 끝내 줘야 할 텐데….

자르딘 선언을 하게 된 직접적 이유

파리 얘기를 하다가…: 풀에 붙어 가지고 다리가 떨어지지 않아 그 주인이 가서 옷을 벗어 제칠 때에 다리가 끊어져서 떨어지든 어떻게 해서 떨어지든 해서 떨어지면, 그 주인의 파리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문제는 그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거예요. 알겠어요? 「예.」 이런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정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가정. 메시아는 가정의 주인들이예요. (판서하시며) 하늘땅의 가정 주인이 하나님이고, 세계의 가정 주인이 메시아고, 국가의 가정 주인이 국가 메시아고, 종족의 주인이 종족 메시아고, 가정의 주인이 가정 메시아 아니예요? 전부 다 가정 주인을 말한다구요. 알겠어요?

그러니 그 가정 주인하고 하나되어야지, 다른 것하고 하나되면 이것은 바람꾼이 되고 처치 상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구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가정 메시아인 자기 아버지를 꼭 붙들고 살아야 되고, 종족적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 꼭 붙들고 살아야 되고, 국가적 메시아를 꼭 붙들고 살아야 되고, 세계 메시아를 꼭 붙들고 살아야 세계가 사는 거예요. 하늘땅 메시아, 하나님을 꼭 붙들면 하나님을 중심

삼은 천주 메시아의 자유 환경무대에서 가정 이상을 확대한 천주 가정 까지도 같이 거느리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참부모가 그래서 놀랍다는 걸 알아야 되겠다구요. 알겠어요? 「예.」

자, 이런 것을 지금 시작해야 되겠으니 여기에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제1 선언이 뭐라구요? 한번 해봐요. 절대신앙!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사랑!」 절대복종! 「절대복종!」 절대 믿는 데는 사랑이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 믿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내 목숨도 바치고 가야 된다는 결론까지 갑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참된 사랑을 중심삼고 절대사랑권 내에 접붙이는 것입니다. 절대사랑은 뭐냐? 그 자녀들을 키우려면 자기의 모든 전체를 완전히 절대적으로 투입해야 됩니다. 한 번 죽고 살아 가지고, 또 죽고 또 살아 가지고 세 번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꼭대기에서 넘어가서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순환운동을 한다구요. 알겠어요?

소생·장성·완성이니 올라가서 세계의 꼭대기까지 돌아가서,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 결국에는 여기에 와 가지고, 이 일을 다시 찾아 가지고 이래야 올라가는 것입니다. (판서하시며) 여기 가정은 비었지요? 여기에는 영계의 우리 조상들을 투입하는 거예요.

(판서하시며) 그래서 10월 5일에 영계에 있는 모든 영인들에게 지상 임명을 했어요. 5대 종교면 5대 종교, 4대 종교면 4대 종교의 장(長)들이 축복을 받았으니, 그 휘하에 있는 전 세계에 분포된 책임자, 상 중 하의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상에서 보내 줘 가지고 그와 같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현재 지상에 있는 축복가정들이예요. 축복가정이 아니면 축복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몰아치는 거라구요.

이래 가지고 몰기 때문에 (판서하시며) 여기에는 완전히 사탄 가정, 타락한 사탄 가정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영계의 조상이 와 가지고... 지상세계에서 축복받은 아가씨는 완전한 아담적 기준과 마찬가지로예요. 가정적 기준을 이루어야 하는데 천사장이 협조하지 못함으로 인해 타락했던 것인데, 가정적 천사장의 입장에서 가정적 이상 종족을 편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이런 것을 준비하려니 여기서 뭐냐 하면 자르딘 제1차 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본연의 창조하던 당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 선언, 제1 선언 알지요? 한번 해봐요. 「절대신앙!」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절대 복종!」

복종이라는 것은 뭐냐? 100만한 것을 투입해서 그것이 기억에 남으면 100이상으로 올라갈 것이 없어요. 기억하면 안 돼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한히 투입함으로 말미암아 무한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이상상대를 짓는 데 있어서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그 기준에서 지은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지어야 자기가 생각하던 이상의 존재까지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상대는 자기보다 높기를 바랍니다. 제일 가까운, 종적 횡적인... 종적인 것은 자녀요, 횡적인 것은 부부라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자기보다 낮기를 각자가 바란다는 거예요.

또 아들딸도 어머니 아버지가 잘나기를 바라나요, 못나기를 바라나요? 하나님보다 낮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들딸도. 알겠어요? 「예.」 그러니 무한히 투입하고 무한히 잊어버리는 데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론적 결론이 나옵니다. 그 사실이 오늘날 현실 우리 자체의 욕망 욕구와 일치됩니다. 그러니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말이나 실체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팎으로 부정할 수 있는 존재는 언제든지 하

늘권 내의 소유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알겠지요? 「예.」

제1차 선언, 이건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한 선언입니다. 아담 해와를 짓게 될 때의 창조 당시에 한 선언을 여기서 되찾는 거예요. 1차 선언이 그거예요. (판서하심)

절대·유일·불변·영원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자르딘 제2 선언

그 다음에 2차 선언은 뭐냐? 2차 선언은 뭐던가? 「절대 유일…」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절대·유일·불변·영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도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속성의 상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론적이라구요.

주체 대상이 하나되는 데는, 참사랑을 중심삼고 엮어져야만 주체와 대상이 사랑을 중심삼고 둘 수 있는 거예요. 원심력 구심력과 같이, 수직과 횡적인 것이 밀어치면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걸 중심삼고 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부모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절대 아버지, 유일 아버지, 불변 아버지, 영원 아버지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딸은 그와 마찬가지로 속성의 상대적 가치를 지녀야 됩니다. 그러니 자식의 자리에서 절대 자식, 유일 자식, 불변 자식, 영원 자식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상대적 가치를 지닌 논리에 있어서 불가피한 결론이다! 아멘! 「아멘!」 그거 반대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부자지간 상하관계는 됐지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좌우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참 이상하다구요. 상하가 되면 '우좌'가 되어야 할 텐데 왜 '좌우'가 됐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거꾸로 되었어요, 거꾸로. 알겠어요? 자녀(子女)는 똑바르다구요. 그런데 우좌가 될 것이 좌우가 되었으니, 요것이 문제예요.

종적인 관계는 부자지관계, 횡적인 관계는 부부관계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좌우가 됐어요, 좌우가! 우좌가 되어야 할 것인데 말이에요. 자녀는 순서가 맞아요. 그러니 요걸 뒤집어야 됩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천지개벽과 같이 여자가 주인이 됐는데, 이제는 남자가 사랑의 주인이 되어 가지고 거꾸로 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요. 그런 내용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중심삼고 하나님께서 절대 아버지 하나니, 그 아들딸도 절대 하나씩이니 상대가 없어요. 절대적인 아들딸이니 절대적인 아들딸이 좋아하는 부부를 찾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부부는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부부가 둘일 수 있어요? 절대 부부요, 유일 부부요, 영원·불변의 부부임에 틀림없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크게 대답해 보라구! 「맞습니다!」

절대 부부가 되었으면 여기에 뭐냐 하면, 하나님 대신 자기가 실제적 부모의 자리에 나가서 부자지관계를 중심삼고 절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자녀입니다, 자녀. 부모 앞에 자녀도 절대 자녀요, 절대 부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만아들 만딸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이 마음대로 갈라졌어요. 셋이 공식적인 기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구를 중심삼고 하나님께서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절대 가정, 그 다음에 뭐예요? 「유일 가정.」 유일 가정, 불변 가정, 영원한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만 절대·유일·불변·영원한 성격을 가진 하나님께서, 위로 보나, 아래로 보나, 좌우로 보나, 전후로 보나 전부 다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불을 펴고 낮잠을 자고 싶고, 밤을 새우고도 싶고, 놀고도 싶은 거예요. 모든 것에 관계를 가지고 살고 싶은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같이 살 수 있는 놀음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런 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선언이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제2 선언 자격을 우리 가정, 여러분 자체 가정들이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예.」

제1·제2·제3의 창조주 선언

그 다음에 제3 선언은 뭐냐? (판서하심) 「제2 창조주 아담 해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창조했는데, 무형의 하나님이에요. 무형의 하나님 자기 자신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기 자신이 전부 다 아기시대로부터, 형제시대로부터, 부부시대를 거쳐 가지고 부모의 자리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알겠어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이 창조주 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이루었으면,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이 자랄 때, 어릴 때의 보이지 않는 모양을 실체로 보고 싶다 해서 창조한 것이 아담 해와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기와 같이 자라고, 자기 형제와 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양을 보니, 참... 그 다음에 그들이 부부가 되어 가지고 아기를 낳기를 바라 가지고 아기를 낳아 부모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기를 실체로 느껴 보는 거예요.

실체를 느껴 보는데, 아담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도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아담의 몸에 들어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보이지 않는 마음 자리를 갖게 되고, 보이는 실체적 자리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는 실체가 하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주인으로서 몸뚱이와 사랑으로 하나되게 될 때는 그 몸은 주인인 마음 앞에 영원 불변한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소유? 절대적 사랑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마음이 하나 안 되면 안 돼요.

그러한 남자와 여자가 주체 대상이 되어 가지고, 이런 남자가 주체라면 주인이 되고, 여자가 상대라면 이것이 사랑의 소유권을 확대시키는 소유물, 사랑의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서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되면 그 전체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아들딸을 낳아 부모가 되어 가지고 주인의 자리에서 사랑의 실체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대된 소유권을 전부 다 아들딸에게 옮겨 주게 된다면, 부자지관계, 부부관계, 자녀 일체권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전부는 주인인 하나님의 소유권에 일치될 수 있는, 하나될 수 있는 이런 가정적 기틀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형의 하나님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아담은 보이는 하나님을 창조한 거예요. 아담의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담의 아들은 제3 창조주예요. 제3 창조주인데, 천상세계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 두 나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결실체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지만 두 사랑을 못 받았어요. 손자 시대에 와 가지고 무형의 주인 하나님과 실체의 주인 아담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한 자리에서 두 주인의, 하나는 영계, 하나는 육계 두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천상세계 지상세계가, 종적인 역사가 횡적으로 전개된다구요. 횡적으로 자라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담 가정의 후손입니다. 3대에서부터 아담 하나의 씨를 닮아 가지고 수많은 씨의 대등한 가치를 중심삼고, 아담의 아들딸은 열둘씩 36명을 만들었지만, 열여섯 쌍을 만들 수도 있고, 수많은 쌍을 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담보다도 낫고 하나님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1 창조주는 하나님이요, 제2 창조주는 아담이요, 제3 창조주는 아

담의 아들딸로서 하나님과 아담을 다시 길러 낼 수 있는 바다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3 창조주가 제일 위대하다구요. 그건 종횡의 결실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3 창조주는 종과 횡, 지상·천상세계의 사랑의 결실체

그러니까 무형의 하나님을 제1로 하면 그것이 종적인 축이 되어 가지고, 이와 같은 축을 중심삼은 결실을 횡적으로 무한히 전개하면 360도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국가 형태, 세계 형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제1 창조주, 아담은 보이는 제2 창조주, 사랑 이상 완성체예요.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딸은 뭐라구요? 제3 창조주입니다.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두 사랑의 결실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종으로 연결된 것이 횡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무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조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많은 조상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나 아담의 아들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하고, 아담의 손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가치가 같아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중심삼고 모든 전부는 아담 대신의 종손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형제만 하나되면 누구나 종손이다 이거예요. 갈라 나누어 가질 필요 없어요. 그 자체를 전부 다 하나되게 두고, 종손으로 돌아갈 수 있고, 종손 된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것이 열두 아들의 소유지, 어느 특정한 나라의 대표적 주권권 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되면 전부가 공동 소유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손권을 대표해서 그 소유권을 각자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계는 평등 평화의 세계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주가 타락할 수 없다 이거예요. 다시는 타락할 길이 없다 그말이라구요. 알겠어요? 「예.」

자르딘 제4 선언 — 속명적 제안 해원

그 다음에 넷째 번의 제안이 뭐냐? 뭐라구요? (환서하시며) ‘속명적 제안 해원’이에요. 이거 누가 제안했느냐 이거예요. 아담 자격이 있는 참부모가 제안한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제안하지 못해요. 속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영원히 죽어서라도 이루지 않으면 안 돼요. 몇백 명이 죽었다 살더라도 이 일은 이루어야 할 과제예요. 죽어서라도 살아서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걸 못 이루면 저나라에 가서 영원히 영원히 해방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방을 받기 위해서 누가 제안하느냐 하면, 아담 완성자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참혈통의 계대인 중심 존재가 거짓 중심이 된 것을 전부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아담이 나와야 됩니다. 참된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혈통을 완전히 이어받은, 참사랑·참생명·참혈통·참양심권을 중심삼은 이분이 나와 가지고 세계 전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승리적 기반을 중심삼고 최후로 하나님에게 제안해 가지고 이걸 정리해야 된다고요.

만민 전체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가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해 가지고 이것을 해소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그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부모, 절대 자녀, 절대 남편, 절대 아내, 유일·불변·영원한 그 내용의 상하전후좌우를 갖춰 가지고, 그 후에는 가정 자체가 절대 가정, 유일 가정, 불변 가정, 영원한 가정이 되어야만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영원히 사실 수 있는 집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모든 타락세계의 조건들을 완전히 정리해 버려야 돼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걸릴 것이 없어요. 이제는 해원성사를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2차적인 면에서 이것이 끝났으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북쪽, 북쪽에 가야 돼요. (판서하시며) 올라가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 가지고 여기에 올라가는데….

한미일 국가 메시아의 알래스카 해양 훈련의 의의

(판서하시며) 이것은 뭐냐 하면 말이에요, 이것은 국가 메시아, 국가 메시아입니다. 주체예요. 주체가 뭐냐 하면, 한국 국가 메시아입니다. 여기에는 70명을 동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2세권 내의 일본 메시아, 미국 메시아 70명이 합해 가지고, 그 주 책임자들과 전부 다 일체가 되어 가지고 해양 훈련, 외적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잡는 것이 아니에요. 배라든가 이 모든 전부를 갖춘 훈련을 해 가지고, 미국 나라에 있어서 어디 가서든지 해양사업을 할 수 있는 소형 배의 특허를 받는 거예요. 미국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사인만 받게 되면, 미국 대사관 이름을 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가서 배를 타고 얼마든지 다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나라에서 전부 다 연락하면 미국 대사관의 힘을 통해서 해양에서 자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연결시킬 수 있겠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해양경찰이 코디악의 해양경찰입니다, 코디악. 알겠어요? 소련을 대치해서 준비해 나온 지금까지의 기준이 있는 유명한 해양경찰이에요. 거기서 그런 사인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는 2세들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판서하시며) 지남석을 보면 여기가 플러스라구요. 여기는 마이너스

예요. 지남석이 이렇게 돼 있으니, 2세는 여기 플러스에 와 붙어야 돼요. 그래, 2세를 중심삼고 수산사업과... 2세를 중심삼고 두 형제가 부자지관계가 되어 있으니만큼, 이것을 중심삼아 가지고... 이것이 지남석으로서 완성한 결합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대 2대를 연결할 수 있는 입장에 서 가지고, 이 2세들은 사냥도 할 수 있고 수산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2세를 수륙관계를 중심삼고 연결시켜야 돼요. 낚시 시대로부터 사냥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진이가 무스를 잡았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천신만고 해서 한 마리도 못 잡고 탄식하면서 기운이 빠져서 돌아가려고 보따리 싸 가지고 오는데, 그때 무스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지방에서 제일 유명한 무스가 되어 가지고 말이에요, 부시 대통령이 잡으러 갔다가 못 잡고, 그 지방의 안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원하던 것이라구요. 그런데 돌아가기 한 시간 전에, 현진이와 함께 낙심한 패들이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슬렁어슬렁 나와 가지고 한 1백 미터도 안 되는 곳에 서 가지고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썩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우하사 그런 무스를 잡은 거예요.

그 뿔이 얼마나 무거운지 70파운드 이상 돼요. 와-! 그것을 전시하게 되면 아주 유명해질 거라구요. 그래서 취미산업...

그렇기 때문에 낚시질하는 시대는 지나간다고 선생님이 발표한 거예요. 낚시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양식 시대로 들어갑니다. 보호하고 길러야지 잡아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일본미국독일 국가 메시아의 사명 분야

그리고 앞으로 판타날을 중심삼고... 고기 낚시를 하고 직접 돌아서서 사냥할 수 있는 장소는 판타날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일년 열두

달 중에 두 달만 물에 잠기지, 그 외에는 전부 다 푸른 공원지대예요. 완전히 사냥할 수 있는 좋은 명승지예요. 알겠어요? 「예.」

이번에 내가 푸에르테 올림포에 가서 국가 메시아들에게 해와 나라 까지 전부 다... 가인 아벨 나라가 아니예요? 이들에게 전부 다 책임 부서를 결정해 줬어요.

한국 국가 메시아는 사상적인 면을 책임지게 해 가지고, 교회의 전통을 세우는 면의 책임을 하라고 임명을 다 한 거라구요. 알겠어요?

일본 메시아는 해양사업입니다, 해양사업. 전세계 185개국의 메시아를 대표했으니, 그걸 근거로 전체가 합해 가지고, 세계 판도를 축소한 해양 모델형이 판타날이기 때문에 판타날 지역을 180개 지역으로 분할해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배당하게 되어 있어요.

일본 사람이 각국의 국가적 메시아의 책임도 있지만, 판타날을 중심 삼고 고기잡이라든가 세계의 공동해상 환드레이징까지 일본 메시아가 책임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예.」

미국 메시아는 뭐냐? 이것은 장자니만큼 외교를 해야 돼요, 외교. 알겠어요? 미국으로 보게 된다면, 유엔 대사라든가 대사를 한 사람이 본국에 돌아가게 되면 장관이 되는 거예요. 외교 무대에 있어서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입장에 있으니, 통일교회의 장자권을 가진 미국은 세계의 주도국가이니만큼, 외교 문제를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외교 문제를, 미국 사람들이 미국과 유엔 교섭의 선두의 자리에 서 가지고, 미국 대사관을 중심삼고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놀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세계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 민족은 뭘 해야 되느냐? 공업계, 실업계예요.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전통을 자랑하니만큼, 앞으로 선생님이 바라는 스페이스 엔지니어링(항공기계기술)에 최고의 기술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렇

지 않으면 세계를 제패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부 다 공중 올림픽 대회, 스페이스(space;공중) 올림픽 대회, 이걸 구상하는 거예요.

그 공중 올림픽 대회, 1백 미터 하게 되면 1만 미터, 몇백 미터 땅 끝에서 한 바퀴 돌면서 경주한다면 그거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올림픽 대회 하게 될 때는 지구를 몇 바퀴씩 돌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렇게 될 때는 자기 선수들 된 부락으로부터 세계를 누비면서 전부 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세계가 ‘와-!’ 이럴 수 있는 올림픽 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하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의 기술, 스페이스 엔지니어링에서는 넘버원, 챔피언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독일에서의 기계공업이 아이 엠 에프(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중삼삼고 내가 없는 동안에 다 도둑 맞았으니, 이걸 대신해 가지고 전통적 내용을 중삼삼고 과학기술에 있어 스페이스 엔지니어링에서 최고의 첨단 챔피언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멘, 노멘? 「아멘!」 (박수)

독일은 무슨 분야? 공업분야예요. 또 일본은 뭐냐? 수산분야예요. 그 다음에 미국은 뭐냐? 뭐예요? 「외교분야입니다.」 외교분야! 그 다음에 한국은 뭐냐? 정신분야입니다. 「사상 전통입니다.」 그래요. 사상 전통이에요. 사상과 정신 분야예요. 이렇게 딱 같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를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전부 4분(分) 해 가지고 널리 있는 전부를 세계적으로 균형적 평균, 가 평균 수준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각 나라에 평준화시키느냐? 그렇게 되면 모든 면에 있어서 평준화 통일시대가 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선생님이 기술을 전부 다 가르쳐 주려고 한다구요. 기계 제작 능력이 없으면 이 모든 라인 생산과 자동차 생산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장치기계, 이걸 기계를 만드는 기계라구요. 기계를 만드는 조상이라구요. 통일중공업과 같은 데서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스페이스 엔

지니어링도 그런 기계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의 밤바다 회사를 중심삼고, 우리가 조인 벤처를 중심삼고 통일중공업을 거기의 상대 회사로서 교섭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 조사해 가지고 아이 엠 에프에 걸려 있기 때문에 ‘푸-’ 하고 있는 거예요.

피땀으로 키워 온 통일중공업

자, 이제 문제는 통일중공업이에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수고한 모든 공적의 표적들을 끊어 버리면, 선생님이 일생 동안 수고한 것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전시할 물건이, 40년 동안 공업 실험에 피땀을 흘리면서 수고한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느니라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물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녹음이 잠시 중단됨) 사탄세계에 다 갔어요.

이걸 팔아 버려야 되겠어요, 없애 버려야 되겠어요? 답변하라구요. 답변해요! 없애야 되겠어요, 남겨야 되겠어요?

보라구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홍남 감옥에 들어가서 남겨 온 것이 뭐냐? 3년 동안 별의별 좋은 일도 다 했지만, 부식품 같은 것이 들어오면 전부를 다 나눠 줬지만, 한 가지 남겨 온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입던 옷이에요. 옷이라구요. 이것이 유산(硫酸)에 물들어 가지고 조금만 당기면 다 찢어져요. 누더기도 그런 누더기가 없어요.

숨을 빼 가지고 그것을 한 보따리 해 가지고 밤에 자려고 들게 되면 다 몰려요. 그걸 퍼 가지고 덮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것 하나밖에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미숫가루를 가지고 떡 만드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걸 개 가지고 어려울 때는 미숫가루만 있으면 떡도 만들어서 밥 대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예물로 가져왔어요. 그것이 현재 있다면 감옥생활이 어떻다

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제일 보물로, 하늘나라의 박물관에 흥남의 유물로서, 뭐 눈물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가져왔어요. 이것을 옥세현 할머니한테 넘겨주었더니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고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 비단 치마 저고리는 다 가지고 나왔지만 이걸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나왔다고요.

마찬가지예요. 통일중공업이 쓰레기가 다 됐다고요. 선생님이 일본의 버려진 선반을 갖다가 쇠를 깎아 가지고 제1, 제2 산업적 단계를 이룬 모든 것이 거기에 남아 있는데, 그걸 팔아 버리면 그건 뭐 똥 구덩이에 몰아넣을 것이 뻔해요. 무한한 가치의 보물이, 국가에 있어서 국보의 물건이 될 것이 날아간다고요. 그것이 천년, 몇천년 있으면 나라 기술, 독일 같은 나라도 안 부러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전통적 유물을, 전시적 유물을 돈 때문에 팔아 넘겨야 되겠어요, 죽기 전에는 그것을 보관해야 되겠어요? 답변해 보라고요. 「보관해야 됩니다.」 답변해 보라고요! 팔아치워야 할 것이예요, 보관해야 될 것이예요? 「보관해야 됩니다.」 보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쓰던 젓가락 하나 있었다면 미국을 주고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백년 후에, 천년 후에는 나라를 주고도 못 바꾸는 거예요.

선생님의 손때가 묻은... 내가 그때 통일산업을 하루에 두 번 가는 것은 보통이에요. 매일 가고, 하루에 세 번 간 적도 있어요. 갔다 오려면 여섯 시간은 걸려요. 하루에 한 번 갔다 오는 데 세 시간, 세 번까지 갔다 오면 아홉 시간이 걸리는 놀음도 해 오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피땀 흘려 만든 이 공장을 날려 버려야 좋다는, 날아가는 걸 기뻐하는 일본 간나 자식들! 잘했다고 하더라구, 이놈의 자식! 독일 공장을 팔아 넘겨 가지고 잘 했다고 해.

*가미야마! 너 때문에 전부 날려 버린 거야. 1년 반만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세계에 전시되었을 텐데, 세계가 놀랄 전시품을 날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본 사람들!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일본을 팔아서도 그걸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5억7천만 달러를 처박았습니다. 아무 것도 안 쓰고, 반대하는 독일인 로타손을 키워서 끌어오기 위해서... 그거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가미야마! 「예.」 정말이야, 아니야? 「정말입니다.」 ‘잘했다. 그래야 된다.’ 하고 말이야...

천국의 보물로서, 천국의 국보로서 보존해야 될 가치 있는 그것을 유린하는 것에 찬성하는 그런 해와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 몸을 자기가 때려서 가루가 되더라도, 선두에 서서 세계를 다니면서 모금운동이라도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를 끄덕이며 잘 됐다고 박수를 쳐요? 대답해 봐요.

통일산업은 선생님이 선반을 중심삼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것이 날아가 버리게 됐어요. 군수산업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박물관에 국보로 보존해야 할 보물이 날아가 버린다고요. 그러니 무엇을 전시할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의 비행기라든가 기술? 푸-!

미국 놈들, 어떻게 생각해? 팔아치워야 되겠어요, 보관해야 되겠어요?

죽어 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 절약하며 투입하라

내가 미국을 위해서, 브리지포트 대학을 위해서 9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걸 전부 팔아서 방비하고 아이 엠 에프(IMF;국제통화기금) 시대를 넘겼더라면 3분의 2, 절반 이상을 구했을 거예요.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에 한 일은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걸 합쳐 가지고 학교를 위해서, 미국의 학교를 위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그 전에 통일교회의 집이라든가 땅을 판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라

를 위해, 세계를 위해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라에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선생님의 철칙입니다. 그것이 선생님의 가르침 이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그런 걸 생각합니다.

수십억 달러의 돈을 버는 선생님께서, 집에 돌아가면 넥타이도 전부 풀어 버립니다. 맨발로 살아요. 수십년 동안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목욕탕에 가도 이런 사각형 수건의 두 배 이상 되는 것은 안 씁니다. 호텔에 가도 그래요. 컬러풀한 타월이 걸려 있어도 그거 쓰지 않습니다. 수십년 간 그래 왔어요. 그러니 다들 ‘선생님은 그런 걸 좋아하겠 거니….’ 한다구요.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년에 1천5백만 명 내지 2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들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양식 화장실에서, 세 번 이상 용변을 보지 않고는 물을 내리지 말라고 합니다. 전부가 그렇게 해서 절약하면 수천만 명씩 죽어가는 형제를 구원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백 명이 한 명을 책임지고….

그러나 그런 형제권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물고기를 멸망시켜서라도 그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거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는 데는 운반과 보관이 문제입니다. 일본도 독일도 프랑스도 미국도 전부 실패한 그것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 피시 파우더(fish powder;어분)는 인간이 식량으로 쓸 수 있는 최고의 단백질입니다. 부산물로 가공해서 무엇보다도 영양가 높은 식량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 배가 남극을 향해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부 ‘날려 버려라. 흘려 버려라.’ 하는 이 일본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이 아벨권을 상속할 수 있는 길

선생님이 일본을 해와 국가로, 독일을 가인 국가로, 미국을 아벨 국가로 설정했기 때문에 세계의 재벌국가 중의 재벌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미국 사람과 독일 사람과 일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셋이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대사관에 가서 그들이 승리했을 때에는, 일본독일미국의 세 나라가 하나되어서 승리했을 때는 통일교회는 세계의 국가로부터 반대 안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자기들이 아벨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나빠요. ‘우리가 먼저 통일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아벨이다.’ 이려고들 있어요.

아벨이 가인을 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가인이 자연굴복하게 만들지 않으면 아벨의 입장 자체가 없습니다. 아벨이 설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아벨이라는 존재가 가능해요? ‘승리’라는 조건이 없으면, ‘자동굴복’이라는 발판이 없으면 아벨이라는 이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리관입니다.

가미야마! 「예.»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일본은 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뭐 세상의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면서 ‘아벨이다. 절대복종해라...’.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 껍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부 뒤집어서 정정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고 뭐고 아무런 내용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틀렸어요?

그런 반면 한국의 승리한 전면적인 아벨의 기준에 따라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서 그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선생님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해 가지고, 자연굴복시켜야 된다고요. 개인에서부터 가정적으로 영향을 불러일으키라는 거예요. 가정의 아벨을 넘지 않은 사람이 민족국가세계의 아벨의 권한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도 문선생에게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문선생의 뒤를 따라오지 않으면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절대 머리 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을 모시게 되면, 거기에서 아벨권의 확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맞고 탕감해 가지고 복귀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잖아요? 이게 틀려요? 어때? 이놈의 자식들!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생활을 해 나오지 않았잖아요? 전부 태평양에 빠져 사라져 갈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여러분을 죽일 수 없으니 세계에 파견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위해 봉사하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실패한 것을 세계적인 아벨권의 가정을 중심삼고 탕감하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니면 여러분의 과거의 잘못을 탕감할 길이 없습니다. 구할 길이 없어요. 일본 민족이 설 수 있는, 아벨권을 상속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장래에는 전부 국가 메시아를 철수시키고, 일본 가정이 선배로서 거기에 정착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해와 때문에 자녀들이 전부 고생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자녀도 어머니 때문에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모든 무거운 짐은 일본 사람이 맡아서 탕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길이 남아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데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것이 자기와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가미야마,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세계 평화의 길은 아직도 멀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부터 그 해결의 출발적인 문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길을 닦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싫으면 뭐 지금부터 깨끗하게 돌아가라구요. 본향 땅에서….

5년 후, 10년 후만 되어 보라구요. 여러분이 설 곳이 없을 거예요. 배멀미를 하면서, 통곡하면서, 자신을 한하면서 탄식하는 생애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저주받을 소리를 선생님은 저렇게 발표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미국 멤버들,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겠다구요. 여러분이 전세계를 품어야 돼요. 굶어죽어 가는 세계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장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선두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두에 서야 돼요. 해고입니다, 해고. 산정에서 국가 운명을 담판할 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야 돼요. 죽는 자리에서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장자의 사명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님도 심각해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총생축헌납제의 의의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4·4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4·4절. 천국 문에 들어가야 돼요. 이럴 수 있는 자격을 여기에서 전부 다 선생님, 부모님이 인정해 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다 동참시켜라 이거예요. 선배들이 전부 다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중심삼고 일본을 팔아 가지고 전부 다 총생축헌납을 해야 돼요, 총생축헌납제.

*제물을 헌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해방 통일시대입니다.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그것은

구약시대·신약시대·성약시대·해방 통일시대, 하나님까지도 걸어 가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책임지는 거예요. 성약시대의 참부모도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책임지는 거예요. 만물도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져서 하늘 앞에 한이 없는 해방적 물건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전부가.

가정으로 보게 되면 가정은... (판서하시며) 이게 부모라면, 자녀는 뭐냐 하면 예수시대(신약시대)예요. 만물은 구약시대예요. 요것은 신약시대요, 요것은 성약시대입니다. 이 전체는 해방 통일시대예요. 통일, 통일시대라구요. (판서하심)

전부 다 총결산하는 거예요. 가르면 안 돼요. 사탄의 뿔이 없어요. 뭇땅 통째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수 이상이에요. 알겠어요? 전부 다 바다에서부터 160마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네 종류, 40마리 씩이지요? 아직 못 잡았으면 잡아야 돼요. 바쳐야 돼요.

여러분 사위기대 완성이지요? 사위기대는 아담 사위기대, 아들딸 사위기대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가정을 중심삼고 종족 복귀, 160가정을 거느려야 됩니다. 160이에요. 알겠어요? 180이나 160은 같다는 거예요. 4수의 4배수가 16이에요. 그리고 6수의 3배는 18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8수와 16수는 사탄 완결 짓는데 있어서 대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1800가정을 축복한 거예요. 그런데 1800보다도 600을 원하기 때문에 16수를 중심삼고 허락해 준 거라구요. 그렇지요? 종족적 160가정이 그거예요. 이걸 전부 다 중심삼고, 세계를 탕감하기 위해서는 88서울올림픽대회를 중심삼고, 세계적 국가 속에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게 된 거예요. 그때 160과 161번째로 가입했는데, 160이 북한까지예요. 161부터는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 남은 것은 재출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 올림픽대회를 중심삼고 160국가 해방이 벌어져요. 냉전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이 위에서 제물시대인 구약시대·신약시대… 이 4단계를 중심삼고 4대 제물을 바쳤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쪼개서 바쳤던 것을 전부 통째로 바쳐야 돼요, 통째로. 그래 가지고 세계 역사를 전부 다 해원 해방하고, 사탄이 자기 소유물을 주장할 수 없는 우주 전체를 대신해서 이걸 바쳐야 돼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 16수를 중심삼고 보게 되면, 10단위 가지고 대신할 수 있어요? 160달러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1600달러를 소생으로 해서 소생의 3단계(16달러, 160달러, 1600달러)를 넘어서 장성부터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둘째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번이 제일 중요하да구요.

최하의 급이 1만6천 달러예요. 1만6천 달러, 16만 달러, 160만 달러까지 바치라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바치는 사람들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놀음이 벌어지면 문제가 벌어져요. 문선생은 세계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돈 한푼이라도 탕두질하는 헐박의 왕이라고 소문난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전부 다 등록 관리시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을 부를 거예요. 부모님이 명령한 대로 일시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피난민이 되어 자기 살던 땅을 떠나 가지고 새로운 천국, 가나안 천국으로 입성하기 위한 이동이 벌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상천국 천상천국의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성자하고 살인마들을 같은 자리에서 축복시켜 준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출발시켜 가지고 천상세계에 다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은 거예요. 거기에 가정적 대표 조상을 세워야 됩니다. 조상은 1대, 2대, 이런 대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1대면 2대가 누구예요? 선생님의 1대 2대보다도 사탄세계

를 먼저 해결해 놓고, 그들이 하나되어 가지고 선생님 가정의 혈대를 존경해야 돼요. 선생님은 기껏해야 1대 2대 3대지, 그 이상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외적 세계는 몇천만 대예요. 그걸 자리를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나라를 찾을 때는 모든 것을 하늘 편에 접붙여야

선생님이 모든 세계를 중심삼아 가지고 총생축헌납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통일되고 나라를 찾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찾으러 갈 때는 이런 식을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조건으로 세웠던 나라의 모든 것까지 접붙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접붙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건 그냥 그대로 전부 다 *뚝은감으로 남는 거예요. 단감으로 연결될 예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탄에게 분할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남기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건 뭐 전부 다 불태워야 됩니다. 전부 다 불에 태워 버릴 때가 올 거라고요. 그걸 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사라져 갈 거라고요.

그걸 일본이 반대하다가는 축복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어요. 혈통권에 그런 입적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그것이 일본 민족이라면, 그것은 패스포트를 갖고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국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어서 처분해도 참소할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비참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세계적인 예언자는 1988년과 1999년을 말했습니다. 그 고개를 넘는 순간 비참한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선생님이 그때를 선포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는 눈을 감고 눈물을 머금고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무서운 날을 선생님이...

사실은 선생님도 그 날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한국의 예언자들도 전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소유, 자신의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6천 미터의 반석 위에서 이걸 옆으로 제치면, 태평양에 전부 순식간에 빠져 버리는 거예요. 협박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은 무자비한 남자입니다. 북한에 가서 정권 인수식을 했습니다. 도청하는 걸 알면서 당당히 했어요. 그걸 보고 김일성이가 깜짝 놀라 가지고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었구나. 내가 배짱이 크기로는 세계에서 챔피언인 줄 알았는데, 문선생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 남북통일도 간단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걸 정했을 때, 나는 남북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김일성이 선거에서 제일이 되면 대통령이 되고 남한의 대통령은 부통령이 돼 가지고 하나로 통일 되면, 나는 그 고문으로서, 최고의 지휘관으로 그들을 컨트롤할 거예요. 나는 통일이 된다면 그런 명예라든가 권한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있어서 이상적이 되도록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그냥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당당히 제시했어요. 3대 주체사상을 중심삼지 않고는 이 일대에 끝나 버립니다. 영원 무궁한 하나님을 중심삼은 3대 주체사상은 절대부모·절대선생·절대주인입니다.

양심은 부모·스승·주인보다 앞선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양심 기준에 귀착해 가지고 심신 일체권을 이루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심은 이 타락세계의 부모보다 먼저요, 스승보다 먼저요, 주인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양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양심을 아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부자지관계, 그것은 숙명적인 책임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양심을 알 수 있어요? 타락한 세계의 부모와 선생님과 주인은 알 수 있지만, 인간으로서 영원히 알 수 없는 그 주인이 자신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연의 부모의 뿌리를, 선생님의 뿌리를, 주인의 뿌리를 자신에게 심어 준 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생님이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찾아 나온 모든 것의 최종결, 감추어진 집이 이것이었던가? 야, 내가 하나님께 책임을 추궁할 아무 것도 없구나. 추궁하려면 내 양심에 사명을 다할 것을 추궁할 수밖에 없다. 책임 추궁할 장소가 없으니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나선 것이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본연의 양심’이란 것은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혈통권을 남겨 놓고, 참을 수 없는 고난 속에 본연의 이런 본성, 자신의 이상의 모체인 양심권이 구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 밑창에 떨어져 구속되어 가지고 그 내용을 말하지 못하고 영원히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실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확실히 하고 돌아가라구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 문제를 해결하자

교구장 맡고 있는 사람들, 책임자들 손들어 봐요. 교회장들, 손들어 보라구요. 몇 명이예요? 유대행, 아이 엠 에프(IMF;국제통화기금) 경제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 2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걸 못 하면, 본부 건설을 위한 서울의 기지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걸 사기 위해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금해야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족한 것은 미국과 세계 각국에

전수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날아가 버린다구요.

그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젠 이번 세계대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하자구요, 말자구요?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 봐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아이 엠 에프(IMF;국제통화기금) 사태 때문에 우리 본부의 기지가 전부 다 날아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명년 4월까지 2억 달러 이상의 모금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은 하하는데, 한국은 어때요? 통역했어? 「예, 하고 있습니다.」 2억 달러예요, 2억 달러.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이번 세계대회에서 결정할까 말까 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그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봐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 보라구요.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일본 사람 중에 못 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 봐요. 해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결하겠다고 결심한 사람 한번 더 손 들어 봐요. (*부터 일본어로 말씀하심)

다시 손 들라구요. 한국이 본을 보여 줘야 돼요. 한국이 본을 보여야 되겠어요. 정 안 되겠으면 한남동 공관을 팔아요! 다 팔아요! 집이 없더라도 괜찮아요. 자기 집들도 다 팔라구요. 이놈의 자식들, 못 하게 되면 전부 다 몽둥이로 후려 대가리를 까 버릴 거라구요.

지옥 갈 녀석들에게 유산을 남겨 주면 뭘 해? 광정환이 어때? 「지당 하십니다.」 물어 보잖아! 하겠나, 안 하겠나 말이야. 「예, 하겠습니다. (광정환)」 어때요? 한국이 책임지라구요. 선교국 국가 메시아들이 책임져야 되겠어요.

너는 요전에 남미에서 내가 돈 빌려 줬지? 얼마 가져갔어? 「예, 백만 달러 가져갔습니다. (유종관)」 백만 불. 그리고 또 얼마 가져갔어? 「예, 백만 달러 가져갔습니다.」 쓴 거 다 반환해! 「예.」 그 배 이상까지 해야 되겠다구요. 알겠어요?

남미에서 온 사람, 손 들라구요. 거기도 다 빚졌지요? 「예.」 그거 다

물어요. 거기에 배씩만 가해요, 배씩만. 배씩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겠다는 사람, 손 들라구요. 배 이상 하겠다는 사람, 손 들라구요. 이 녀석, 넌 안 할 거야? 이놈의 자식, 문가 놈 자식이... 하라구! 모으라구, 4월 전까지. 알겠어요? 집을 팔든가 해서라도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구요.

대만에서 80만 달러인가, 60만 달러인가를 가져갔더구만. 「저희들이요? 안 가져갔습니다.» 내가 보고를 받고 있어. 「법적인 데 쓴 것입니다. (김병우)」 응? 「필리핀 법적 싸움에 쓴 것입니다.» 그걸 물어 줘야지. 「아닙니다, 아버님. 법적 싸움에도 대만에서 가져간 거 없습니다.» 어디에 썼나, 그럼? 하나도 안 가져갔나? 「80만 달러는 안 가져갔습니다.» 몇십만 달러인가? 60만 달러인가, 80만 달러를 얘기하던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대만 국가 메시아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 걸 하려면, 선생님에게 보고를 하고 찾아가야 돼요. 선생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2백만 달러를 대만 사업을 위해서 투자했어요. 그거 알아요? 2백만 달러를 전부 다 한국을 구해 주기 위해서 썼어요. 대만을 키워 가지고 한 때가 되면 사용하기 위해서, 십 배 이상 책임지라고 해 가지고 대준 거예요. 선생님은 밤낮 그 문제를 중심삼고 장래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오는데, 여러분은 파투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아르헨티나는 얼마야? 「아버님한테 돈 받은 거요? 집 살 때는 안 받았고요... (송영석)」 아, 글썄 받은 게 얼마야? 「15만 달러입니다.» 15만 달러일 게 뭐야? 집도 사고, 상파울루 집 지은 것이 5백만 달러 이상인데, 1천만 달러 이상 될 거라구. 상파울루는 선생님이 돈 대 가지고 전부 다 만들지 않았어? 「140만 달러입니다.» 뭣이? 140만 달러가 뭐야, 140만이? 아, 빵공장으로부터 전부 다 후원한 것이 내가 5백만 달러로 생각하고 있어. 「아닙니다. 3백만 달러입니다.» 그래, 그러

면 3배 해 가지고 1천만 달러를 가져와야지. 책임져야 돼. 이놈의 자식들, 전부 다….

이렇게 해서라도 전부 다 한국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당신들 발전에 지장이 많아요. 선생님 얼굴에 똥칠해 버리는 거라구요. 선생님을 세계가 믿고 있어요. 알겠어요? 선생님을 믿고 있다구요. 책임들을 못 해 가지고 전부 다 똥칠하면 안 되겠다구요.

독일이나 영국에도 내가 돈 많이 대줬지요? 이 비상사태에 한 국가에서 50만 달러씩은 해야지요? 1백만 달러라도 해야지. 두 배, 세 배 붙여 가지고… 50만 달러 하라니까 좋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있어. 「저희들은 2백만 달러를 하겠습니다. 두 배는 하겠습니다. (유종관)」

아무 지원 안 받았더라도 5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는 해야 돼요. 때가 그래요. 이걸 해서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해방해 놓으면 말이에요, 나라를 찾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것 똥개, 똥개에 꼬미 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그거 못 해 가지고는 선생님 앞에 영원히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알겠어요?

아버지의 나라를 찾기 위해 총생축헌납제를 드려야

(판서하시며) 헌납금, 제물을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내야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내요? 누구한테? 선생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선생님이 이걸 전부 다 드려야 된다고요. 그런 제사, 통일될 수 있는 그 날을 향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찾아 가지고 해방 선언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예.」 그래야 되겠어요, 안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야 되겠습

니다.」

그래서 4수를 맞춰 나오는 거예요. 유엔군도 4수예요. 16개국, 전부 다 4수예요. 냉전이 끝나고 평화의 세계의 문을 여는 것이 한국이에요. 한국동란으로 막혔다가 88올림픽으로 문이 열렸던 거예요. 한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림픽 때는 2세대 중심삼고... 사탄세계의 몸뚱이 2세인데, 우리 영적 2세인 선교사들이 하나되어 가지고 후원하고, 대사관도 전부 다... 리틀엔젤스의 공연으로부터 모든 트렁크로부터 양복을 선사하고, 그때 24억, 3백만 달러의 돈을 썼어요. 그때의 3백만 달러는 지금으로 하면 5백만 달러예요. 한국에 왔던 모든 사람 몇천 명에게 양복들을 해주고 별의별... 나라가 못 해준 걸 내가 다 해준 거라구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천운을 규합시키기 위한 거라구요.

보라구요. 내가 북한에 가서 부모님의 묘지에 성묘하러 갔다구요. 그렇지만 성묘하러 간 것이 아니예요. 자기들이 안내해서 따라갔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누나하고 누이동생이 어머님이 나 때문에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애절히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는 걸 들었어요. 창자가 녹아날 수 있는 이런 호소를 하더라구요.

거기서 내가 육체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제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주저앉아서 통곡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내가 성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통일을 중심삼고 하늘의 축수의 제사상을 찾기 위한 것인데, 그 자리를 못 만들어 놓고 내가 부모 앞에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구요. 그래서 '부모님 계시옵소서. 내가 남북을 통일해 가지고 이 민족이 머리 숙일 수 있는 하늘 해방과 천지 해방을 위해서, 책임자로서 그날을 위해서, 부모님의 성묘를 모실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 오나 낮이 오나 걸리지 않아요. 나와 같이 한을 품은 한민족이 1천만 세대가 있어요. 그 문을 내가 열겠다고 지금까지

남모르는 모든 놀음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가 아무리 저런다 하더라도 내가 반대하면 안 돼요. 내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정할 수 없는 인연을 맺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천국과 해방권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구요. 알겠어요? 「예.」 오늘 같은 날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만 해도 가슴이 터져요. 일생에 벗어날 수 없는 불효 자식이, 하늘 앞에 충성도 다 못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위로할 수 있는 효자가 못 된 것을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 나를 보는 천하가 전부 다... 그런 성묘하는 예를 갖추어 성묘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숙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자충신·성인·성자의 도리를 갖추겠다고 밤낮으로 비틀거리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모를 조롱하는 녀석은 벼락을 맞을 거라구요. 똑똑히 알라구요.

기독교가 잘못해서 김영삼이가 빗을 많이 졌어요. 성지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일곱 번인가 시정하고 했는데, 그 설계를 산더미같이 쌓아 가지고 불살라 버려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라구요.

황협회장! 「예.」 땅을 파서 생매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뜨고 흙으로 무덤을 만들더라도 이래도 죽겠다는 결의를 해도 미치지 못할 터인데, 살아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넘어가겠다고? 살겠다고? 죽어야지. 알겠나? 때려 몰아! 「예.」 가게 되면 한 마리도 예외 없이... 단 하나 이 헌납제를 중심삼고 내가 기도해 가지고 조건으로 돌릴 수 있으면, 빌려 쓸 수 있으면 빌려 쓰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알겠나? 「예.」

깨끗한 혈통의 이상가정 전통을 미국이 세계에 확대시켜야

박중현! 「예.」 미국에서 때려 몰라구, 이놈의 자식들! 「예!」

*헨드릭스! 「예.」 미국 식구들을 때려 몰라구! 헌납제를 중심삼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야 되겠다구요.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 전부 다 해야 된다고요. 한국 일본 미국, 부모의 나라와 장자 나라, 세 나라가 합해서 이걸 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계 185개국은 자동적으로 뒤에 따라오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납함으로써 모델이 되고 가르쳐야 돼요.

피조세계 전부가 아버님에 속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아버님을 중심 삼고 피조세계 전부를 하나 만들어 헌납할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버님의 전 생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던 역사상의 모든 전부가 온 피조세계가 해방될 그날을 맞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날을 기뻐하고 자랑하기 위한 거라고요.

종적인 참부모와 횡적인 참부모를 포함해서 모든 자녀들이 해방되고, 천주를 넘어 세계 어디라도 가지 못하는 데가 없이 무제한으로 갈 수 있는, 경계선이 없는 그런 멋진 세계의 주인이 되기 위한 거예요. 피조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권한과 가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내가 아들의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소유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별의별 수천 가지 장벽이 가로놓이더라도 문제없이 다 넘었다구요. 이제 마지막 목표를 놓고 넘어가야 됩니다. 문제없어요. 모두가 결심해야 되겠다구요. 알겠어요? 미국이 장자권, 장자의 권위를 가지고 전세계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돼요.

깨끗한 혈통을 가지고 가정의 전통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그 전통을 확대해야 됩니다. 미국이 더러운 혈통을 전세계에 퍼뜨려 놓았다구요. 이걸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아버님이 가르친 내용을 중심삼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영원히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영

원히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구요. 하나님이 미국을 차 버릴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확실히 이해하라고요. 여러분이 자신을 가지고 나가면 문제없습
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부터 영어로 말씀하심)

어렵더라도 정성을 다 해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라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44절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천국 문을...
아담 가정 사위기대, 그 아들딸 손자 사위기대 해서 천국 문을 열 수
있으면 다 열어 주겠으니,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합격증서를 부여하겠
다는 것이 자르딘 축복가정 교육이다 이거예요. 아멘 해봐요! 「아
멘!」 오관을 걸고, 심신일체를 중심삼은 영원한 생명을 걸고 맹세해야
되겠어요. 거지 새끼가 되더라도 끌고 오라구요. 알겠어요? 「예.」

길가에 쓰러지는 소식을 듣거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한국을
살려 주소, 하나님!' 하고 기도해요. 그런 기도의 조건이 필요해요. 일
본도 그래요. 살 것이 없어요. 똑똑히 알라구요. 알았어요? 「예.」 정환
이! 「예.」 4일 후에 이거 틀림없이 해야 되겠어! 「예.」 자, 그렇게 알
고...

여기서 (판서하시며) 1992년, 40년 동안 탕감해 가지고 여기에 와
가지고 여기에서 세계 축복,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세계 8억의 사람들
이 하늘나라의 백성을 중심삼고 일시에 축복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음과 고통의 역사를 거쳐 가지고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 부모
님을 모시고 40년 탕감해서, 세계적 가정 해원을 해 가지고 해방권을
중심삼고 축복 세계화시대를 이뤄 사탄 혈통 완전 단절을 하겠다는 결
의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살아 있는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을 해원하는 역사의 페이지를 남겨 주기를 참부모와 하나님이 부
탁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탁은 영원히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정신차려 가지고 가라구요. 알겠어요? 「예.」 이제 돌아가서 전부 다 한 지역에서 1억 달러씩 책임지라구요. 1억 달러씩 3억6천만이면 얼마예요? 「3억6천이요?」 360억이면 달러로는 얼마야? 「360억입니다.」 360억이 달러로는 얼마냐구? 「그러면 한 2천8백 달러 됩니다.」 그렇게 책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요. 「예.」

여기 40개국을 중심삼고, 소속한 관계의 지부를 중심삼고 전부 다 1억 달러씩 책임져야 되겠어요. 360기지에서 돈을 벌든, 지폐를 만들든, 땅을 팔든가, 노동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해서 전부 다 하나에 1억 엔씩 280억 엔을 해서 4월까지 책임을 하라구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날아가는 거예요. 「4월까지입니까?」

개인적인 책임도 그렇고, 나라에서 50만 달러 이상씩 전부 다 헌금 하라는 것을 지시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185개국에서 다 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정성을 다 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의 비장한 심정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있어요.

죽기 전에 책임을 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라

이놈의 자식들, 책임들을 못 해 가지고 이 꼴을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의 발을 잘라 버리고 손을 자르고 눈을 파 버리려고 그래? 알겠어요? 「예.」 선생님은 지금 눈만 감으면 통곡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영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사탄이 비웃는 눈앞에 서 가지고 눈물 짓기가 부끄럽다구요. 단단히 결심하고 돌아가야 되겠어요. 내가 한남동 집을 팔라고 그랬지요? 「예.」 세계를 살리려면 불가피해요. 나라를 세워야 돼요.

세계를 위해서 내가 통일산업을 만들고 다 그랬지, 나라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일본도 전부 다 효율이보고 그거 팔라고 지시했어요. 응? 「알겠습니다。」 싸게 팔면 안 되겠다구. 「마지막에 아버님 결재를 받고 팔겠습니다。」 그래. 이걸 어떻게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어요.

국가 메시아들은 50만 달러 이상, 70만 달러를 넘겨라 이거예요. 어렵겠지. 박노희! 「예。」 책임질 거야? 없으면 자기 집을 팔든가, 형님의 집을 팔든가, 박씨네 집으로 해서 전부 다 조상들의 집을 팔든가 해서라도 해야 돼. 내가 이 뜻을 위해서 그 이상의 노력을 했어. 알겠나? 「예。」 박씨들, 이 쌍놈의 박씨들!

박상권! 어디 갔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나오라구. 교회 짓는 거 어떻게 됐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작업에 돈 얼마 지불했나? 「원래 1천만 달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백만 달러 계획인데, 1천만 달러가 얼마 안 남았다는데?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여기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5백하고…」 「아버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구요, 교회는 지금 3백 정도 들어갑니다。」 교회를 잘 지어야 되겠어. 원래는 9월엔가 끝나게 되어 있잖아? 퍼뜩퍼뜩 지어야 돼. 박자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구.

자, 내일까지 하려면 내가 아주 고달프겠어요. 지치겠다구요. 알겠어요? 이제 말하게 되면 때려부쉬야 할 말밖에 없어요. 입을 열기 전에 그만두는 게 낫겠어요.

옛날에 미국 교회가 나한테 5백만 달러, 전부 다 50개 주가 빚 얻어 간 적이 있잖아, 곽정환이? 「잘 모르겠습니다。」 50개 주가 빚을 얻어 갔다구. 박중현이, 그렇지? 「예, 확인하겠습니다。」 아, 자기가 알 것 아니야? 확인 그만둬. 5백만 달러를 내가 지불한 것이 틀림없다구. 빌려 준다고 했다구. 다 침부해서 반환해. 조국광복을 위해서 불가피한 거야.

죽고 사는 일이 나라를 살리는 데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았

어요. 죽기 전에 못 하겠다는 말은 하지 말라구요. 알겠어요? 「예.」 그럼, 믿고 폐해도 괜찮아요? 「예.」 불평 있으면 말하라구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떤 거예요?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사람, 손 들라구요. 고마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빌겠습니다.

자, 기도하라구. 광정환이 기도하고 폐하자구. (광정환 회장 기도)
(경배)

윤태근이, 언제 가겠어?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나? 「예, 내일 주일인데 아버님이 시간을 정해 주시면 그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광정환)」 몇 시야, 지금? 「저희들끼리 혼독회를 벨베디아에서 하고 아버님이 시간 정해 놓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한 여덟 시쯤 할까요? (광정환)」 아니야. 빨리 하지 뭐. 「예, 일곱 시 반쯤에...」 여섯 시에 여기 와서 하고, 아침이라도 같이 하자구. 혼독회 여기서 하게? 「아닙니다. 혼독회는 저쪽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러고 나면 아무래도 한 여덟 시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해도 괜찮을 텐데... 너무 늦겠나? 「너무 늦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돌아가라구. 「아버님, 저번에 판타날 구역 결정하신 것은 언제...」 배정은 이제... 광정환! 「예.」 판타날 배정한 것, 185개 곳 배정한 그림 다 가져 왔지? 저녁 식사를 하고 그것 다 배치해 주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후속 회의를 하면서 추첨하겠습니다.」 (만세 삼창. 박수)

나는 좀 쉬어야 되겠어. 계속해서 판타날 배치해야 되겠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배를 타고 전부 다 한번 전부를 답사하려고 그래. 야-, 그것도 야단이다! 자, 그럼 회의하라구. (박수. 아버님이 퇴장하신 뒤 판타날 지역 배정 등 문제에 대해 회의함) *

文鮮明先生말씀選集 <第307卷>

印刷 2003年 12月 20日
發行 2003年 12月 30日
編者 文鮮明先生말씀編纂委員會
發行者 黃 善 祚
發行所 (株) 成 和 出 版 社
住所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172 - 1
電話番號 715-3894 ~ 6, 701-0110(청파서점)
FAX番號 701-1991
登錄番號 제3-98호
登錄日 1961年 5月 20日
